

자유!
“살 수는 없지만
입을 수는 있다.”

기분이 어떠냐고?
직접해봐,
아니면, 입어보든가-
몸으로 느끼는 자유-스콜피오

고 김-정-해-선-내-의

SCORPIO

feminist journal

if

페미니스트 저널 이프

if 단독 호스트바 잠입 취재

여성표지 2 김중 인터뷰 - 여자는 남자잡디 줄 받았던 걸까요?
잠입 르포 - 네덜란드에서 '왕게임'까지

Female Gaze

할리우드의 노랑내비, 한국에서 분장되다 /
정화대에 여성을 / if의 자비 배부기

우지나와 영화감독: <말년 매우라>와 <저러 플렌트>

남자에게 보내는 편지

정연우에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까요?

이웃 이야기: 생소담에서 권세리까지

서민들의 일상: '여성'의 도박장은 영혼의 여신이다
만화: 색녀일선(色女列傳) 도태비선량
공연: 거리의 진실

특집 여자의 사랑 VS. 남자의 사랑

이제부터가본적: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지, 자라리 ...
남자의 사랑: 사랑중독증에서 포르노까지- 적인호 vs. 장정일
정신병 윤리물과 관련 페미니스트들간의 공방

1988~

여성신문



구독신청

<매주 금요일 발행>

전화: (02)581-3491, 581-0073~8 팩스: (02)581-3493 서울세 석조구 석조동 1357-33 남성빌딩
전라면(GO WN) 하이텔·나우누리(GO WOMENNEW) 유니텔(Go Wnews) <http://www.kidb.co.kr/women>



MICHIKO LONDON
KOSHINO



if단독 호스트바 취재

호스트바 여성고려 2인 심층 인터뷰 - 여자는 남자집대 좀 받으면 안돼요?
호스트바 잠입로보 - 다들아담에서 열계임 까지

36

특집 여자의 사랑 VS. 남자의 사랑

시론 -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차라리... / 고갑희

52

남자의 사랑 : 사랑중독증에서 포르노까지 - 최인호 vs. 장정일 / 유숙철

54

동화 속의 사랑각본 점검 / 김홍숙

59

여자의 사랑 : 여성작가 소설 속의 성과 사랑 / 태혜숙

69

틈새에서 읽어낸 반란의 물결, 남성감독의 영화, 우리식으로 읽기 / 주유신

75

사려 / 그녀가 사랑할 때

81

내가 진짜로 바라는 성과 사랑

91

106

FEMALE GAZE

6

할리우드의 노랑나비, 한국에서 봉황새다 / 범원을 떠도는 여자들의 날 /

황과대에 여성을 /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역사 안들기" /

설치미술가 안필연의 작품세계 / #의 지배 바꾸기

유지나의 영화선책

포르노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 〈빨간 미후라〉와 〈레디 폴린트〉 / 유지나

119

통신상 음란물에 관한 페미니스트들간의 공방

포르노나, 표현의 자유나, 그것이 문제였다 / 장여경

125

여성학도 "다이어트"하자

장영희 신드롬을 보고 / 김호선

131

남자에게

장선우 이자씨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 나쁜 여자아이들로부터 / 이영인

138

News Woman

16

서울신문사 정리해고에 맞선 신동식 / 조순 오문광에서 방송인으로 복귀한 장미홍 /

할머니의 웃음 담긴 〈낮은 목소리2〉 연출한 변영주 / 국내 최초 여PD모임 결성 /

한국의 로드리게스 이서균 / 〈미워〉전 연 벨기에 입양아 조미희 /

보스니아 여성 현실을 고발한다. 벨라 / 동성애 잡지 〈나야자〉 낸 홍난영, 오승원 /

망명동 모여서 그리는 화성광주, 오혜주 · 임정희

나의 성경험

동성애인권운동가 서동진

142

이여자 리어

리아와 계집애들의 컬트적 곳판 / 강영희

147

집중탐색

설치미술가 안필연의 작품세계 / 전수진

158

만화

젊은 작가여성들의 성과 사랑 - 미스노 / 한국희

165

REVIEW - 여성의 눈으로 문학 읽기

영화 〈산부인과〉와 〈베아비세일〉 / 이남

172

연극 〈아버지〉와 〈남자중독〉 / 김명화

176

음악 30대 여가수의 또다른 변신 / 김지영

180

미술 여성성에 대한 두가지 다른 생각 / 임정희

183

북리뷰 히스테리아가 붉은 가을의 책

186

if웃어가기

여성의 속옷 - 정조대에서 한체리복까지 / 오혜리

195

서주팔자 뒤집어보기

여성의 도화살은 행운의 여신이다 / 이숙인

202

어머니들이 만든 세상

고통의 대물림, 엄마의 잔소리

207

엄마가 있는 풍경

난 엄마처럼 살래요! / 김영선

218

어머니의 시

엇박이 신랄, 시집가는 날, 약혼, 이유... / 이할순

221

만화 - 색녀열전

도깨비신랑 / 수박두리

226

동굴

채.현악의 전설 / 이경미

230

IF JOURNEY

세계의 여성들 : 남성에게 폭력세움! / 동등한 여성들의 자기선언 등

236

발굴 - 근대 결혼법의 형성과정 / 백영경

244

심리여행 - 나는 어떤 유형의 친구인가

249

가이어의 편지

페미니즘의 미래와 여성주의 통설리기

256

읽어는 엄마가 쓰는 정적동화

예쁜게 다 뭐냐? 원수다 원수! - 엄마 되기 대소동 / 이선희

260



만든 사람들

발행

도서출판 이프

발행인

윤석남

편집장

박미라

아트디렉터

제미란

포토디렉터

조여권

기자

김영선 이진화

편집위원

김신명숙 김재희 김혜경 박혜숙
손자희 오숙희 유숙필 유지나 이혜경

광고기획편집위원

김숙진

사진편집자문

박영숙

디자인

언이문화사

인쇄소

고려서적

배본처

도서출판 푸른숲
(02) 364-7871~4

등록번호: 바-02699

주소: 서울 성북구 성북1동 1가 65번지 2층 도서출판 이프

전화: 743-6715~6

팩스: 765-9059

Htel ID: parachut

관리안 ID: feminif

제호: 잡지의 장르를 설명하는 '페미니스트저널'과 고유이름 'if'를 합해서 만들었다. if는 페미니스트들이 '만약에...'라고 가정해본 세상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페미니즘이 완결한 어떤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발전하는, 그리고 틀에 얽매이지 않는 페미니즘(infinite feminism)이라는 의미에서 아니설로 읽을 수도 있다. 그 외에도 'm Feminist' 또는 'm Female'로도 해석할 수 있다.

표지: 장진호의 <하늘 어머니>(박영숙 작)에 있어서 보는 계속 여성의 복제를 가지고 작업을 해기로 했다. 보통은 사람을 하는 여성의 자세를 누워있는 모습으로 상상해본다. 그러나 작가 박영숙은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싶어한다. 그래서 2호 표지의 여성은 남성과 나란히 손을 잡고 서있다. 누가 누구에게 지지않았지 않은 모습에 어울린다. 사실은 우리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역사하지 않고(?) 더 동성친 모델을 원했으나 그런 뜻을 같이하는 모델을 찾지 못했지 않았다.

웃자!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려왔다. 그러나 이젠 웃고 싶다. 웃음은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든다. 폭발하는 참목처럼, 치솟아오르는 분수처럼 그렇게 웃고 싶다. 자, 웃자!

if

우리는 여자로 태어나 이 세상을 살아 오면서 우리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자라온 하나의 욕망을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우리 모두 똑같은 욕망을 지니고 있으며 그 욕망이 파괴적이라는 것을. 뒤집고 싶다. 이 세상을 한번 신나게 뒤집어 버리고 싶다. 궁금하지 않은가? 어떻게 될까?

놀자!

우리는 그동안 눈물과 고통에만 익숙해왔다. 여자로 이 세상을 살다는 것은 고통과 인내, 희생의 지겨운 학습과정에 다를바 없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증독시켜 마침내 노예의 평안을 선사했다. 이젠 싫다. 즐겁고 싶다. 재미있고 싶다. 놀고 싶다. 그리하여 여자들을 즐겁게 만들고 싶다.

if가 잠입취재한 바에 따르면 호스트들은 호스티스에 비해 훨씬 양질(?)의 고객을 만난다. 여성 고객은 호스트들이 목숨이나 육체의 위협을 느낄 만큼 폭력적이지 않으며, 상대방이 접대부든 아니든 간에 학대하고 모욕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

우리는 다시
성과 사랑을 이야기한다

다. 거기다 호스트들은 여성접대부와는 달리 이중 삼중의 착취구조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수익

도 꽤 짭짤했다. 물론 여기서 호스티스와 호스트의 '동일임금', '노동조건'의 동일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호스트바가 인간(물론 남자)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 세계라도 되는 듯 남자들은 호들갑을 떨었지만 사실 호스트들은 동일 직업군의 여성들과 비교해보면 훨씬 살만하다. 이것이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성차별의 현주소다. 호스트바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은 낙담으로 변했다.

사람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한다. "이젠 여자들도 많이 살만해졌잖아. 남자들을 무조건 적대시하는 건 지겨워." 물론 우리는 모든 남성들을 모두 똑같이 미워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권력을 가진 남자가 그 힘을 이용해 오만하게 여자들을 지배하려고 할 때 그를 증오한다. 평범한 남자들이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등에 업고 자기 주변

의 힘 없는 여자를 위에 군림하려고 할 때 그를 미워한다. 여성접대부를 사람 이하로 취급하며 모욕하고 학대할 때 미워한다.

우리는 다시 성과 사랑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혹 문화적 유희가 아니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자들은 지금 문화적인 유희를 할 만큼 편안하지는 않다. 또 뜻도 알 수 없이 난해한 성과 문화에 대한 담론들이 과잉으로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 고급한 지식, 좋은 말씀을 여지껏 대다수 여성들과 나누어본 적도 없지 않은가. 우리는 그런 이론의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는 대다수 여성들과 대화하고 싶다.

그래서 좀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성과 사랑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야할 의무를 느낀다. 아주 구체적인 일상으로 내려앉아 일상 속에 파묻혀 사는 여성들의 손에 잡히고 싶다. 우리가 아직 그들에게 어떻게 느껴진다면 그건 우리의 무능이다. 그러나 성과 사랑과 문화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유희'라는 판정을 받는다면 거기엔 불복할 것이다. 얼마나 수많은 여성들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여자는 안되고 남자는 되는' 성의 이중규범 때문에 자학하며 사는지, 방송과 광고와 노래에 취해 하루에도 몇 번씩 환상과 현실 사이에서 곤두박질치는지 안다면 말이다.

if는 어떤 일정한 이념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다만 독자들이 이런저런 주장들 속에서 지금의 상황을 곱씹어볼 수 있기를, 그리고 스스로 선택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바랄 뿐이다.

박미라 편집장



박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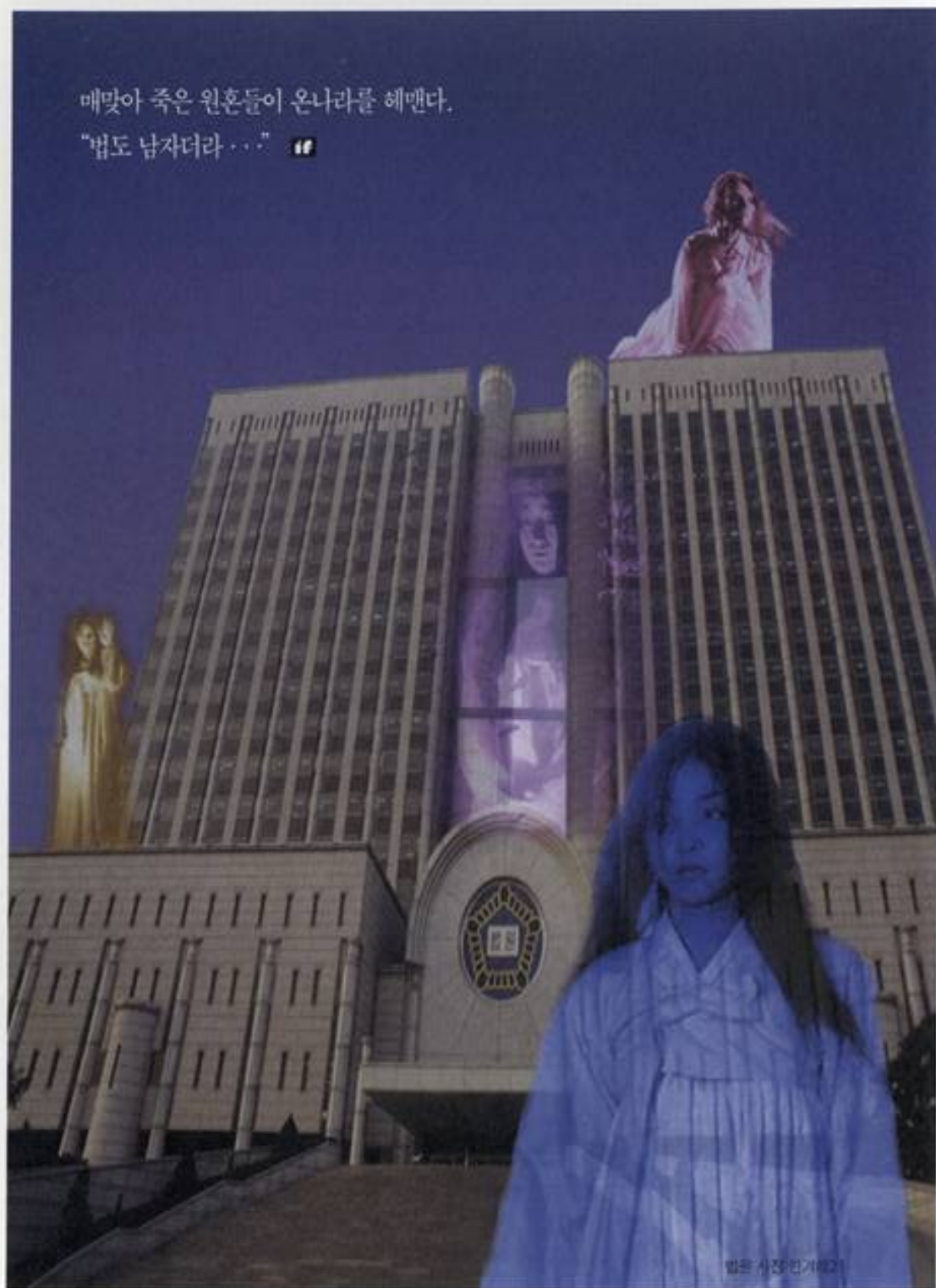
헐리우드의 노랑나비, 한국에서 봉황(?)되다 11

경학문 네거리 사진(사진 조여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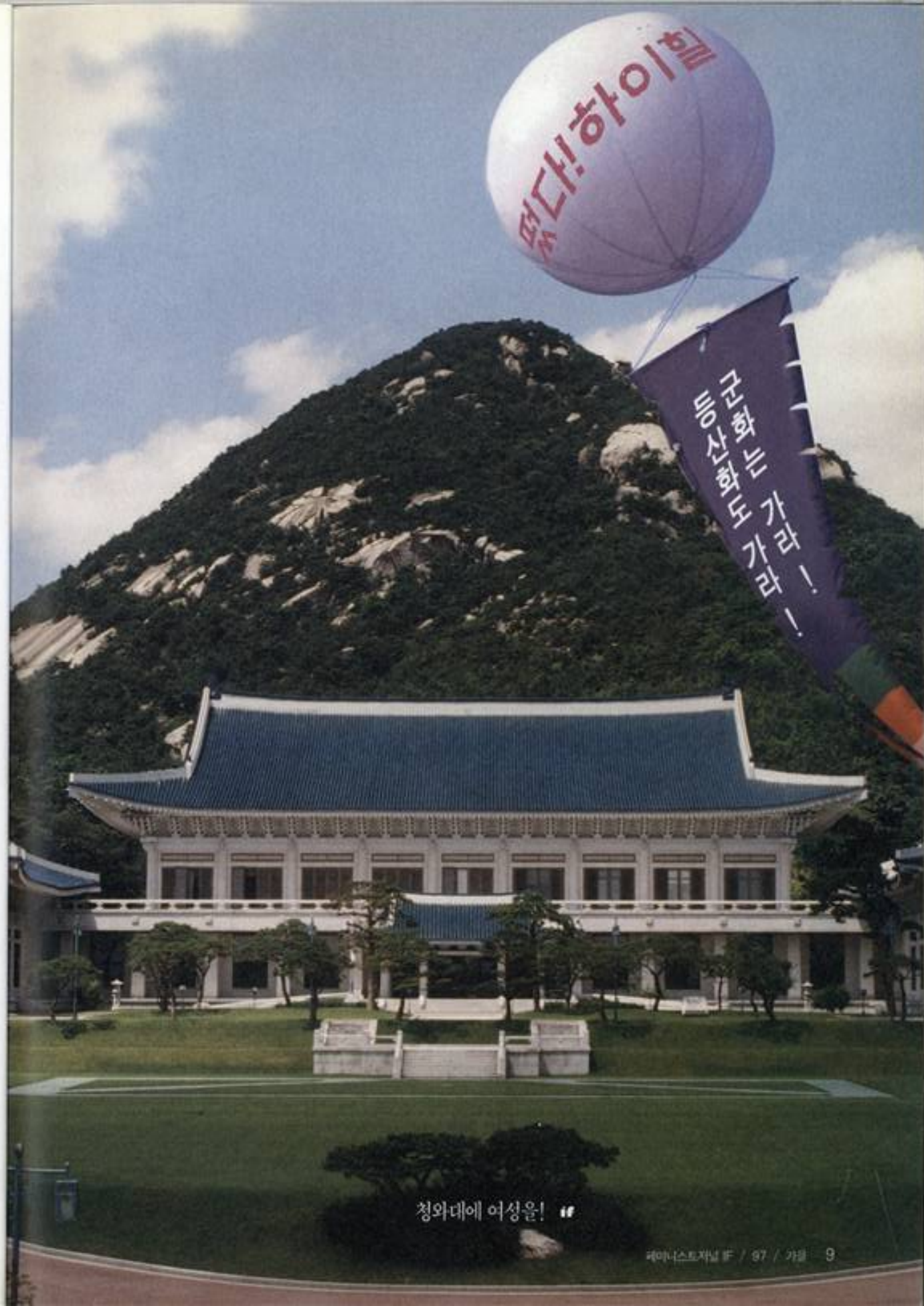
국내 어느 여성지에서 오린 이승희의 사진을 합성했다.



매맞아 죽은 원혼들이 온나라를 헤맨다.
"법도 남자더라..."



법원 사정 선거대



청와대에 여성을!



◀(옛보기)

그는 작품이 '작품답게' 정갈하게 걸려있는 것을 거부한다. 때로는 러그처럼 바닥에 깔리기도 하고, 때로는 방석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벽에 걸려 감상한다 해도 무방한 작품을 만들고 싶어한다. 그래서 이 작품은 기왕의 '예술 작품' 등에 대해 조롱한다. 뒷면에 달린 지을을 통해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자신이 작품 속에 들어가지도 하고 나오기도 한다. 관객은 작품이 되기도, 관객이 되기도 한다. 그는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모든 고정관념(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을 포함해)을 비롯어본다.



▲(두렵아 두렵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지난 해 5월 사단법인 (여성문화예술기획) 발간인 대회에서 공연한 퍼포먼스의 한 장면이다. 그는 이 공연에서 마녀가 되어 새로운 집이 날로 번창하기를 기원했다. 재앙과 불운을 풍선에 담아 날려보내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결벽(그가 특수제작했다)를 구경꾼들의 손목에 감아주었다.

◀(삼켜진 달)

국제 페스티벌에서 공연한 퍼포먼스. 박을 발로 밟고 흙에 꼬리표를 달아 거수지에 던져 날음으로써 불운을 떠나보낸다. 구경꾼들에게는 밀가루를 뿌려 정화되도록 지른다. 새벽시가 시집 가기 전 박을 깨서 박을을 훑아보내던 우리의 전통을 재현한 것이다. 그의 퍼포먼스는 거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안필연은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무당'이라 하는가 보다"고 말한다.





돈은 언제나 남자였다.
 돈이 여자로 바뀌면 이 나라 경제구조에 폭력적인 남성성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만원 지폐의 세종대왕은 유관순열사로, 오천원짜리의 이윤곡은 할머니 얼굴로,
 천원짜리의 이퇴계는 어린 소녀로, 도산서원은 베풀는 여인으로 바뀌보았다. **이**

이 조아연



“실세냐 아니냐” 구설수 털고 ‘고향’으로 간다

MTV〈고향은 지금〉진행말은 조순시장 전 의전비서관 정미홍

조순 서울시장의 ‘오른팔’이자 서울시의 ‘실세’로 불렸던 정미홍이 다시 방송에 복귀했다. 외국인 회사의 평범한 직장인에서 KBS 앵커로, 지난 94년 조순시장의 대변인을 맡아 정치인으로 옷을 갈아입었다가, 조시장 취임과 함께 서울시에 입성해 행정가로 화려한 변신을 거듭했던 정미홍. 그가 앵커직을 떠난 지 3년만인 지난 7월말부터 서울시청이 아닌 여의도 문화방송으로 출근하고 있다.

MBC TV 〈고향은 지금〉을 맡고 있는 정미홍은 한껏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년간의 ‘외도’ 기간 동안의 일을 통해 쌓았던 경험들 탓일까.

그러나 서울시 시청공무원으로서 조시장의 의전비서관(별정 4급)으로 일하면서나 최근 사표를 내고 사표수리가 될 때까지 정미홍의 ‘마음고생’은 컸다. 서울시 시장비서실장 경질 등 시청내 인사파문의 장본인으로 정씨가 지목돼 ‘실세다, 아니냐’로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렸고 사표수리후에 기자실을 방문해 언론보도에 대한 서운함을 표시한 것까지 구설에 올랐었기 때문이다.

그의 해명을 ‘꼭게 보지 않는’ 시선은 많았다. 언론도 그랬고 시청공무원들은 한술 더 떠서 ‘사표를 낸 뒤 기자실에 찾아가 마이크를 잡고 스스로 해명한 일은 개청 이래 처음’이라며 ‘과연 정과장은 실세였다’는 수근담으로 정씨의 마음을 꽤나 불편했다. 사실의 진위가 무엇이든 누가 더 잘못했든 간에 여성들은 ‘총

애’를 받기도 힘든데다 조금만 휘어도 남성들로 거미줄이 쳐진 보도방, 남성들의 입방아를 견뎌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정씨는 이 모든 일을 훌훌 털어버린 상태다. 말 많았던 자신의 인사파문 관련 해명방식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남성들의 방식대로 하지 않았다고 문제가 되거나 남자들이 지켜온 선례를 했다는 것이 잘못이라면 그것은 그들의 ‘집단적 횡포’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제가 맡은 일에만 관심을 쏟을 뿐입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더 다들어서 알맹이있는 내용을 전해야 하고 시청자들도 다른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정씨는 자신의 성격이,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해서 하는 치밀함보다 그때그때 흥미에 따라 끌리는 직감으로 일을 선택하는 타입이라고 한다. 그의 3년간 변신도 그랬고 시청을 나오기로 결정한 뒤 ‘친정집 그리듯’ 방송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던 중 마침 교섭이 와서 승낙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앞으로 ‘주간토크쇼’ 형식의 자신의 프로를 갖게 되는 정미홍은 지금은 방송에만 전념할 생각이다. 그러나 조순시장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시점에서 정씨가 방송에 계속 남아있을지, 조시장 선거캠프에 다시 합류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태. [11]

(글 박해숙 / 사진 함거례)





“이번엔 할머니들의 웃음을 담았습니다”

〈낮은 목소리2〉 개봉한 변영주감독

요즘 변영주감독은 지쳐보인다. 지난 몇년간 촉망받는 여성감독으로, 여성단체 행사라면 빠짐없이 참가해 정력적인 활동을 보이던 모습을 떠올린다면 다소 의외다. 더구나 지금은 영화 〈낮은 목소리2-Habitual Sadness〉(8월 23일 개봉/대학로 동숭시네마텍 2관)의 제작을 마친 상태가 아닌가.

〈낮은 목소리2〉는 2년 전 똑같은 장소에서 상영되었던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2-낮은 목소리〉와는 확연히 달라졌다. 수치심과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웅웅거렸던 할머니들의 낮은 목소리는 이제 관객을 울리고 웃긴다. 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해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둡고, 칙칙한’ 이미지를 일소에 날려버릴 정도다. 게다가 전편에 비해 월등히 향상한 사운드와 영상은 이 영화가 가지는 의미만이 아니라 영화적 재미까지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또하나의 빼놓을 수 없는 재미는 촬영대상과 촬영주체의 거리를 좁히는 다큐멘터리의 역동성에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변영주 감독을 힘들게 했다.

영화의 큰 즐거움을 만들어가던 강덕경 할머니의 임종장면이 편집에서 빠지고 대신 들어간 감독의 나레이션들을 들으면 그것을 짐작할 수 있다. 감독은 당시에 〈낮은 목소리〉를 가지고 로테르담 영화제에 참석하는 바람에 할머니의 임종에 참석할 수 없었고, 귀국해서 다른 스태프들이 촬영한 임종장면을 보았지만 끝내 쓸 수 없었다고 한다.

“돌아와서 보니 뭐랄까... 할머니와 카메라의 거리가 다른 거예요. 카메라는 할머니와 똑 떨어져서 멀리서 비추고 있는 거야. 할머니를 대상화시킨 거죠.”

사실 그는 오랜 기간의 촬영 끝에 변화된 자신이 당혹스럽다.

“그동안 할머니들에게 푹 빠져있던 게 사실이에요. 솔직히 나는 요즘 바보가 된 것 같아요. 그동안 나를 급진적 여성주의자라고 생각했는데, ‘에 낄고 결혼하고 싶다’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런 것도 괜찮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촬영대상과의 거리가 너무나 밀착돼 오히려 감독 자신이 혼란에 빠지다니, 이것은 작가주의를 내세우며 영화배우와 관객들에게 강압적으로 메시지를 강요하는 거개의 감독에게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경우다. 대가연하며 무책임하게 영화를 던져놓는 이즈음의 풍토를 보면 말이다. 그렇다면 변영주 감독은 이제 어떤 식으로 영화작업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이번 작업을 통해 서론한살 변영주의 끝을 보았다고 말한다. “이제는 다른 식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작업이 촬영대상과의 관계 맺기였고, 지켜보기였다면,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영화적 문법으로 담아내는가를 고민하는 과정이 될 거예요.”

일반인들이 변영주라는 개인을 잊을 즈음에서 다음 작품을 시작하고 싶다는 그의 계획대로, 이제는 전혀 럼 자주 그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신대 여성이라는 ‘집단’이 아니라 살아 있는 개개인의 삶을 겨냥할 수 있었던 그의 건강한 시각을 믿는다면, 다음 작품을 위한 시간까지도 함께 기다려 줄 수 있을 것이다. 영화문의: 597-5364 기록영화제작소 보임. **11**

(글 김영선 / 사진 조여권)

조직이 있고, 정관이 있고, 회장이 있고 그리고 혈연따라, 학연따라 지연따라 '이권'이 있는 모임 결성은 남자들의 특기 중의 특기다. 순수한 뜻을 지닌 봉사단체를 제외하면 한국의 남자들은 이권이 없으면 모이질 않는다.

그러나 정관이 없고 회장이 없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클럽이 됐다. '여PD클럽'이다. KBS, MBC, SBS, EBS, BBS, TBS, CBS 그리고 극동방송, 평화방송 등 9개 공중파 여성 프로듀서 184명이 동의를 하고 1차로 40명이 지난 7월4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할리데이비슨 카페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이 땅에 여성프로듀서가 등장한 지, 방송이 시작된 지 실로 수십년만의 일이다.

이 야심 없는 여성 방송쟁이들의 심부름꾼으로 '총대를 댈' 첫 타자가 KBS 위성방송국에서 일하는 권순우 프로듀서(40). 권 프로듀서 얘기대로 이들이 모여서 한 일은 밥 먹고 얘기하고 내년 7월4일 다시 만나자는 것 그것뿐이었다. 공식적인 조직을 갖지 않는다는 게 지금 뜬 '여피디클럽'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다. 회장도 안뽑고, 회비도 없다. 모여서 자기 밥값 내고 정보를 교환하는 소규모 새끼 클럽을 뛰어내자는 게 이 클럽이 하고자 하는 일이다.

"누군가 야심이 있어야 하는데 우린 그러질 못했다. 다른 방송사에 어떤 여성 프로듀서가 있는지 알고 싶다는 밑에서의 욕구가 생길 때까지 기다린 거다. 남성들 같은 조직은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은 분명하다. 차근차근 얼굴 보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중대한 불이익이 생길 때 뚫치기 위한, 최소한의 결집을 위한 토대

라고 생각해달라"는 게 어렵게 총대를 댔 권 간사의 말이다. 회장체제의 '폐해'를 줄이고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최소성이 아닌 전문인으로서의 위상찾기가 '여PD클럽'의 목적이다.

권간사는 "여성 프로듀서들은 어느 직종의 여성이나 마찬가지로 결혼후 어려움을 안고 시작하게 되지만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플러스가 된다. 또 방송의 주 시청자도 여성이라는 게 강점"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있다. 아직도 방송풍토에서 당연시된 흐름 하나가 여성들이 주로 맡는 주부·어린이 프로는 시시하게 본다는 것. 여자 프로듀서들 역시 이 분야를 맡게 되면 '웬지 시시한 것처럼 생각' 되는 것이란다.

"여자라고 주부·어린이 프로만 할 이유가 없듯이 이런 '편견'에 묶여서는 안된다"는 권 간사는 남자들의 생각에 세뇌돼서 시시하게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KBS에서 최고의 인기프로인 <아침마당>을 비롯 <과학탐험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TV는 사랑을 싣고> 등을 연출했던 권간사는 최근 서강대학원에서 85년, 89년, 93년 각 6개월간의 <아침마당>의 주제별 시청율을 주제로 기말리포트로 쓰기도 했다.

후배 프로듀서들을 선배로서 이끌어 줄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동등한 위치'에서 일을 해나가겠다는 '여피디클럽'의 어려운 한걸음이 그들이 이끌고자 하는 '그곳으로' 무사히 안착하기를... [E]

(글 박해숙 / 사진 조여진)



사진 뒷줄 앞에서 세 번째 사람이 권PD. 이날 그는 단독으로 사진 찍히기를 끝내 사양했다.

회장도 없고 정관도 없고,
'밥먹고 얘기하고' 모임에 담긴 뜻은...

'여PD클럽' 결성한 권순우 프로듀서

이서균. 우리에게 아직은 낯선 이름이다. 그의 나이 스물셋. <301.302>와 몇편의 시나리오로 주목을 끌었고, 35mm 단편영화 <자살파티>로 금관 단편영화제 대상을 수상했다. 현재 뉴욕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이서균은 지난 7월18일 영화감독으로 데뷔. 직접 시나리오를 쓴 <러브 러브 RUB LOVE>의 첫촬영을 마쳤다. 자기가 쓴 작품으로 감독을 맡은 그의 데뷔는 여성감독이 발돋움하기에는 아직 너무나 척박한 중무로에서 우선 평장히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그가 '여자라서' 주목을 끈다고 생각한다면 큰 실례다. 어느 분야든 여성 신인은 끊임없이 등장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또 나이가 어리다는 것, 유학중인 학생신분이란 것, 직접 시나리오를 썼다는 점 등도 아주 부수적일 뿐이다.

박철수감독이 기획을 맡아 이서균을 장편 극영화 감독으로 데뷔시킨 뜻은 <자살파티>를 만든 솜씨와 뉴욕을 오가며 나눈 질 좋은 대화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검증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서균의 이번 작업을 통해 '한국의 로드리게스'를 기대한다는 얘기도. 또 박감독은 한국영화는 물론 세계영화의 흐름에 조그만 혁명을 몰고올 '무서운 신예'라고 아낌없는 찬사를 던지고 있다.

이서균의 감독 데뷔변은 이렇다. "어리다거나 여자라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다. 다만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내 색깔로 소신껏 표현하고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그는 또 영화를 하겠다는 말의 바람을 적극 지원했던 가족에게도 감사함을 표했다.

<러브러브>의 배경은 30년 후 2028년 서울. 시간과 선악의 구분이 없는 시대로, 독특한 사랑의 환상여행이 그려질 예정이다. 지난 18일 동숭동 열음사 6층에서 남자 주인공인 만화가 조한(안재욱 분)이 출판사를 찾아가는 장면을 시작으로 촬영에 돌입한 <러브러브>.

촬영장에서의 이서균은 카키색 멜빵바지를 입고 카메라를 연신 들여다보며 가끔씩 던지는 "액션!", "컷!", "오케이!" 단 세마디엔 자신감과 젊은이다운 열정이 넘쳐보인다. 남자주인공 조한으로 분한 안재욱, 출판사 사장으로 분한 명노진에게 다가가 조용한 목소리로 연기주문을 하고 가끔씩 담배를 피우며 스태프들과 호흡을 맞추기도 한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보편적 컨셉이었다면 굳이 이서균에게 데뷔를 제안하지 않았으리라는 박감독은 '러브러브'는 이서균만이 만들 수 있는 그를 위한 영화라고 했다. 그의 안목대로 우리는 신인다운 모험심, 젊고 신선한 발상과 거친 카메라워크, 그만의 냄새와 색깔이 났 개성 강한 영화만은 기대해도 좋으리라. 이제 한국의 영화팬들은 여성감독 이서균의 영화가 개봉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작은 기쁨을 안게 됐다. [E]

(글 박혜숙 / 사진 한겨레21)

한국의 '로드리게스'를 예고한다!

영화 <러브 러브>로 데뷔한 감독 이서균



“예쁘기만한 것은 싫어요”

〈美위〉전 연 벨기에 입양아 조미희

“예쁘기만한 것은 싫어요. 이틀이면 클립 트의 그림에 나오는 여자처럼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것 말이죠. 난 쉐레나 로트렉처럼 아름답지 않게 묘사한 그림이 좋아요. 로트렉의 그림에서 일본화풍을 엿보았고, 그것이 동양(나의 존재근거)을 그리게 했고, 단순히 곱게만 묘사하지 않은 그들의 그림에서 무언가 강렬한 힘을 느껴요.” 조미희(30세)는 외모만큼이나 단호한 어투로 ‘예쁨’과 ‘미움’에 대해 말했다.

벨기에 입양아 출신 예술인 조미희. 한국에서 갖는 첫번째 개인전 〈美위〉전(7.10~7.20/문화일보 갤러리)에는 벨기에와 한국에 대한 감상, 생명의 원천인 자궁내의 ‘태아’ 연작, ‘못생긴 나’ 연작 등 작품 30여점이 걸렸다. 제목이 된 ‘미위’는 자신을 버린 조국에 대한 미움, 성년으로 자랄 때까지 유럽인 사이에서 느꼈을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 미운 오리새끼인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름 속의 ‘미美’ 등 자신의 존재를 둘러싼 거리감을 의미한다.

그가 작업해낸 작품들은 무엇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소리치는 것 같아 평범한 한국인 관객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자기 정체성이나 탄생에 대해 무심했던 스스로가 뻔뻔스럽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녀가 얼마나 힘들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왔는지 안다면 말이다.

그는 전시장에서 설 새 없이 손님들을 맞고 있었다. 벌써 5년 동안 계속해온 해외입양아들과 친부모를 찾아주는 모임인 코아(KOA: Korean Overseas

Adoptees)일로 한국에 온 입양아들이 그녀를 찾아오는 것이다. 미국에서 낳아온 한 입양아와 상담을 하던 조미희는 흥분된 어조로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댄 정말 화가 나요. 본인도 자신의 입양기록을 열람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또 난 한국에서 태어났는데도 다른 외국인들과 똑같이 비자를 계속 재발급하러 (외국에)나가야 해요. 모국에서도 나는 이방인 인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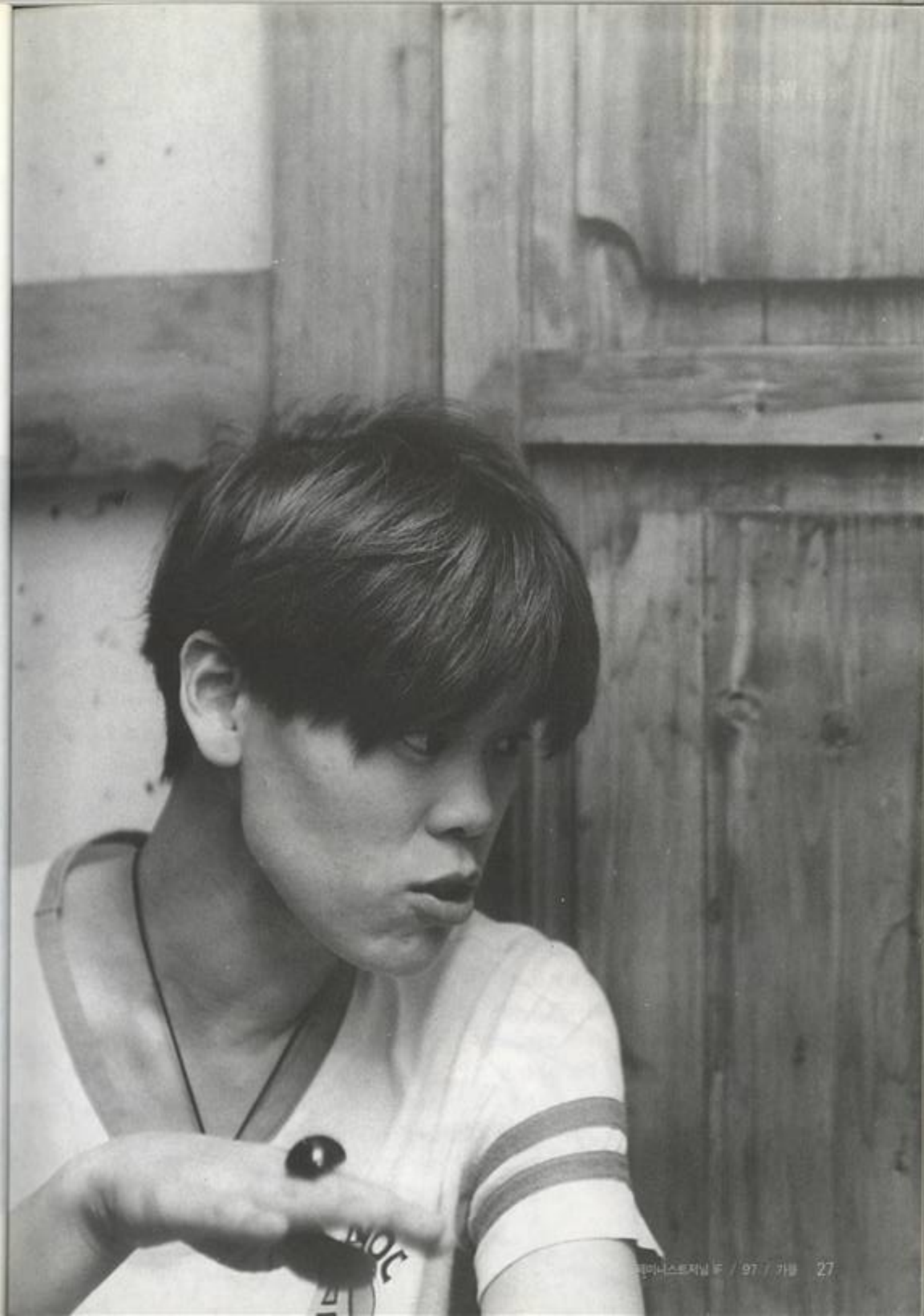
그의 불만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저는 아직도 한국이 낯설고 답답해요. 사람들은 제게 똑같은 것만 물어봐요. 왜 한국에 왔나,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나이를 묻고, 왜 결혼하지 않느냐, 왜 화장을 하지 않느냐고 묻지요. 그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자신이 ‘여자’임을 강요하는 것에 지겨워했다.

이런 어려움에도 그가 한국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느새 할일이 되어버린 KOA의 일과 그를 사랑하는 다국적 친구들, 예술가로서의 탐색, 그리고 자신들에게 무관심한 한국에 대한 오기 때문일까.

어쨌든 그는 당분간 모국을 떠날 생각이 없다. 서울 여성영화제 출품작 〈여자들의 도시, 파리〉(감독 그레타 쉐러)에서 감동을 받은 것처럼 자신의 경험과 일정에 관한 이야기를 영화나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다고 한다. 얼마 후에 우리는 또다른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지 모르겠다. ■

(글 김양선 / 사진 조여진)



전쟁을 딛고 평화를 건설한다

국제여성평화심포지움에 참석한 보스니아 여성 셀마

6월 17일부터 나흘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제여성평화 심포지움—여성·평화·화해'에 참석차 내한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셀마 하지할리오비치(22). 아직 사라예보대학 정치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이지만 보스니아 사회민주주의자회의 국제협력위원이자 귀환자센터 '여성과 여성' 회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23시간 동안 눈을 붙이지 못해 피곤한 상태에서도 악몽 같은 전쟁의 실상을 전하는 셀마의 태도는 진지하기만 했다.

"누가 먼저, 왜 싸우기 시작했는지조차 회미해질 정도로 길고 참혹한 전쟁 동안 여성들은 최대의 피해자 이면서도 평화의 사절이자 창조자였습니다."

91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공화국의 독립선포로 시작된 유고 내전은 조직적 강간 등을 통해 '인종 청소'로 악명높은 전쟁.

정부의 공식적인 보고서는 강간피해여성을 2만여명으로 추산했지만 실제로는 6만여명이 넘을 것이라는 게 셀마의 얘기다.

강간은 4살 여아부터 60세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으로 자행됐으며 어떤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로 하여금 딸을 강간토록 하는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폐악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강간과 그에 따른 임신으로 많은 여성들이 자살을 기도하거나 정신병원에 수용되고 고향을 떠났다.

이들 여성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가정과 직업을 찾도록 돕는 일에 바로 여성들이 앞장서고 있다.

또 정보교환을 통해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가정과 사회의 기반을 재건하는 데 여성그룹들이 나서고 있다.

이슬람교도가 대부분인 보스니아는 뿌리 깊은 가부장적 질서로 여성의 사회활동이 쉽사리 용인되지 않는 분위기지만 현재 한 도시마다 10여개의 여성그룹이 있을 정도로 여성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서로를 적으로 만들었던 민족이나 종교의 차이를 뛰어넘은 연대가 여성의 힘과 가능성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80여개의 정당이 난무하는 가운데 평화와 여성의 자립을 위해 결성된 '여성정치당'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여성정치당이 페미니즘을 표방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우선 정치권에서 묻히기 쉬운 여성들의 목소리를 스스로 일깨워내려는 노력의 첫걸음이지요."

"그러나 자신은 페미니스트"라고 덧붙이는 셀마는 보스니아 여성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남한과 그밖의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나눔과 공유'의 심포지움자리가 자신에게 더없이 소중한다고 말한다.

짧은 영어로 인해 아쉬움이 많았던 인터뷰를 마치며 "앞으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건넨 말에 "당신은 한국사람이니깐 영어를 잘 못하는 건 당연해요. 그리고 영어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거죠. 난 영어를 거의 못하면서도 영어 잘하는 남자친구를 두명이나 두고 있는 여자를 알아요"라고 위로 섞인 응수를 해준 셀마. 그녀가 건넨 크로아티아 담배와 함께 당차고 진지한 모습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 [7]

(글·사진 이수진)

‘벽을 깨고 트인 소리 평’

레즈비언잡지 『니아까』 펴낸 홍난영, 오승원

국내 최초의 레즈비언 잡지로 기록될 『니아까』가 지난 7월호를 창간호로 세상에 얼굴을 드러냈다. 잡지이름이 하필 왜 ‘니아까’인가. 잡지를 만든 두 주인공 홍난영(23), 오승원(27)의 설명은 사교의 자유로운 흐름만큼 재밌고 솔직하다.

“길거리의 니아카는 온갖 다양한 물건을 싣고 다니잖아요. 또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고가품이 아닌 지극히 대중적인 물건들만 팔고... 니아카는 인간이 남자, 여자라는 성별 구분만으로 나뉘어져 규정되고 이성애만이 정상이라고 말하는 사회에서 우리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드러내놓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니아까』는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들의 지극히 소박한 ‘바람’을 담고 있다. 이들의 바람은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를 꿈꾸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그 소박한 바람은 소박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걸 또한 요원하다. 홍난영은 11화의 최초 인터뷰를 “모험”이라고 부른다.

“모험이죠. 얼굴이 나가잖아요. 직장에서 쫓길 수도 있고...” 그러나 이렇게 말해놓고는 웃는 표미 마음은 아주 편하단 느낌이다. 짧게 친 머리에 해맑게 보이는 ‘보이쉬’ 한 분위기가 달은꼴인 홍난영, 오승원의 표정은 자유로워 보였다. 여전히 ‘눈치’를 봐야하는 ‘가족’이라는 높은 산이 이들의 가슴을 쓰리게 하지만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주변에 드러내놓고 말하기까지 오랜 고뇌의 시간이 있었다.

이들은 『니아까』를 세상에 내놓고 나니 “속이 다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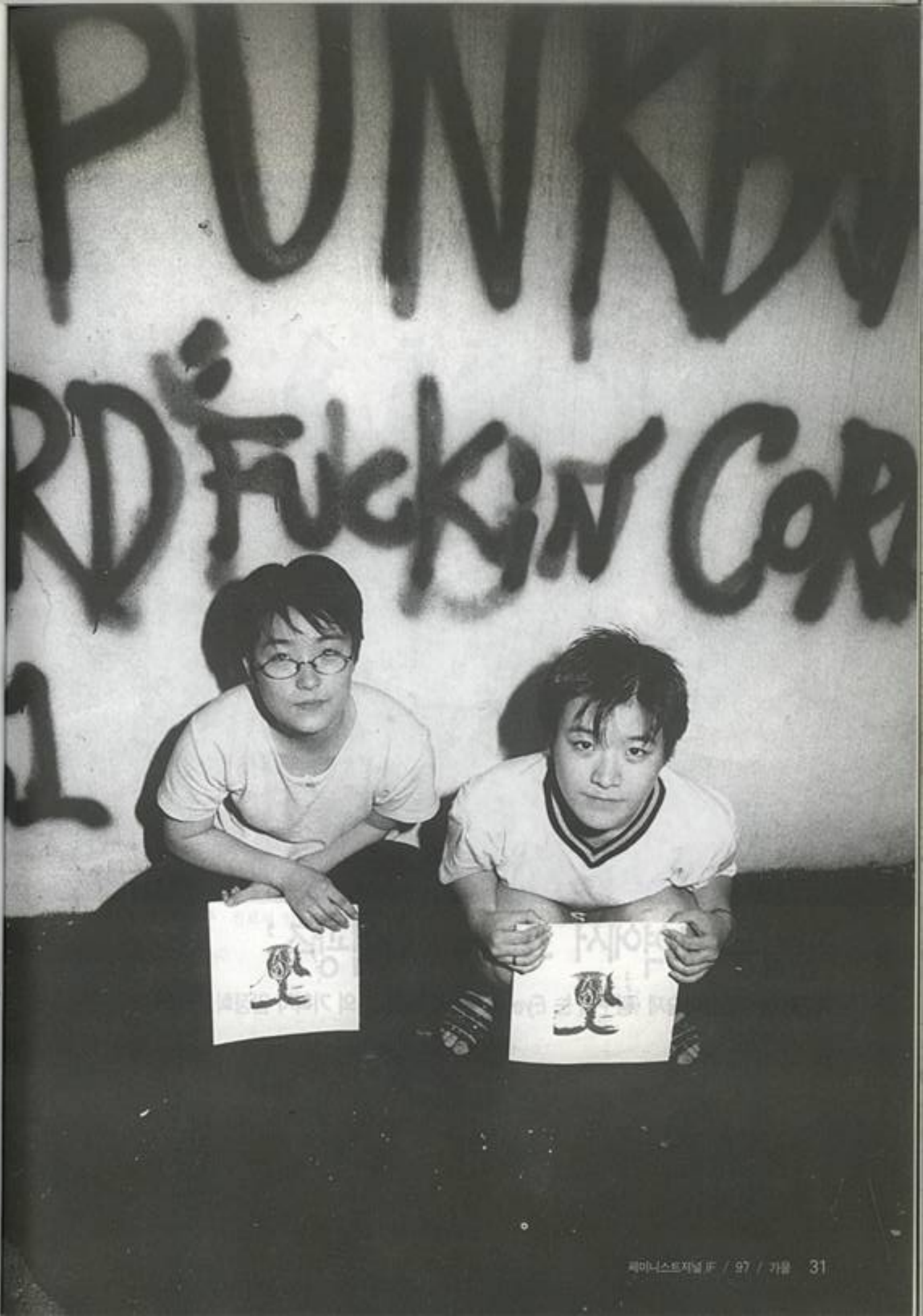
련하다”고 했다. 현대판 ‘사포의 딸’로 다시 태어난 홍난영, 오승원은 레즈비언이란 사실을 숨기고 살기보다 ‘그들만의 방식대로’ 살고자 한다. 이들의 컴퓨터통신 ID는 그들의 바람을 표현한다. 홍씨는 게트핑이고 오씨는 빗창. 게트핑이란 ‘벽을 깨고 트인 소리 평’, 빗창은 ‘빛이 들어오는 창문’이다.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간혹, 또는 시시때때 부딪치는 고민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들이다. “사람들 앞에서 누구 좋아한다고 자랑도 못하고, 회사에서 잡지를 만드는데 보여주고 싶었지만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럴 때 제일 속상하죠.”

두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 것은 동성애자 모임을 알고난 뒤였다. 그 이후 ‘레즈비언’이란 사실을 당당히 밝히고 레즈비언운동을 하겠다고 세상에 용기있게 얼굴을 내밀고 나선 두 사람은 지금 3호 준비로 한창 바쁘다.

잡지를 만들면서 가까워졌다는 오승원, 홍난영은 앞으로 레즈비언 모임을 통한 공연등 이벤트사업을 통해 무가지無價紙 『니아까』의 재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승원은 9월19일부터 25일까지 홍대앞 포스트창무극장과 신촌의 ‘푸른굴양식장’에서 열릴 <서울국제퀴어(Queer: 90년대 게이·레즈비언을 지칭하는 새 용어)영화제> 스태프로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된다. (게트핑 통신연락처: 나우누리 게트핑, 천리안 blueNY, 하이텔 blueNY, 빗창: 나우누리 빗창, 하이텔 ichkann) **11**

(글 박해숙 / 사진 정수선)





망월동 묘역에서 그리는 '화엄광주'

제2회 광주통일미술제 <광주의 눈 Eye of the Kwangju>의 기획자 임정희, 오혜주

낮 기온이 섭씨 35도를 웃도는 8월초, 무더운 날씨에도 아랑곳없이 여기저기 바쁘게 뛰어다니며 구슬땀을 흘리는 두 사람이 있다. 8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광주 망월동 5·18묘역에서 열리는 <제2회 광주통일미술제>(주관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의 서울지역 기획을 맡았던 오혜주, 임정희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전체 8명의 기획자 중 여성은 2명뿐이다. 그들에게서 이번 미술제 테마인 '화엄광주'에 대해 듣는다.

"화엄광주는 우주의 생명있는 모든 것들과 생명 없는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룬다는 불교의 화엄사상을, 광주항쟁의 상처가 아로새겨진 망월동 묘역에서 실현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미술제는 '안티(반) 비엔날레'를 표방했던 95년에 이어 2번째이다.

"제1회 광주비엔날레는 국내유일의 국제적인 미술 행사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 즉 광주에서 열린다는 것 이외의 의미를 딱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패배로 점철되어온 우리 역사에서 광주는 '승리'와 '해방'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광주비엔날레는 광주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주류미술의 흐름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한 전보적 미술가들이 광주가 갖는 해방·자주·진보의 이미지를 담아 열었던

것이 제1회 '안티(반) 비엔날레'. 비엔날레가 열렸던 기간에 동시에 개최된 이 미술제는 2주 동안 30만~40만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들리는 커다란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번 미술제는, 95년때와는 달리 '광주비엔날레 특별기념전'으로 열리고 있다. 이를 놓고 비엔날레에 흡수됐다는 지적도 있지만, 1회때의 '안티적' 성격에서 한걸음 나아가 미술의 의미와 기능을 확장하려는 의도라는 적극적 해석이 주류다. 보다 폭넓은 체험과 다양한 시도를 통해 즐거운 미술, 열린 미술, 참된 미술문화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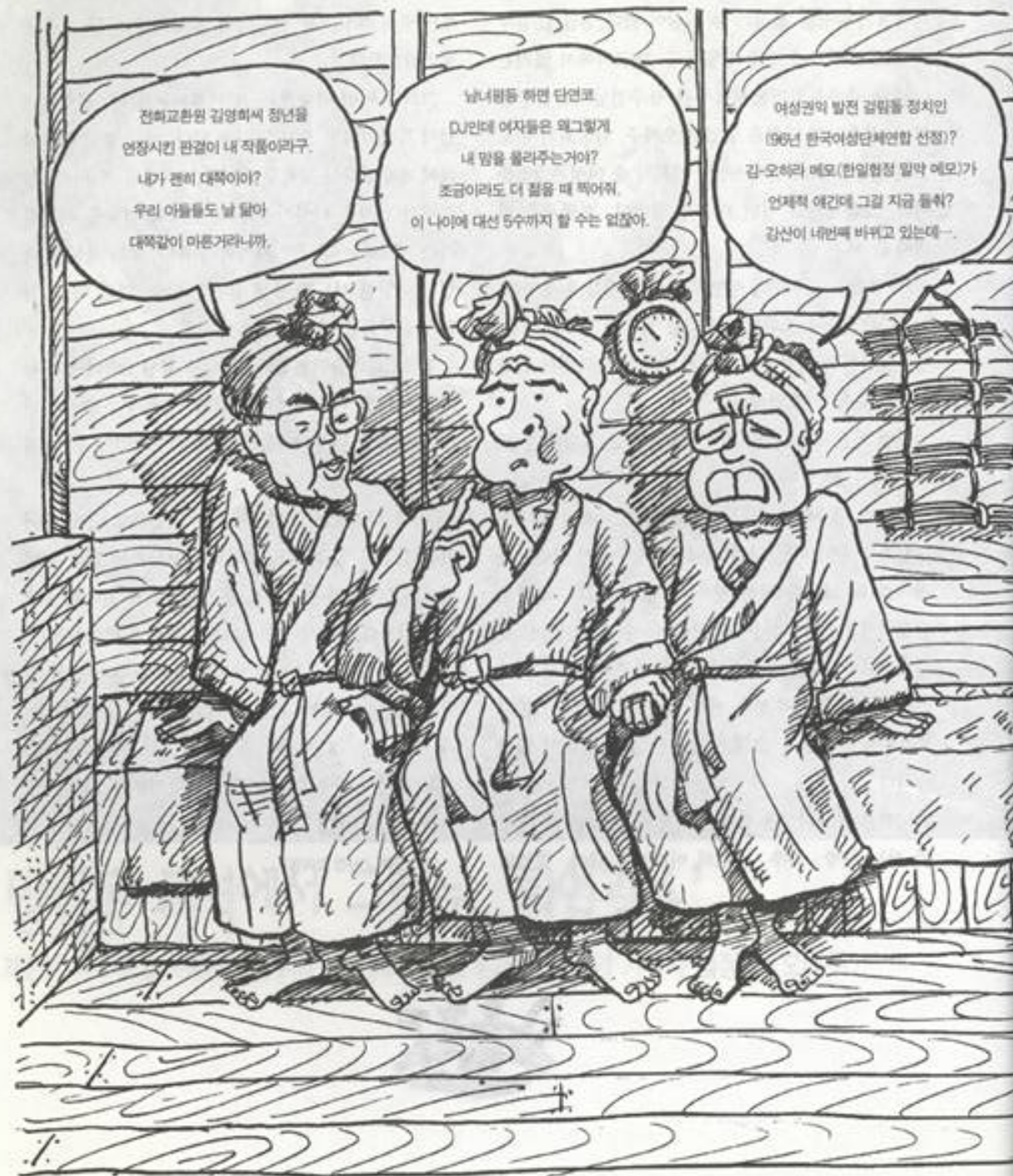
전국민족미술인연합의 각 지부 회원 2백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미술제에서 임정희·오혜주는 소수이면서 비주류인 여성작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큰 신경을 썼다.

"여성 작가들은 주변문제들을 따뜻하고 쉽게 풀어나가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과는 달리 평면적이기보다 천과 자연재료 등 생활주변에 친숙한 소재들을 이용해 입체적이고 설치적인 작업을 많이 하죠."

이번 미술제는 망월동 묘지의 들머리부터 묘역 앞 민주광장에 이르는 4km의 진입로에서 펼쳐지고 있다. 연락처는 062-266-8308이며, <광주통일미술제> 개최에 이어 광주비엔날레는 9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열린다. □

(글 이진화 / 사진 조여권)







호스트바를 찾았던 접대부 여성 2인과의 만남

“여자들은 남자접대 좀 받으면 안되나요?”

글/김신명숙

그녀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다.
매스컴에 알려진 후 여기저기서 비난을 받아
매스컴 기피증이 심하다고 했다.
그러나 수차례의 간곡한 설득 끝에
그녀들을 '데리고' 있는 마음이 우리를 이해하게 됐고
결국 7월 18일 밤 9시 30분
그녀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지난 6월 중순, TV 9시 뉴스에서 '호스트바 적발 운운' 하는 보도를 '또 불공평한 법식 이군' 하는 생각에 냉소적으로 지켜보던 나는 뜻밖에도 한순간 온몸이 찌릿해지는 충격을 받았다. 전혀 뜻밖에도 우리사회의 윤리도덕상 '해서는 안될 말'이 막강한 위력을 지닌 TV의, 그것도 메인뉴스를 통해 만천하에 던져지고 있었던 것이다.

“남자가 여자접대부와 술먹는 건 괜찮고 여자가 남자의 접대를 받는 건 문제가 되나요?”

화면에는 '다리를 꼬고 앉은' 한 젊은 여성의 모습이 도발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당당하게 항변하고 있

는 그녀의 모습은 지금까지 봐왔던 '카메라에 쫓겨 구석에 잔뜩 몸을 웅크린 채 필사적으로 얼굴을 가리는 전통적인 호스트바 고객'과는 너무나 달랐다.

'어이구, 속 시원해.' 나는 십년 갈증 끝에 한바가지 얼음물을 들이킨 듯한 상쾌함에 나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그와 함께 '아마도 이것이 이런 종류의 발언으로는 TV를 통해 전파된 첫 케이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사건을 지켜본 듯한 묘한 감개까지 드는 것이었다.

아직까지도 성은 우리사회의 가장 막강한 터부 중의 하나다.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남자들의 술집출입



도 그 몇몇한 게 못된다. 그런 판에 하물며 여자가 호스트바를 출입한 '주제' 큰 소리를 쳤으니 그녀에게 쏟아졌을 빗발치는 비난이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물론 그 비난은 관습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다.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남평등이 헌법에 보장된 이 나라에서 여성접대부의 대접을 받는 데 너무나 익숙한 대다수의 남성들을 제외한 채 그녀들만을 비난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을테니까. 확실한 위법 근거도 없이 그녀 일행을 호령하며 잡아갔던 경찰은 그녀들의 항변에 '한국의 여남평등은 어떻게 이런 데서만 빠르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다'며 갑자기 근엄해

진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지만 그녀들의 뚝부러지는 질문에 비하면 너무나 궁색한 답변이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 이 호스트바 사건도 일과성 해프닝으로 끝났다. '갑히 남자의 접대를 받은' 몇명의 '꽤썸한' 여자들은 경찰서에 끌려가 혼이 나고 뉴스를 통해 공개망신을 당한 후 풀려났고 이 사회와 남자들은 그녀들에게 분풀이를 하고 호스트바들에 으름장을 놓은 후 가볍게 손을 털었다. 그들이 가진 힘으로 호스트바 따위를 손봐주기야 언제든 일도 아닐테니까.



긴급출동—호스트바

내가 그 나쁜 여자들'을 꼭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그녀들이 TV뉴스를 통해 쏟아낸 말이 내게는 부지불식간 빠르게 변하고 있는 우리사회 여남관계의 역동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유쾌한 징후로 잡혔기 때문이다. 게다가 술집 접대부라는 그녀들의 직업이 내 만남의 욕구를 더 자극했다. 우리사회에서

"2시간이나 서비스를 했는데
팁을 못받으면 어떻게 해요?
할수없이 따라나갔는데
밤새 괴롭히는 거예요.
숏타임으로 약속했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고
거부하면 때리고...
정말 끔찍했어요.
강간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정말 나중에 또 만나면
복수하고 싶더라고요."

여남관계 역학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소위 유흥업소만큼 중요한 장이 드물다는 게 평소의 내 생각이었으니까.

한 10년쯤 전의 일이다. 당시 한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던 나는 어느날인가 퇴근 후 일단의 동료들과 한 룸싸롱을 찾게 됐다. 물론 동료들의 절대다수는 남자였고 몇명의 '아가씨'들이 나왔다. 여자동료가 낯선 술자리에서 남자들은 대개의 경우 상당히 몸조심을 하는 게 상례다. 그런 만큼 여자들은 언제쯤 자리를 피해주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인지 여기저기 눈치를 보다 적당히 일어나 나오기 마련인데 그날은 일이 좀

특별하게 전개됐다. 이미 술이 취해 있던 한 남자선배가 그만 '꼭지가 돌아버렸는지' 불편한 자세임을 벗어 던졌기 때문이었다.

성욕보다는 권력욕이

그날 그 선배가 했던 행동은 지금 내 기억에 특별히 남아 있지 않다. 행위로만 보자면 아가씨를 꺼안고 옷 속에 손을 넣고 하는 따위. 그런 데서는 항용 있을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것들이었으니까. 그날 내가 충격을 받고 지금도 기억 속에 뚜렷이 각인되어 있는 것은 그 선배가 아가씨를 대했던 태도였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일종의 가학이었다. 그 선배는 자기 옆에 앉은 아가씨를 말과 제스처, 행위를 통해서 계속 모욕하고 무시하고 학대했다. 적어도 그런 노골적인 장면을 처음 보는 내 눈에는 분명히 그랬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남자들이 술집에서 여자를 찾는 이유가 꼭 성적 쾌락 때문만은 아닐 거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었다. 다른 한 인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무시하고 학대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성욕보다는 권력욕의 만족이 남자들이 술집여자를 찾는 첫째 이유인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그날 이후 내게는 전날밤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며 부스스한 얼굴로 출근하는 남자동료들이 예상롭게 보이지 않았다. 불과 몇시간 전 술집 아가씨들을 마음대로 농락했음에도 모를 그들의 눈에 같은 여자인 내가 어떻게 보일지 아무래도 안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술집의 정치학이라고나 할까. 나는 나와 똑같은 여성들의 인권이 무참히 유린당하고 그들의 육체가 오로지 쾌락의 수단으로만 여겨지는 술집이란 공간이 나와 전혀 무관한 게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점차 깨달아가고 있었던 셈이다.

그녀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다. 데스크를 통해 알려진 후 여기저기서 힐난과 제재를 받아 데스크 기피증이 심하다고 했다. 그러나 수차례의 간곡한 설득 끝에

에 그녀들을 '데리고' 있는 마담이 우리를 이해하게 됐고 결국 7월 18일 밤 9시 30분에 그녀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장소는 그녀들이 일하고 있는 모 나이트클럽의 한 룸. 마담과 함께 우리 앞에 나타난 사람은 호스트바에 함께 갔다가 적발돼 TV 카메라 세례를 받았던 네명 중 두명이었다. 키가 작고 귀여운 인상의 A(27세)와 늘씬하고 세련된 용모의 B(24세)는 예상외로 거침없고 솔직한 태도로 우리를 대했다. A는 주문한 양주를 우리 앞에 따라주면서 마치 기다리기도 했다는 듯 경찰서에 끌려갔던 날 방송기자들이 보인 무례한 태도와 엉터리 보도에 대해 성토했기 시작했다.

A: 인터뷰에 응해주지 않으니까 한 방송기자가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죄지은 것도 없이 경찰서에 끌려왔는데 왜 인터뷰를 당해요? 그때 내가 애들한테 막 그랬어요. 고개 숙이지 말라고. 잘못된 것도 없는데 왜 그러느냐고. 나중에 들으니 그게 다 TV 뉴스에 나왔대요. 난 기자들이라면 이가 갈려요. 할수없이 인터뷰에 응하면서, 얼굴도 지우고 목소리도 변조시켜주겠다는 약속을 믿었는데 결국 하나도 안지켰더라고요. 게다가 고객 중에 주부가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지 나를 '돈 많은 주부'로 둔갑시켜 놓지 않나...

"기자들이라면 이가 갈려요"

—호스트바에 갔다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그래요?

B: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풀어준 거구요. 우리를 처벌한다면 술집을 찾는 남성들도 모두 같이 처벌해야지요. 안그래요? 유흥업소 단속할 땐 업주만 잡지 손님은 안건드리거든요. 그런데 호스트바만 더 손님을 갖고 난리예요. 사실 호스트바를 특별히 단속할 근거도 없는데 경찰들이 괜히 기분 나쁘니까 위생법이나 영업시간 위반 같은 것을 빌미로 해서 휘방놓는 거지요. '감히 남자를 접대하게 해?' 그런 거겠지요.

이들이 호스트바에 가는 이유는 뭘까? 마담은 그녀들이 호스트바에 가는 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 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여 그렇게라도 풀고 싶어지고 그런 그녀들의 수요에 의해 호스트바라는 것도 생겨났다는 것이다. 도대체 '돈 많은 남자와 술 마시고 춤추며 노는 여자'로 알려진 이들에게 어떤 스트레스가 그렇게 쌓인다는 것일까?

감히 남자를 접대하게 해?

A: 한마디로 인간대접을 못받아요. 이 생활한 지 꽤 오래됐지만 다른 아가씨 앞에서 막 들추고 만지고 하면 기분 좋을 리가 없거든요. 지겹죠. 남들이 보는 앞에서 음모를 틔우는 사람도 있어요.

온갖 지지분한 소리, 상소리도 다 들어야 하구요. 그래도 우리는 다 받아줘야 해요. 그래야 팁이 나오고 지명손님(자신을 지명해서 찾는 손님)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오로지 돈 때문에 꼭꼭 참아야 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이죠.

B: 어떤 땐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루는 2차(외박)는 안가기로 약속하고 룸에 들어갔어요. 파트너가 광고일 하는 30대 초반 남자였는데 2차를 안간단니까 팁을 안주겠다는 거예요. 옆에 앉혀 놓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온갖 짓을 다 해놓고 말이지. 그렇게 2시간이나 서비스를 했는데 팁을 못받으면 어떻게 해요? 할수없이 따라나갔는데 밤새 괴롭히는 거예요. 숏타임으로 약속했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고 거부하면 때리고... 정말 끔찍했어요. 강간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정말 나중에 또 만나면 복수하고 싶더라고요.

A: 거기가 부르트고 찢어지



긴급출동—호스트바

는 애들도 많아요. 맞는 건 예사고... 변태도 자주 만나구요.

—여기서 보게 되는 남성들의 모습은 어때요?

A: 한마디로 섹새끼들이죠. 정말 지저분해요. 신고식이다 뭐다 여자만 보면 옷 벗기려 들고... 테이블에서 춤을 추면 스타킹부터 벗기느라 난리예요. 룸에 딸린 화장실에 아가씨를 끌고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 나머지 남성들은 문 앞에서 그 남자가 방해받지 않게 지켜줘요. 한번은 호텔 모임에 몇명이 함께 불러갔는데 손님 중에 중학교 때 수학선생님이 있었어요. 열렬결에 인사를 했더니 '난 네가 이런 길로 빠질 줄 진작에 알아 봤다' 그러는 거 있죠? 게다가 나중엔 '사제간에 무슨 틈이나 면서 틈도 안주더라고요. 하나 더 얘기할까요? 내가 아는

20살 먹은 아가씨가 있는데요. 단란주

점에서

접대는 안

하고 MC

일만 하고

있었어요. 하

루는 아버지

친구가 손님으

로 왔는데 자꾸

옆에 앉으라고 하

더니 왜 이런 데서

일하느냐고 야단을

치더라고요. 처음에는

요. MC일만 하니 쾄

참다고 해도 들은 척도 않고 계속 야단을 치더니 결국에는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너 오늘밤 나랑 보내자.' 같이 안가면 아버지한테 이른다라는 거예요. 술집에서 보면 모든 남성들이 다 똑같아요.

B: 너나 할 것 없이 잘난척하는 것도 보기에 우습

죠. 사실 이 생활 좀 하면 얼굴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척 감이 잡히거든요. 쓰레기차 물고 구멍가게 하면서도 여기 오면 재벌이라도 되는 것처럼 큰소리를 땅땅치며 돈 자랑을 하는데 꼴불견이죠.

호스티스 제1미덕 '시키는 대로 말 잘듣기'

A: 며칠 전에 공항에서 택시를 탔는데 운전수 얼굴이 낮이 익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중국애기를 막 때리며 대단한 사업가라도 되는 것처럼 행세했던 우리 손님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더 재수없는 사람들은 '사'자 들어가는 교사, 변호사,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예요. 박애선 품잡고 거만 떨다가 여기 오면 완전히 똥누는 모습까지 다 보여주는 거죠. 언론인도 그래요. 내가 사건 남자 중에 모 TV방송국의 꽤 알려진 아나운서가 있었는데 그 사람 모습도 TV에서 보여지는 것과는 영 판판이죠. 여기 오면 완전히 달라지는데 막 욕하고 아무 데나 여자를 끌고 들어가고 그래요.

그녀들의 표현에 의하면 남성들이 아가씨가 있는 업소를 찾는 이유는 '왕이 되고 싶어서'라고 한다. 사회에서 권력이나 도덕에 억압당하다가 술집에 와서는 여자들을 앞에 놓고 돈으로 산 권력을 폭군처럼 마음껏 행사하려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아가씨는 '말을 듣지 않는' 아가씨다. 못생긴 데다 말까지 듣지 않으면 '진상', 예뻐도 말을 듣지 않으면 '공주병'이라고 부르며 뽀짝을 놓거나 때리기까지 한다는 얘기도.

남자들이 술집 아가씨들에게 요구하는 제1미덕이 '시키는 대로 말 잘듣기'라는 사실은 우리사회의 여남관계와 관련해 매우 의미심장하게 읽힌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들이 그녀들을 상대로 자신의 권력과 지배자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일이 결코 술집이란 공간에만 제한된, 특별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술집은 남성들이 여자에 대한 권력을 확인

하고 연습하는 가장 적나라한 장이다. 게다가 성적 쾌락까지 동반되니 그 황홀경이 오죽할까? 권력연습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들이 택한 여성은 이 사회에서 가장 약자에 속하는 '몸을 파는 여성'들이다. 그녀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멋대로 무시하고 비하하고 학대할 수 있다. 돈이 있는 한 그들은 아가씨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주인'으로서 잠시나마 으스스한 지배자가 된다.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결합해 만들어진 우리사회의 가장 뒤떨린 모습이 완성되는 셈이다.

만원짜리 지폐 한장이라도 더 얻기 위해 온갖 수처스러운 요구를 다 감수하고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하는 아가씨들을 실컷 농락하고 집에 들어온 남자가 같은 여자인 자기 아내에게 기대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남편이 자기 아내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이같은 의문을 직장이라는 공간으로 돌리면 그 예상은 더 끔찍해진다. 자기가 술집에서 마음대로 '갖고 놀았던' 아가씨와 비슷한 나이와 조건의 여성을 한 사무실에서 대하게 될 때 남성들이 갖게 되는 느낌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어디를 막론하고 비밀비재로 발생하고 있는 성적 괴롭힘, 자기주장이 분명한 여성을 남성들이 '드세다'고 비난하는 일 따위는 그들의 술집경험과 얼마만큼의 관계를 가지는 것일까? 남성들이 경험 많은 접대부보다 소위 영계를 죽자고 선호하는 것은 성심합과 함께 멋대로 주무를 수 있는 미숙함을 은근히 노리기 때문은 아닐까?

"나도 왕이 돼보고 싶으니까요"

권력과 매매춘과의 관계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해 문제제기돼왔다. 남자와 국가권력은 사실상 매매춘을 은밀히 조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매매춘이 그들이 기득권을 가진 체제의 유지에 매우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은 여성문제가 가장 적나라하고 첨예하게 드러

나는 술집의 접대부, 그들의 표현으로는 '빠순이'로서의 체험 때문인지 여성으로서의 자각을 상당히 갖고 있는 듯 보였다.

A: 한번은 기업체 사장 한명이 손님으로 왔는데 무조건 다리가 예쁜 아가씨를 찾는 거예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경리과 아가씨가 다리가 참 예쁜데 마음대로 안된다고 하면서, 그러니 그 아가씨는 사장에게 정신적으로 강간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쁜 놈이죠. —술집에 오는 남성들을 그렇게 미워하면서 호스트바에 가서 남자접대부는 왜 찾아요?

A: 나도 한번 왕이 돼보고 싶으니까요. 우리라고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난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남자가 여자를 '먹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여자가 남자 고추를 먹는 거 아니에요? 호스트바에 한번 가서 젊고 잘 생긴 남자애들 데리고 놀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 한때는 호스트바에 중독돼 일수밖에 없어서 다닐 정도였어요. 여기서 일하는 남자 웨이터들조차 '미친년들, 뽀빠지게 돈 벌어' 그런 데 갖다 쏘아붙이고 우릴 비웃지만 여자들은 다 이해해요.

—호스트바에 가면 남성들이 여자접대부에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요?

B: 아뇨, 나는 내가 당하는 것의 10분의 1만큼밖에 안해요. 주인이 된 것만으로도 호뭇하니깐.

A: 나는 그대로 해줘요. 남성들이 하는 것처럼 옷을 훌렁 벗기기도 하고.

—정말 다 벗겨요?

A: 그래도 팬티는 남겨놓

지요. 아무래도 여자라

남자들처럼은 안되더

라고요.

호스트바는 호스티

스바와 다르다. 여기

에도 우리사회의 기우뚱한 여



긴급출동—호스트바

남관계가 천명하게 부영돼 있다. 우선 가격부터 호스트바는 호스티스바보다 3배 정도 비싸다. 기본이 60만원, 3명이 가면 100만원 정도가 든다. 게다가 접대하고 접대받는 사람의 태도도 완전히 틀린다. 일례로 호스티스가 남자손님 앞에서 옷을 벗을 때는 수치스러운 태도를 보이기 쉽지만 호스트는 여자손님 앞에서 별 거리낌 없이 옷을 벗어 던질 수 있다. 우리 문화에서 아직도 여자의 몸은 감춰야 할 것으로, 남자의 몸은 과시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이 술집에 나오기까지의 경력은 매우 짧아있다. 둘 다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졸업후에는 유명백화점에서 판매사원, 경리사원으로 일했다. 직장에서의 보수와 대우가 늘 불만스러웠고 그러던 차에 친구를 통해 접대부일을 시작하게 된 것도 똑같다.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상했던 것과 직접 해보고 느낀 걸 비교하면 어때요?

B: 많이 다르죠. 처음 며칠 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그래도 여기서 며칠 일해 번 돈이 백화점에서 하루 11시간씩 한달 일해 받는 돈과 같으니 그만 둘 수가 없었어요.

“백화점에 근무한다고 인격모독 안당하는 줄 알아요?”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인격모독을 건드려야 하는 데...

B: 백화점에서 근무한다고 상사나 손님들한테 인격모독을 안당하는 줄 알아요? 돈있고 좋은 직업 가진 고객들이 종업원 깔보는 건 예사예요. 아가씨 예쁘네, 잘 빠졌네 하면서 추근거리고... 그래도 그런 거 다 참아야 해요. 매출을 올려 실적을 올리려면. 몰라서 그렇지 백화점에 근무하는 아가씨들도 단골손님과 관계를 맺기도 해요. 그러니 술집 나오는 것하고 뭐가 그리 다르겠어요? 이런 데 나오는 아가씨들 특별한 사람들 아니예요. 나레이터 모델 출신도 있어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노력해도 돈이 잘 안벌리니까

어차피 대접 못받고 살 거 돈이나 많이 벌자 하는 생각에서 발을 디디는 거지요.

A: 나는 90년에 한 백화점에서 경리로 잠깐 일했는데 도대체 여자의 능력은 인정을 안해주더라고요. 자기들끼리만 후배다 동창이다 토폴 뭉쳐 서로 밀어주고 나는 커피 담배 심부름이나 시키고... 보수는 쿵리 반만큼도 안되구요. 그래서 그냥 나와 버렸죠.

오로지 돈 때문에 접대부 생활을 시작했다는 그들의 월수입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그들이 밝힌 액수는 A가 250만원, B는 400만원 정도. 그러나 몸 꾸미는 데 돈이 많이 들고 씀씀이가 해퍼 모아놓은 돈은 별로 없단다. A의 수입이 적은 것은 오는 9월 가라오케 업소에서 일하는 남자와 결혼하기로 돼있어 2차를 잘 뛰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A: 나랑 결혼할 남자 인간성이 최고예요. 8년간 동거해봤는데 결혼해도 될 것 같아 결심했어요. 지난번에 걸렸을 때도 호스트바에 함께 있었거든요. 한가지 문제라면 집안일을 잘 안한다는 거예요. 지난 일요일에도 너무 짜증나 한바탕 했어요. 똑같이 일하고 돈 벌면서 왜 내가 집안일까지 거의 다 해야 해요?

B: 나는 결혼 안하고 혼자 살 거예요. 전에는 여자는 남자 잘 만나야 판자 판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남자가 필요 없어졌어요. 여기 나와서 남자들을 접해보니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남자도 섹스도 다 싫어요.

—남편 잘 만나 행복한 표정 짓고 사는 여자들 보면 안부러워요?

A: 행복한 주부요? 나는 그들이 못보는 뒷면을 다 보고 있어요. 아마 그들이 남편의 숨겨진 모습을 안다면 엄청난 충격을 받을 걸요. 한번쯤 우리 같은 빠순이를 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텐데... 나는 평생 내 힘으로 돈을 벌거예요.



이번 가을 결혼할 예정이라는 A에게

꿈이 있다면 어떤 것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갑자기 수줍은 표정을 하고는 '사실은 무용학원을 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이유를 묻자 어렸을 때 전통 무용을 공부했기 때문이란 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이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결혼 이후에는 구멍가게라도 '내 가게'를 하나 갖는 것이 소원이라고 덧붙였다. 똑부러지면서도 활발한 성격을 갖고 있는 그녀는 무엇을 해도 잘 할 것 같았다. 변신을 꿈꾸는 그녀들의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마이너스 평등’이 아닌 ‘플러스 평등’으로 가는 길

B는 9월부터 다시 백화점 일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는 우선 그녀의 직장복귀 결정이 반가웠다. 자본주의 물신의 으르렁거리는 성전인 백화점에서 그녀가 얼마나 오래 이 시대의 최고권력인 돈의 유혹을 견뎌낼 수 있을지 저으기 불안하긴 했지만 말이다. 술집 일을 같이 할지 그만두게 될지는 그때 가 봐야 알 것 같다며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술집 권하는 사회.’ 가진 것 별로 없고 배운 것도

“행복한 주부요? 나는 그들이 못보는 뒷면을 다 보고 있어요. 아마 그들이 남편의 숨겨진 모습을 안다면 엄청난 충격을 받을 걸요. 한번쯤 우리 같은 빠순이를 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텐데...”

많지 않고, 게다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우리 사회는 혹시 이런 얼굴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이 흔히 그러하듯 접대부가 된 이들 개개인만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외면해버리는 태

도는 그녀들이나 이 땅의 전체여성들, 그리고 이 사회의 건강성을 위해서 하등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직장생활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면 이 세계에 발을 딛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들의 얘기에 우리는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우리가 이들과 이 땅에 만연한 술집문화를 그대로 방치하는 한 오늘날도 남자들은 술집에서 절대적인 권력행사를 즐기며 아가씨들과 자신들을 동시에 비인간화시킬 것이며 아가씨들은 영업이 끝난 후에 호스트바를 찾아 당한 만큼 풀기 위해 또 한번 일그러진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여자들도 호스트바를 찾는 ‘마이너스 평등’이 아니라 남자들이 호스티스바를 찾지 않게 되는 플러스 평등으로 가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세월을 노력해야 할 것인가. 11



긴급출동—호스트바



호스트바—잠입 르뽐

호스트바 잠입 르뽐

‘다광마담’에서 ‘왕게임’까지

편집부

매일 밤 자정이 넘어 2시반(호스트바가 가장 물 좋은 시간이다)이 되면 오늘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어두운 지하에서 안락시장과도 같은 호스트바가 문을 열고 그리고 여자들이 물레 물레 찾아들 것이다.

긴급출동—호스트바

지난 6월 13일 각 신문과 방송 등 언론에 보도된 경찰의 호스트바 단속 사실은 '뜻밖의 항변'으로 눈길을 모았다. 손님으로 호스트바를 찾았다가 경찰에 연행된 한 여성이 '남자가 여자접대부와 술먹는 건 문제가 안되고 여자가 술집에서 남자의 접대를 받는 건 문제가 되느냐'며 거세게 항변한 것이다.

이날 발언의 주인공은 강남의 N나이트클럽에서 접대부로 일하는 A. 단속에 걸린 날에는 마침 같이 일하는 동료의 생일을 맞아 아는 사람들끼리 모인 자리였으며 '평소에는 낯익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시달린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호스트바를 찾곤 했다'고 한다.

'운 나쁘게' 단속에 걸려 마음고생도 많았지만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이중적인 성 차이를 실감했다는 A와 당시 함께 있었던 B, 그리고 이들의 '마담 언니' C와 우리 일행 3명 등 모두 6명이 7월 19일 새벽 직접 호스트바를 찾았다.

단속 이후 강남 일대의 호스트바들이 물밀듯이 사라졌을 때에 어렵게 물색한 서초동의 H바를 찾은 시각은 새벽 1시 30분 경. 보통 술집이 호스트바로 '변신'하고 호스트들이 출근하기 시작하는 시각이다.

건물 밖의 차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방문객을 확인하는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 문을 닫은 식당 등을 지나 건물 지하로 내려가자 불투명 유리문들이 줄지어 있는 복도가 나왔다. 일행이 들어간 곳은 15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5평 남짓한 크기의 방. 중앙에는 커다란 사각탁자가 놓여있고 이를 둘러싸고 의자가, 문 입구 쪽에는 노래방 기기가 설치돼 있었다. 탁자 위에는 병들러가며 언더락스컵 2개, 스트레이트 잔 2개 등이 세팅된 상태.

잠시후 웨이터 복장을 한 남자가 들어와 일행들 앞에 물수건을 놓았다. 이어 들어온 20대 후반의 남자는 속칭 '마마' 혹은 '다방마담'으로 불리는 마담. '왜 다방마담이냐'는 질문에 확실한 답을 하지는 못했지

만 아마도 남성의 성기를 다방으로 빗대어 남자 마담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 같다는 추측이 그럴듯하게 여겨졌다. 그는 '아직 '선수(호스트)'들이 다 출근하지 않은 상태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진짜, 가짜는 호스트가 더 잘 안다

이 집을 안내한 마담언니 C씨는 같이 들어온 지배인인 듯한 남자에게 '아는 언니들인데 세상궁경하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왔다'고 설명하며 취재차 온 우리 신분에 대해 연막을 쳤다. 그러면서 컷속말로 '호스트바에 드나드는 유한마담 대접을 받으려면 의상도 모두 해외디자인브랜드를 입어야 하고 귀금속이나 악세서리도 '아르마니 선그래스' 하는 식으로 진짜만 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호스트들이 가짜는 기막히게 알아본다는 것이다.

그래서 디자이너브랜드와는 애당초 거리가 먼 우리 일행은 아저씨가 잠시 해외출장간 사이 호기심을 주체 못하고 밤외출을 한, 철없는 가정부인들이 되었다. 다방마담이 나간 사이 우리는 같이 간 A,B,C에게 호스트바의 진면목을 다 볼 수 있도록 평소와 똑같이 놀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우리의 취재 목적을 이해하고 함께 온 그들은 알았노라고 대답했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로 했다.

다시 웨이터가 들어오고 기본에 해당하는 모듬안주와 양주, 맥주 등을 주문하자 서비스로 김밥과 국수 등 야식이 함께 제공됐다. 15분쯤 후 '선수'들의 등장으로 '초이스'가 이루어졌다.

호스트바와 호스티스바의 첫번째 차이는 바로 이 '초이스'에 있다. '초이스'란 말 그대로 호스트를 골라 앉아서 선택하는 과정을 일컫는 말로 호스티스바에는 손님이 아는 호스티스를 지명하거나 마담이 호스티스를 룸에 들어가라고 지시하는 데 반해 호스트바에는 그 집에서 일하는 호스트 전원이 손님이 올 때 마다 조를 짜서 등장, 손님에게 간담기회를 주는 것이

다. 그러나 통상 룸살롱이 수십개의 룸에 100여명의 호스티스가 일하는 데 비해 호스트바는 호스트 전원이라야 20여명 정도에 룸도 6~7개의 소규모이다. 또 손님도 단골손님이 많은 룸살롱과 달리 처음 오는 손님이 많기 때문에 생긴 과정 같았다.

이날은 3명이 한조를 이뤄 모두 6조가 나왔다. "안녕하세요. ○○입니다"라며 자기 소개를 하고 나가는 와중에 "소개가 너무 빨라서 누가 누군지 기억할 수 없다"고 "구별해서 기억할 수 있게 인상적으로 소개해 달라"는 주문이 들어왔다. 그러자 조금 과장된 인사를 하는 선수도 있었으나 대체로 간단한 소개로 끝났다. (호스트들은 호스티스와 달리 손님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그들은 대부분 20대 초중반으로 셔츠와 바지차림이었으며 목걸이나 선글라스로 치장하고 염색이나 무스머리에 힘을 준 경우가 많았다. 룸살롱 호스티스들이 화려하고 노출이 많은 접대용 드레스를 따로 입는 것과 달리 이들의 차림새는 시내 변화가에 나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젊은이들과 다르지 않았다. 이름이나 외모, 분위기에서 대부분 유명 연예인을 모방한 선수들이 많았고 또 운동으로 다져진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는 선수도 있었다.

'초이스'를 통해 우리 일행의 숫자 6명과 맞추어 '제회', '광판' 등으로 자신을 소개한 호스트 6명이 선택되어 술자리가 벌어졌다. 호스트들이 일행의 사이 사이에 끼어 자리를 잡고 술을 따르기 시작했고 '선수'들은 분위기에 따라 우스개소리나 게임을 제안했다. A가 '제회'의 가슴을 만져본 후 "꽃꽂이 예쁜가 좀 보자"며 옷을 들추자 몇번 배다가 웃웃을 건어올려 가슴을 보여주기도 했다.

'제회'라는 가명으로 통하는 이모(27)군은 183cm의 건장한 체격으로 오후에는 수영 강사로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학입시에 실패하고 군대에 다녀와서 모델활동을 하러 일본으로 갔다가 신주쿠거리에서 2년간 호스트생활을 했다는 이군은 "기다리는 때가 될 때까지 호스트를 하겠다"고 말했다. 구상하는 사업은 일본의 재고의류 및 아이디어 상품을 들여

와서 파는 일.

분당에 살며 아버지는 모운송업체 사장으로 부유한 가정환경이라고 말하는 이군은 스스로 벌여 기반을 닦고 싶었고 빨리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호스트 일을 하게 됐다고 한다. 집에는 의류상을 하는 형님으로부터 새벽시장에서 일 배우고 있다고 말한 상태라 부모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여자와 놀면서 돈 벌 수 있어서"

"방학이나 방동안 아르바이트로 하는 대학생도 있고 주로 골프나 수영 등 운동강사나 기타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피부손질 정도는 기본이고 운동으로 몸을 단련하는 것도 필요한 만큼 호스트들의 초저녁 직업이나 취미는 스포츠와 관련된 것이 많은 편이다.

"보통 처음에는 술도 마시고 여자와 놀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 끌려 시작하죠."

이들의 월수입은 평균 300~400만원 정도. 한방에 들어가면 10만원 가량 '차비(팁)'를 받는데 이중 20%는 마담에게 떼준다. 손님과 2차를 가는 경우 공정가격은 보통 30만원. 그러나 이보다는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볼렉스시계, 차 등 보다 큰 '화

우리 일행은 아저씨가 잠시 해외출장간 사이 호기심을 주체 못하고 밤외출을 한, 철없는 가정부인들도 가장했다.

긴급출동—호스트바

대'를 기대하기 마련이다.

술을 마시는 와중에 '전화가 왔다'거나 '화장실을 간다'며 선수들이 계속 자리를 비웠는데 여러 팀을 접 대하는 '더블'을 뛰기 때문

인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다. 우리는 '더블'을 뛰는 성의 없는 호스트들에게 우리가 새상구경 나 온 것이니까 다른 방 손님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노는지 알고 싶다며 관대하게 '더블'을 허용했다.

다시 들어온 열 선수에게 그 방에 온 손님들은 어떤 손님들이냐고 묻자 '다 똑같죠. 뭐'라는 대답이 돌아 왔다. 젊은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 종사자들이고 나이든 여성들은 '어물전 아줌마'들이라는 것이다. 어물전 아줌마라는 것은 특정장사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돈있고 나이 많고 세련되지 않은 손님을 의미하는 것처럼 조롱적인 어투였다.

"기본요? 솔직히 저도 남잔데 멋있고 즐거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이것도 일이나 열심히 하려구요. 여자들이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구나 하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A는 지난번 단속에 걸렸을 때 경찰들한테 '왕게임'이 뭔지 몰라서 호되게 당했다고 말하며 '왕게임'이 뭐냐고 물었다. 경찰이 '호스트바'에서 '왕게임'을 하지 않았느냐고 몇시간을 다그치며 물어서 고생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설명에 의하면 왕게임이란 나무젓가락 문치에 임금왕자 쓴 것을 하나 집어넣고 그 젓가락을 뽑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란다.

그래서 손님이 안뽑고 호스트가 왕젓가락을 뽑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자 손님이 뽕게끔 하는 수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왕이 되면 어떤 일을 시키느냐고 묻자 호스트의 양젓꼭지와 성기부분에 마요네즈를 바르

고 빨아먹게 시키는 사람도 있고 또 천원짜리 지폐를 바다

에 뿌려놓고 땀을 흘리게 해서 몸에 붙는 대로 가지라고 시키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주고 받다가 흥이 오르자 밴드가 들어왔다. '선수'들은 주로 빠른 댄스풍의 최신 유행가요를 야한 춤과 함께 불렀다. 분위기가 달궈지자 한 선수가

테이블 위로 올라가 뿔뿔을 벗어 부치고 노래를 부르고 다른 선수들은 그 위에 몸을 뿌리기도 했다. 누군가가 테이블 위에서 노래하는 친구의 바지를 벗겨내려고 그 선수는 그냥 바지가 발목에 걸린 채로 춤을 추었다. 테이블 밑에서는 손님을 가운데 샌드위치식으로 놓고 비벼대는 스타일의 춤이 주종을 이뤘다.

중간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몸을 나오니 바로 앞에 한 호스트가 손님을 모시고 화장실을 안내하고 있었다. 그녀는 짙은 감청색 무지바탕에 하얀 칼라가 달린 루피스수트를 입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듯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약간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였다. 호스트는 화장실 입구까지만 동행하고 돌아갔다.

일주일에 3, 4일 출근

그 집의 유일한 다른 손님으로 만난 그녀는 30대 후반의 세련된 용모였고 아까 들은 소리가 있어서인지 웃도 고답스러워 보였다. 어물전 아줌마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게 보이는 그녀는 차라리 고위급 비즈니

스우먼이거나 전문직 커리어우먼처럼 보였다. 주방에서 그 시간에도 계속 안주가 나오고 밖에 대기하고 있는 선수들도 몇명 보였다.

손님들이 오면 보통 몇시까지 노느냐고 물어보자 어떤 아줌마들은 낮 11시까지 룸에 선수들을 붙잡아 두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렇게 늦게까지 있으면 다음날 어떻게 일하느냐고 묻자 대부분 매일 일하기는 쉽지 않고 하루 걸러씩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선수들이 일주일에 3~4일 출근한다고 한다.

호스티스와 호스트 사이에도 불평등은 있다.

2차는 어떻게 나가느냐고 묻자 손님이 원하면 가기도 하는데 1차 가격이 워낙 비싸서 2차 가는 손님은 많지 않다고 한다. 실제로 호스티스들은 호스티스 일주일 해서 번 돈을 호스트바에 와서 한번에 쏟아붓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호스티스들의 경우는 2차를 위해서 호스트바에 오는 것이 아니고 1차에서 스트레스 푸는 것이 목적인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호스트들도 가격을 정해놓고 2차를 나가는 것보다 단골을 확보해놓고 차나, 시계 등 물건으로 떨어지는 것을 더 기대한다고 한다.

한바탕 흔들기가 끝나고

바를 나선 시각은 새벽 4시경. 그때까지도 복도로 흘러나오는 불빛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7개 가량의 룸이 영업중이었다.

이날 술 및 안주값과 호스트 6명의 팀으로 계산된 돈은 모두 119만원. 마담 C가 안면이 있는 곳이라 30%를 깎은 가격에, 현금 대신 카드로 결제해서 20%가 부가된 비용이었다.

몇년 전 호스트바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는 최모씨에 따르면 10여년 전부터 이미 호스트바가 있었다고 한다. 일본과 홍콩 등지에서 유래된 호스트바는 현재 서울 외에도 제주, 부산, 울산, 대전, 유성 등지에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서울에는 강남, 이태원, 방이동 등에 많은 편이고 대개 기존의 술집 등을 재임대해 운영하며 길어야 3개월을 넘기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 개업식으로 문을 연다.

최씨와 A, B 등은 H바가 별로 볼 좋은 곳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다른 곳은 보통 선수들 외에 쇼팀을 따로 두고 있죠. 그리고 정말 간을 빼려면 뭘 정도로 서비스를 합니다. 보통 룸살롱에서 접대부가 잘못해 셔츠에 립스틱을 묻히거나 하면 당장 벗겨다가 빨아 말려 손님이 갈 때 돌려주는 식이나 마찬가지로 해요. 여기는 애들도 '진상'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재수없다는 표현)이고 서비스도 별로네요."

이들은 이군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하자 '호스트들이 하는 얘기 절반은 거짓말이라고 보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가족관계나 자신의 환경 등에 대한 것

은 여러가지 만들어둔 레파토리를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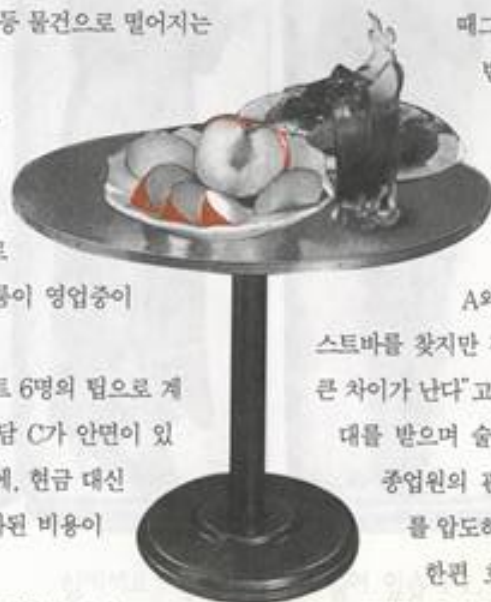
때그때 물려댄다는 것. 그래서 여러

번 찾다보면 앞뒤가 안맞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A의 얘기다.

"우리도 손님들이 물으면 대학생이라고 그러는데 요, 뭐."

A와 B는 "황인 스트레스를 풀러 호스트바를 찾지만 같은 접대부라도 남자와 여자는 큰 차이가 난다"고 하소연한다. 돈 내고 남자의 접대를 받으며 술을 마시기 위해 하지만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가 기본적인 남녀의 역관계를 압도하지는 못한다는 것.

한편 호스티스는 '치사하고 더러운 꼴'을 당하면서 어디다 호소 못할 생존의 설





긴급출동—호스트바

움을 갖는 반면 호스트는 상대적으로 대접받는다는 점도 지적한다. 즉 '몸 파는 여자'를 향해 쏘는 화살과 '남자가 돼가지고...쫓쫓' 하는

반응은 천지차이라는 것이다. 또 호스티스는 상대적으로 경쟁자가 많은 반면 호스트는 최소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점까지 더해져서 결국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직업군인 향락업 종사자들에게 있어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및 처우'가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항변이다.

취재라는 명목으로 호스트바를 다녀온 이남의 경험은 우울한 것이었다. 호스트바에서 펼쳐진 세상은 다시는 가고 싶지도, 알고 싶지도 않은 별세계였다. 그러나 매일 밤 자정이 넘어 2시반(호스트바가 가장 물 좋은 시간이다)이 되면 오늘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어두운 지하에서 인육시장과도 같은 호스트바가 문을

호스트바는 대개 기존의 술집 등을
재임대에 운영하며 길어야
3개월을 넘기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
게릴라식으로 문을 연다.

열고 그리고 여자들이 몰래 몰래 찾아들 것이다. 물론 그보다 먼저 초저녁부터는 휘황한 네온싸인으로 불을 밝힌 룸살롱과 유흥업소에서 남자들이 못난 제왕이 되어 호스티스들을 주무르고 명령하고 학대하며 주지욕림의 파티를 벌였을 것이다. 호스트바를 다녀온 후 든 첫 생각은 음식점에 웨이터와 웨이트리스가 함께 있듯이 모든 술집에 호스티스와

호스트가 함께 있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이었다. 요즘 음식점에서 웨이터나 웨이트리스의 성별이 문제되는 곳은 없으니까 말이다. 음식점 종업원은 음식을 서브하는 것이 일이고 술집 종업원은 술을 서브하는 것이 일이다. 호스트나 호스티스도 특정 노동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다. 차라리 어느 술집이나 호스트와 호스티스가 같이 있게 되면 유흥업소 문화가 좀 달라질까? 글썽 모르겠다. **IF**

IF·광·고·패·러·디



삼키세요. 색다른 유혹이 숨어 있습니다.

여자의 사랑 1/3 남자의 사랑

우리는 페미니스트저널 IF의 2호 특집을 사랑이야기로 정했다. 페미니스트이건 페미니스트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울고 웃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여 산다. 수많은 영화와 소설 그리고 대중가요들이 모두 사랑을 노래한다. 명작이나 고전 중에서 사랑을 주제로 하지 않은 것이 거의 없으며 사정은 통속적인 대중가요나 3류소설에서도 마찬가지다. 왜 그럴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에 남녀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남성과 여성이 생각하는 사랑법의 '차이'에 주목하고 그 간극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남자들의 사랑이야기와 여자들의 사랑이야기로 나누어 전개되는 이번 특집은 사랑이데올로기를 페미니스트의 입장에서 점검한 사랑이데올로기 분석이 그 문을 연다. 이번 사랑 특집에서 다양한 필자의 다양한 입장을 섭렵할 수 있기를 바란다. — 편집자주

- 시론—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 남자의 사랑—최인호 vs 장정일 사랑중독증에서 포르노까지
—동화속 사랑시나리오 끝없는 되풀이는 이제 그만!
- 여자의 사랑—여성작가의 소설에 담긴 섹스와 사랑 그리고 결혼
- 영화뒤집어 읽기—'틈새'에서 읽어낸 '반란'의 몸짓
- 사례—그녀가 사랑할 때
- 우리가 바라는 성과 사랑



이나 영화가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환상을 생산하기도 한다. 현실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들은 이러한 문화적 장치를 이용한다.

어느 페미니스트가 지적하듯이, 이러한 이상화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일정한 계급임을 못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 남성이 한 여성을 다른 여성들보다 낫다고 하게 되면, 그 여성은 자신이 여성 계급에 속하는 것을 망각하고, 자신이 다른 여자들보다 아름답거나 어떤 특별한 매력에 있어서 그 남자에게 선택당했다고 생각하게끔 된다. 그리고 정해진 미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결혼시장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당신은 아름다워"라는 말만 들으며 연애기간을 거처서 일단 결혼을 한 여성도 자신이 한 남자의 아이를 낳는 도구이며, 그 남자의 일을 위해 가사노동을 하는 노예임을 발견한다. 모성과 아내라는 직업은 미화된다. 때로 아내의 컷은 손은 애처롭고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할 것이라는 맹세를 듣기도 한다. 그러나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특별한 줄 알았던 자신이 남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이를 낳는 일과 가정의 노예가 되는 것은 거의 모든 여성들의 운명이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된다. 키가 조금 더 크고, 얼굴이 더 예쁘고, 머리결이 부드럽고, 머리가 좋은 것 등 특별한 매력이 이 두가지 일에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님을 알게 된다. "얼굴이 예뻐야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한번만 마음주면 변치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그러나 변치않고 자기만을 향하는 해바라기성 아내에게 남자는 곧 질려버린다.

남자는 '아이'를 얻고, 여자는 '자유'를 얻고

낭만적 이상화는 사랑에 '빠진다'는 특성과 관련이 있다. 사랑에 빠지는 변화는 사랑하는 대상의 특성과 거의 관계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 남녀 모두 제 정신을 잃지만, 남자는 자신의 대를 이을 아이를 낳을 여자를 얻고, 여자는 자신의 자유를 저장할

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남성환상의 표현이기도 하다. 낭만적 사랑이라는 환상은 남성 스스로도 사랑 자체를 이상화하고 신비화하여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여성은 자신의 계급에서 자신을 상승시켜줄 남성의 사랑과 승인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된 에너지를 '좋은 남자를 낚기 위해' 쓰고, 일생의 대부분은 그 남자를 잡아놓기 위해 쓴다. 그녀의 정체성은 연애생활에 의해 결정되는 미지수이다. 사랑하는 것은 여성에게 완전한 작업이 되어버린다.

권력은 남자들 사이에서만 거래된다.

그런데 여성이 이런 사랑에 공몰을 하게 되는 것은 조건부다. 여성은 남자를 '낚는' 그녀의 능력에 따라 오는 경제적 안정성을 얻게 된다. 그리고 공적 영역에서 일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정체성은 여성에게 부여되지 않기에, 남자를 통해 대리만족을 하고자 한다. 이런 여성의 공몰은 여성을 열등하고 기생적인 계급으로 정의하는 남성지배사회가 부여하는 경제적 예측상태의 결과다. 가부장제하의 경제적 권력은 남성들 사이에 교환되며, 여성은 늘 그 교환경제에서 밀려나 있거나, 그 교환경제의 물건 이상이 아니다.

플라톤 같은 철학자는 여성은 사랑의 주체도 대상도 되지 못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남자들끼리의 정신적인 사랑만이 사랑이니까. 그런데 이 사랑은 남자들끼리의 육체를 경유한 사랑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사랑과 공적인 일은 분리되지 않았다. 그런데 근대 유럽의 중산층 경제는 이런 사실을 위장하면서 사랑과 일을 분리시켰다. 부르조아적 소망은 남성 리비도의 욕망이기도 하다. 동일성의 (타자와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가치척도에 지배되는 근대의 가부장적 경제 속에서 여성의 주체성은 부인된다. '동일성의 경제'란 말은 이성애에 기초한 사회문화구조는 실제로는 남성주체들간의 동성애적 거래에 입각함을 의미한다.

우주적 사랑을 믿더라도, 천년을 거처온 인연의 끈을 믿더라도, 전생을 믿더라도, 그 전생을 짊어진 현재의 우리는

그 전생들을 역사화할 힘을 지녀야 한다. 그 역사를

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바라보아야 한다.

다. 즉 가부장제사회에서 남성은 생산주체 혹은 교환주체가 되고 여성은 교환상품이나 생산의 터가 된다. 다시말해 실제로는 남성과 남성 사이의 (거래)관계만이 있고, 여성은 그것을 위장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이런 거래가 있고 동일성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기에 많은 경우 사랑타령들은 위장된 표면만을 보거나, 그 표면이 벗겨짐으로 더이상 유지될 수 없는 사랑의 이면을 드러낸다. 결혼하기 위한 맹세로서의 사랑과 일단 결혼한 이후 계속해서 그 사랑을 유지한다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결혼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남자가 공적 영역에서 임금노동을 하고 여자는 가정일을 돌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일단 연애가 결혼으로 정착되면 열정적 사랑의 요소는 사라지고 일상만이 남는다. 그런데 중산층 문화는 계속해서 낭만을 강조하고 열애를 강조한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좀더 자유로운 남성들은 열정적 연애를 할 대상을 찾거나, 섹스가 결부된 대상을 찾아나선다. '정숙한' 아내를 한편에 두고 다른 한편에 애인(혹은 매춘부)을 두는 이중생활을 하게 된다.

이렇게 중산층의 가족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사랑이 의문시된다. '영원한' '영혼의' 사랑을 강조하는 낭만적 사랑의 꿈의 문제점도 지적된다. 낭만적 사랑이 전제로 하는 이성애와 일부일처제를 문제시하고, 섹스가 배제된 연애, 순수한 사랑이 문제시된다. 따라서 섹스가 포함된 새로운 사랑이 등장하게 되었다. 남녀의 육체관계를 통해 재생산을 하는 가정을 구성하기 위해서 연애가 존재하고, 여성을 그 가정의 노예로 들어앉히기 위해서 낭만적 사랑이라는 장치가 이용되는 그런 현실이 가려져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런 가려진 가면을 벗기기 위한 하나의 몸짓이 섹스와 육체의 강조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전의 사랑은 결혼을 통해

서만 섹스와 연결되었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자 하는 움직임이 생긴다.

우리 사회에서 포르노 논의는 성에 대한 관심과 함께 시작되었다. 포르노그래피의 논의가 제기되는 것은 낭만적 사랑에 기초한 사회구조와 연관된다. 실제로는 육체와 섹스가 결부되어 있음에도 그것이 배제된 사랑만을 강조하는 위선에 대한 반발과,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사회구조를 거부하는 몸짓이 포르노에는 존재한다. 또한 일부일처제뿐만 아니라 일대일의 섹스 즉, 한 사람과의 섹스라는 물도 깨는 것이 포르노다.

포르노는 포르노로서의 특성을 가진 특수한 장르다. 발레나 오페라가 고유의 형식과 기법이 있듯이 포르노도 그렇다. 포르노 속에서는 여성이 남성 성욕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남성폭력의 한 형태로 포르노를 바라볼 수 있지만, 최근에는 포르노가 여성에 의해 제작되어 여성의 시각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남성이 아닌 여성의 성적 환타지를 표현할 수 있는 장르로도 바뀔 수 있다. 그래서 포르노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는 보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포르노의 세계 또한 여성이 처한 현실을 배제할 위험성이 있다. 대부분의 포르노가 우선 남성 성욕과 남성의 환타지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섹스만이 존재하는 포르노의 세계는 여성현실을 가리거나, 여성현실을 외면하는 장르가 될 수 있다. 포르노는 시간과 공간 속의 역사적 현실을 제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원한 사랑을 강조하는 낭만적 사랑이 여성의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장



70년대와 90년대는 서로 상통한다. 역사과잉과 의식과잉의 80년대를 보낸 후 그 후유증처럼 등장한 90년대의 시발은 사실상 70년대에 있다. 90년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70년대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왜 최인호와 장정일이?

최인호는 해방둥이 작가다. 식민시대의 유산을 안고 있지 않은 순수한글세대의 첫 대표주자로 일컬어지며 베스트셀러 작가로 부상한 그는 70년대 소설의 상징이다. 반면 최근 '내게 거짓말을 해봐'로 포르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장정일은 성담론이 부상하고 있는 90년대 문학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작가다.

최인호와 장정일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시대적 텍스트로 읽힐 수 있는 작가들이다. 또한 이들은 한쪽에 선 열광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단아 취급을 받는 즉 어떤 관점에서건 논란거리를 제공하는 작가라는 공통점을 지니기도 한다. 그만큼 대중적이면서 또 당대의 시대문화, 정서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작가인 것이다.

90년대에 등장한 장정일은 작품은 둘째 치고 그의 이력 자체가 문단의 이단이다. 그는 중졸학력으로 재도권 문학교육도 받지 않았으며 따라서 문단의 각종 연줄과 무관하다. 소년원 경험이 있는 그가 이번엔 작품 때문에 그것도 음란물 포르노작가라는 꼬리표를 달고 실정법 위반 범죄자가 되어 감방에 갔다(지금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중이다).

최인호와 장정일은 또 소설을 쓰는 문인이면서 자신의 작품이 가장 많이 영화화된 작가라는 공통점도 지닌다. 최인호는 70년대 대중문화에 대한 그의 넘나들기로 '대중적'이라는 수식어에 대해 경멸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순수문학인들로부터 질시어린 의심을 받았었다. 최인호의 70년대 소설은 소설을 벗어난다. 그는 고답적으로 나뉘어져 있던 혹은 서로 다른 세

대에 존재했던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의 경계선을 조롱하고 허물고 넘나들며 당시 막 형성되기 시작한 어떤 문화기류를 '70년대 문화'라는 고유명사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소설, 영화, 대중가요를 포괄하는 그의 영향은 최인호라는 이름을 70년대 스타일의 브랜드네임으로 만들었으며 통틀어 70년대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지금도 젊은이들은 청바지를 입고 맥주를 마시며 자신들만의 음악에 열광하고 그리고 밀리는 목소리로 '꼭 거안아 주세요(어법은 달라졌을까?)'라고 말하는 경아와의 사랑(결혼이 아니다)을 꿈꾼다.

70년대는 또 기성세대와 주류문

화에 대항

하는 세력

으로서의 청년문화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 문화주도권의 세대교체 혹은 세대간의 문화전쟁을 예고한 시대였다. 또한 70년대는 권력과 제도, 문화에서의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던 기성세대로부터 대중문화 부문이나마 확실하게 주도권을 탈환해온 첫 세대이기도 하다.

90년대 들어 현재형으로 통용되고 있는 문화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문화현상은 70년대부터 붐을 이루기 시작했다. 70년대부터 젊은이들은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기 시작했고 명동, 종로 등의 거리에는 오비스케빈, 피넛브로이 등의 생맥주집이 생겨났으며 통기타 포크송 세대가 등장해 대중음악계를 일신했고, 너도 나도 귀가 멍멍한 음악에 묻혀, 혼돈 속에서 자유를 꿈꾸며 환각의 조명 아래 몸을 흔들었다.

우리는 각기 70년대와 90년대를 대표하는 최인호와 장정일을 이번 특집 『남자들의 사랑이야기』의 텍스트 분석 대상작가로 선정했다. 결국 최인호와 장정일을 이해하는 것은 곧 우리 사회의 70년대와 90년대를 이해하는 지름길이며 동시에 이 두 작가는 각기 그 시대와 사회의 본질을 드러나게 하는 열쇠와 같은 존재

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시대와 침해하면서도 긴밀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이 두 작가의 작품에 대해 페미니즘의 색안경을 들이대는 작업이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것은 곧 70년대와 90년대 문화현상에 대한 페미니스트적 점검을 의미하기도 한다.

최인호 『사랑의 기쁨』

『사랑의 기쁨』은 작가 최인호가 1995년부터 모일 간신문에 연재했던 소설을 단행본으로 묶어낸 작품이다. 최씨는 이 책의 머

리말에서 "작가들의 최

대의 꿈은 뛰니뛰니해도 가

장 아름다운 로망의 소설을

쓰는 것이다...『사랑의 기

쁨』 역시 아름다운 사랑이야기, 즉 로맨스를 쓰고 싶다는 것이 내 처음의 창작의도였다"고 밝히고 있다.

70년대를 풍미했던 그의 출세작 『별들의 고향』에서 못 남성들의 영원한 연인 '경아'를 창조해냈던 작가는 이 작품에서 장유진과 김채희라는 두 모녀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다. 언어의 연금술사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들으며 70년대식 사랑이야기를 독점했던 작가 최인호, 작가로서 원숙한 나이라고 할 수 있는 50대의 나이에, 필생의 로망을 쓰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쓴 『사랑의 기쁨』에서 그가 그리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 작품의 두 여주인공 중 한 사람인 장유진은 이혼한 여성이다. 이 소설은 유병암으로 사망한 엄마(장유진)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미완성의 편지를 보고 엄마의 옛 연인을 되찾아가는 딸(김채희)의 회상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전체적으로 엄마의 짧은 결혼과 단 한번의 사랑, 아버지를 버린 엄마에 대해 거식증과 남성편력으로 복수하는 딸의 불화, 그리고 이루어지지 못한 엄마의 사랑을 찾아가서 깨닫게 되는 모성의

사랑을 주요 일개로 하여 전개된다. 각 인물이 겪는 에피소드별로 결혼, 이혼, 성, 낙태, 모성 등 남녀의 사랑에 얽힌 작가의 사랑관이 드러나 있으며 그의 메시지는 주로 여성독자를 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소설에서는 딸 채희도 남성편력을 거쳐 이혼하게 된다. 두 모녀 모두 이혼을 겪지만 작가는 딸의 이혼과 엄마의 이혼을 다르게 그린다. 엄마의 이혼은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지만 딸의 이혼은 그녀 자신의 혼전관계에서 기인한다. 채희는 임신 7개월만에 아이를 자연유산하게 되는데 의사는 그것이 혼전의 잘못된 낙태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채희와 엄마를 구별시키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들의 남자관계이다.

대학시절 만난 첫 남자, 유부남교수에 대한 채희의 고백을 들어보자. "내가 그 남자를 사랑한 것도, 그 남자에게 처녀를 준 것도, 그 남자에게 중독되었던 것도, 그 남자의 아이를 뱀 것도, 아이를 지운 것도 모두 엄마에 대한 증오심 때문이었다. 난 엄마에게 복수를 하려했던 것이다."

엄마에게 복수하기 위해 남자를 전전하지만 결국 남자에 대한 혐오감만 갖게 되는 채희의 행동에 대해 작가는 자해현상이라는 설명을 제공한다.

채희, 90년대판 경아

"사랑도 없이 남자들을 사귀고 사귀 때마다 몸을 쉬고 뚜렷한 성적 쾌락도 없이 성에 탐닉하고 결혼식을 올리지도 않고 민섬과 동거생활을 하고 마침내 헤어져 이혼하게 된 것도 일종의 자해현상인 것이다. 자해증에 걸려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자살하려 했던 채희가 거식증 대신 선택한 자살의 방법은 바로 그러한 남자에의 편력이었다."

남자를 전전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지만 혼전낙태경험으로 인해 결혼이 깨어지게 되고 또 자해현상(자살)으로 운명에 대응하는 채희는 최인호의 또 다른 사랑 이야기 『별들의 고향』의 경아와 놀랍도록 닮은 꼴이



다. 경야도 혼전낙태가 밝혀져 만준과의 결혼이 깨지고 자살로 생을 마감치게 된다.

70년대에 탄생한 경야가 호스티스였던 데 반해 90년대에 탄생한 채희는 그림이라는 전문직을 가진 커리어우먼(?)이다. 그러나 최인호의 작품에서 호스티스나 화가라는 직업의 차이는 영문학강사와 번역가라는 엄마, 유진의 직업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별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어머니의 이혼

장유진이 이혼하게 된 이유는 신혼 2년만에 임신과 함께 발생한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다. 의사였던 남편은 아내의 출산 후 자궁이 정상으로 회복되기까지 1년여 동안(출산한 자궁이 1년여 동안 비정상이라고 어디에서 배웠더라?) 부부관계를 할 수 없었는데 그 공백기간 동안의 섹스충동을 병원에 데리고 있던 간호사를 통해서 해소했다는 변명이었다. 간호사가 남편의 아이를 가졌으며 그 아이를 낳아 기르려하기 때문에 고백을 하게 된 것이다. 유진은 남편의 부정을 용납하지 못하고 이혼한다.

작가 자신이 기원전과 기원후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가톨릭 귀의(1987년) 이후 나온 이 작품에

서는 종교의 흔적과 영향력이 곳곳에서 느껴진다. 가톨릭에서 이혼이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이쯤에서 상기해보는 것이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3년의 짧은 결혼생활 이후 30년의 대부분을 혼자서 살아온 유진은 평생동안 '강박관념'을 안고 살았다.

"유진은 세상이 무서웠다.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남편에 대한 적의는 세월과 더불어 잊혀져갔다. 그러나 못을 빼도 못자국은 남아있듯 그 후유증은 여전히 가슴 한가운데 남아 있었다. 남들이면 쉽게 할 수 있는 일들, 일테면 휴즈가 끊어지거나 수돗물이 새거나 세금고지서가 잘못되어 날아와 관공서를 오고갈 때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길을 물어 물어 찾아갈 때, 이가 아파서 치과를 찾아갈 때, 그런 하찮은 일에도 유진은 세상이 무섭고 늘 허둥허둥대고 있었다."

작가는 유진의 강박관념을 남편과의 이혼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한다. "실수해서는 안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하루하루의 일상사가 유진에게는 전쟁이었으며 총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곧바로 전쟁에 투입된 소년처럼 유진은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필사적으로 싸웠다. 유진이 그렇게 된 것은 남편이었던 현우와의 헤어짐 때문이었다."

30년을 영문학 강사와 번역가로 스스로 돈을 벌며 혼자서 세상과 부딪치며 살아온 독신녀에 대한 설명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묘사다. 여성들이 이혼을 하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경제력 때문이며 이혼후 일상에 대한 무능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남성들이다. 그들은 아내가 없으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이혼후 곧바로 재혼에 들어가고 여성들은 혼자서 사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 작품에서 유진의 이혼은 모든 불행의 원죄처럼 작용한다. 유진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강박증을 안고 산 것도 그녀의 이혼 탓이며 단 한번 사랑한 남자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결국은 그녀의 이혼탓이

다. 아팼고 헤어진 엄마를 용서 못하고 거식증에 걸리는 딸도 엄마의 이혼이 그 이유이며 엄마에게 복수하기 위해 남성편력을 일삼는 딸의 방황도 엄마의 이혼 때문이다. 여자의 이혼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남은 인생 전체의 전쟁(세상과의 전쟁, 자식과의 전쟁)을 의미한다. 작가의 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그러나 이 책을 읽는 여성독자들이여, 행여 이혼일랑 꿈꾸지 말아라!"

사랑중독증과 모성의 승리

여자의 운명을 가르게 되는 남자관계에서 작가는 그녀의 성관념을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로 사용한다. 작가는 이 작품 속에서 직접적인 발언을 통해 남녀간의 성과 사랑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그에 따르면 여자의 인생에 있어 성은 미끼이며 사랑의 무덤으로 안내하는 질병이다.

"성의 자유를 부르짖고 성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육체의 찬탄은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무덤을 의미한다. 성은 쾌감을 미끼로 한 그 감각적 마비와 최면 현상으로 인간을 사랑이라는 착각 속에 무덤으로 향하게 하는 치명적인 병원균인 것이다."

남성편력을 일삼은 채희나 이혼후 단 한번의 사랑을 한 유진의 경우에서나 남녀간의 성을 매개로 한 사랑현상은 모두 중독증으로 표현된다. 최현민교수에게 보낸 유진의 편지는 단 하룻밤의 정사로 사랑에 중독된 자신을 마약중독자나 알콜중독자에 비유하며 그 중독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고백한다. 그러나 유진은 결국 모성의 사랑으로 남녀간의 사랑의 유혹을 물리친다.

"저는 하나의 여성이기 이전에 한 엄마였음을 잊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인생이라면 채희는 저에게 있어 신성입니다. 제가 채희를 떠난다는 것은 신성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 작품에서 자식에 대한 사랑과 남자에 대한 사랑

은 대립적으로 존재하는 양자택일의 관계이다. 작가가 여성에게 부여한 남자와 자식에 대한 두가지 사랑법은 함께 공존할 수 없으며 그중에서 우월한 것은 모성의 사랑이다.

여기서 작가는 채희의 치유를 통해 모성의 승리를 선언한다.

"채희는 엄마의 편지를 읽으며 뭔가 따뜻한 강물 같은 것이 공허한 마음의 계곡 사이로 스며드는 것 같은 충만함을 느꼈다. 그 무엇으로도 사라지지 않던, 술을 마셔도, 그림을 그려도, 섹스를 하고 쾌락에 잠겨도 치유되지 않던 마음의 상처가 씻은 듯이 나은 것 같은 마음의 충일감을 느꼈다."

엄마가 사망하기 전까지 채희의 모든 행동(거식증과 남성편력)은 엄마에 대한 복수심에서 기인했다. 그렇다면 최교수를 버린 엄마의 행위를 통해 채희가 치유를 느끼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채희는 "엄마의 편지를 통해 내가 깨달은 것은 엄마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수 있는 한 인간이라는 자각"이라고 말하며 바로 그것이 '사랑의 발견'이며 '사랑의 신세계'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은 자식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모두 엄마의 탓이라는 모성에 대한 과중한 기대감에서 나온다.

엄마의 연인: 금욕주의자

많은 자식들이 어머니를 개별적 인간으로 보지 못한다. 자연히 어머니를 한 사람의 여자로 보는 것도 불가능하다. 자신의 존재가 엄마의 사랑과 인생을 파괴시켰다는 사실의 확인은 딸을 치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상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그 상처(자신이 어머니에게 입힌 상처)를 보상할 길 없이 엄마는 이미 죽어버렸다. 채희는 자신이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이기적 깨달음보다는 자신이 바로 자기를 낳은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파괴한 존재였다는 철학적인 회한의 질문을 던져야 마

망하다.

작가는 "모든 여성은 죽지만 엄마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하며 여성의 존재이유를 모성애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모든 여성은 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여자이고 또 어머니이기도 하다. 시기적으로 또는 단계적으로 어느 한 단면이 부상되어 나타나기도 하지만 여성에게 그 모든 존재는 언제나 뒤섞여서 공존하고 있다. 여성은 그 모든 것이며 그것은 딸이나 어머니나 마찬가지로의 것이다. 그러나 남성들은 언제나 여성을 분리시켜서 이해하고 분리시켜 경험한다. 이 작품에서 작가 최인호는 바로 그와 같은 여성의 본질을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반복함으로써 여자들을 등장인물로 한 남자들의 사랑이야기를 쓴 것이다.

그러면 작가가 모성의 사랑 외에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실체는 어떤 것인가? 장유진은 30년을 혼자 살았으면서도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아왔다고 굳게 믿었으며 그 이유는 단 한번의 사랑 때문이다. 유진이 사랑한 최현민교수는 첫사랑과 헤어지고 다시는 여성을 보지도 않으려 했던 독신교수이다. 여성에 대한 그의 태도는 금욕주의적이며 종교적 색채가 강하다. 작가는 신부의 강론을 통해 최교수의 여성관을 드러낸다.

"성프란시스코는 자기 어머니 이외의 여인은 쳐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부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처도 제자들에게 여인을 보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한 제자가 '이미 보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묻자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보았으면 더붙어 말하지 말라.'"

이 작품에서 엄마의 단 한번의 사랑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대로 '메디슨카운티의 다리'를 연상시킨다. '메디슨카운티의 다리'에서도 자식들이 사후에 유품으로 엄마의 단 한번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엄마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 사랑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우리시대 최고의 베스트셀러작가로 사랑받았던 작가 최인호가 50대의 원숙한 나이에 내놓은 사랑이야기는 고작 그 자신의 20여년 전 작품인 '별들의 고향'의 변조에다가 해외에서 히트된 사랑이야기의 모티브를 차용하는 상업주의와의 결합에 불과한 것이다. 새로운 것이 있다면 거기에 종교적 색채가 가미된 것이다. 그러나 그 종교적 색채는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이 작품의 주제와 모순을 일으켜 금욕주의적인 기묘한 사랑론으로 낙착되어졌다.

'사랑의 기쁨'에서 드러난 최인호 감성의 실체는 배경음악으로 사랑의 기쁨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타고르의 기탄정리가 낭송되며 연인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별자리를 한다. 남자는 우연하게도 금욕주의적인 독신이며 여인은 단 한번의 격정적인 사랑으로 30년을 수절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 60년대식 사랑이야기를 90년대도 다 끝나는 지금 발표한 것은 최인호가 늙었다는 반증일까? '사랑의 기쁨'을 읽고 영동하게도 60년대말 인기를 끌었던 가요가 하나 떠올랐다. 그 노래는 이렇게 끝난다. "아무리 불러봐도, 과거는 흘러갔다."

『내게 거짓말을 해봐』: 거짓말 vs. 진실

작가는 거짓말(fiction)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90년대 대표적인 작가로 부상하고 있는 장정일을 교도소로 보내며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은 그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는 독자들을 재미도 감동도 없는 거짓말의 밀림 속에 던져넣는다. 그리고 그의 거짓말은 지겨울 정도로 치밀하다.

그러나 실상 작가의 거짓말은 거짓말 자체가 목적인 아니다. (어떤 작가들은 상업주의적 의도에서 거짓말 자체가 목표를 두기도 한다.) 작가의 거짓말은 의도되고 계산된 것이며 그 모든 거짓말은 그가 말하고자 하는 진실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결국 작가는 거짓말을 통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인 것이다.

그러면 장정일이 '내게 거짓말을 해봐'라는 만들어진 거짓말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진실은 무엇일까?

이 작품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진실은 성과 노동에 대한 작가 자신의 고뇌이며 그 고뇌는 극단적인 자기모멸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작가의 거짓말(작품)과 그가 드러내고자 하는 진실(성과 노동에 대한 질문), 그 진실을 담고 있는 인간육체와 정신의 한계(작가 자신의 체험)가 서로 얽히고 설켜 정글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 소설에서는 작가의 강박적 인간혐미마저 느껴져 안쓰러울 정도다. 성과 노동은 인간존재 조건의 가장 중요한 두가지 화두다. 따라서 이 작품에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두가지 '진실'을 파헤치는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하는 작가의 고뇌가 유감없이 드러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작가의 치열한 자기 고백으로 읽어도 무방하겠다.

등장인물부터 보자. 주인공 제이는 아무 일도 않고 살고자 하는 전직 조각가이며 와이는 여고 3년생으로 제이와 전화를 통해 만나고 성경험을 나누게 된다. 성을 공유하는 두 남녀 제이와 와이는 이니셜로, 파리에 서 조각공부를 하고 있는 아내와 죽은 아버지(신비지: 신격화된 아버지의 줄임말)는 제이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회적 기호로 이름이 주어진다.

이니셜이나 기호가 아닌 실명으로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와이의 정신적 어머니로 불리우는 인물 고우리와 박정희, 김일성 세 사람뿐이다. 박정희는 제이의 아버지(박정희 파벌에 들지 못해 옷을 벗게 된 영관급 육군장교)를 설명하는 데 쓰여지며 김일성은 제이의 이유없는 증오를 받는 시계이름이다. 현실 역사 속의 정치인인 박정희와 김일성은 작중인물로서가 아니라 장치로서만 작용한다. 반면 작가가 유일하게 실명으로 작명하는 성의를 보인 고우리는 이름 자체가 다의적으로 읽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가의 작위적인 의도가 가장 많이 작용하는 비현실적인 인물이다. 우리라는 이름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을 의미하는 합성인

물의 성격도 있다. 또 고씨라는 성과 함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성의 의미로 읽힐 수도 있다.

이 작품의 제목 '내게 거짓말을 해봐'는 파리에 있는 제이의 아내가 그에게 허벅지에 새겨진 와이라는 여자가 누구냐고 다그치며 한 말이다. 헤어져 있던 아내가 남편의 은밀한 부분에 생긴 육체의 변화에 대해서 추궁하며 던진 질문성 명령인 것이다. 결국 아내의 질문에 대한 작가의 답이 한편의 소설을 이룬 것이다.

신비지와 예술

그러면 제이의 육체에 문신을 남긴 와이는 누구인가? 이 소설은 3/4이 넘는 부분이 여고3년생 와이와 38세의 제이가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벌이는 성교행각으로 채워졌다. 와이는 제이를 오랫동안 괴롭혀온 신비지의 출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존재다. "제이는 신비지를 잊기 위해 와이의 음부를 빨았다." 그러나 제이를 아버지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첫 번째 공로자는 와이가 아니라 예술이었다. 그를 해방으로 처음 안내한 것은 성이 아니라 예술의 창조 즉 노동의 기쁨이었던 것이다.

"제이가 복종과 절도를 강요하던 아버지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것은 그가 무언가 자신의 손



으로 주물럭거리면서부터다. 못사람으로부터 조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그 일을 하면서부터 제이는 아버지의 명령으로부터 벗어나 차츰 그가 스스로 금지시켜왔던 것을 익히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이는 자신이 십여년 동안 만들어온 작품들이 아버지 앞에 보이는 고해체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에 대한 반란을 시도한다. 예술의 창조가 자신을 해방시켰다는 줄 알았다가 그것이 착각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은 그의 반란은 노동의 거부와 자기모멸의 형태를 띤다.

"그래서 그는 예술을 포기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절도있고 엄정한 삶의 방식에 도전하기로 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분노예술이라고 불렀다. 내 쓰레기, 내 똥 그리고 자신의 예전 작품을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새로운 작업에 착수했다. 조악하게 조악하게 조악한 방식으로 제작할 것. 그것이 제이의 방식이다."

그러나 작품 후반에서 제이는 자신의 성과 노동의 모든 동력요인의 원인으로 지목하던 아버지의 존재를 뒤집어버리며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고백한다.

"내게 아버지가 존재했는지 나는 모른다. 어쩌면... 내 똥 같은 작품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그토록 그악한 아버지가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 그래 작품을 계속하기 위해 아버지라는 악한 적을 상징하고 그것으로부터 동력을 얻고자 한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제 안다. 애초에 내겐 그 어떤 아버지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아버지 따위의 존재 없이 고독 속에 태어났다."

성과 사랑 그리고 아내

제이는 아내가 떠난 후 창작활동을 그만두고 예전 작품의 임대료와 판매수익으로 파리에 있는 아내의 생활비를 보내주고 중전의 후광으로 근근이 자기 목구멍의 풀칠과 품위유지를 한다. 작가는 "작품을 하지

않으면서부터 제이의 손맛은 여자의 신체 주무르는데 집중된다"고 설명한다. 창조의 기쁨으로 아버지로부터의 해방을 선사했던 '노동'의 손이 '성'의 쾌락(고통까지 포함한)으로 그 추구 대상과 영역을 바꾼 것이다.

"아무런 하는 일이 없는 제이는 남녀관계에 개입되는 사랑의 감정에 신경쓰는 게 싫었고 남녀관계를 섬에만 한정하고 싶어한다. 따라서 순정과 순결의 요소를 모두 간직한 여자가 버겁고 귀찮다."

제이는 와이로 인해 단 한번만에 자신의 감정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을 깨닫는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성에 대한 와이의 태도 때문이다. 물론 작가의 계산된 거짓말이지만 와이는 강간충격으로 목숨을 버린 큰 언니와 강간한 남자와 결혼을 해버린 둘째 언니 때문에 "강간당하기 전에 내가 선택한 사람과 치워버리고 싶었던 거"라고 스스로 말한다. 와이는 성문제에 있어서 여성의 피동성을 극복한 주체적인 여자로서 설정된 것이다.

이 작품에서 허구가 아닌 현실성을 획득하는 부분은 아내가 등장하는 대목이다. 아내는 이 작품의 제목을 명령하고 쓰게 했다. 파리에 온 제이에게 "당신은 너무 많은 책임을 지고 살았다"며 "이제부터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도 아내다. 결국 제이는 아버지에 대한 반란에서가 아니라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랑, 성, 자기모멸의 다른 형태인 가학 중에 이르기까지 와이와 함께 한 모든 경험이 사실상 아내와의 경험의 재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작품을 이해하는 현실적인 열쇠는 아내에게 있다.

"스무살 초반의 아내는 처음 역대가 사용되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거기에 적응하고 그것을 즐기려고 했다. 뿐 아니라 남편의 가학적인 환상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잡아두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자신의 예전 작품에 동침을 하기 시작하는 삼십대 초반이 넘으면서

부터 그의 가학증은 점점 더 심해졌다... 조각을 공부하던 아내가 파리로 떠나기로 결심한 것은 바로 그 무렵이다."

여성상의 분열

제이에게 여성은 분열되어 나타난다. 이 작품 속에서는 생물학적인 성의 대상으로서의 여성 와이(sexual woman), 사회적 관계로서의 아내(wife), 개인적 예술가로서의 우리(artist)의 세 인물로 분열된다. 그러나 아내는 그 모든 존재다. 와이는 아내의 과거이며 우리는 아내의 미래인 것이다. 과거는 와이며 현재는 한국에서의 아내이며 그녀가 파리로 떠난 순간 미래의 우리로 존재변이를 이룬 것이다.

여기서 작가가 그리고 있는 '우리'의 존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와이의 정신적 어머니인 우리는 시종일관 강하고 아름다운 여신으로 그려지며 제이에 의해 상징적으로 살해당하고도 불사조처럼 부활하는 강력한 힘을 지닌 여신 같은 존재이다. 그녀의 가장 큰 특징은 성에 있어서도 남성이 필요 없는 극단적인 여성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제이와 아내, 와이 모두가 함께 빠져있는 성의 고리에서 유일하게 제외돼 있다.

제이처럼 현실을 변형시키는 조각가 지망생인 우리는 <까미유의 아마조네스진군>이라는 작품을 제이에게 보낸다. 로댕에게 예술혼을 도둑당한 까미유 끌로델이 여성전사가 되어 선전포고를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작품은 우리의 나체가 성기모양으로 각인된 풍뎡이 나무막대에 끈들을 덮어씌우고 그것으로 스스로 파괴의식을 치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비지가 거짓말이었듯이 우리도 거짓말이다. 합성적인 존재인 우리는 현실에 없는 시간에 존재하는 것이다. "내게 거짓말을 해봐"라는 아내의 명령으로부터 거꾸로 시작된 이 소설은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온 와이의 편지로 끝난다. 리우데자네이로의 SM 클럽 '아마조네스'에서 여신으로 일하고 있는 와이가

우리에게 쓴 이 편지의 발송시간은 '미래로 부터'이다. 즉 앞으로 받기를 희망하는 편지인 것이다.

어쩌면 이 편지는 제이가 아내의 미래, 우리에게 쓴 편지일지도 모른다. 편지는 말한다. "넌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이긴 거야... 나는 네가 살아나도 조각을 다시 하게 되리라곤 믿지 않았어... 그런데 너의 첫 전시회가 열린다니 너무 기뻐... 사랑과 저주의 시간들 속에서 오직 우리만 승리했어."

어쩌면 이 작품 최대의 거짓말인 우리의 존재야말로 작가가 가장 역점을 두고 만들어낸 거짓말이며 우리의 승리 속에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진실이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 작가가 말하는 우리의 승리는 곧 아직 오지 않은 아내의 미래의 승리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없다

70년대 사랑이야기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최인호의 소설과 신세대 성운리를 대변하는 90년대 문학의 기수 장정일의 작품을 살펴보면, 각기 70년대와 90년대를 상징하는 두 작가의 여성상은 판이한 차이를 보인다. 물론 전혀 다른 문학과 작품세계를 갖고 있는 두 작가에 대한 무조건적 상호비교는 적절치 못하다.

그러나 여성인물의 묘사만을 살펴보면 두 작가 모두 여성들이 직업을 갖고 사회적인 노동을 하고 있는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는 점은 공통적이다. 「사랑의 기쁨」에서 엄마 장유진은 번역가이며 강사로 딸 채희는 화가로 등장한다. 또 장정일의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아내는 파리로 유학을 떠나는 조각가 지망생으로 와이는 여고3년생에서 대학생으로, 우리는 대학을 거부한 조각가 지망생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최인호의 여성인물들에게 직업, 또는 노동 문제는 별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최인호의 여성인물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그들의 남자관계이며 그 남자관계는 그들(여성)의 성관념으로 좌우된다.

최인호에게 있어 성관념은 결혼과 중요한 함수관계

를 지낸다. 성은 결혼 안에서만 허용되며 이혼은 원죄와도 같다. 그러나 결혼에 있어서도 남녀간의 성문제가 평등한 것은 아니다. 결혼에서의 순결은 남녀모두에게가 아니라 여성쪽의 순결을 의미하며 따라서 결혼을 하더라도 혼전관계가 있었던 여성은 반드시 그로 인해 결혼이 파괴되는 비극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여성들도 남녀간의 성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인성人性的의 사랑을 포기하고 자식에 대한 신성神性的의 사랑으로 대체시켜야 한다. 따라서 최인호의 여성인물들에게 성적인 사랑은 자식을 낳는 경우 외에는 존재이유가 없다.

반면 장정일의 여성인물들은 전혀 다른 성관념을 갖고 있는 개인으로 존재한다. 그들은 아버지를 혐오하고 증오하며 2세를 낳거나 종족보존 따위는 인종에도 없다. 와이는 여고3년생이면서 스스로 선택한 남자와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여성의 성적인 피동성을 주체적으로 극복한다. 장정일의 여성들은 강간을 혐오하며 성에 있어서 오히려 공세를 취하는 쪽이다. 여성의 성적 주체성 측면에서 볼때 육체적인 사랑의 피해자가 되는 최인호의 여성인물들과는 180도 다른 것이다.

장정일의 여성인물에서 특징할 점은 '우리'의 존재다. 그녀는 노동, 또는 예술에 가장 큰 존재이유를 두지만 제도권 교육을 거부하며 대학도 들어가지 않고 독자적으로 혼자 작업한다. 권위주의적 아버지에 대한 혐오와 부정은 장정일 문학의 중요한 포인트를 이

루며 그것은 여성인물에게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남성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성과 노동이라는 인간존재의 두가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자기충족적이며 극단적인 해결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녀를 '여신'이라고 묘사한 것은 적절하다.

감각적인 언어로 70년대를 풍미했던 최인호의 소설이 종교적(기독교) 색채를 띤 보수적 여성관의 산물인 것은 90년대 들어와 더욱 확인해졌다. 그러나 장정일의 소설은 일반적인 여성독자들을 소외불량에 걸리게 만든다. 장정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최대의 거짓말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이 세상에는 유전과 철퇴, 아내, 와이들이 득시글거린다.

장정일의 여성들이 분열되지 않고 한 존재 안에서 그 모든 고통과 쾌락, 노동과 예술을 아우르는 인간적인 존재가 될 때 여성들은 마침내 남자들의 사랑이야기 안에서 온전한 인물로 살게 될 것이다. [11]



유 숙 희

서강대학교 졸업, 뉴욕 현대컬리지 여성학 학부과정, 뉴욕 시립대 대학원 졸업, 여성학 석사, 합동통신, 민주조선일보 기자 역임, 현 문화일보 생활부 차장, 페미니즘 연극(자기만의 방)(여성문화예술기획 공연) 대본을 썼다.





이 세상에 사랑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사랑의 근원을 찾아가 보면, 그 처음에 동화가 자리잡고 있다.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의 미녀』, 『신데렐라』, 『미녀와 야수』, 『인어공주』 등은 우리시대 사람들이 꿈꾸는 사랑의 원전을 제공해왔다. 이들 동화 속의 사랑이야기는 이제 서양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세계인의 것이 되었다. 영원한 사랑, 일생을 통한 단 하나의 사랑을 꿈꿀 때, 사람들은 동화 속의 사랑을 떠올린다. 동화 속의 아름다운 처녀와 용감한 청년의 첫눈에 반한 정열적인 사랑에 매료당한다. 지순한 사랑은 그런 것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의심할 줄 모른다. 그들의 만남, 그들의 사랑에 어떤 문제가 있으리라는 것을 말이다. 어떻게 감히 의심할 수 있겠는가? 신성한 사랑의 각본을...

아름다운 공주와 용감한 왕자, 그들의 만남

그러나 지금은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라고 잘 알려져 있는 이들 동화를 다시 읽어보기로 하자. 동화 새로 읽기에서 왜곡된 사랑의 각본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가 마련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자신의 사랑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할지, 또는 새로 쓸 것인지 잠시 그 선택을 미루도록 하자.

아름다운 처녀공주들은 용감한 청년왕자를 만나 첫눈에 반해 결혼을 하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 우리는 이 여주인공들이 왕자를 만나기 전까지 삶의 파란을 겪으며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처녀들을 삶의 절곡에서 구해준 것은 그녀 자신들의 의지가 아닌 운명처럼 나타난 사랑에 의해서였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반면 동화 속 왕자들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이름이 밝혀지는 것이 구차할 정도로 그들은 한결같이 왕자라는 이름의 주인공이다. 늙음하고 잘

생기고 멋진 왕자, 용감한 왕자는 때론 백마를 타고 공주들 옆을 우연히 지나간다. 때론 처녀들의 모성을 자극하는 불쌍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기다림으로 일관한 아름다운 공주들의 옆을 결코 우연히 지나치지 않는다. 그들은 한결같이 예쁜 여자 콤플렉스를 갖고 그 아름다운 처녀들을 바라본다.

정물화의 매력과 잠자는 여성에 대한 욕망

『백설공주』와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왕자를 만나기 전 잠들어 있다. 계모가 건네준 독사과를 입에 물고 쓰러진 후 유리관 속에 누워있던 『백설공주』는 숲속을 지나가던 왕자에게 우연히 발견된다. 왕자는 유리관 속에 누워있는 공주의 아름다움에 반한다.

자신의 부모로부터 푸대접을 받은 마녀의 저주로 16살이 되던 해, 다락방 물레가락에 걸린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100년이라는 긴 잠에 빠진다. 100년이 지난 바로 그날 한 왕자가 가시덤불에 싸인 성을 우연히 지나다, 이 긴 잠을 종식시킬 것을 결심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 용감하게 성으로 들어가 공주를 발견한다. 이렇게 숲 속의 미녀는 물레가락에 걸린 지 100년만에, 백설공주는 독사과를 입에 물고 잠든 채 왕자와의 첫만남이 이루어진다. 왕자의 키스로 눈을 뜬 백설공주와 숲 속의 미녀는 왕자의 우연한 방문에서 필연적인 만남을 체험한다. 그들은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진 것이다.

‘아름다운 잠자는 공주’라는 이미지는 자기존재의 부정을 수반하는 수동적인 사랑의 모습이다. 언제라도 자신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면서, 길고 지루한 기다림의 나날들을 보낼 뿐이다. 막연한 기다림은 잠이라는 형식으로 자리잡고, 그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사랑을 얻는다. 처녀들은 남성에게 의해 다시 깨어나게 된다. 그러나 처녀의 이런 정물적인 사랑의 자세는 전반적인 남녀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고한다.

백설공주와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처음 보았던 왕자들은 이 잠든 아름답기만한 여성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욕망을 느낀다. 그들의 욕망은 너무도 강렬한 것이어서 죽었다고 알려진 이 여성들에게 키스를 한다. 잠든 여성들은 저항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느끼지도 못한다. 상대방과 감정과 감각을 교류하지도 않는다. 그들의 육체는 저항하지 않는 정물화의 매력으로 다가온다. 왕자들은 일방통행적인 욕망을 자기 나름대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정물적 매력을 지닌 잠자는 공주에 대한 왕자의 욕망을 통해 깨어있는 여자, 생각하는 여자, 말하는 여자, 똑똑한 여자들에 대한 남성의 근원적인 공포와 자신없음을 본다.

유리구두에 갇힌 처녀의 인생과 왕자의 제안

낮은 신분의 여성들이 높은 신분의 남성을 만나 사랑에 빠져 신분상승을 하는 이야기는 근대사회의 고전적인 사랑이야기가 되었고, 신데렐라 신화를 탄생시켰다.

『신데렐라』의 본명은 우리에게 알려진 바 없다.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난 후 계모와 언니들의 시중을 들며 잿더미에 묻혀살다 얻은 별명이 신데렐라였다.

어느날 왕자의 무도회에 요정의 도움으로 아름답고 화려하게 차려입고 참석했다가 왕자를 매혹시킨다. 그러나 12시가 되어 마술이 풀릴 시간에 급히 도망가다 유리구두 한짝을 남기고 사라졌다.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아 헤매던 왕자에게 선택된 후, 신데렐라는 수많은 세계여성들의 선망을 받아오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페미니스트를 중심으로 한 여론의 심각한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다. 신데렐라의 사랑의 감정은 통제된 사랑의 감정이다. 신데렐라의 사랑은 결혼을 통한 신분상승이 전제가 되지 않는 한 생기지 않는 사랑이다.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여성의 의존적 사랑, 남성을 통한 신분상

승에 눈먼 사랑이 언제까지 아름답게 보일지 두고볼 일이다.

일편단심으로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아 전국을 누비는 순정의 왕자는 신데렐라에게 한가지 뻔뻔스럽기조차 한 제안을 한다. 이제까지 자라온 너의 터전을 버리고 나의 세계로 가서 유리구두를 신고 살자는 것이다. 신데렐라는 기꺼이 이를 수락한다. 그러나 왕자를 흥분시켰던 유리구두에 자신의 발을 맞출 때, 신데렐라의 인생은 유리구두의 틀 속에 갇히고 말았다. 유리구두는 보기에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긴 인생길을 걷는 데는 끊임없는 고통을 줄 것이다. 왕자의 제안은 필시 남성에게 유리한 가부장적 틀 안에서의 제안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왕자의 제안에 가슴 졸일 이 시

유리구두를 남기고 황급히 사라진 신데렐라(위)와 왕자를 죽여야 할 수 있는 인어공주(아래).





잠자는 공주 앞에 나타나기 위해 가시덤불을 헤쳐가는 왕자(위).
목사과를 먹고 죽어있는 백설공주(가운데).
권력과 힘을 가진 야수와 아름다운 여자를 가진 벨(아래).

대의 신데렐라는 누구일까?

현신적 사랑과 감춰진 남성의 야수성

『미녀와 야수』의 벨은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처녀로 자랐다. 성에 살고 있는 야수는 벨의 현신적인 사랑으로 마술에서 풀려 벗어난 왕자로 변신한다. 야수는 전형적인 모성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 진정한 여성의 사랑을 갈구하는 야수는 벨의 모성을 자극하는 불쌍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야수는 지지분하고 거친 자신을 돌봐줄 진정한 사랑을 갈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벨을 해치려는 늑대들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벨을 차지하려는 마을남자와의 결투에서 얻은 상처로 고통받는 모습은 벨을 야수에 대한 사랑으로 이끈다.

벨의 모성애는 남성의 감추어진 야수성이 야수의 모습으로 드러난 한 남자를 향해 열려있다. 벨은 야수의 욕망을 알아채고 이해한다. 모성애의 힘으로 야수는 비로소 인간의 모습을 한다. 미녀와 야수라는 제목에도 드러나듯이 여성은 사랑을 얻기위해 첫째 아름다워야 하며 둘째 현신적인 모성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남자는 짐승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도 상관없다. 권력과 힘(싸워서 이겨야하니까)을 갖고 있으면 된다. 여자는 남자의 외모를 따져서는 안되는 것이다.

사랑에 자신의 전인생을 걸고 현신하는 벨이라는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은 누가 바라는 모습일까? 여성 자신일까, 아니면 끊임없는 보살핌과 뒷바라지를 필요로 하는 남성일까?

처녀의 자살과 바람둥이 왕자의 사랑

용궁나라의 막내공주로 태어났으나 육지세계의 왕자에게 첫눈에 반한 인어공주는 마녀에게 허를 내주는 댓가로 다리를 얻어 육지세계로 간다. 그러나 왕자의 사랑을 얻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서 사랑에 실패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 사랑 때문에 자신의 허를 가차없이 버리고 타인의 세계인 다

리를 얻은 인어공주의 자아를 상실한 사랑은 어리석게만 보인다. 인어공주에게 있어 허는 자신의 세계를 표현하는 목소리의 상징이다. 자아를 상실한 사랑의 결과를 인어공주는 예측하지 못한 것일까?

또한 인어공주가 물고기의 꼬리 대신 인간의 다리를 얻은 것도 상징적이다. 인어공주의 다리는 그녀를 인간여성으로 만드는 육체적 조건이다. 여성에게 다리란 무엇인가? 인어공주는 상체는 인간이었으나 하체는 물고기였다. 그녀가 남자와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성기를 지닌 다리의 소유가 필수적이다. 인어공주는 다리를 가짐으로써 성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여성이 된 것이다. 사랑을 위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렸지만 왕자는 인어공주를 선택하지 않았다. 복수의 칼을 들어도 보았지만 결국에는 포기하고 공기가 되어 날아가버린 인어공주의 비극적인 종말을 사람들은 숭고한 사랑으로 애도해왔다. 그것은 바람둥이 왕자들의 소원인가, 아니면 사랑의 배신에 공감하는 여인들의 한탄인가?

바닷가에서 만난 한 불쌍한 병어리 처녀에 대한 왕자의 호감은 호감 이상의 것이 아니었다. 인어공주를 사랑은 하지만 결혼은 할 수 없는 남자, 자신을 구해준 은혜에 보답하는 정략결혼을 선택한 왕자에게서 분열된 사랑의 그림자를 느낀다. 여자를 사랑했지만 그뿐, 자신이 원하지 않을 때는 조용히 사라져주기를 바라는 것은 바람둥이 왕자들의 이기적인 소망일 것이다. 인어공주는 언제까지 자신을 버린 남자에게 연연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할까?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의 미녀, 신데렐라, 『미녀와 야수』의 벨, 인어공주는 어떤 사랑을 하였는가? 그들의 사랑은 우리시대 가장 대표적인 사랑의 각본이 됐다. 첫눈에 반하여 정열적인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만이 삶의 의미가 되며, 그 과정에서 결혼신청은 남성

정찰적 매력을 지닌 잠자는 공주에 대한 왕자의 욕

망을 통해 깨어있는 야수, 생각하는 야수,

말하는 야수, 폭독한 여자들에 대한 남성의

근원적인 공포와 자신없음을 본다.

이 하고 여성은 이에 응하는 것이 예의이며, 이러한 선택의 결과는 행복 등이 그 즐거리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이 좌절되었을 때, 절망으로 기꺼이 목숨마져 버린다.

이 처녀들은 일생을 통해서 단 하나의 사랑을 받아 들일 준비를 하며 성장해왔다. 사랑 이외에 달리 추구하여야 할 다른 인생의 목표가 없다. 따라서 그 긴 기다림 끝에 얻은 사랑은 너무도 달콤하게 보이는 것이어서 그녀들이 만난 사랑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화가 정착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번쯤 생각해본다면, 이런 사랑의 각본을 따를 것인지 망설이게 될 것이다.

이 동화들은 18, 19세기 서구 유럽에서 산업사회의 등장과 함께 정착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구의 초기 산업사회란 여성에게 경제적 자립의 길이 제한된 사회였으며, 이러한 사회에서 여성은 자신에게 열려진 유일한 길인 결혼을 통해 미래를 보장받는 것에 열정을 쏟았다. 경제적 자립이 좌절된 채무성이 여성들의 결혼을 통한 신분상승 욕구, 궁극적으로 신부찾기인 남성들의 모험과 아름답고 착한 여성에 대한 소망, 첫눈에 반해 결혼에 이르는 우연성과 필연성으로 포장된 낭만적 사랑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매혹적인 사랑 이야기는 그 이후 근대사회를 지배하는 하나의 시나리오로 많은 사람들의 삶과 사랑

의 형태에 영향을 끼쳐왔다. 물론 공주노릇이 쉬운 것은 아니다. 아름다운 그녀들은 사랑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 왕자노릇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그들은 높은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용맹스러워야 하고 게다가 잘생기고 매너도 좋아야 한다. 아직도 동화 같은 사랑을 꿈꾸는 사람들의 '순진한 소원'이 좌절되지 않으려면, 여성은 자아상실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남성은 능력을 획득해야만 가능한 일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바로 현재의 우리사회를 보면, 젊은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활동에의 욕구가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 그리고 일과 사랑을 별개로 생각할 줄도 알게 되었다. 자신을 버리고자 하는 인어공주에 대한 마녀의

경고에 주목한다면, 그 속에서 여성적 지혜의 목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그건 어리석은 것이야." ■



김 현숙

성장과정을 통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을 인생의 좌표로 받아들였다. 지금 나에게 있어 진리는 페미니즘이며, 그 페미니즘이 나를 자유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현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센터에서 국인이 주는 세금으로 일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나의 탐구와 방향조차도 그들의 충고를 결코 잊지 않으려고 한다

웃자!

오해/직장여성

여사직원 책상 위에 가족사진이 있으면,
— 흥! 직장보다는 가정이 우선이라는 거겠지.
책상 위를 어질러놓은 것을 보고,
— 틀림없이 조직적이지 못한 산만한 성격이야.
동료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 집답이나 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자리를 비웠을 때,
— 뻔하지, 또 화장 고치러 갔을 거야.
사무실 안에 없을 때,
— 또 소풍하러 간 거야.
상사와 점심을 들고 있을 때,
— 깊은 관계가 틀림없어.
부당한 처벌을 받았을 때,
— 어디 가서 또 울겠군.
결혼할 때,
— 임신하면 직장 그만둘 걸.
아이를 갖게 되면,
— 출산휴가로 회사가 돈에나 버리지.
업무차 출장을 나갔을 때,
— 남편이 가만히 있나?
더 좋은 다른 직장으로 옮길 때,
— 여자들은 도대체가 믿고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오해/직장남성

남사직원 책상 위에 가족사진이 있는 것을 보고,
— 아, 참 마음직하고 책임감있는 가정이군.
그가 책상 위를 어질러놓은 것을 보고,
— 그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바쁘기도 하겠지.
그가 동료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 요즘 추진 중인 계약문제를 토의하고 있겠지.
자리를 비웠을 때,
— 회의에 참석중일거야.
사무실 안에 없을 때,
— 고객과 만나고 있겠지.
상사와 점심을 들고 있을 때,
— 출세하겠군.
부당한 처벌을 받았을 때,
— 화 좀 났을 거야.
결혼할 때,
— 좀 더 안정되어 일을 잘 하겠군.
아이를 갖게 되었다면,
— 월급을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업무차 출장을 나갔을 때,
— 그의 경력에 보탬이 되겠는 걸.
다른 직장으로 옮길 때,
— 좋은 기회를 잘 포착하는 안목이 있단 말이야.

여자의 사랑

여성작가의 소설에 담긴 섹스와 사랑 그리고 결혼

송경아와 김별아를 중심으로



여성들은 성과 사랑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여성의 성에 대한 적나라한 드러내기로 주목을 받았던 두 명의 여성 작가를 집중 분석했다. — 편집부



사 랑을 믿지 않는 시대이지만 연애는 여전히 주요한 문학적 주제이다.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젊은 여성작가들은 연애하는 남녀관계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을까? 이들은 예전처럼 남녀간의 사랑을 낭만화하거나 이상화하지 않고, 섹스와 사랑과 결혼을 동일시하지 않을 것 같다. 무엇보다 이제 남녀관계에서 여성은 더이상 수동적인 성적 대상이 아니라 섹슈얼리티와 사랑의 주체로서 새로운 성의식을 추구하고 생활에서 실천하는 변화를 보여줄 법하다. 그럴 때 부각되는 것은 주인공의 성별에 상관없이 사랑의 육체적이고 성적인 측면일 것이다.

90년대 초반에 나왔던 여성문제 소설들은 남성의 성적 방종과 억압성을 항의하고 타파하기 위하여 가부장적 남성세계와 대결하는 구도를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남녀간의 섹슈얼리티 문제나 사랑과 결혼에 대해 다분히 부정적인 경향을 띠기도 하였다. 이제 가부장제 사회의 성차별적 편견이나 억압에 대해 어느 정도 의식화된 시점에서 제도화된 성의 구분을 넘어서는 좀더 성숙한 인간적 친화감을 바탕으로 섹슈얼리티를 간파하지 않는 여성의식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작품들이 나올 법하다.

이런 맥락에서 송경아의 단편소설 모음집인 『성교가 두 인간관계에 미치는 문학적 고찰 중 사례연구 부분 인용』(여성사 간)이나 김별아의 장편소설 『내 마음의 포르노그래피』(도서출판 담게 간)는 성관계의 직

설적인 묘사를 통과하려고 하는지도 모른다. 작품 제목에서부터 남녀관계에서의 성적 행위가 표면에 떠오르는 선정적이고 도발적인 이 작품들은, 몇몇 우리시대 남성작가의 작품들이 그렇듯 또하나의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외설에 머물고 마는가? 아니면 새로운 차원을 획득하는가? 이런 의문을 풀어보기 위해 송경아와 김별아의 작품세계에 나타난 연애와 결혼을 중심으로 이들이 제시하고자 하는 새로운 성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순결 이데올로기의 빙장을 풀고

남녀관계에서 여성의 자유로운 성의식을 억압해온 것은 바로 여성의 순결에 관한 가부장제 사회의 이데올로기였다. 이 순결이데올로기야말로 여성의 성숙과 인간화를 막아온 가장 집요하고도 커다란 족쇄였다. 그런데 송경아와 김별아의 작품에 나오는 여성인물들은 순결이데올로기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우선 송경아의 『성교가...부분 인용』은 사랑하는 남자가 처음 성관계를 맺을 때의 망설임, 초조, 불안, 허전함, 어색하고 얽히는 듯한 감정을 중심 주제로 실감나게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의 1부에 나오는 여성화자의 말처럼, 예전에는 여성이 순결을 바침으로써 평생이 보장되고 재수가 좋으면 애정까지 얻을 수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 이런 변화된 현실을 바람직하게 보면서 이 여성이 오랜 망설임 끝에 상대남성이 원하는 성관계를 맺기로 결심하는 것은 딸의 순결을 무슨 지고한 가치인 양 사수하려는 "그 빠져나가는 곳 안보이는 엄마의 본능에서 벗어나고 싶은 몸부림" (24)에서였다. 그러므로 여성화자가 자신의 성에 대한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고 책임지려는 것은 가부장제 사회의 순결 이데올로기에 개입된 남성중심적인 권력관계에 저항하는 몸짓이기도 하다. 『내 마음의 포르노그래피』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가고 있는 여성화자 역시 미

래에 대한 남자의 약속이나 사랑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주체적인 결단과 선택에 의해 첫 성경험을 하며 그때의 어색하고 어수선했던 감정을 솔직하게 밝힌다.

여성주인공들의 이런 성의식에 비해 가부장제 사회가 유지해온 순결이데올로기의 벽은 남성들에게서는 굳건하다. 송경아의 『성교가...부분 인용』에 나오는 남성화자는 상대여성의 순결을 갖기 위해 여관비를 지불하느라고 자취방세를 내지 못하여 비오는 거리를 헤매는 대가를 치른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그는 상대 여성을 자신의 포로로 만든 데 자부심을 느낀다. 동시에 그는 서로 책임질 게 없다고 다짐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오래된 전통과 책임의식" (36)이 불끈불끈 일어나는 것을 느낀다. 『내 마음의 포르노그래피』에서 여주인공이 순결을 바친 운동권 남성은 그녀에게서 혈혼이 나오지 않았다고 그녀를 사정없이 욕한다. 이전에 여성주인공의 여고시절에 남학생과 가출한 여학생들에 대한 선생들의 비약된 예상과 모독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이다.

섹스와 사랑

그녀는 그때와 찻자국 때문에 자신의 육체와 마음의 자존심을 짓밟힌 모욕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깨진 물그릇처럼 포기하고 체념에 빠지지 않는다. 그녀는 주체적인 판단에 따라 남성과 자유롭게 맺은 성관계를 "어차피 한번은 거쳐야 할 통과례"로 여기고 "내 마음의 처녀막을 찢어버린 데 대한 후련함"을 느끼며 오히려 새로운 의욕과 책임감을 갖게 된다. 여기서 그녀는 순결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 도달한다. "순결은 내게 애초부터 있지도 않았던 처녀막도 아니었고 수습 따위로 만들 수 있는 인공의 커튼 같은 건 더더욱 아니었다... 나는 결코 스스로를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더럽지도 않았다... 선택한 사랑 앞에서 언제나 처녀일 수 있었다. 그것이 내 순결이었다" (271). 이러한 자각은 여성의 진정한 성

해방과 바람직한 남녀관계를 위해 소중한 것이라고 하겠다.

앞에서 요즘 젊은 세대에겐 섹스와 사랑과 결혼이 동일시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심지어 연애관계라고도 볼 수 없는 술집에서 만난 만취한 남녀가 남자의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맺기도 한다(송경아의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물론 이들은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나쁜 사람들도 아니다. 그저 일회적인 쾌락만을 위해서라기보다 황급한 도시의 삶에 쫓기는 남녀의 외로움과 절박함 때문에 섹스를 나누



송경아



이렇게 젊은 남녀들은
청춘의 불안함과
성숙의 괴로움을 잇기 위해
상대방을 물건처럼
"내 것"으로 소유하는
절차로서 성행위를 하고
자그마한 약속들을 강요하는
관계를 연애한다고,
사랑한다고 부른다.

아래 더 이상 불안정한 청춘의 호락하고 누추한 여인과

자취방이 섹스의 무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섹스의 결과인 임신에 대한 공포로 삶을 움츠리지 않아도

5대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새로운

생명과정에서 참여하는 자존적인

여성의 정체성을 탐색할 수 있게 된다.

있을 것이다. 여자에 대해 책임을 느껴 말을 늘어놓는 기현의 걸을 오히려 여자가 표표히 떠난다.

『내 마음의...』에서 여주인공이 룸메이트인 미경의 남자와 벌인 섹스는 사랑과는 아무 상관없는, 방황과 상실감에 짓눌린 청춘의 반항과 일탈일 뿐이다. 연애한다고 믿는 여성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섹스에 임하라고, 솔직해지라는 압력이 가해질 때 "사랑이란 말은 입 밖으로 내뱉으면 뱉을수록 모퉁이가 달아 남루해지는 손때 묻은 싸구려잡지 같았다. 사랑 앞에서 솔직해진다는 것이 곧 내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는" (183) 것같이 들린다. 말하자면 한껏 자유로와보이는 요즘 젊은 세대의 연애는 그다지 절절하지도 열렬할 것도 없이 부박하기 짝이 없다. 청춘의 괴로움을 벗듯 쉽게 옷을 벗는 남자가 벌이는 육체의 축제는 오늘날 인간관계에서 근원적으로 상실해버린 것을 채워줄 수 없을 뿐 아니라 더욱 큰 허탈감만 남을 뿐이다.

이렇게 젊은 남녀들은 청춘의 불안함과 시대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 상대방을 물건처럼 '내 것'으로 소유하는 절차로서 성행위를 하고 자그마한 약속들을 강요하는 관계를 연애한다고, 사랑한다고 부른다. 송경아의 『Girl on a Date』에서 결혼하면 담배 피우지 말라고 남자는 상대여자에게 애원한다. 그리고 데이트 중의 이 여자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는 내 허락 없이는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할 나의 피조를 옆에서" (86) 기뻐한다. 이것이 연애하는 커플을 묶어주는 기본동력임을 송경아는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간접적인 소유란 별로 본뜬하지 못한 게 아닐까 하고 회의를 품는 송경아는 소유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사랑을 여성의 동성에 관계에서 탐색해 보고자 한다. 송경아가 그리는 여성의 동성에 관계는 지배와 복종이 아니라 상호이해와 평등으로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보살피며 지극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송어와 은어」의 결말 부분에서 보듯 은어를 배타적으로 갖고 싶

어하는 송어나, 누군가에게 복속되고자 한 은어로 인해 이 간절한 사랑은 현실에서 지속시킬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리고, 결혼...

송경아가 그리는 결혼이란 대체로 부정적이다. 먼저 부모의 이혼으로 말미암아 변두리로 이사해 나가는 딸의 심경을 중심축으로 한 「이사」에서는 기존 결혼관계의 와해로 인한 개인주의적 분열과 삭막한 삶의 나락을 잘 그려주고 있다. 이 분열된 삶을 끌어모을 모성적 힘을 갖지 못한 어머니는 그 모든 혼란과 고통을 딸에게 짐지우고 딸은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감행한다. 한편 젊은 세대의 결혼관계를 엿볼 수 있는 「어느 여름의 휴가」에 나오는 젊은 기혼여성 주인공은 딸에 대한 모성적 감정을 견지하면서도 도시 주부의 틀에 박힌 삶과 바쁜 남편에 대한 불만에 가득 차있다. 그러다가 휴가차 가게 된 검푸른 바닷가에서 자연이 분출하는 무궁무진한 성에너지의 자극을 받은 듯 혼외관계를 결행한다. 말하자면 기존 결혼관계는 남녀의 욕구를 충분히 채워주는 삶의 방식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내 마음의...』에서 작가는 성적 방황을 겪고 좌절과 분노를 딛고 홀로서기를 한 남녀의 결혼을 섹슈얼리티와 사랑을 조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삶의 양식으로 제시한다. 이 작품에서 결혼은 '합법적인 섹스'를 보장해주고 안전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를 바탕으로 섹스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바람직한 성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건전한 삶의 양식으로 제시된다.

물론 이렇게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까지 여주인공은 실로 여러 급기가 주는 억압,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치욕과 공포를 겪어내야만 했다. 무엇보다 결혼을 약속하지 않은 남자와 섹스를 한 소위 '몸을 더럽힌'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해야 했다.



"순결은 내게 애초부터
있지도 않았던 처녀막도
아니었고 수술 따위로
만들 수 있는 인공의 막
같은 건 더더욱 아니었다...
나는 섹스한 사랑 앞에서
안락해 질 수 있었다.
그것이 내 순결이었다"
(『김별아의 내 마음의
모노노그라피』 중에서)

이것은 남성의 성적 대상이 아니라 존엄한 인격체로서 홀로 서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여성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 도달한다. "나의 자존은 자궁이라는 넉넉하고 포근한 방을 소유했다는 것으로 인해 빛났다. 나는 남자에 의해 발견되고 파헤쳐져 개발되는 불모지가 아니었다. 나는 모체의 바다에서 세상에 밀려나오기 이전부터 이미 바다 속에서 자유로운 매혹과 관능을 배웠다. 나는 내 자궁을 더듬는 페니스 따위와 상관없이 스스로 비옥하고 풍부한 처녀지였다" (278).

이렇게 비슷한 나이의 두 젊은 여성 작가가 갖고 있는 결혼에 대한 상반된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새로운 성관계의 모색

김별아의 여주인공이 힘겹게 얻어낸 결혼관은, 여성의 행복은 결혼과 가정에 있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요하는 가부장제 사회의 현모양처 이데올로기와는 차원을 달리 한다. 무엇보다 이 현모양처는 섹슈얼리티에 대해 무지하고 수동적이며 따라서 모든 삶의 궤적에서 주체적이거나 적극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김별아는 여성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솔직하게 반응하고 상호이해와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관계에서 가능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섹스를 편안하고 즐거운 것으로 제시한다.

이제 더 이상 불안정한 청춘의 초라하고 누추한 여관과 자취방이 섹스의 무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섹스의 결과인 임신에 대한 공포로 삶을 좀먹지 않아도 되며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새로운 생명과정에 참여하는 자존적인 여성의 정체성을 탐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새로운 욕망의 에너지와 생명의식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여성의식은 와해된 도시 삶에서 지배와 억압이 아닌 모성적 보살핌과 타자돌보기라는 인간적인 가치들을 복원시키고 새로운 성관계를 구축하는 데 소중한 역할을 할 것이다. "나는 여전히 힘없이 지배당하고 모욕당하고 짓밟히며 살아갈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장 낮은 곳에 있기에, 세상이 열광하는 힘의 기준으로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기에 나는 더욱 인간적이다. 나는 가장 약하기에 세상의 낮은 곳까지도 소중히 여길 줄 안다" (282).

하지만 송경아가 잘 그리고 있듯이 '얼마가 보여주는 그 그악스런 자기 자식 생기기 본능' (24)을 어떻게 넘어서는 것인지, 그리하여 현존하는 권력관계의 그물



망 속에서 무수한 타자들을 어떻게 포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물음은 남는다. 20세기말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모도 자기를 모르며 형제도 자기를 모르며 그녀 주위의 또래들도 자기를 모르며 자신도 그들을 모르는" (송경아의 '이카라') 적나라한 분열과 고독과 해체의 문제를 어느 중산층 여성의 성공적인 결혼 이야기로 풀어나가기는 역부족일 것이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무엇보다 사랑의 불모화를 조정하는 사회역사적 현실에 대한 좀더 심도있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겪고 있는 성적 불평등과 무권력의 상태, 강요되는 성의 문제를 끌어들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대 도시여성들에게 복잡하게 중첩되어 있는 섹슈얼리티, 모성, 일 등을 둘러싼 복합적인 욕망과 의식을 충분히 포용하는 확대된 세계를 보여주는 것은 젊은 여성작가들에게 의미있는 과제가 될 것이다. □



대 해 속

호성가톨릭대학교 영문과 교수. '연애소설 어떻게 읽을 것인가', '버지니아 울프', '3기니' 등의 저서와 역서가 있다.

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젊은 여성작가들의 작품세계가 워낙 다양해서 그들을 차분하게 묶어주는 글을 쓰기가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다.

특히 송경아의 경우, 소설쓰기 자체에 대한 작가의 개입이라든가 여러 층위의 소설구성은 설익고 생경한 것 같기도 하고 집요한 필자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잘 포착되지 않았고 글로 옮겨 써지지 않았다. 최근에 나온 '아가찾기' (민음사 간)가 모성을 탐구하는 책인 줄 알고 읽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작품의 뜻을 잘 모르겠다. 아무튼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여성들의 작품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그 복잡적이고 다양한 지층들을 포괄하면서도 꿰뚫어볼 수 있는 해안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탓인지, 세대적 감수성의 차이 탓인지, 세기말 문학을 이해하기란 참 어려운 것 같다. 개인적으로 올 상반기에 책 하나를 완설하느라고 지친 탓도 있을 것이다. '페미니스트저널'이 지향하는 좀더 산뜻한 도전의식으로 대중을 휘어잡는 글쓰기를 실천하고 싶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안타까웠던 심정을 전하면서... 이만 총총.

웃자!

진짜 정치

어느날 어린 영철이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정치가 뭐야?"
뜻밖의 질문을 받은 아버지가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설명해주었다.
"정치라는 것은 우리집으로 비유하자면 이렇단다.
돈을 벌어드는 아빠는 자본가,
그 돈으로 살림을 하는 엄마는 정부,
그리고 영철이 넌 국민인 셈이지."
영철이가 다시 물었다.
"그럼 내 동생은?"
"네 동생은 앞으로 자라날 우리의 미래지."
"그럼, 가정부 누나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약간 당황했다.
"가정부? 가정부 누나는 자본가인 아빠의 돈을 받으니까 노동자인 셈이지."
그날밤,
곤하게 잠을 자던 영철은 동생의 느닷없는 울음소리에 잠이

뻑 달아났다. 아직 갸난아기인 민철이 동을 반 것이다. 영철로서는 처리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래서 엄마를 부르려고 안방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엄마는 깊은 잠에 빠졌는지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정부 누나 방으로 갔다. 이상하게 방문이 열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 보니, 아뵐까!
그 방에서는 아빠와 가정부가 한창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침날 아침,
아버지와 나란히 식탁에 마주 앉은 영철이 말했다.
"아빠, 어젯밤 진짜 정치란 게 뭔지 배웠어요."
아버지가 신봉하라는 표정을 지으며,
"그래? 그럼 그 진짜 정치란 게 뭐니?"
영철이 말했다.
"진짜 정치란 국민이 도움을 청해도 묵살해버리는 정부, 노동자를 강간하는 자본가, 동 위에서 뒹굴고 있는 우리의 미래예요."

여자의 사랑 VS 남자의 사랑

'틈새'에서 이어낸 '바라'의 몸짓

〈별들의 고향〉의 '경아'와 〈너에게 나를...〉의 '바지 입은 여자'

남자들이 만든 영화를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여성비하적이고 성역압적이라고 눈총받았던 영화의 저 깊은 틈새를 들여다보면 어떤 모습이 드러날까. 주유신과 함께 전복적인 영화읽기를 시도해본다. — 편집부



“내 손가락을 빨아봐. 너를 피먹는 것 말이야.”

이 말은 장선우의 <너에게 나를 보낸다>(1994)에서, 한 남성이 여주인공인 ‘바지 입은 여자’에게 오랄섹스를 강요하며 던지는 대사이다.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처하게 되는 ‘성적인 위치’와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 갖는 ‘성적인 환상’이나 ‘착취적인 성관념’을 이 대사만큼 훌륭하게 압축하는 말은 없다고 생각한다.

‘반여성적 텍스트’ 들춰보기

그러나 막상 주류 극영화가들 거들해서 펼쳐보이는 성담론과 성적 스펙타클들, 그리고 그안에 숨어있는 성차별이데올로기와 성적 환상의 논리들이 진지하고 깊이있게 논의되지는 않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작업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런 논의의 과정에서 동원되는 논리와 개념들이 천편일률적이라서 대부분은 동어반복에 그치고 말기 때문이다. 더더구나 성적 환상과 같은 애매하고 다중적인 의미작용을 포착해내거나 성(sex), 성별(gender), 또는 섹슈얼리티(sexuality)와 관련된 이데올로기들이 영화라는 특수성하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작동되는지는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70년대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최인호의 소설을 영화화한 이장호의 <별들의 고향>(1974)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70년대를 배경으로, 한 평범한 여성이 호스티스로 전락하고 자살에 이르는 과정을 멜로드라마적 관습에 입각해서 지극히 통속적으로 그려낸다. 그런데 이 영화는 멜로드라마

로서의 장르적 완결성을 지향할수록, 사회적 통념이나 지배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수용해서 반복하는 통속성을 강화시킬수록, 오히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처한 양면적 현실—끊임없는 탐구와 매혹의 대상으로서의 여성/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차별성—을 중후적으로 드러내고 환기시키는 모순을 빚어낸다.

예를 들어서 영화 속에서 끊임없이 강조되는 순종적이고 희생자적인 여성이미지는 텍스트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여성욕망의 최미한 기록들과 충돌함으로써 캐릭터의 ‘전형성’을 훼손시키게 되고, 이것은 텍스트 이면에서 관찰되던 남성중심적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관객들의 ‘안정적인 동일화’도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반여성적이라고 여겨지는 표면적인 텍스트 이면에서 어떻게 여성의 욕망이나 섹슈얼리티와 같은 장치들이 작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배이데올로기들이 어떻게 구조적인 모순성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장정일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장선우의 <너에게 나를 보낸다>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90년대식 담론과, 소프트포르노 장르의 성적인 말걸기(sexual address)라는 맥락 속에서 읽어볼 수 있는 텍스트이다. 장정일은 야한 농담식의 어법, 외도적으로 천박한 스타일을 통해서 우리시대의 욕망들을 한껏 조롱하고 비튼다. 그러나 장선우의 영화는 그런 식으로 바라본 욕망들을 중심축으로 하고는 있지만, 여성의 욕망과 남성의 욕망이 서로 다른 원리를 통해 형상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택되었다.

이 영화는 흥행에서도 일정정도 성공했지만, 비평적인 주목도 많이 받은 작품이다. 그러나 이 영화에 대한 대부분의 비평적 평가들은 여성의 성적 대상화, 상품논리에 철저하게 포섭된 여성이미지라는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별들의 고향>

에서 흔적들로 읽혀지는 여성주체성이, 텍스트 구성의 중심원리로 기능하면서 전면적으로 그리고 도발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어나가는 텍스트로서 이 영화를 읽어보고자 한다. 더구나 욕망이나 성적 환상과 같은 계기들이 주체성이라는 계기를 매개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복잡하고 풍부한 의미화과정이 중심적으로 고찰될 것이다.

<별들의 고향>: 남성의 욕망 사이를 떠도는 기표 ‘경아’

속된 말로 ‘남자 품을 전전한다’는 말이 있다. 이 남자, 저 남자에게 함부로 몸을 굴리는(?) 여성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나 한국 영화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식의 여성 이미지에 깊이 의존하고 있는 영화들은 한둘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흥행대작들의 경우는 예외없이 이런 여성이 겪게 되는 비극적 운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별들의 고향>의 여주인공 경아를 특별히 ‘떠도는 기표’라고 이름 붙인 것은, 삶의 실체나 역사성은 탈각된 채 남성적 욕망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고 부유하는 텅 빈 존재로서의 여성 이미지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압박증, 그 불안정함

전형적인 멜로드라마의 모습을 띠는 이 영화는 사랑, 결혼, 섹슈얼리티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의 성차별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한 여성의 육체와 삶에 각인되는가를 잘 보여준다. 영화의 이야기 구조, 이미지의 구축 그리고 공간 및 사운드의 사용 모두가 어우러져서 여성을 하나의 대상으로, 남성들의 성적 욕망과 환상의 관념적인 투영물로 구성해낸다. 그러나 이 영화는 한마디로 ‘과잉적(excessive)’ 텍스트이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무의식이 영화 전반에 걸쳐서 너무나 강박증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스스로 그 작동 논리와 모순성을 노출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성차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남성

의 지배가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가를 드러내는 지점이기도 하다.

우선 서사적 차원에서 이 영화는 경아가 네명의 남성들과의 관계 끝에 타살에 가까운 자살에 이르는 과정을 회상구조를 통해서 비연대기적으로 보여준다. 문호와의 만남과 마지막의 죽을 장면만이 현재시제를 구성하고 있다면, 나머지 사건과 행위들은 경아의 회상 형식을 통해서 화면에 제시된다. 그런데 이런 식의 이야기구조는 관객으로 하여금 경아의 역사를 관찰자적으로 지켜보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일들이 이미 과거시제의 것들이라는 점에서 경아의 비극을 당연시하게 만든다. 그 결과 이야기 속의 행위주체인 경아에 대한 관객의 동일화는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무너지면서, 관객은 전체 이야기의 이면에서 절기게 작용하고 있는 반여성적 이데올로기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별들의 고향(국)

이 글에서는 반여성적이라고 여겨지는 표면적인 텍스트 이면에서 어떻게

여성의 욕망이나 섹슈얼리티와 같은 장치들이 작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배이데올로기들이 어떻게

구조적인 모순성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한다.

이야기구조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이런 성차별적 논리는 그 공간들을 통해서 더 구체화된다. 경아의 섹슈얼리티가 짓밟히고 매춘으로 이어지는 여관과 술집은 물론이고, 부자연스러운 붉은 조명으로 표현되는 음악다방과 산부인과는 경아의 육체(치녀성 상실과 중절수술)와 운명(첫사랑의 실연, 결혼의 실패 그리고 자살)에 닥칠 비극을 예고한다. 여성의 소외되고 수동적인 위치를 재확인시키는 문호의 아파트와 만전의 저택에서 경아는 실제적인 죽음에 버금가는 상징적 죽음을 치르게 된다.

그렇다면 이야기구조와 더불어 영화를 구성하는 주요 기제인 '보기(looking)'라는 측면에서 경아는 어떻게 위치지워지는가? 영화의 도입부에서, 경아는 쇼윈도우에 걸린 옷들을 훑어본 듯이 바라보는데, 곧이어 마네킹이 입었던 옷들과 가발을 착용하고서 갖가지 포즈를 취하는 경아의 모습이 몽타주로 제시된다. 경아의 환상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 장면은 경아를 소비자본주의의 논리에 포섭된 주체로 설정함으로써 영화의 시작부터 그녀의 불행과 그녀의 욕망 탓으로 돌리게 할 뿐만 아니라, 경아라는 존재 자체를 철저하게 '보여지는 이미지', 남성들의 관음적이거나 몰신주의적 시선의 대상으로 위치지우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텍스트의 이러한 의도는 완전히 성공적이지 못하다. 우선 이 몽타주 장면은, 결혼에 대한 경아의 꿈이 좌절될 것임을 암시하는 종이가이 공중으로 흩어지는 장면이라든가, 마지막 죽음장면에서 경아가, 영석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오는 환영에 빠지는 장면 등과 더불어서 이 영화에다가 경아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환상'을 기입함으로써 부분적이나마 여성주체성의 흔적을 각인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경아가 누드 사진모델임을 하는 장면에서는, 누드모델의 전형적인 포즈로 플래쉬 세례를 받는 경아의 이

미지 중간 중간

에 머리 위로 손

을 엮고려 뻗는 여

자의 쇼트가 삽입되는

데, 그 쇼트들은 피사체가 누구인지, 카메라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선구조를 동요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화면의 본이 경아의 모습을 찍는 쇼트와 크게 다르기 때문에 텍스트에다가 이질성이라는 흠집을 내게 된다. 게다가 손을 위로 뻗는 포즈가 상징하는 저항성 때문에 수동적이고 착취당하는 누드모델로서의 경아의 이미지와도 충돌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멜로드라마 텍스트로서 <별들이 고향>이 지니는 순용성과 저항성 간의 딜레마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영화 속에서 지배이데올로기는 경아의 운명에 대해 끊임없이 논평하고 또 예고하는데, 반복성과 노골성을 특징으로 삼는 이런 식의 '과잉적' 스타일은 오히려 경아가 가부장제의 희생물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이 영화에 나오는 대사들의 많은 부분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자의 섹슈얼리티와 여자의 섹슈얼리티가 다름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고, 여성 또한 이를 당연하게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결국 경아의 타락과 죽음이, 여성에게 성적인 수동성과 열등성을 강요하는 남성중심적 이데올로기와 이것을 스스로 내면화하게 된 여성의 피학증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드러내게 된다. 더구나 여성의 순진함과 희생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지극히 서정적인 톤의 노래들¹⁾이 경아의 비극적 모습 위로 반복해서 흐를 때, 우리는 이미지와 음향 간의 극단적인 부조화를 통해서, 지배이데올로기의 작용이 얼마나 가혹하고 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별들이 고향>의 여주인공 경아를 특별히 '비

발적인 섹슈얼적 욕망과의 관계 속에서 부유하는 텅 빈

존재'로 이미지화 주목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 영

화의 압권은 영화

마지막을 장식하는 경아의 죽음 시퀀

스인데, 여기에서 이 영화의 주제

와 관련되어 중요한 두가지 사실이

발견된다. 우선 문호마저 떠난 후 경아가 술을 마시기 위해 술집 문을 여는 순간부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최후의 매춘을 하는 순간까지 모든 음향은 반향효과(echo effect)로 처리된다.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막다른 절망감에 이른 경아의 심리상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이제 완전한 타자와 이방인, 즉 마치 유명 같은 존재가 된 경아의 위치를 증후적으로 드러내게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음향적으로' 준비된 여성 주체성의 소멸은 눈위에서의 죽음으로 '시각적으로' 마감된다.

다른 하나는 이전까지 한번도 언급되지 않던 경아의 사적 공간과 가족관계가 이 단계에 이르러서야 제시된다는 점이다. 문호와 경아의 마지막 밤은 영화 속에서 처음으로 보여지는 경아의 자취방에서 이루어지고, 그날 밤 경아는 비로소 어머니와 고향 이야기를 꺼낸다. 이것은 영화 텍스트가 무의식적으로나마 경아에게 삶의 현실성과 역사성을 찾아주려 했던 처음이자 마지막의 시도였지만, 끝이 이어지는 시골 눈밭에서의 경아의 죽음은 그녀를 어머니와 고향을 상징하는 자연으로 되돌려보냄으로써 한 여성의 실존과 역사는 다시 초월적이고 신화적인 공간 속에 묻혀버리게 된다.

영화 속에서 모든 남성들의 연인, 남성적 욕망의 수신자였던 경아는 결국 한줌 재가 되어 흐르는 강물에 띄워보내짐으로써 가부장제사회라는 공간과 남성욕망의 역사 속을 영원히 떠도는 기표로 다시 돌아가고 마는 것이다.



<별들이 고향>(위)
(나에게 나를 보낸다)(아래).



1)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는 물론이고, 특히 '난 정말 몰라요 아무 것도 몰라요... 열일곱살이예요 화장도 할 줄 몰라요 사랑이란 처음이예요'와 같은 가사들.

〈너에게 나를...〉: '바지 입은 여자'의 주체성의 궤적

'소프트 포르노그래피'를 표방한 이 영화를 여성주체성의 궤적으로 보는 관점 자체가 의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두가지를 이유로 들어 이 의문에 답할 수 있다.

첫째, 첫장면과 마지막 장면의 조응관계에서이다. 첫 신의 끝에 나오는 대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바지 입은 여자의 모습과, 마지막 신에서 보이는 자동차 뒷좌석에 앉은 그녀의 모습은 서로 다른 두가지 주체위치를 나타내고 있고, 양자 사이의 이행과정이 텍스트를 구성한다.

둘째, 영화 중간중간에 나오는 자막들이 설정하는 주체위치이다. 물론 자막에 나오는 글들은 결국 소설가가 쓰는 도색소설의 일부임이 밝혀지기는 하지만, 대체로 객관적 시점에서 전개되는 이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특정한 주체위치, 즉 지극히 성적인 내용의 언술 주체로서 바지 입은 여자를 상징하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그녀의 그러한 위치와 동일화하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나 이러한 동일화 과정은 애초부터 모순성을 안고 출발한다. 왜냐하면 자막은 그 외설적이고 파격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영화 시작부터 관객들에게 바지 입은 여자를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삼는 관음증적이고 공모자적인 위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바지 입은 여자의 일관된 '욕망'

우선 첫째와 관련해서, 이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전반적으로 주체위치의 끊임없는 가변성을 보여준다. 소설가는 신춘문에 당선 작가에서 표절 작가로 그리고 도색소설 작가로,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여자의 가방모찌이자 운전수로 자리바꿈한다. 은행원은 평범한 직장인에서 포주로 그리고 작가로 변신한다. 바지 입은 여자는 공순이에서 시인으로, 매춘부에서 CF와 영화스타로 출세(?)한다. 이것은 물론 앞서 지적했듯이 포스트모던시대의 욕망이 보여주는 저열함과 천박

성 그리고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이 글에서는 주체위치의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이 욕망들이 어떻게 성차에 따라 달라지는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필자가 생각하건대, 이 영화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일관된 것은 그녀의 욕망이고, 따라서 영화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그녀가 남성들의 욕망과 맺는 관계이다. 오프닝 시퀀스에서 대문의 외부에서, 그 프레임에 갇힌 채로 내부를 응시하는 그녀의 이미지는 남성의 욕망과의 관련 속에서만 의미를 부여받는 수동적인 것으로, 가부장제에 의해서 강요된 '타자'의 위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치는 영화에서 점차 상승, 발전되어 나간다.

영화 마지막에 차창 유리를 통해 보여지는 그녀의 모습은, "유리 표면, 반사 선글래스는 이야기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눈을 볼 수 없게 함으로써 그 타자에 대하여 어떤 공격성과 위협을 발휘한다"는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의 말은 물론이고, "반사체제 자체가 지니고 있는 공격성"이라는 페미니스트 영화이론가 제클린 로즈(Jacqueline Rose)의 명제를 빌어 본다면, 분명히 시각적 지배성, 사회적 우월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두가지 위치 사이에서 그녀는 부단히 움직이고 영화는 진행된다.

그녀의 욕망은 남성들의 '억압된' 욕망과의 관련 속에서 움직인다. 즉 그녀의 욕망은 소설가의 문학적 성취에 대한 욕망, 은행원의 일상탈출 욕망, '오만과 자비'의 유사 정치적 권력에 대한 욕망은 물론이고, 세 사람 모두의 성적 욕망들과의 상관관계 속에 놓여진다.

우선 소설가의 욕망은 스스로도 진실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문학을 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표절 작가와 도색소설 작가에 머물고 만다는 점에서 진실하지 못하다면, 은행원의 욕망은 영화 〈보리와 클라이드〉에서 영감을 받은 환상, 환각제를 통해서 추구되는 환

상, 그리고 스스로가 조롱하는 베스트셀러라는 가치에 입각한 욕망이라는 점에서 역시 현실과의 조우나 진실된 가치와는 대립적이다. '오만과 자비'의 경우 역시 지배권력과 다를 바 없는 파시즘적 폭력과 현실 순응적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가치로 제시된다.

반면에 그녀의 욕망은 비록 '미니스커트'라는 형태로 일관되기는 하지만 결코 '고착'되어있지 않아서 마치 감독인 장선우가 〈화엄경〉에서 전달하려 했던 수행과 열려있음의 경지로 나아가고, 실질적인 '사회적 권력'을 획득함으로써 어느 정도 그 현실성과 유의미성이 입증된다.

그녀의 '욕체'가 갖는 몇가지 의미들

그런데 이러한 욕망의 전개과정과 상호관계를 가장 핵심적으로 기록해내는 것은 그녀의 욕체이다. 여기에서 여성의 욕체는 욕망과 무의식이 무한히 전치(displacement)되는 장이자, 심리적 외상이 물리적으로 기록되는 장으로서 기능한다. '오만과 자비'에게

정신적으로 모욕

당하고('내가 이

런 책을 읽는 것

은 지적인 콤플렉

스 때문이다') 욕

체적으로 능멸당

한(강제적인 항문성교) 후에 그녀가 '거식증'이라는 정신병에 걸리고, 미친 듯이 책에 집착했던 것은 그녀의 욕체가 남성들의 담론을 받아내고 이를 물리적으로 재현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거식증은 섹슈얼리티와 욕체에 대한 기존의 담론들, 즉 능동성과 욕망을 남성에게 할당하고 수용성과 수동성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현실에 대한 '욕체적 거부'를 함축한다. 또한 책(지식)에 대한 그녀의 집착은, 거식증 때문에(푸코식으로 말하자면) 권력의 작용점으로서의 욕체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그녀가 권력에 저항하는 또다른 창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그녀의 욕체는 남성들의 욕망을 '수행(performance)'한다. 경산협회 백부회장의 "내 손가락을 빨아봐, 너를 퍼먹는 것 말이야"라는 말이 압축하듯이 극중 남성인물은 자신들의 욕망을 통해서 그녀(크게는 여성들)를 '퍼먹는다'. 그녀는 소설가가 '글을 쓰게'(글을 쓴다는 행위는 또 다른 사정射精 행위를 암시한다) 하고, 은행원의 그것이 '서게' 하려고 노력한다. 물론 그녀의 노력은 실패로 끝나지만, 궁극적으로 소설가가 사랑하는 여자의 가방모찌로 삶의 진실과 진정한 행복을 되찾게 되고, 은행원은 불능의 원인인 과거의 '외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영화에는 서사상으로 보자면 흥미로운 평행구조가 존재한다. 소설가는 정상적 성기능에서 불능으로 이어지는 반면, 은행원은 거꾸로 성적 불능에서 정상으로 회복된다. 이것은 남성적 욕망의 가변성과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일관되고 강력한 그녀 욕망의 경로와 그들의 것을 구별지운다.

그런데 그녀의

욕망 및 섹슈얼리

티에 있어서 핵심

적인 기호는 미니

스커트이다. 무엇

보다도 미니스커

트는 그녀에게 있어서 '섹슈얼리티의 자의적인 운동'과 '복장으로서의 욕체'라는 함의를 지닌다. 우선 그녀의 미니스커트 중독증은 그녀가 여성성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항상 열려있는 것(심지어 그녀는 즉각적인 섹스가 가능하도록 때로는 팬티를 입지 않은 채로 미니스커트를 입기도 한다)으로 스스로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미니스커트는 그녀가 여성성에 대한 본질론적 규정을 자의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전면화시키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복장에 새겨진 여성주체의 의지'로도 읽혀질 수 있다.

또한 미니스커트는 여성 육체를 물신주의적으로 구성한다는 측면도 지니는데, 이것은 위의 것들과 맞물려 남성들에 대한 위협의 기호(특히 미니스커트를 휘날리며 댄싱딩으로 카메라 위에 털석 주저앉는 그녀의 모습에 우리는 압도되기도 한다)로도 작용한다. 따라서 그녀가 자발적으로 물신('미니스커트 중독자')이 되어가는 과정과, 남성의 욕망을 통제하면서 스스로 쾌락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영화

속에서 평행적,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그녀는 남성중심사회가 다양한 제도적 기호들을 통해서 구성해내는 여성의 육체를 미니스커트라는 물신을 통해서 스스로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구성해나가고, 그 과정 자체를 자기 욕망을 충족시킬 능동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의 욕망과 그 욕망의 수행과정을 남성들의 것에 비해 능동적이고 우월한 것으로 근거지우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아망과 성애가 공존하는 여성의 환상

이 영화에서는 등장인물들의 다양한 성적 환상들이 제시된다. 환상은 충족되지 못한 소망을 그 추동력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을 개선하려고 한다. 그런데 특히 여성의 환상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식으로 양자택일적이지 않고, '아망과 성애'라는 이율배반을 깨고 상호공존할 수 있도록 작용한다. 따라서 영화 속에서 여성의 환상은 다양한 주체위치의 재현으로 드러나는 반면, 남성의 환상은 피

행적이고 고착적인 모습으로 그려진다.

우선 남성들의 성적 환상은 주로 말(카페에서 소설가와 은행원이 나누는 대화들)과 주관적 시점의 화면으로 제시된다면, 그녀의 것은 객관적 시점의 화면은 물론이고 더 중요하게는 자막이라는 문자적 텍스트와 애니메이션이라는 극히 시각적이고 시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다양하게 제시된다. 이것은 남성들이 환상 속에서 하나의 주체위치에 고정되어 버린다면, 그녀의 환상은 화면을 통해 시각적으로 제시될 때에도 주관적 위치와 객관적 위치를 번갈아 차지하고,

남성적인 '목소리'를 거부하면서 '문자'와 '다양한 이미지들'을 빌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더구나 타이프라이터체로 찍힌 자막들은 그 '크로로다주적' 성격 때문에 변태적이고 비밀스러운 내용들을 더 이질화시키면서 소격화시키게 된다. 이것은 자막을 바라보는 (그리고 머리 속으로 그 장면을 상상하는) 관객에게까지도 색다른 주체위치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특히 애니메이션은 그 환상의 정도를 극대화시키는 데, 여기에서도 성차는 시각적으로 형식화된다. 남성은 지식의 기호인 안경, 언어의 기호인 혀, 페니스 그리고 폭력의 기호인 총으로 시각화된다면, 여성은 원초적이고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피, 그리고 경계 없이 해체되는 육체의 모습으로 시각화된다. 남성적인 기호들은 직접적인 공포(물리적인 폭력, 지식을 매개로 한 권력의 폭력)를 일으키는 것들인 반면, 여성적인 기호들은 무의식적이고 근본적인 공포(육체의 해체가 연상시키는 자아의 해체, 모든 것을 먹어치울 것 같은 경계 없음과 증식성, 붉은색이 나타내는 원초적

인 기억)를 야기시키는 것들로서, 대조를 이룬다.

대중의 상상력을 장악하게 된 그녀의 성공

결국 그녀는 광고모델과 배우로 성공하는데, 이것은 내러티브 과정에서 일관되던 그녀의 욕망, 즉 남성들의 '불꺼진 욕망'을 슬퍼하며 다시 불붙이려는 욕망이 사회적 차원의 인정과 힘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개인적 관계의 몇 사람에게 한정되던 그 욕망은 무차별하고 무수한 대중들을 상대로 한 자본주의적 사업의 일부로 확대되고 현실적 권력을 획득하게 된다. 한 빌딩에 걸린 그녀의 대형사진은 대중의 상상력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당당한 이미지로 그녀를 위치지운다.²⁾ 뿐만 아니라 그녀가 출연하는 영화의 촬영 장면은 이 영화내에다 강력한 또하나의 허구적 공간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순간이다.³⁾ 이것은 그녀의 존재와

웃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저는 17세의 소녀입니다. 사춘기를 맞았는지 요즘 들어 여러가지 생각에 사로잡혀있어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고민은 자꾸 '나만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사로잡힌다는 점입니다.
A: '인칭대명사'입니다.

Q: 저는 인쇄업을 하고 있는 45세의 중년 남성입니다. 제가 요즘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현상 수배' 포스터와 '국회의원 당선자' 포스터를 헛갈려서 서로 바꿔서 인쇄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미 포스터는 전국에 배포되었습니. 국회의원들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찌야 풀을까요?
A: 신경쓰지 마세요. 어차피 둘 다 나쁜 일할 사람들입니다.

Q: 저는 결혼을 앞둔 27세의 여성입니다. 그런데, 약혼까지 한 남자가 결혼식날까지 콜라병 같은 물약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피곤하겠다고 성화입니다. 다이아몬드 다이어트는 다 해봤는데 살은 좀처럼 빠지지 않습니다. 어찌든 풀을까요?
A: 남편 될 사람에게 1.5리터 콜라병을 보여주세요.

2) 이미지는 사고에 비해서 일물화이다? 결코 아니다. 현대는 이미지의 시대이다. 보여지는 이미지는 '수용적이고 비권력적'이다? 아니다. 이런 입장은 페미니즘적 영화 이론과 비평의 중요한 전제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소비자본주의적 문화 산업이라는 맥락 속에서 '보기' 뿐만 아니라 '보여지기'가 갖는 권력도 사고되어야 한다.
3) 비릿기에서 이루어지는 촬영장면은 명백하게 여인들의 영화(세상 밖으로)의 마지막 장면을 패러디하고 있다.



노동이 영화 텍스트내에서 가장 이질적이고 모순적인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권력 또한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타자들의 시선을 되뺄기면서 심문하는 자동차 유리 안에서 그녀는 한때 사랑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가망모퉁이이자 운전사가 된 남성의 용시를 자동차 백미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는 존재가 된다. 이제 여성은 자신을 지배했던 반사세계(특히 포스트모던 시대의 총아인 영화를 포함한 영상매체)를 통해서만 접근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그 반사세계를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킬 유효한 수단으로 삼는 존재가 된 것이다.

남자가 만든 영화, '우리식으로' 읽기

한국 영화에 등장하는 여성이미지의 전형성은 지겨울 정도이다. 그런 이미지에 대한 남성감독들의 강박증적인 집착 또한 눈물겨울 만큼 집요하다. 그런데 이런 일관성과 반복의 역사 이면에는, 여성 일반에 대해서 남성 일반이 지니고 있는 좀더 근본적인 성심리와 무의식 속에까지 스며든 지배이데올로기가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글은 이런 질문에서 출발해서, 그 질문의 내용을 수정, 확장하고자 한 과정의 결과물이다. 영화매체가 갖는 대중적 또는 통속적 속성이 그런 질문에 대한 진지한 분석과 이론적 접근을 가로막아왔지만, 남성의 시점에서 그리고 남성적인 환상의 논리를 통해서만 재현되어온 여성 이미지에 그 목소리와 역사성을 되찾아주기 위해서는 그런 작업이 필수적일 것이다.

90년대의 한국영화들이 페미니즘에 대한 좀더 유연한 태도와 다양한 영화적 외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반면에 영화매체에서는 반여성적인 기호와 여성에 대한 노골적인 폭력이 다른 어느 분야에서보다도 더 빈번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하나의 모순

과 긴장을 목격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페미니즘의 상업화와 소비자본주의의 등등한 기세가 영화산업의 유연전략을 강제하고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페미니즘의 독재(?)에 대한 거부장제의 근심 섞인 우려와 극도로 보수적인 한국사회의 성이데올로기가 퇴행적이고 반영성적인 남성적 환상의 강화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 텍스트가 유독 양가적으로 의미작용하기 쉽고, 워낙 다양한 대중문화적 감수성의 복합체라는 사실이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주춤거리게 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풍부하고 다원적인 논의들이 필요하

고 또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는 한 우리의 생산적인 토론은 이어질 것이다. 11



주 유 신

1965년생. 중앙대학교 영화학과 박사과정. 「여성 관객성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의 비판적 고찰」(중대 영화과 석사논문), 「영화 속의 여성 이미지: 그 길고도 험한 오락잡의 역사」(『여성과 사회』, 7호, 1996. 창작과 비평 간)

(한겨레 문화센터), (문화학교 서울) 등에서 '여성과 영화'를 주제로 강의

여자의 사랑

남자의 사랑

그녀가 사랑할 때...

「여자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 곳을 뒤희 보았다.

그러나 어디에도 남자들의 사랑이야기 만 넘쳐났다. 우리들 여자들의 사랑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삶으로 이웃여성들의 평범한 현실로 내려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들에게 사랑은 더 이상 영화 속의 사치도, 소설 속의 허구도, 동화 속의 환상도 아닌 일상의 현실이었다.

독자 여러분은 필자들이 자신의 독특한 경험을 그려내기 위해 여러 방식의 글쓰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드러내기 어려운 자신의 경험담과 생각을 써준 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 편집부



그녀가 사랑할 때 : 하나

“난 아침마다 눈을 뜰 때면 원래, 오늘은 다 큰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오늘이 만 일 어제와 같은 색에 같은 냄새를 뿜어낸다면 난 자살을 하고 말거예요. 그러나 밤이 되면 난 죽어있지도 어제와 달라 있지도 않아. 오후에 지쳐 있는 내 다리와 얼굴에 쌓여 있는 먼지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어느새 시간은 나를 그렇게 길들여놓고 말았어. 난 정말 이대로 먼지 정도밖에 안되는 인생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난 좀 다르고 싶은데, 남들이 말하는 평안이나 안정 따위 말고, 조금은 격하게 조금은 긴장도 하고 단 하루라도 눈물을 흘려내지 않으면 잠이 안오는 양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해요. 안정이나 평화를 그리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데요. 내가 대신 그렇게 살아줘봐요? 후후, 대신해줄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그럴싸하게 살아서 품나게 죽어버릴 수는 있겠죠. 당신이 ‘난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라고 말하면서 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면 당신 안에는 당신이 싫다고 하는 그 평화와 안정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난 그렇게 살고 싶은데...’라는 말하지 않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인생, 까짓 것, 폭풍우 파도 따위 얼마든지 데리고 올테면 오라고 하죠. 난 기꺼이 받아 안을 테니까. 때로는 이 술 한잔이 남자보다 감미롭잖아요. 난 그런 사랑을 원해요. 이렇게 감미로우면서, 어쩔 수 없이 취하는 사랑. 그런 거 한번 해보면 품나게 죽을 수 있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말을 하는 그녀, 그녀의 입가를 맴돌던 서늘한 술잔, 그 잔으로 부서지던 그녀의 언어들. 난 그 순간부터 그녀의 곁에서 단 한발짝도 물러서지 못한 채 그녀의 주위를 빙빙 돌기 시작했어. 그녀의 입

을 통해 나온 사랑이라는 말이 그토록 서늘하게만 여겨졌던 것은 그녀의 술잔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녀가 말한 대로 나조차도 몰랐던 평화가 그 순간부터 깨어나가 유리잔에 내 손목이라도 그어지는 듯한 느낌 때문일까? 그래, 난 비겁하게도 그녀를 늘 바라보고, 훑쳐 보았고, 그녀가 가는 곳이면 늘 두어발짝쯤 떨어져서 그녀를 따라다니기도 했지.

난 그녀를 소개시켜 주고 싶어. 지금 내가 마시는 맥주의 거품과 같이 그렇게 덩뎁하면서도 조금은 느껴지게 그렇게 그녀를 당신들의 손에 쥐어주고 싶어서 이렇듯 글을 쓰게 되는 거야. 세상에는 만나서는 안될 인연이 있어, 어쩌면 내가 이 원고지를 만나서는 안될 인연인지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서는 안될 인연들이 세상엔, 있지.

내가 그녀와 그녀의 그를 만난 것이 1년 전 가을이었던가. 아, 그랬을 거야. 그때 부서지던 낙엽이 너무도 투명했기에 난 그 낙엽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가을이란 말이지 하고 혼자 말을 했었으니까. 그들이 처음 만나던 날, 스러져가는 태양 속에서 그는 그녀에게 이런 말을 했었지.

“이건 예감인데, 나 너를 피해야 할 것만 같아. 네가 나로 인해 다칠 것만 같아서...”

세상에, 너를 만나 기뻐, 너를 만나 난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말이 아니라 만나자마자 너를 피해야 할 것 같다니.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 남자가 있다니. 그렇게 말하는 그에게 그녀는 만지작거리던 휴지를 그의 얼굴에 던지며 낙엽 속을 뛰어갔지. 그녀의 웃음소리는 참 컸었어. 목젢이 보일 만큼 웃는 그녀의 웃음소리 때문에 낙엽은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들이 있던 거리로 떨어졌었지.

그 가을 태양을 안은 낙엽이 그들의 어깨로 비처럼 똑똑 떨어질 때에 ‘피해야만 할 것 같다’고 말을 한 그는 그녀를 안았지. 그녀는 그의 입술을 찾았고 그들은 그 거리에서 아주 오랫동안 입을 맞추었어. 난 이제껏 그토록 섬세하고 부드러운 키스신은 본 일이 없었어. 영화에서조차 그들의 입맞춤은 흉내낼 수 없었을 거야. 난 그들을 훑쳐보면서 내내 침을 꿀꺽 삼켜 넘겨었어. 만일 그들 곁에 아이스크림이 있었다면 그 허얀 몸을 스스로 녹여냈을 거야. 그녀는 그에게 종종 말을 했었어.

“당신에게 나만의 당신이 되달란 말은 하지 않아요. 다만 이렇게 있는 동안에는 나에게만 열중해주세요. 그것도 힘든가요?”

그는 그녀가 이런 말을 할 때면 심하게 웃기만 했었지. 나도 따라 웃었어. 정말 그녀는 신과 같은 말을 잘도 내뱉는단 생각에서 말야. 저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굳이 드라마를 볼 필요가 없었구나, 또는 저런 말을 위해서라도 드라마를 잘 봐두어야 했구나. 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한장면 한장면을 놓치지 않고 보고 듣고 있었어.

그녀는 그 앞에서면 언제나 술을 마시고 있었어. 그녀의 손에서 술잔이 떠나지 않음을 보면서 혹시 그녀가 알콜중독자는 아닌지 난 내심 불안해 하기도 했었지. 왜냐하면 난 기왕이면 아름다운 여자와 근사한 남자의 사랑을 보고 싶었던 것이지 알콜중독인 여자와 조울증 환자인 남자의 사랑을 보고 싶지는 않았거든. 다행이었어. 그녀는 알콜중독자는 아니었어. 그녀는 그와 헤어지고 나서는 언제나 변기통을 잡고서 속을 개워내야 했었으니까. 우웁우웁 소리를 내면서 변기통을 꺼안은 그녀에게 난 등을 두드려 주면서 물었어. 왜 그렇게 마셔요? 이렇게 힘들어 할 거면서?

“내가 마신 게 알콜이었나요? 아니예요. 난 그와 있는 동안, 그 짧은 순간만큼이라도 그를 차지하고 싶어

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마시는 거예요. 난 그를 마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있는 그 공기를, 보여요? 이게 다 내가 마신 그 사람이예요.”

그는 그녀 앞에서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었어. 다만 그녀를 바라보면서 웃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그의 모습은 그녀가 토해내는 몇마디의 말보다도 더 많은 언어더미 안에 간직되었음을 난 알 수 있었어. 그녀를 보내고서 거리에 홀로 남은 채 담배불을 붙이는 그를 바라볼 때면 난 달려가 말하고 싶었어.

“그렇게 서있지 말아요. 당장 그녀가 탄 차를 쫓아가세요. 그녀가 집으로 향할 때 울고 있음을 당신은 알잖아요? 아니, 당신은 지금 울고 있잖아요. 그렇게 서있지만 말아요. 당신이 지금 말하고 싶은 모든 언어들을 그녀의 귀에 뿜어내보세요.”

그러나 난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어. 그저 피식 피식 웃으며 담배연기 속에서 집으로 돌아가 아내를 웃으며 바라볼 그만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밖에. 하긴 나에게 그들에게 말할 것을 대라고 하면 ‘당신들은 만나면 안돼요. 지금 그녀에게 당신이 주는 게 뭐라고 생각하죠? 이게 사랑인지 아니봐요? 왜 이렇게 살아요?’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해주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는 그녀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어김없이 담배를 물고 있었어. 바람이 차 안에 스며있는 그의 담배 연기를 모두 마시고





물먹거릴 만큼이나 그는 담배를 피워댔지. 종종 난 그의 눈자위에 묻어나는 눈물을 바라보곤 했었어. 그는 집 앞에 다 와서도 담배를 피웠어.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로 때로는 거리를 걷기도 했고, 때로는 차 안에 앉아서 그녀를 노래하는 듯한 테이프를 들으면서 길게 숨을 내뿜기도 했었어. 그렇게 한참을 머물던 그가 자신의 옷에 남아 있는 그녀의 향기를 킁킁 맡아보고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집 안으로 들어설 때면 내가 눈물이 핑 돌았었어. 과연 어떤 장소가 그가 서있어야 할 자리인가. 이런 생각에 난 구토마저 나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었어. 그녀에게는 불행이지만 그가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집으로 들어선 순간부터는 그녀의 그가 아니었어. 그는 너무도 자연스러웠어. 그 어느 자리일지라도. 그러나 그는 정말 자연스러웠을까. 집으로 돌아가서도 눈물을 삼켜내지 못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녀보다 덜 고통스러웠던 것일까.

그녀는 초록색을 좋아했어. 꼭 자기 같은 색만 좋아한 거지. 그녀의 볼은 남들처럼 붉은 빛이 떠도는 게 아니라 초록물이 뿜어나올 듯한 볼을 지니고 있었거든. 그녀는 약을 먹어도 초록색 약을 삼켰어. 난 그 약이 항우울제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 그녀는 그를 그리워하는 시간에는 그 항우울제를 삼켜야만 했어. 프로작이라는 이름을 가진 초록 캡셀은 그녀의 몸을 스며들면서 더욱 그녀를 초록으로 지쳐버리게 했지. 만일 프로작이 그녀의 손에 들려져 있지 않은 날에는 그녀는 자기 자신조차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벌이곤 했었어. 예를 들어 칼로 자신의 머리를 자른단든지, 빨간 루즈로 컴퓨터 모니터를 칠해놓는단든지, 전화기를 든 채 혼자 말을 한다든지, 스탠드를 바닥에 째 소리와 함께 떨어뜨리고는 깨진 전등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단든지.

그러나 그토록 위태롭기 그지없는 그녀가 그를 만날 때면 언제 그런 일이 있느냐는 듯이 밝게 웃기만 했어. 그녀의 웃음을 볼 때면 그녀가 잠전에 넘긴 프로

작이나 수면제 프로리네프나, 또는 그녀의 눈물이나 이런 것은 좀처럼 발견되지 않았어.

난 그녀가 그 앞에서 울기를 바랬어. 그래서 그녀가 가진 그 절망의 시간들을 잠시라도 그에게 알려내기를 희망했어.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드라마의 기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녀는 나의 희망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어. 하긴 그녀가 그 누구의 희망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더라면 그녀는 그를 만나지 않았을테지만.

하얀 눈이 서럽게 내리던 그날, 그녀는 초록색 머플러를 칭칭 감고서 혼자 걷고 있었어. 그녀의 발목으로 떨어지던 눈은 그녀의 초록색으로 인해 이내 그 자리에서 몸을 녹여내고 있었지. 그녀는 거리를 걸으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 박중훈이 선전하는 물무랄라 라거를 흥내내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의 그녀. 전날 그녀는 프로리네프를 열알을 넘겼던 것으로 알고 있어.

하지만 그녀는 잠에 빠지진 않았었지. 아마도 그녀의 꿈은 온통 그의 것으로 가득 차있었을테니 그녀의

그가 자신의 옷에 남아 있는 그녀의 향기를 킁킁 맡아보고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집 안

들어설 때면 내가 눈물이 핑 돌았던 어떤 장소가 그가 서있어야 할 자리인가.

프로리네프가 그녀의 사랑을 방해할 수는 없었을 거야. 그녀의 초록색 머플러가 멈춰선 곳은 그의 집 앞이었어. 이것은 그녀가 출연해서 안되는 장면이야. 하지만 그녀는 그 장면에서 서버리고 말았던 거야. 난 길게 숨을 뿜어내면서 이제 그녀와 그가 어떤 장면으로 이 상황을 물고갈 것인가에 대해 조바심을 냈었지.

그녀는 발돋움을 치면서 그의 창을 바라보고 있었지. 그녀의 키가 조금 더 컸더라면 그녀는 그렇게 아플 만큼 발돋움을 하지는 않았을텐데. 눈이 조금 덜 내렸더라면 그녀는 12센치 정도되는 통굽을 신고 그의 창 앞에 섰을텐데.

난 세상이 갑자기 미워지기 시작했어. 그녀를 이런

상황에 빠져 이런 초라하고 청송맞은 장면만을 연출해내게 하는 이 세상이 미워지기 시작했어. 그녀는 꿈꿨던 손을 만지작거리면서도 연갑 풀풀 뛰면서 그의 창을 바라보려고 애썼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 것도 잡히지 않았어.

그녀는 발돋움을 하다가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서는 라거를 마셨어. 차가운 눈발도 마시고 있었어. 그러나 그녀가 말했던 그는 마시지 못하고 있었어. 그는 그녀가 집 앞에 와있는지도 모른 채 책상에 앉아서 그녀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가고 있었어.

"나 죽어요? 그러면 돼요?"

그래, 그녀는 확실히 취해 있었어. 그랬기에 그녀는 단 한번도 그 앞에서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던 거야. 아니 정확히 그 앞에서 흘리지는 않았어. 그녀의 눈물은 전화기가 받아내고 있었으니까. 마침 그의 옆에는 그의 부인이 와있었기에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녀의 짙은 숨소리만을 듣고 있을 따름이었어. 하지만 이 상황을 신은 그들에게 설명해주지 않고 있었어. 그녀가 자신의 집 앞에 와서 전화기를 걸고 있는지를, 그의 옆에서 부인이 차를 마르고 있는지를, 그의 딸이 누구야? 아빠?를 연거푸 물어보고 있는지를, 그녀가 라거를 눈물이 젖혀지리 만큼 삼키고 있는지를, 신은 그 누구에게도 설명해주고 있지 않았던 거야.

그녀의 전화기로 계속 들려오는 "아빠, 누구야?"와 부인의 차 마르는 소리, 그리고 그의 난처한 신음소리들. 그녀는 눈이 녹을 만큼의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수화기를 떨어뜨렸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잠이 들고 말았어. 어제 넘긴 수면제가 이제야 그녀를 재우고 있었어. 이제서야.

그래, 확실히 신은 그들의 만남을 축복하고 있지 않았던 거야. 저주하고 있었기에 그토록 그들을 멀리서

그리워하다가 지쳐버리게 했고, 그들이 토해내고 싶은 노래를 술병으로 쓰러뜨리게 했으니까. 이렇게 시련 사랑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 수 있겠어. 잊으면 그만이고 둘다 바보라고 쉽게 말하지는 마. 그들은 잊을 만한 사연조차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사연이 있다면 만나서 그저 술을 마시고 쓴웃음을 짓고 그러다가 돌아서 물어버리고 마는 그런 것이 전부였으니까. 그것이 사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들이 부둥켜 안던 침실마저 초라한 그것이 그들이 간직하고 잊을 만한 사연이 될 수 있을까. 진정.

나, 죽으면 돼요? 라고 그녀가 그에게 입김처럼 토해내던 그 순간에 난 그들 곁을 떠나기로 작정을 했어. 더 이상 바라보기에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존재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이야. 이런 신과조의 드라마는 굳이 그들이 아니어도 작가들에 의해 쓰여져 이 나라 여자들을 얼마든지 울릴 수 있는데 왜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와 그녀가 이런 드라마를 연출해내야 하는지 정말이지 지겹기 시작했던 거야. 그들이 지겨워졌고 그들을 바라보는 동안 내내 심각한 내 심장을 목도해야 하는 내가 지겨워졌고.

난 아직도 그들이 만나고 있는지, 또는 그들이 헤어졌는지 알 수는 없어. 만일 그들이 헤어졌다면 그들의 이별방식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기도 해.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얼마 전 아주 우연하게도 난 그의 그녀를 보았어.

그녀는 시장 한구석에서 강아지를 고르고 있었어. 그녀는 양칼진 목소리를 터뜨리고 있었어. 사람들 틈에 있을 때만 내는 그런 목소리. 시장이 그녀의 더운 숨결로 후후 젖어가는 듯한 그런 목소리를 터뜨리고 있었어.

"왜 이렇게 비싸요? 좀 깎아줘요. 나 그렇게 돈 많지 않단 말이예요. 하지만 이 강아지를 본 순간 예감했던 걸요. 이 녀석은 내가 곁에 있어야만 잘 산단 말이에요. 아줌마는 이 강아지가 나를 그리워하면서 매

일 올다가 죽기를 바란단 말이예요?”

이제 내가 누군가처럼 질문을 하고 마네. 당신 사랑을 정말 믿어? 난 내 감정만을 믿을 따름인데... 당신 온 어때?

만일 이 질문을 그녀에게 한다면 그녀는 그 더운 숨결로 말할 거야.

난 이 강아지를 믿어요. 내 현실 속에서 살아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1]

그녀가 사랑할 때 : 둘

남편과 나는 동갑이다. 우리에게서 여섯살 난 남자애 하나와 성별을 알 수 없는 일곱살 된 뱃속의 아기가 있다. 우리는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 속으로 휩쓸렸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 주변의 상황을 결혼 속으로 물고 갔다고 하는 편이 옳겠다. 시작은 스물 둘, 사실 결혼에 대해 생각은커녕 상상해본 적도 없을 때였다. 지금의 내 나이가 스물 여덟이다. 나는 가끔 누가 내 나이를 물어보면 한동안 머뭇거리다. 결혼 이후로 정신없이 바빴기 때문에 '아직 스물 셋이나 넷 정도인가?' 혼자 되물다가 스물 여덟을 상기하고는 스스로에게 확인하듯 "스물 여덟이네요" 대답한다. 아무튼 결코 짧다고 할 순 없는 결혼 생활을 해왔다. 그 동안은 나의 사랑이나, 결혼에 대해 느낌이나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 글을 통해 지난 시간들을 되새김질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박지현

이 글을 쓰는 동안, 나는 내내 지난 겨울에 불던 바람을 떠올렸다. 오늘은 바람이 분다. 난 이 말을 그때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웃음이 났다. 대려 질문도 받았다. 당신의 이야기입니까? 쉽게 말한다. 그냥 사는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면 또 어떨까요?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겨울의 바람을 떠올리듯이 글을 쓰는 내내 그 사람을 생각했다. 마치 내일 당장 죽을 것처럼 올다가도 냉정고에서 플러를 마시면서는 다시 웃는 내 모습을 그 사람은 존중해주고 있다. 아이도 그녀 또한 나를 존중해 줄 것이다. 쉽게 농담처럼 말할지도 모르겠다. 당신의 다정함. 그 화남기에 견뎌. 이렇게 말이다. 어느새 가을을 서둘러 준비하고 있는 이 거리의 여자들이 예쁘다. 이제 내 손에는 프로작은 들려 있지 않다. 프로작 대신에, 피가 선연하게 들어있는 듯한 장미를 들고서 까칠까칠한 티 하나 입고 거리를 나가, 나를 달은, 그녀를 달은 그리고 그를 달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내 남은 축제를 치루어야겠다. 한때 선데이 서울의 표지에도 같았던 내 인생에 견뎌.

스물들의 또래가 대부분 그렇듯, 그 시절의 나도 무지막지하게 순진하고, 또 순수했었다. 나의 내면은 맞물리지 못하는 의식들이 중심없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는데, 하나는 천사같이 무구한 착한 여인이요(세상에는 나쁜 사람 특히 '남자'는 없다고 생각한 빨간모자의 상태), 또 하나는 여성적인 것을 거부하고 중성이나 남성적인 특성을 지니려는 의식이었다. 기억해보면 지금의 나 자신이 생각해보아도 자의식이 강한 묘한 여자애였다. 그렇다고 그리 외향적인 성격은 아니었는데, 차분하고 조용해보이는 겉모습에 여성성을 거세한 듯한 거친 내면을 감춘 모습이었다.

내 자신이 혼돈 속에 있었기 때문인지, 혹은 너무나 강하고 뒤흔긴 내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지 몇차례 성사될 것 같은 연애 사건들은 갖가지의 돌발적인 자연들만 남기고 불발되고 말았다. 그 이후 나는 점점 나 자신을 사랑 따위와는 거리가 먼 여자라고 생각하

게 되었다. 혹은 나는 여성이기보다는 인간으로서의 삶에 충실하자는 등의 나름의 명제를 세웠었다. 지금 생각하니 그 시절의 나는 아마도 여성성을 혐오했었던 것 같다.

그러다 남편을 만났다. 소개라든가 우연히 알게 되었다든가 하는 새로운 만남이 아니라, 연애를 하게 되었다는 의미다. 대학 새내기 때부터 알던 친구였는데, 같은 동아리 동기생이었다. 우리는 팔십년대와 구십년대가 맞닿는 혼란의 시기에 처음 만나 상당 기간은 친구 이상의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다. 이 친구는 조직 생활에 유능한 면을 보이며 동아리실에 상주하는 친구였고, 나는 동아리에 적은 두었지만 한 발은 문학회에 걸쳐놓고 그쪽 일에 열심이었기에 사실 그다지 만날 기회가 많지는 않았다. 이 친구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참 착하구나. 참 순진해 보인다 등등—남자로서의 느낌은 결코 아니었다. 그 시절의 여학생들은 각종 소모임이나 학회, 동아리 등에서 카리스마를 발휘하던 남자선배들을 사모하는 경우가 많았고, 나도 예외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삼학년이 되자 동아리의 남자아이들이 군대로 떠나기 시작했고, 인정 말던 우리 둘은 일주일이 멀다하고 환송회자리에 함께 했다. 술자리에서 중간에는 절대 일어나본 적이 없던 나는 항상 끝까지 남아 있었는데, 좁은 착잡한 분위기와 한창때의 재기로 고주망태가 되어 있던 그 애와 자주 남게 되었다.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고 자주 어울리다보니 무척 친해졌다. 이성 친구와 동성 친구는 다르다는 것을 그때는 무시했었다. 그애와의 사이에 이성적인 호기심이 존재한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으니까... 이런 나의 중성적 자신감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었다. 그해 여름 동아리에서 전국연합 모임이 있어서 우리 둘은 함께 늦모르는 여럿 속에 끼었다. 삼박 사일의 일정 끝에 뒷풀이에서 빠지자는 그애의 제안을 받게 되었고, 고풍스런 분위기의 커피숍에서 마주보고 앉았다. 커피숍에 마주 앉

아보기도 처음이고, 분위기도 낯설었지만 둘만이라는 색다른 느낌이 또 무척 좋았다. 그렇게 우리는 낭만적 사랑의 대열에 합류했다. 우리만은 특별하다 확신하면서... 남들도 우리처럼 특별하게 사랑을 하고, 했었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시작한 본격적인 연애 속으로 우리는 눈 먼 황소처럼 내달렸다. 그나마 들어가던 수업도 더욱 많이 확실하게 주목받으며 빠졌으니 학기를 지난 후 그애의 학점은 전과목 F, 나는 평점 D였다. 동아리나 문학회활동도 점점 불성실하게 하면서 둘만의 시간을 만들었다. 아직 학내에서의 연애를 끝까지 봐주지 않던 시절이라 우리는 많은 선후배, 동료 사이에 지탄의 대상이 되어갔다.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서 일어났다. 둘 다 자취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끌림을 제어할만한 장치가 부족했다. 그는 그가 주도한 연애에서 또 그의 주도에 의해 이끌리는 여자의 육체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에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보였다. 동아리 선후배나 동기들 앞에서 가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했다. 이전에 친구로서 지내던 때와는 다른 모습, 다른 남자들과의 만남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는가 하는, 그의 사랑하는 여자에 대한 소유욕이나 자연스럽게 교육받은 남성적인 본능은 도덕적인 금기들을 깨는 것이 되어갔다.

나는 임신에 대한 공포와 내 몸, 특히 은밀한 곳에 대한 수치심,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로 그의 육체적인 공격에 방어했다. 그러나 그 방어는 내 몸이 점점 접촉의 즐거움에 익숙해져서, 발전된 단계의 접촉을 허용하게 됨에 따라 최소한의 방어로 축소되고 이욕과 사라졌다. 그리고 우리의 연애는 일을 저지르는 단계로 발전했다.

우리는 성에 관해 순진하다기보다 너무나 무지했다. 왜 육체적으로는 자연스러우면서 정신은 부자유한 것일까? 여자로서 너무나 어렵고 수치스럽게 피임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남자와 다른 여자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미안해 하며, 자신이 나름대로 피임을 했으니—절의 사정—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건강했던 나의 몸은 벌써 임신한 상태였다. 사회적으로 성에 관한 담론들이 아직도 순수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못한 행편이지만 사실 개별적인 남녀 사이로 파고 들어도 성에 관한 이야기들은 아직도 순수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못할 경우가 많다. 당시의 우리에게 성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용기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임신이라니! 나에게서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될 현실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실재하는 현실이었다. 한잠 톱 자고 나면 이전의 나로 돌아갈 것만 같아 실컷 자는 자보기도 했다. 그렇지만 깨어난 후의 현실은 역시 임신. 학교에 다니는 중이고, 군대도 가야 하고, 상황은 어려웠지만 인공유산술을 고려하지는 않았다. 이유는 복잡적이고 감성적인 측면이 강했다. 나에게 어릴 적부터 꾸어오던 어머니로서의 꿈(모성적 본능이라기보다 모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모태신앙이랄 수 있는 불교의 생명존중사상 탓도 있었고, 내가 가진 다소 휴머니즘적 특성도 있었고, 젊은 나이의 무모한 용기도 있었고, 또 아이를 지우는 것보다는 낫는 것이 덜 무서운 것 같았다. 그에게 임신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는 꽤 심각해 하고, 그리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이때 그에게는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이야기했었다. 태도가 지나치게 신중해서 거의 나의 의견이 주도한 분위기였다) 결정을 내렸다. 아이를 낳기로.

그후 우리는 아이를 유산시킬 수 없을 만큼 키운다



임신초기 / 김민정

을 주위에 알리자고 세부전술까지 짜고, 자취 살림을 합치고 아르바이트류의 돈벌이를 하고, 나름으로는 정상적인 부부역할을 시작했다. 마침 학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동안 불성실하게나마 해오던 문학회활동과 동아리활동, 친분관계들을 말도 없이 정리하고 자취방에 틀어박혔다.

임신한 이후 사람들 만나는 걸 많이 두려워했다. 세상의 눈초리가 그렇게 무서웠던 적이 다시는 없을 것 같다. 꿈 속에서 가끔 친하던 선후배와 동기들이 나오면 그들은 나에게 비난과 질시를 보내던 낯선 모습이었다. 그 당시의 일기를 읽어 보면 결코 행복하지만은 않은 정서를 담고 있는 것이 많다. 부른 배를 하고 태아와 함께 끈도 없이 허공에 매달린 듯 자신을 표현한 구절도 있었다.

완전히 하나이라 믿었던 연인에 대한 배신감도 있었다. 내가 느끼는 정서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를 보며 나의 사랑에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다. 나는 같은 배를 탄 동지로서의 그를, 스물 둘의 세상경험 없던 어린 그를 이해하기 보다 원망한 적이 많았다. 왜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모를까? 그때의 내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함께 살면서 같이 밥먹고, 같은 잠자리에 들고, 자잘한 일상의 재미도 느꼈지만 그런 일들로 싸우기도 많이 싸웠다. 그때는 왜 그리 눈물도 흘렸나, 싸우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나는 눈물 많은 여성의 전형을 답습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 둘의 관계도 이 무렵엔 고정된 성역할을 정형화된 틀로 만들어 갔다.

어느 날 외출했다 돌아오니 방문 앞에 이런 쪽지가 붙어 있었다. “여보, 늦는 구료. 열쇠를 가지고 나왔기에, 요 앞 만화가게에 가있겠소. 그리로 오구료.” 조선시대를 연상케 하는 하오체와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만화가게라는 단어가 주는 우스운 느낌. 남편은 가족우선주의적(가부장적이기도 하다)인 전통 가정에서 자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남편이라는 역할을 가장으로서 받아들여가고 있었다. 나는 또한 남편의 하오체에 대조되는 해오체를 구사하며(일상적으로가 아니라 관계적인 면에서) 내 자신이 예전에 무시했던 여성성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다른 어떤 부부보다도 우리는 기꺼이 여보라는 호칭을 일찍 도입해서 썼는데, 이걸 남편의 보수적인 가정 의식 때문이었던 듯하다. 우리 시어머니는 젊은 것들이 징그럽게 여보 소리도 잘한다고 하시지만 부부애가 좋아서이기보다 동감마누라에게 남편위상을 세우려는 그의 시도가 무리없이 아내역할에 만족하던 나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인 것이다. 또 나 자신도 그런 그에게 보조를 맞추며 양자 같은 아내역할을 재미있어 했다. 지금도 기억하는데, 추운 겨울 두달을 아파트 공사장 목수 보조를 하며 번 돈 오십만 원을 쥐어주며, 눈물을 흘리던 그는 정말 어리숙하지만 순진했던 가장이었다. 또한 보글보글 찌개 끓여놓고, 버스 정류장에 나가 기다리던 나도 역시 어리숙하지만 순진하던 새색시였다.

임신한 여자에게 시간은 더 빠르다. 하루가 다르게 불려오는 배 때문에 시간이 지나는 것을 너무나 생생히 느끼게 되니까, 육개월이 되자 우리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우리 가족이야 부

그렇게 우리는 낭만적 사랑의 대열에 합류했다. 우리만은 특별하다

특수하면서... 남들도 우리처럼 특별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랑을

하고, 했었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른 배가 있으니 못미더워도 내게 말기는 입장이었고, 문제는 그의 집안이었다. 위로는 나이 찬 두 형에 누나, 밑으로 여동생 많은 형제에 보수적인 집안 가풍이었다. 어렸든 난생 처음 어머니께 눈물로 진심어린 호소를 했다고 하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어머니께서는 결국 허락을 하셨다. 둘만의 관계가 이제는 가족제도 속에 뿌리내릴 때가 된 것이다. 나 자신은 모르고 있었지만... 아기를 먼저 선택하고 결혼을 부수적으로 선택했던 나는 그의 부모에게 인사하는 순간에도 나와 아기 그리고 그, 그의 가족이 지니게 될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다. 마음 속엔 그저 자신감만 가득했었다. 시집살이가 어려워도 해낼 수 있어. 다 내가 하기 나름이겠지. 나는 남보다 특별한 사랑을 가졌으니까 시댁식구와도 잘 지내게 될 거야. 바로 그런 자신이었다. 특별한 사랑이 현실을 무소불위의 힘으로 이겨줄 거라는 자신이 내게는 있었다.

임신 9개월에 시댁으로 들어가 아이를 낳고,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다. 낯선 환경에서 며느리에 엄마로 살자니 배냇머리 적실 일이 참 많았다. 착한 며느리, 착한 아내로 살아가려고 했던 자신감이 생활 속에서 여지없이 깨져나갔다. 나 자신이 한없이 무능력하고 나쁜 여자인 것만 같았다. 그런 느낌은 시댁 식구들, 무수한 친척들의 입방아에 부대끼면서 가졌던 것이다. 사실 다시는 여자로서 태어나고 싶지 않던, 여자로서의 삶을 가장 적나라하게 접했던 시간이었다. 시댁에 있는 동안에는 식구들 일로 남편과 부딪친 적도 많았다. 대부분이 시어머니와의 갈등이었다. 시집살이 전엔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이 나와는 상관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시댁에 들어가 사니 그 우습던 말이





나를 치사하게 괴롭히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시아머니는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을 며느리로 들어온 나에게 많이 이야기해주었다. 남편이나 다른 식구들은 듣지 못했던 이야기도 꽤 많았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집안일에 무심하고 다사로운 정이 없던 남편과 결혼해서 시부모 모시고 아이 다섯을 어려운 살림 속에 키워온 인간시대에 나올 만한 것들이었다. 자질구래한 집안일을 하며 들던 그 얘기들은 내게 어머니의 살아온 세월이나 처지에 깊은 연민을 느끼게 하는 이야기들이어서 얘기를 듣는 동안 잘 해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했다. 그런데 나의 그런 다짐을 꺾는 일들도 많았다. 그것은 그렇게 살아온 어머니의 인생을 이제 며느리인 나에게서 보상받고자 하시는 어머니의 마음 때문이었다. 판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던 나의 시집살이가 어머니에게는 도무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었던 것이다. 아들을 낳고 대학까지 교육시켰으니 며느리에게서 편안한 삶을 보장받으리라 믿고 계셨는데, 어머니에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시아머니와의 갈등에 전혀 도움이 안되던 신랑은 아이를 낳은 지 두달 후에 징집명령을 받고 군대로 가버렸다. 그는 굉장히 심란하고 미안한 모습을 보이며 떠났다. 그가 혼전소에서 식구들과 이별하며 팔뚝으로 눈물을 쏟으며 뛰어가더라는 이야기를 그의 형에게서 들었다. 그런 그에게서 훗날 지나가는 소리처럼 들게된 고백은 마음 한편으로 현실의 어려움에서도 망치는 안도감도 있었다고 하니 스물 둘의 어린 남자에게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와의 갈등이나 간난이, 경제적인 어려움 등은 역시 힘에 부치는 일이었나 보다. 그리고 역시 나에게도 현실은 힘에 부치는 것이었다. 육아와 가사 등 결혼 이전의 나에게 요구되지 않던 새로운 여성으로서의 역할은 내가 처녀 시절 부정했던 귀엽고 나약한 여성성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부정적인 여성성으로 다가왔다. 아이를 사랑하며 잘 키우고, 집안일도 깨끗하게 하고, 요리를 맛나게 하는

것은 나름대로 즐거운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내이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임무라는 사실에는 부담이 느껴졌다.

남편이 군대로 가고 나니 오히려 어머니와 덜 부딪혔다.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크게 부딪친 때는 대부분 남편이 두 여자 사이에 끼여있을 때였다. 아들이나 남편이라는 중간자를 소외시키고 시어머니와 만나보면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어머니도 나와 자주 부딪치면서 자신의 며느리가 결코 자신이 살아왔던 며느리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리라는 걸 받아들이기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소 순종적이던 내가 내 의견을 큰 소리로 말하는 데 질려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다시 남은 학교생활을 해야 했다. 친정에서 학비와 용돈보조를 받고 시어머니에게 아이 맡기고 시댁이 있는 작은 시에서 벗어나 시외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녔다. 시어머니께 미안해 하며 집을 나섰지만 조금은 자유로운 느낌도 들었다고 고백을 해야 하리라. 그리고 혼인 이후에도 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을 받았던 우리였으므로, 우리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데 부모님들께 많은 신세를 진 성인들이었다고 또한 부끄러운 고백을 해야 하리라.

학교 다니면서 여성학이라는 강의를 신청해 듣고, 또 여성학에 관련된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여자의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결혼생활과 시집살이, 육아, 가사 등 여러가지 나를 속물적으로 부대끼게 하던 일들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얻게 되었고, 더이상 현실에 부대끼는 나에게 자신 없어하지 않기로 했다. 내 자신이 이상적인 결혼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부터 찾아보던 여성학에 관련된 인쇄물들은 나에게 여러 도움을 주었다. 내가 가진 여성성도 사랑하게 되었고, 남편이나 아이와도 제대로 된 사랑을 주고받으려 노력하게 됐다.

남편이 제대하고 나도 졸업하고, 나의 직장생활과

남편의 학교생활이 지나가고, 아이가 건강하게 잘 커주고, 남편이 졸업해서 직업을 가지고, 맞벌이를 하고, 아이도 제법 커서 제 의사가 점점 분명해지고, 그리고 둘째 아이가 생기고, 아무튼 우리의 결혼 생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참 싸우기도 많이 싸웠다. 낭만적이고 환상적으로 그려놓았던 사랑이 현실에 부딪칠 때마다 마치 그 어긋남이 서로의 잘못된 양 싸웠다.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사소한 것에 모든 의미—사랑에 관계된—를 걸고 싸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싸우면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덧붙인다.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니? 사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사랑하면서도 그럴 수 있고, 사랑하지 않아도 그러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다. 싸울 때 보면 상대방이 저지른 잘못에 분노한 다기보다 그 잘못 때문에—사소한 잘못일 수도 있는데—사랑이 변질될까봐 더 걱정하는 것 같다.

이런 비합리적 싸움은 사회생활에선 아주 보기 드물고 사실 부모 자식간이나 형제간에도 없는 경우가 많다. 전생애 원수간이 현생애 부부로 만나서 그렇다는 우스개 해설도 있지만 내가 보기엔 상대방을 너무 주관화시키기 때문이다. 주관화시킨다는 것은 상대방을 나의 환상 속에 묶어두는 것이다. 물론 나의 환상 속에서 완벽한 모습을 가진 배우자를 만들고, 그 모습 속에서 현실의 배우자를 부추겨 만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자기 자신을 잃고, 타인에 의존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만드는 불완전한 것이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배우자에게 건다는 것은 배우자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일년 전쯤에 친구에게 우스개 말로 털어놓은 사실이 있다. “정말 우리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잘 생기고, 가장 인간성 좋은 줄 알았어.” 정말이다. 한 일년 전까

진 정말 남편이 그냥 평범한 보통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다. 그의 신체적인 약점, 어린 시절부터 이마에 깊이 패인 주름살, 남보다 좀 작은 키까지 멋있었고, 약간의 허풍기마저 자신감으로 느껴졌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에게 기대했었다. 그는 이상적인 남자였으므로 현실에서 그가 보이는 실수나 허점들은 우리 사랑을 무시하는 그의 악의적인 의도로 해석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평범한 보통남자 중의 하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충격이 상당했지만 이후로는 더 많이 이해하고, 덜 바라며 살 수 있었다. 그도 나에게 대한 환상이 있었을까? 하지만 그런 환상이 있었다더라도 이제는 약간의 파편만이 남았을 것이다.

좁은 남다른 결혼 이력이었지만 지금의 우리 결혼 생활은 지금이 평범하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나 사회 속에서 우리 섞인 시선을 느끼지 않는 부부가 되었다. 세월이 주는 이점이다. 그리고 우리 둘 사이도 많이 편해졌다. 서로에게 많이 너그러워졌다. 많은 부분을 포기한 때문이지만,

이젠 나도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내 마음의 시령 위에 나를 위한 등불을 밝힐 것이다. 나와 내 가족뿐 아니라 다른 소중한 사람들과도 따뜻하게 할 등불을. 11



이 문 회

오랜만의 글쓰기이다. 너무나 사소하고 개인적인 일에 관한 글이다. 써서 내놓고나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욕망에서는 누구나 마음놓고 벗고 때도 있고 하지 않는가. 이 글을 읽는 분들도 그렇게 스스로없이 읽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녀가 사랑할 때 : 셋

고등학교 때, 영원한 사랑에 대해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왕관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랑을 선택했던 원저공과 같은 로맨틱한 상대를 기다리며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한번씩은 가져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모든 여성이 그런 환상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오해! 지금, 나도 그렇지만 영원한 사랑이나 변하지 않는 사랑이란 소설이나, 연극, 대중가요의 가장 잘 팔리는 소재거리에 불과하다는 현실감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오죽하면 '나이들면 미운정으로 산다'고 할까. 하지만 이 상황을 꿈꾸듯이 어느 정도 환상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속쓰러운 얘기지만, 지금도 난 연애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하지만 마음 속에는 막연하게 그런 꿈 같은 사랑의 가능성을 늘 남겨놓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나는 누구와 같은, 나의 환상과는 아주, 많이 다른 연애를 하고 있다. 결코 로맨틱하지도 않고, 뜨겁게 불타는 사랑도 아닌 평범한 연애를 하고 있다. 또한 환상적인 연애와는 상이한 자질구레한 수많은 문제에 부딪치고, 싸우고, 대립하는 연애를 하고 있다.

상대와 대립하게 되는 것은 그와 나의 사고방식에서 오는 차이들 때문이다. 내겐 당연한 것이, 그에게는 당연하게 생각되지 않으며 소통하는 방식도 틀려 우리는 종종 서로를 오해하게 되고, 화내는 방식마저 틀려 싸움은 극단으로 치달게 된다. 그리고 그 싸움의 종말은 꼭 헤어지는 것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물론 그렇다고 싸움 이후에 진짜 헤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서로에게 헤어지게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이유들을 발견해나가는 것이다.

또한 나의 남자친구는 남성위주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타당한 이유에서인지 대립중에는 결코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는다. 이유야 어찌 되었건 끝내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 고집을 피울 땐 나의 설명이나 반박은 통하지 않게 된다. 이 정도에 이르게 되면 나도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 결국 울화통이 터지기 마련이다.

서로에 대한 의견차이와 아집은 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는다고 보다는 덮고 넘어가는 것이 대개의 경우이다. 그도 그럴 것이, 결국 남남이 만났는데 의견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럼에도 내가 화를 내는 부분은 의견차이에 대한 그의 태도에 관한 것이다. 서로에게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오해를 풀고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야 된다

는 것이 내 생각이다. 즉 양보나 이해의 방식으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점에서 타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타협점보다는 상이점만을 서로 확인한 채, 자신의 의사에 복종할 것을 강요한다거나 혹은, 마냥 누가 잘못했나에 대해 싸우는 것만이 남게 된다.

처음에 연애를 시작할 때, 남자친구는 자신의 간이라도 빼줄 듯이 갖은 정성을 다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태도는 상이하게 변했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어 있는 듯하다. 이런 상황은 굳이 나만의 경우는 아닌 듯하다. 오래 전 친구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와 비슷한 이유로 나에게 불만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친구에게 객관적으로 연애라는 것이 항상 같을 수가 있겠느냐고 말했지만 막상 내가 그 처지에 이르고 보니, 간단히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연애를 하면서, 여성은 남성에게 두가지 여성상을 강요당하는 듯하다. 하나는 지고지순형의 여성상이고, 다른 하나는 전사형의 여성상이다.

현모양처로서의 소임을 다하면 어느 정도의 까탈이나 짜증은 애교로 봐줄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내조를 잘해야 한다는 것과, 결단력과 행동력, 지성을 고루 갖춘 여전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적어도 내 남자친구는 이 양자의 모습을 고루갖추길 원하는 것 같다.

사람들 사이에는 언제든지 권력이 존재하게 된다. 연인 사이라 할지라도 이 권력의 긴장관계는 존재한다.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기득권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결국 이런 기득권 싸움에서 패한 사람은 복종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럼, 연인사이에서의 기

득권자는 주로 누구일까? 나는 남성이 대부분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단순히 싸움에서 지고, 이기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기본적으로 여성은 남성에게 한수 접고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남성의 의지에 의해 둘의 관계가 성립되어진다고 본다.

한때, 나는 이 기득권의 문제를 사랑의 권력관계로 파악한 적이 있었다. 둘 관계 중 덜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득권을 빼앗기게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랑의 양을 잴다는 것은 지극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관심의 표현이 잦다고 하는 것이 개인의 특성인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사랑해서인지 확인할 수는 없다.

여성도 상대방에게서 관심의 표현을 비교적 더 많이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여성이 남성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오히려 여성은 의식적으로든 혹은 무의식적으로 교육받아지고, 사회화된 대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연민이 많지 않을까?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 사랑의 표현방법도 보편화된 것들에 따른다.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다.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 남성 역시 여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자 한다. 즉, 남성은 둘의 관계를 리드하고, 여성이 자신의 의사를 존중하고 따라와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행동양식은 무의식적으로 이뤄진다.

물론 이런 나의 경험이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을 것을 배제하지는 않겠다.

'사랑'이나, '연애'는 도깨비 방망이나 요술램프가





아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거니와 항상 만족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 사실을 나와 내 연인은 종종 잊어버리고 행동한다. 그래서 서로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불만을 품게 한다. 하지만 이런 불만과 부담으로 인해 요즘, 남성과 여성의 벽이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 그러면서 내가 여성이기에 느끼는 현모양처의 부당함과 부담감 그리고, 여자로서 갖는 불만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사회에서 요구되는 여성상에 대해 강한 부정을 하고 있었으면서도 현실에서는 내 스스로 그 여성상에 안주하려 하는 모습을 내비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문제를 알았으니, 해결을 해야지!' 라고 쉽게 생각하면 오산이다.

연애에 대해 깊이 아는 사람은 절대 연애를 오래하지 못할 운명이라고 누군가 얘기했다. 어쩌면 이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오랫동안 다르게 교육받아온 여성과 남성의 위치는 이성적으로 쉽사리 변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느 한쪽만 변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변

하리라고 보장할 수도 없다. 연인관계에서 평등은 없다. 서로에게 불평등만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오늘도 내 애인을 만나 웃고, 떠들고, 즐겁게 보내려 노력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 눈에 아직 통각지가 안뱌져졌으니깐. 그리고, 적어도 내 스스로 우아하지 않을지라도 우악스럽게 내 나쁜 버릇은 고쳐나갈 것을 알기 때문이다. **11**



이명아

백수. 자신의 연애담을 밝히는 것은 결코 쉬운일은 아니었다. 더욱이 애인 홍보기는 우선은 지면을 통해 나가는 것은 내 사생활을 밝히는 것이고, 애인의 차부(?)를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온 후 주변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하면 남사스럽기 짝이 없다. 글을 다쓰

고 애인에게 우선 보여줬다—물론 사진검열을 거쳤다는 것은 아니다. 글을 보고 애인할 '광삼이'라 하여 3에 반박문을 보내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기도 했지만 반성(?)하는 기미를 보여 나를 기쁘게(?) 했다. 비록 누워서 침뱉는 격일지 모르지만 애인 홍보기는 유쾌했다.

여자의 사랑 VS 남자의 사랑

내가 진짜로 바라는 성과 사랑



여성들이 이미 만들어진 사랑각본을 던져버리고, 전혀 새로운 사랑이야기를 꿈꾼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상상의 나라를 한번 펼쳐보자고 했다. 혹자는 현재의 사랑에서 출발하고, 혹자는 마음껏 '상상' 했다. 그러나 상상 일지라도 개인의 사생활을 드러내기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 엄격한가 보다. 필자의 이름을 가명으로 한 것에 대해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 편집부

나는 내가 바라는 사랑을 쓰기에는 조금 결고 러운 사람이다. 현재 나는 애인이 있기 때문이다. 불만이 없느냐? 물론 불만이 있다. 그래도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몇가지 쓴다.

먼저 나와 말이 통해야겠지? 돈이야 내가 벌 수도 있는 것이고(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부모님은 불같이 뛰신다. 여자가 편히 살 수 있는데 굳이 돈도 없는 남자를 만날 것이 뭐 있냐며), 인물이야 보다보면 정이 드는 것. 하지만 생각이 틀리면 삼십년 넘게 살아야 할 사이에 너무 많이 싸울 것 같다. 참, 추상적인 얘기다. 생각이 같다는 것. 하지만 이것은 굳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만날 때 친구가 될 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조건은 그가 나의 과거를 충분히 이해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살아온 과정을 동정하거나 가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좋을 것 같다. 나는 연애험름이 많은데 그것도 다 인정해주었으면 한다. 연애험름이 많다는 것은 사랑이 많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남자들의 경우 처음에는 인정하지만(그 사람과 사랑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고민하거나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다. 나의 경우는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의 반복 속에서 약간 지친(?) 상태다. 처음에는 '왜 그랬냐?'며 안타까워하다가 나중에는 '너는 원래 그렇고 그런 애 아니냐?'는 말까지도 들었으니... 나의 연애험름은 나의 사랑에 대한 기록이다. 그런 기록을 같이 나누고, 그의 사랑에 대해서도 내가 관대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세번째는 그가 여성평등론자가 아니라 착한 남자인 것을 바란다. 여성평등론자인데 하는 남자들의 경우 말만 번지르르하고 실제로는 별로 도와주는 것이 없

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진정으로 평등주의자인 남자를 만나는 것은 힘들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착한 남자를 원하는 것이다.

음...이 정도 조건을 갖고 있으면 그와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아직도 몇가지 시시콜콜한 것이 더 남아있다. 그가 섹스에 있어서 솔직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음... 나는 경험이 많은 편인데, 그런 것을 속이고 싶지 않다. 서로 대화하면서 오르가즘에 같이 이를 수 있으면 좋겠다. 섹스도 사랑에 있어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전 참 재미있는 조건인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빨이 고르고 코가 높아야 한다. (이것은 우생학적으로 2세를 위한 나의 바람이다.)

조건이 다 맞다고 가슴이 떨리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정말 진한 눈빛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아마도 그것은 한순간에 반하기 때문이 아닐까? 3년을 알았어도 사랑에 빠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 현재의 애인? 아마도 이 조건에 제일 맞는 사람인 것 같다(정말이다). 자기 사랑해~

차미정(가명), 잡지사 기자, 26세

놀기도 섹스도 살림도 잘하는 남자

기대고 있을 때-내가 정말로 힘들어서 갈피를 못잡고 불행해 하고 있을 때 내 연인이 이런 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나 지금 굉장히 바쁘지만, 두시간 동안 집중해서 이 일을 끝마칠게. 그러면 11시가 될텐데 그때 만날 수 있을까? 내가 너에게로 갈까?' 그렇게 어렵게 만난 그 사람에게 내 얘기를 주섬 주섬 꺼내거나, 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같이 있기만 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함께 있으면 나

를 믿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에 서서히 기운을 차리거나 난국을 헤쳐 나갈 아이디어를 찾을 수도 있겠지. 그리고 이런 위로와 보살핌을 일방적으로 내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내 연인도 내게 달려와 이렇게 기대다 앉으면 좋겠다.

취미생활-내 연인은 빈 시간을 이용해 자신을 즐겁게 만들 수 있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시간이 날 때 내가 골목을 쏘다니며 단골집 놀리기를 즐기는 것처럼, 그 사람도 시장구경을 다니거나 산에 오르거나 야구를 보러가는 등의 방법을 알고 있어서, 간혹 서로의 방법대로 함께 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각자의 노는 방법을 전수한다면 우리는 두배로 재미있게 지낼 수 있을테니까. 물론 내가 피곤해서 함께하지 못하면 섭섭하겠지만, 곧 자신의 페이스를 찾고 충분히 잘 놀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일테고.

이상과 섹스-그 사람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눈이 반짝거릴만한 꿈(이상)을 가지고 있을테고, 자신의 몸과 정신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일 것이다. 또한 자신을 중히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는 인격을 가졌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섹스는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법이 될 것이다. 한번의 대화로 완전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섹스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오래도록 정성을 다할 것이다. 또한 가끔은 가벼운 수다를 떠는 것처럼 가볍고 유쾌한 섹스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섹스의 언어,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살림-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해먹고 집안을 꾸미는 일에 흥미를 느끼고 잘해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상이나 정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먹고 쓰고 자는 물질적인 것도 함께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사람일 것이다. 몸과 마음을 향상시키는 데 애쓰는 사람이기 때

문에 집안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 일을 잘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저녁식탁을 꾸리면서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찌개가 다 끓었으니까 자기는 밥을 좀 퍼줄래? 와, 세탁기가 다 돌아갔나봐. 지금 꺼내지 않으면 빨래가 꾸글거릴텐데, 찌개 불 켜 으니까 이것도 좀 내려봐. 나 얼른 빨래 꺼내놓고 올게.' 난 이때 뭐하냐? 찌개 내려놓고 계란프라이라도 얼른 부쳐내고 있지, 뭐.

대강 이 정도가 떠오르는데 그밖에 웬만한 것들은 별 상관이 없다. 그가 수다스럽든지, 또는 말로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든지 말이다. 그런 건 그 사람의 개성이니까 나도 뭐라고 하지 않겠다. 경우 바르고 기본적인 마음가짐만 반듯하다면야 뭐... 11

김영숙(가명), 회사원, 28세

'격'이 있는 섹스라야 마음도 끌린다

미국의 여성 인류학자가 쓴 '사랑의 해부학'에 흠뻑 매료된 적이 있다. 남녀가 서로 '홀딱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첫눈에 반한 사랑을 접했을 때 빨라지는 심장박동, 쿼퍼트의 화살을 맞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상상으로 온통 눈과 마음을 빼앗기고 머리 속이 늘 사랑의 그림자로 꽂 채워지는 경험에 대해서, 그리고 일부일처제의 결혼, 그 속에서 다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이혼의 보편성을 참으로 명쾌하게 구성해놓았던 걸로 기억한다.

난 이 책이 그려놓은 인간의 '격변하는' 성감정과 사랑의 진화, 그리고 인류의 조상들의 성과 사랑,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현재의 우리 몸속에 똑같이 흐르고 있는 어떤 원초적 사랑에의 기억에 뜨겁게 공감했던 강렬한 기억이 있다. 나 또한 '사랑의 해부학'의 바로 그 주인공임을 한 남자를 통해 깨달았고 그로 인

해 오랫동안 내 마음 한켠에 쌓아두었던 어떤 '벽'을 비로소 허물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남자에 대해 둘러쳤던 성벽을 그토록 자연스레 철회했던 것은 '홀딱 빠짐' 때문이었다. 어쨌든 난 한 남자를 통해서 나와 이 사회와 그밖의 많은 것들과 화해하기에 이른 소독도 올랐다. 난 몸과 마음이 '홀딱 빠지는' 사랑과 섹스를 꿈꾼다. 성적 공상을 제외한다면 현실 속에서 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과의 성을 생각하기 어렵다.

누군가에게 홀딱 빠진다는 것을 난 거부했었다.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믿지 않았다. 오랫동안 마음으로 남자를 좋아한다고 느끼면서도 몸을 나누기는 지점도록 거부했었다. 온전히 마음을 주지 않았고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또 어쩌면 마음가는 대로 몸을 나누는(그 반대가 됐든) '실습' 이전에 지나치게 많이 배워버린 이론이 날 어떤 선입관에 묶어놓았던 탓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어느날 난 그 사람 앞에서 '가슴 두근거림'을 체험했다. 그 사람 앞에서 평생 처음 정신이 아련해지는 걸 느꼈고 안절부절했으며 가슴이 쿵쿵 뛰는 심장의 박동을 느꼈다. 내가 그에게 사랑을 느꼈던 건 그가 나의 '애정의 조건'을 동방이라 할만큼 충분히 채워줬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비굴하게 어떻게 해서든 여자의 마음을 끌려고 안달하지 않았고 술 한잔 먹고 온근슬쩍 몸을 '부딪치거나 내 살에 닿으려는' 아비한 짓도 하지 않았고, 날 '성적인' 존재로 대하기보다 마음으로 느껴지는 정중한 '사람대접'을 해줬고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아집, 우스운 남자의 권위로 거들먹거리지도 않았다. 또 그의 생각이 참으로 자유롭게 흐르고 있었고 행동에도 거짓 없는 인간의 품격에 진한 사랑을 느꼈다.

온밀한 애정의 나눔에서도 그랬다. 난 그래서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할 수 있었고 온밀한 애정쌓기에 어떤 부끄러움이나 '가식', 내가 오랫동안 '외혹의 눈길'로

막연히 두려워했던 것들, 남자와의 섹스에서 상처받기 쉽다는 편견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남자와 몸을 '나눔'에 있어 어떤 실망 없이 또 상처받지 않고 지금도 좋은 기억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은 섹스에도 인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난 그때 남녀간의 성이 그렇게 큰 기쁨과 위안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내가 꿈꾸는 사랑은 '성적 매력'에 앞서 '인격적 마음결'이었던 것처럼 서로의 몸을 나눔에서도 '섹스의 격'이 우선한다고 믿는다. 그건 실망이나 상처받지 않는 나눔의 섹스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그건 욕망이나 욕구에 지배당하지 않는 '쿨섹스Cool Sex', 그 뒤에 자연스레 열매 맺는 핫섹스Hot Sex와 같은 것이다. 가식없는 '인간적 솔직함'이 주는 기쁨만큼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늘 내 기분과 느낌을 말 없이 읽어가며 나를 배려해주고 있다는 느낌은 '주고 받는 성'을 가능케하며 원초적 본능을 느끼게 해준다. 때론 오르가즘이 없다 한들 크게 문제될 것도 없다. 오르가즘을 느끼고야 말겠다는 '욕심'의 몸짓이나 '강한 성'을 과시해보려는 미련 등이나 섹스로 여자를 제압하겠다는 남성적 권위에 사로잡힌, 자기 편견에 눌린 성을 난 거부한다.

지금도 남녀간의 사랑에는 '마음을 사로잡는' 첫단계가 필수조건이라고 믿고 있다. 내가 홀딱빠질 수 있는 몇가지 '애정의 조건' 그리고 몸을 나눔에 있어서 마음으로 영혼으로 느껴지는 '상대에 대한 작은 배려'야말로 내가 꿈꾸는 최상의 사랑이다.

내가 꿈꾸는 완벽한 사랑의 마지막 조건은 사랑한다는 사실만으로 '결혼'이란 틀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사랑의 해부학'에 진한 매료된 듯이 한 남자와의 사랑을 '집중해부'한 이후 사랑한다고 해서 곧장 결혼이란 제도의 틀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동거'란 그릇에 사랑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꿈을 한국땅에서 실현해보기란 참으로 어려울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꿈을 꿀 수 있다

는 목표가 있어서 좋다. 설사 내 꿈을 실현할 수 없어도 난 여전히 남녀간의 사랑은 '동거'라는 그릇에 담겨지는 게 '결혼'이란 그릇에 사랑을 담아내는 것보다 사랑을 농익게 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라고 믿고 있다. **11**

박현민(가명), 방송작가, 36세

사랑에서 값진 인생을 배운다면

성숙한 사랑은 절제로 충만하고 이상화를 거부하며 절부, 피학증, 강박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랑이고 성적인 차원이 가미된 우정의 한 형태이다. 난 최근에 책에서 읽은 이 사랑의 정의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알랭 드 보통의 『로맨스』, 여기서는 또 미숙한 사랑을 이상화와 실망 사이를 비틀거리며 오가는 사랑이라고 말한다. 이 역시 타당하다. 운명의 사람을 만난 것 같아도 쉽게 이별을 이야기하고 내뱉은 말을 바꾸기 일쑤니, 불안정하게 약속을 늘어놓던 A는 일주일 만에 마음을 바꾸고 C는 제비처럼 나에게 돈을 꺾가더니 안면무수했다. 그리고 난 K의 미성숙을 탓하며 쉽게 실망한다.

사랑만큼 예민한 허상이 있을까. 한마디에 잠 못 이루며 그리워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바보 같은 시간이다. 그러나 사랑은 계획 세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막을 수가 없다. 어느 순간 불현듯 느낌으로 다가와 나를 살아있게 하고 내 감각기관을 생기 있게 한다.

시간이 흐르면 각자의 의식과 생활이 서로를 깔고 다듬으려하니 서로의 심지를 버리지 않는 선에서 타협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본다. 나는 타협할 줄 몰랐다. 어머니세대가 겪는 자기가 없는 삶이나 우리세대

가 결혼하면 결국 꿈은 끝나버리는 모습을 보며 아직도 남성을 믿지 못하고 있다. 환희와 같은 시간(영화 〈나인하프워크〉 정도)이 가고 결코 사랑이 로맨틱하지 않다는 걸 알면 오히려 방향을 찾기보다 사랑을 포기하고 만다. 아직까지는 동성처럼 자유롭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는 이성을 만들지 못해서일지도. 그런 사람을 만나도 보통 애기하듯 타협을 결혼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의 발전을 결혼으로 보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지. 이 시대의 결혼이 뭐 그리 좋은 제도라고, 나는 우리가 익숙한 모든 것을 한번쯤 거부하고 의심해봐야 하는 세대라고 생각한다. 마음이 열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사랑에는 필요하다.

그러나 너무 이상적이다. 이 땅에서 원하는 여성상에 도전하려는 삶은 피곤하고 자칫 정신분석학이나 금욕주의자로 변하게 한다. 이것은 성적인 부분에서도 그렇다. 이론적으로야 성에 대해 자유롭고 이보다 먼저 피해의식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여성, 남성은 함께 잠을 자는 것에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며칠 전 길거리에서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광고지를 보았다. 그것은 정력강화도구 광고였다. 등글게 생긴 물건에는 구슬이 세개 달렸다. 그중 가운데 것은 여성의 클리토리스를 자극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친절할 수가! 나는 서로의 신체, 성감대를 잘 아는 부드러운 사랑을 원한다. 혼자 혈레벌떡 숨가쁘게 일을 마치고 정력을 논하는 변강쇠보다는 느낌을 이야기하는, 발전하는 섹스를 원한다. 남녀가 무척 다른 동물이라는 것은 성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남성들이 성관계를 가진 후에 여성들이 하는 생각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사랑이 될 때 남녀는 지금보다 훨씬 진보적인 관계를 만들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피곤하고 허무하고, 이별 후에는 오래동안 가슴앓이를 해야 하는 것이 사랑임에도 오는 사랑을 막지 못하는 건, 과거의 사랑이 나를 성장시켰기 때문

이라고 생각한다. 사랑의 감정은 정리되고 헤어지기 만 그 이별로 관계는 끝나지 않는다. 다만 마음 속 저 깊이 침잠해 다른 무엇이 그 자리를 채우고 나의 중심이 바뀔 뿐이다. 나는 내 기억 속의 사랑에게서 값진 인생을 배웠다고 감히 말한다. 그리고 나는 그들로 하여 성숙했다.

사랑에서 교훈을 얻자는 게 내가 원하는 성숙한 사랑이다. **11**

엄미란(가명), 그래픽디자이너, 27세

완각제 같은 사람은 가라

나는 나와 비슷한 삶의 고난을 겪은 사람과 사랑하고 싶다. 나와 비슷하게 정리된 상태이고 그래서 삶의 고통에 대해 서로 이야기할 땐 눈시울을 붉히며 상대방을 기어워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아,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해봤다. 낙엽이 멋스럽게 물든 어느 호수가에 모처럼 같이 놀러가서는 '어머, 너무 멋있다. 너무 좋다. 너는 안 그러니?' '나도 그래, 나도 너무 좋다. 저 고즈넉함, 저 노을... 어머머, 여기서 꼭 죽고 싶다.' 이렇게 같이 풍수를 떨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겠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의 머리를 자기 어깨에 기대이게 하면서 분위기를 잡는다. 여자가 눈 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풍광에 감탄사를 연발하면 속으로 '오늘은 뭐가 되겠는데' 혹은 '나는 너하고의 접촉이 더 좋다' 그것도 아니면 '뭐가 그렇게도 좋을까' 그런 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너무 싫다. 나는 남자를 데리고 분위기 좋은 장소나 연극공연장이나 극장에 가기 싫어한다. 싫으면 싫다고 할 것이지 왜 쫓아와서 멀뚱멀뚱이람.

나는 또 갈등과 분노 속에 있는 내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남자가 좋다. '뭐든지 다 말해봐. 내가 들어줄

게.' 나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네가 그런 걸 보니 네 가슴이 참 아프다. 요즘 너 굉장히 힘들었구나.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좀 냉정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결국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너의 고민은 네가 해결해야 해. 나는 그저 너의 고통의 경험들을 들어줄 뿐이야 하고 말이다.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환각제 같은 사랑이 싫은 거다. 마치 인생의 절대적인 지주가 되줄 것처럼 허풍을 떨다가 결혼하고 나면 마누라의 착취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기적인 남편 때문에 경악하고 싶지 않다. 여자를 호물 호물 남편 없으면 살 수 없도록 만들어놓고 '내가 없으면 저 여잔 어떻게 살까' 호호해 하는 남자는 더욱 싫다. 남편 없으면 안절부절 못해 남편 없는 시간 내 내를 불행하게 보내게 하는 남자는 정말 싫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 부지런하고 살림 잘하는 남자가 좋다. 집안일에 관한 한 자의반 타의반으로 무능해서 제대로 도와주는 게 없는 남자는 30점. 게을러터져서 일거수일투족 아내의 시중을 받아야 하는 남자는 0점. 자기는 절대로 일하지 않으면서 잔소리만 많은 까다로운 인간—나는 이런 남자를 '인간'이라고 부른다—은 -30점.

섹스는? 나는 섹스가 그리 궁하지 않다. 아이를 배고 배 속의 아이의 움직임을 느끼고 아이를 기르고 그 아이의 보드라운 살결을 부비고 있으면 남자와의 섹스 때보다 더한 짜릿함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리비도 상승 곡선 100.

그래도 성인과의 섹스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우선 나는 출산 때문에 축쳐진 나의 배와 가슴 그리고 눈썹 건 눈, 부스스한 머리를 쓰다듬어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리고도 섹스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면 할 수 있다. 알몸으로 만나면서 자신의 외모를 늘 신경써야 한다면 도대체 귀찮게 섹스는 왜 해? **12**

박승경(가명), 주부, 34세

미혹 말고, 매혹, 도취 말고 교감

회사의 내 책상머리에 꽂혀있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

그래, 어쩌면 내게 사랑이란, 또 연애란 그 그림의 빛깔과 인상이 그리고 있는 그 황금빛 같은 것일지도 몰랐다. 또는 몽롱하고 혼곤한 키스 같은 것. 무릎을 꿇은 채 한 남자의 손에 얼굴을 내맡긴 그녀의 고풍적인 표정.

그러나, 이제쯤은 아니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몇개월 전, 행복했던 연애를 끝낸 나는, 그리고 지금쯤 또 다른 관계 속에서의 조율로 조금은 피곤한 내게 그것은 어쩌면 '매혹'이 아니라 '미혹'으로 다가온다.

내 대학생활의 모든 관계들을 차단한 고의적인 유희의 시기에 이뤄진 관계는 특별한 진중함의 무게를 안은 것이었으며, 난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한없이 진지했다. 대학생활 내내 연애와 사랑 그리고 결혼에서의 평등한 동지적 관계라는 규범을 부여받고 살았으며 그 강박함이 어찌나 지나쳤던지 그 속에서 연애동지하나 만나지 못했던 나. 내 그때 사랑에 휘둘리는 이들을 얼마나 비웃었던가!

그러나 새로운 관계 속에서의 난 '아! 동지적 관계고 나발이고 지옥에나 가버려라' 하는 심정이었고, '감성의 확고한 진지를 이성으로 공략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라는 쿤데라의 명제는 뱃속 깊이 절절한 느낌을 안겨주고 있었다. 무릇 모든 이론은 회색이었으며, 그를 향한 나의 감정만이 저 푸른 초원 위에 싱싱하게 빛나는 푸르른 생명의 나무였을 것이다.

그러나, 둘 중 어느 하나도 그다지 솔직하지 못했던 우리는 수시로 소통부재의 상황 속에서 힘들어야 했고, 그 어긋남에 그저 답답해 했던 나는 홀로 '춘천가는 기차'에 올라보기도 했다.—정말 뱃속까지 낭만적이었던 시절!

그리고 철저한 교감을 원하는 나의 조바심과 그로 인한—그저 자신의 공백과 외로움을 지켜줄 이가 필요했던—그의 불안을 눈치챈 서로가 '정리'의 필요성을 느낀 것은 만난 지 일년을 넘어선 때였다. 솔직하지 못한 자들의 어리석음으로 낭비한 시간치곤 좀 길다.

이제 곧 헤어질 서로에 대한 예의로 마지막에 가장 솔직할 수 있었던 우리는 그간의 소통부재를 통한 그 어긋남을 처절하게 확인한 후, 나의 눈물, 그리고 예의바른 그의 눈물을 끝으로 헤어졌다.

요즈음의 난, 그로 인해 울고 웃었던 내 지난 시간을 고민중이다. 나를 잃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았던 끔찍한 황홀의 경험에 비추어, 내 이성의 강박함을 복돋우는 일이 행복하게 조화될 수 있을지를 고민중이다.

또한, 이제 만날 그는, 제 속세것에만 도취되어 있는 자이기보다 교감을 중요시 하는 사람이기를, 제 감정과 욕망에 솔직하여, 서로가 투명한 정신과 육체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내 사랑과 연애가, 나를 지키며 가는 매력적인 두 인간의 만남이 되길 희망하는 중이다. 실패를 자양삼을 줄 아는 내 현명함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빛나기를 바라고 있다. **13**

신경옥(가명), 직장인, 24세

신(God)이 아닌 신임을 아는 남자

이제껏 꿈꿨던 생각해보는 적도 없고, 누구나 다 하는 막연한 기대감도 없었기에 내가 바라보는 남성상이라 하니, 숨이 턱 막힌다. 스물 일곱이라는 나이를 먹은 이제껏 뚜렷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이유는 나의 무지함에도 그 이유가 있을 법하다. 그러나 내게도 희망은 있다. 좋은 남성상이란 그리 흔히 접해보진 않았지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나쁜놈들의

전형을 보아왔고 들어왔기에 그 부분만을 제외한다면, 몇개의 굵직한 구획선을 그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시집가라고 난리치는 나의 엄마, 아빠를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너무나 멋있게 내세우는 방패가 있다. "난 살림에는 쟁쟁이야." 귀가 달도록 들어온 시집학, 사랑학이론에도 그나마 건질만한 한가지 흡족한 대답이 있었다. "시집가서 니 멋대로 살면 되잖아!" 그러기에 나의 궁색한 살림능력을 보조할 수 있을 만한, 밥 잘하고, 빨래 잘하고, 이론바 살림 잘하는 남자가 나의 남성상 첫째 조건에 들어간다.

둘째, 키가 커서는 안된다. 어려서부터 키 큰 아빠가 멋있기도 했지만, 환상은 잠시. 키 크면 싱겁다라는 말처럼 물에 푼 듯 멍멍한, 아무 맛도 없는 설렁탕처럼 싱겁고, 우유부단한 아빠의 성격이 싫었다. 그 싱거움에 속 끓여온 엄마를 보면 화가 치밀어올랐다. 아니나 다를까, 그동안 내 눈에 보인 키 큰 남자들은 싱거움의 극치를 이루며, 키 큰 놈은 안돼!라는 고정관념을 키워왔다. 그래서 난 찌고, 달고, 새콤한 단무지가 좋다.

셋째, 가슴이 하나인 남자였음 좋겠다. 굳이 하나라고 이름짓는 그 가슴은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열기설기 조각난 가슴을 영성하게 짜맞춘 헝거운 마음이 아니라, 크고, 단단하고, 살아 숨쉬는, 살의 열정이 뚝뚝 뛰는 가슴을 가진, 하나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슴을 가진 남자. 살이라는 무게에 치이며, 여기 저기 볼 것도, 재미난 것도, 짜릿한 것도, 더러운 것도, 비겁한 것도 많은 세상에 그 잘난 가슴팍을 꼭 내밀 수 있는 남자였으면 한다.

넷째, 섹스sex, 섹스에 대해서라면 할 말이 많다. 대학 2학년 아무 것도 모르는 이론바 순수를 가장한 무지함으로 만난 나의 첫 남자. 사랑이란 것이 이런 거구나 하며 쓴물, 단물, 눈물 다 짜던 그 시절, 그 친구는 성에 관해 무지한 나를 끌어들여 이론바 올바른

성교육을 한답시고 으시였지만, 손잡는 데도 몇개월, 키스하는 데도 몇개월 걸리다가, 군대가기 전날 밤 그 친구와 나는 실제상황에 돌입하려 했지만 알곳은 생리 때문에 무산되고 말았었다. 그후 나의 성경험은 사랑을 느낄 새도 없이 갑작스레 찾아왔고, 나의 첫경험은 그렇게 아무런 느낌도 없이 나의 처녀성을 앗아갔다. 그후로 성이라는 것은 내게 거추장스런, 아무 쓸모없는, 없었으면 좋을 그런 막연한 혐오의 테두리에 갇히게 되었다. 따라서 진정 내가 바라는 남자라면 나의 닫힌 성을 함께 열어줄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사랑스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다섯째, 신(God)이 아닌 신념을 아는 남자여야 한다. 나를 볼 수 있고, 믿어줄 수 있고, 떠날 수 있는 믿음을 아는 남자, 믿음을 공유할 수 있는 남자. 그래서 세상살이가 그리 힘들지만은 않은 그런 남자, 아니 친구였으면 한다. 내가 여자여서, 네가 남자여서 서로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닌 나는 나, 너는 너지만 같은 인간이라는 동일시점에서 서로를 보듬고 아끼 줄 아는 그런 남자였으면 한다. [1]

강 연(가명), 대학원 진학준비, 27세

나 지금 굉장히 하고 싶은데 넌 어떠니?

한 나이트클럽에서 약간의 취기가 돌면서 나는 불현듯 그를 생각했다. 자세히 말하자면 갑자기 그와 섹스가 하고 싶어진 것이다. 공중전화박스를 계속 주시하면서 드디어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나 너랑 섹스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피식) 까불고 있네."

"뭐라구? 왜? 싫어?"

"술 많이 마셨나?"

"아니 별로."

"알았어, 빨랑와."

"준비(?)해놓고 있어."

"필?"

"말했잖아, 섹스하고 싶어서 전화하는 거라구."

"(목청이 커지면서) 진짜 까불고 있네, 너네 회사에서는 그런 것만 가르치냐?"

"뭐라구? 아, 그게 내가 섹스하고 싶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단지 읽는 분들 재미있으라고 하는 건 아니다.

○○와 사귀기 전에 연애했던 오빠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참 섹스를 좋아했다. 나도 그 사람을 사랑했으므로 좋아하긴 했지만, 여자들이 오래 그러한 것처럼 나 또한 적당한 무드와 편안한 공간이 제공되어야만 '하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는 정도였다. 그런 나에게 내 감정이나 욕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아무 곳에서나 (둘만 있으면) 불쑥불쑥 들이대는 그의 욕망은 정말이지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다. "섹스라는 게 사랑하면 원하지 않아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오빠와 "먹기 싫은 밥 억지로 먹으라 그러면 오히려 좋겠어?"라며 날밤까고 싸운 날이 부지기수였던 나는 어떻게 하면 '나는 지금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표시를 정중하게, 오빠의 자존심이 안 상하게(사실 그게 자존심 상할 문제도 아닌데 말이다.)할 것인가를 고민했었다. 하고 싶지 않은데 왜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싫다'고 얘기했는데 왜 굳이 하자고 드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다 나는 그 오빠와 헤어지고 지금의 ○○을 만났다. 그리고 고민은 정반대로 바뀌었다.

○○은 그 오빠의 반의반만큼 섹스를 요구하지 않는다. 본래 스킨십을 좋아하는 나는 꼭 섹스가 아니

더라도 만지작거리는 걸 좋아하는데 우린 같은 공간에 둘만 있어도 제각기 따로따로 논다. 내가 원할 때 그의 눈치를 슬금슬금 보다가 어쩔다 의사표시를 하면 "(체려보며)봐하기는..." 하며 면박주기가 일쑤다. 싫다도 좋다도 아닌 그의 말은 나를 매우 혼란스럽게 했고, 여자인 나에게 있어 '밝힌다'라는 말은 '싫다'는 대답을 듣는 것보다 더 수치심을 갖게 했다. 자연히 나는 하고 싶을 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고, 섹스란 그가 하고 싶을 때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갔다. 그런데 이렇듯 요조숙녀처럼 그의 부름(?)에 응답하기만 하던 내가 그날은 결국 일을 저질러버린 것이다.

물론 약간 강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지만, "하고 싶다"라는 말을 당당하게 내뱉고 난 후의 느낌은 마치 목에 걸린 가시를 뺐어냈을 때의,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시원함, 후련함 그 자체였다.

성관계에 있어서 '싫어'라는 말만큼 '하고 싶어'라는 말도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나라 여성들일 거다. 그러나 더이상 내 육체, 내 마음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싶다. '여자가기 때문에', '섹녀'라는 소리 들으면 안되니까 동등의 말도 안되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마음 저 구석에 밀어놓지 말고, 능동적으로 표현하면서 살고 싶다. 난 지금 굉장히 하고 싶은데 넌 어떠니? 라고 말이다. [2]

배정희(가명), 컴퓨터학원 강사, 25세

사랑이란 ...!?



해방감을 뽐내며 시켜주려고 창녀처럼 굴기도 하고.



결핍된 사춘기 시절의
욕구를 위해 여학생 노릇을...



유아적인 애정결핍은
채워주느라 엄마를도 열심히.....



남녀의 굴림욕을 채워주느라
시녀처럼...



남편의 마음속을 채워주느라
채찍질도 마다 않았죠.



세디즘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남편의 노예도 기꺼이



변태성욕을 위한 신체 노동도 기꺼이



우리 행복한 결혼 지속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 비록 저 세상에서지만...

IF · 가 · 뽕 · 은 · 나 · 뽕 · 광 · 고

오늘, 그대를 체포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남자.
생각하면 떠오르는 세련된 것이 아닐까요.
조금만 서둘러서 원정단은 나의 세상.
나의 사랑을 전할 때 '리플드'가 있습니다.
금속감이며 명품으로 들어오는 리플드 - '리플드'.



leeGold

금속감이며 명품 - 리플드



“포르노그래피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빨간 마후라〉와 〈래리 플린트〉

“우 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왜 포르노그래피의 장면은 당연하다고 믿는 것일까? 도대체 사람들은 어째서 그것을 믿는 것일까? 포르노그래피의 장면이 신뢰성을 가지려면, 여성은 얼마나 인간 이하의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 포르노그래피를 사용하는 남성들에게 여성은 얼마나 인간 이하의 존재일까? 포르노그래피가 남성들에게 오르가즘을 일으키도록—남성들이지 여성들이 아니다—한다는 이유 때문에, 남성들이 포르노그래피를 믿는다면 남성에게 섹스란 무엇인가? 또한 여성은 어떻게 해야 섹스를 무사히 지나쳐 살아 남을 수 있을까?”

안드레아 드워킨, 『포르노그래피』 중에서

십대가 찍은 불법 포르노다큐멘터리 <빨간 마후라>가 장안을 벌려 뒤집어 놓았다. 그런 와중에 시내 극장에선 아슬아슬하게 여성의 성기를 가린 클로즈업 배경에 미국기로 역시 성기를 가린 남자가 십자에게 달려 독기 어린 시선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야릇한 포스터를 내건 미국영화 <래리 플린트>(올리버 스톤 제작, 밀로스 포만 연출)가 개봉되었다.

전자가 십대의 불법 다큐 포르노그래피여서 문제라

성조기와 여인물에 둘러싸인 래리.



면, 후자는 미국의 대표적인 포르노그래피 잡지 『허슬러』의 발행인 래리 플린트가 표현의 자유를 실천해가는 영웅담으로 한국 관객의 흥미를 끌고 있다.

그러나 포르노그래피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이 두가지 경우는 전혀 다른 의미작용을 한다. 전자는 청소년 문화의 타락에 대한 발견이자 이런 현실에 대한 탄식을 유도하는 반면, 후자는 민주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 문제를 제법 진지하게 다루는 일급 영화로 해석된다.

게다가 최근 우리사회에서 명목상 불법이라는 포르노그래피를 둘러싼 매스미디어나 법적 시스템의 반응 내지 대응은 중구난방이어서 갈피를 잡기 힘들다.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보면 이런 식이다.

마광수의 소설 『즐거운 사라』와 장정일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는 한국사회의 성적 통념에서 볼 때 외설적이어서 공공의 성관념과 성도덕에 위반되기 때문에 유죄이다. <미란다>류의 속칭 벗기기 연극도 여배우의 나신을 성적 흥분의 대상으로 다루기 때문에 외설적이고 따라서 우리사회의 일반적이고도 상식적인 성도덕에서 용납할 수 없기에 유죄이다.

콜걸의 나라 한국의 프라이드

그리고 미국의 포르노그래피잡지 『펜트하우스』의 한국판 발행도 허용할 수 없다. 한국은 미국이 아니고, 따라서 그쪽에서 통하는 성적 표현의 수위가 우리에겐 감당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것이기에 안된다. 사실 이런 논리 뒤에는 동방예의지국인 한국은 다른 문화권(특히 서구)에 비해 성도덕에 관한 한 매우 높은 수준을 견지한 점잖은 사회라는 프라이드가 비티고 있다. 이런 프라이드는 세계에서 성폭력 3위국에다,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몸과는 여성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매매춘 네트워크가 태국을 제쳐두고는 별로 따라올 나라가 없을 정도로 발달한 곳으로 세계 관광 정보지에 소개되는 ‘콜걸의 나라 한국’이라는 외부에

알려진 한국의 포르노그래피적인 현실을 제압한다.

그런데 더 요상한 것은 최근 재미교포인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스타 이승희의 한국방문이 금의환양식으로 해석되면서 거의 전 매스미디어가 앞다투어 이승희 특집을 마련하고 그녀가 노랑나비라는 포르노그래피 스타로 성공하기까지의 눈물겨운 후남이 스토리를 감동적으로 소개한 사건이다.

‘이승희신드롬’이란 표현은 절대 과장이 아니다. 그녀가 떠난 지 석달이 다 돼가는 지금도 ‘이승희표’(실제로 그렇게 써있다) 문신과 장식물들이 화장품 상점을 비롯한 여러 매장에서 쉽게 눈에 뜨인다.

장정일’은 노, ‘이승희’는 오예?

미국의 포르노그래피 잡지 『펜트하우스』는 우리 실정에 안맞으니까 안되고, 우리 풍토에서 나온 마광수의 소설과 장정일의 소설은 우리사회의 일반 성관념과 성도덕을 모독하는 것이어서 역시 안된다. 그러나 이런 미디어보다 결코 덜 강력하며 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는, 차라리 이런 미디어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을지도 모르는 인터넷의 포르노그래피 웹사이트에 뜬 한국출신 포르노그래피 스타는 환영한다? 무엇이 됐건 간에 무슨 직업을 가졌건 간에 미국에서 성공한 한국인이니까?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카오스적인 이런 대응들은 포르노그래피의 존재를 표현의 자유와 단도직입적으로 연결시켜 포르노그래피로 매돈을 번 래리 플린트를 시민영웅으로 만드는 영화 <래리 플린트>에서 다른 양상으로 발견된다.

미국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우파적 보수주의에 대항하는 영화들을 즐기게 만들어진 올리버 스톤은 베트남전에서의 백악관 음모에 대한 관심에서 이번에는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포르노그래피업자 래리 플린트에게로 시선을 옮긴다.

표현의 자유를 찾아 할리우드로 온 구 체코슬로바



휠체어에 앉은 래리와 그의 아내.

키아 출신의 명감독 밀로스 포만은 <빠꾸기 등지 위로 날아간 새>의 처절함과 <아마데우스>의 경쾌하고도 장엄한 드라마의 성공 위에 <래리 플린트>를 세워 놓는다.

영화산업에서 일급 감독으로 꼽히는 올리버 스톤과 밀로스 포만이 <래리 플린트>를 만들면서 밝힌 자신들의 입장은 매우 명쾌하게 들리며, 특히 표현의 자유문제와 관련하여 설득의 여지가 있다.

올리버 스톤은 자신이 그동안 포르노그래피 산업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포르노업자 래리 플린트를 알고나서 생각이 변했다는 것이다. 밀로스 포만은 포르노그래피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포르노그래피를 만들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다”는 입장에서 래리 플린트의 삶 자체를 표현의 자유의 상징으로 존경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포르노그래피가 '표현의 자유'의 첨병인가?

이들은 '래리 플린트' 하면 떠오르는 '허슬러'와 포르노그래피업자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전제로 하면서, 동시에 포르노그래피에 대해 사람들이 가질만한 모든 부정적인 해석을 단방에 날려버린다. 그 대신 포르노그래피를 표현의 자유의 첨병으로 호도하는 위험천만하고도 아슬아슬한 말놀이에 맞게 영화 <래리 플린트>를 풀어나간다.

우선 그의 어린시절의 상처와 배고픔에 대해 관객의 동정심을 구한다. 래리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밀주를 제조해 파는 탁월한 장사꾼으로서의 재능을 보인다. 폭압적인 그의 아버지는 어린 래리가 돈을 벌려고 제조한 밀주를 먹고 취한 채 아들에게



스트립바의 뉴스레터로 시작된 잡지 '허슬러'.

『플레이보이』보다 더 노골적이며 더 저질스런 성적 농담과 그래픽을 내세운 '허슬러'를 창간한 래리는 엄청난 부와 함께 온갖 숭사에 몰려든다.

총질을 해대는 불한당이다. 어린 래리는 결심한다. "돈을 벌거야. 깨끗한 돈을 벌어서 성공할 거야"라고.

청소년기를 보여주지 않고 소년에서 어른이 된 래리에게로 카메라가 옮겨간다. 그는 그저그런 조잡한 스트립바의 사장이다. 자기 가게에 일 나오는 스트립걸들을 건드리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플레이보이 사업가가, 어른이 된 그의 정체성이다.

자신의 바를 선전하기 위해 포르노그래피 뉴스레터를 제작한 래리는 그것이 좋은 반응을 얻자 『플레이보이』의 위선과 바보스러움을 깨버리겠다는 야심을 갖는다. 『플레이보이』보다 더 노골적이며 더 저질스런 성적 농담과 그래픽을 내세운 '허슬러'를 창간한 래리는 엄청난 부와 함께 온갖 숭사에 몰려든다.

『허슬러』가 찐타클로스와 존경받는 기독교 목사, 유명 정치인들을 성적으로 회화화해서 다루자 우익보수집단과 종교집단, 정치조직은 테러로 래리를 위협하는가 하면 명예훼손등으로 그를 법정에 고발하게 된다. 그러나 래리의 편에는 (밀로스 포만처럼) 포르노그래피를 싫어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옹호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엘리트 변호사와 역시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시민운동단체(래리가 빚돈을 대는 단체 이긴 하지만)가 있다.

영화가 만든 '시민전사' 래리 플린트

이제 영화의 내러티브는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는 포르노그래피업자 래리를 시민전사로 만들어가는 영웅담의 색채를 본격적으로 띠게 된다.

래리가 그를 제거하려는 정치인의 사주로 테러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된 후 육체의 쾌락을 떠나 과거 스트립바에서부터 인연을 맺어온 알시아와 정신적 사랑을 나누는 관계의 묘사는 래리를 매우 인간적인 남자로 보이게끔 만든다.

법정에서 보수 우파집단의 위선을 폭로하는 촌철살인의 말솜씨와 비권위적인 행동거지는 그를 무식하지만 진보적인 지식인 같은, 이데올로기를 자생적으로 체득한 뛰어난 인물처럼 보이게 하는가 하면 매우 머리가 비상한 천재처럼 보이게도 한다.

이를테면 "법이냐 같은 쓰레기를 보호한다면, 여러분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의 자존심에 호소하는가 하면, "살인은 불법이지만 그것을 촬영해서

『뉴스위크』에 실으면 플리처상을 받는다. 섹스는 합법이지만 그것을 촬영해서 잡지에 실으면 감옥에 간다"라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고정관념의 모순을 신랄하게 고발한다.

포르노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 대단한 당대의 선동가이자 포르노그래피 거부인 래리 플린트의 대단한 입담과 그의 괴이한 삶에 관객이 매혹되고 설득당하게끔 짜여진 내러티브 때문에 막판에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명시하는 표현의 자유가 포르노그래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되더라도 불쾌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특히 자신의 스트립바 걸을 다 건드리고 주변 여자들을 모두 성적으로 상품화해서 돈을 번, 성도덕이라곤 없을 것 같은 래리가 에이즈로 죽어가는 알시아에게 표현하는 사랑의 정도는 감동적인 순애보처럼 펼쳐져 그를 더욱 사랑스런 인물로 보이게끔 한다.

그리고 보면 올리버 스톤이나 밀로스 포만이 <래리 플린트>를 둘러싸고 한 말이나 '이승희신드름'을 일으킨 우리 사회의 매스미디어들은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포르노그래피는 미워하되, 포르노그래피를 만들고 또 그것으로 먹고 사는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 마치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래리 플린트>의 승리는 자본의 승리

그러나 휴머니스트 냄새까지 풍기는 이런 감동적인 잠언에도 불구하고 <래리 플린트>와 포르노그래피에 얽힌 최근의 몇가지 사례들은 또다른 차원의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깨우쳐 준다.

우선 <래리 플린트>부터. 그의 승리는 표현의 자유의 승리가 아니라 자본의 승리이다. 그가 포르노그래피 산업으로 막대한 부를 얻지 못했다면 그 많은 법정

자신의 스트립바 걸을 다 건드리고 주변 여자들을 모두 성적으로 상품화해서 돈을 번, 성도덕이라곤 없을 것 같은 래리가 에이즈로 죽어가는 알시아에게 표현하는 사랑의 정도는 감동적인 순애보처럼 펼쳐져 그를 더욱 사랑스런 인물로 보이게끔 한다.



사건에 유능한 변호사를 대지도 못했을 것이며,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시민단체의 스폰서 노릇도 못했을테니까 말이다. 따라서 <래리 폴린트>의 표현의 자유는 자본주의가 보장하는 여성 몸의 성적 상품성을 정점으로 하는 포르노그래피 산업에 대한 허용이다. 그로 인한 이익금은 정치를 비롯한 사회 각 부분에 '활력소'로 재분배될테니까.

또다른 본질적인 깨우침은 이런 것이다. 왜 우리는 늘상 여성의 몸을 성기중심으로 까발려 남성의 오르가슴에 봉사하는 포르노그래피의 한면만을 볼까? 왜 그것이 여성과 남성을 억압하고 비인간화하는 사물화의 기계인 것을 고발하거나 폭로하지는 않고 '여자의 성기를 어디까지 어떻게 보여주는가에 따라 예술과 외설이 구분된다'는 비본질적인 문제에만 집착하는 것일까? 그리고 포르노그래피에서 주체는 늘 남성이고 여

성은 타자화되는데도 왜 많은 여성들이 그것에 대해 분노를 표하지 않을까? 왜 또 생각할 능력이 있는 남성들은 이런 불편부당함을 거부하지 않는 걸까? 17



유지나

여성이 인간이 되어 한국사회의 미래가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런 중차대한 일을 모색하고 실천하기 위해 한국사회에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영화 텍스트를 통해 인간의 집단무의식을 발견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재미로 살아간다. 그중에서도 한국영화와 한국여성, 남성의 관계를 분석하고 풀어내는 데 흥미를 느끼며, 그것이 직업이기도 하다. 동국대학교 연극영상학부 교수, 영화평론가. 그밖에 몇단체의 자문위원과 이사 등을 겸임하고 있으며, 딸과 아들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웃자!

댁의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법원을 찾은 부인에게 판사가 물었다.
"부인, 왜 현사로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거죠?"
부인이 매우 불만스런 표정으로 말했다.
"그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섹스밖에 몰라요."
그러자 판사는 전혀 뜻밖이라는 듯이 물었다.
"허, 그렇다면 대부분의 여자들이 매우 좋아할텐데요?"
그말에 부인이 경악을 하며 대답했다.
"그래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간 큰 남자

1. 웃 벗기면서 여자에게 자기 치녀지?라고 묻는 남자
2. 한번 하고 못하겠다고 돌아오는 남자
3. 첫날밤 처르고 뒷자국을 찾아 침대보를 예우는 남자

피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날밤, 딸이 어머니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살짝 여쭙었다.
"엄마, 피임은 어떻게 해야 돼?"
어머니가 일러줬다.
"니 하던대로 해!"

못 말리는 남자

옛날에 어떤 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그의 남편은 굉장한 바람둥이였다.
그래서 부인이 이를 과감히 여겨 남편을 복덕에 가둬버렸다.
그리고는 몇일 지나 불쌍해서 가보았더니,
남편은 복덕금에 마늘과 쑥을 먹이고 있었다.

TO FREE EXPRESSION - Internet

View Site Communicator Data

Address: http://www.well.com/user/freedom/

FEEL DISPAIR THAT IT'S COME TO THIS.
EVEN BEYOND THE QUESTION OF SELF-INTEREST,
I CAN'T LIVE IN A SOCIETY
THAT HAS THESE KINDS OF LAWS.
Someone's pain is someone else's fun-on - Jamaica Kincaid

NEW for JULY:

WE WON

The Supreme Court has decided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is Unconstitutional
Read our America Brief
and Read the Supreme Court's Decision

Document Data

대표적인 반검열 페미니스트 집단인 FFE의 홈페이지.
통신망위법의 위헌 판결을 자축하고 있다.

“포르노냐 표현의 자유냐” 그것이 문제로다!

통신상 음란물 규제에 관한 페미니스트들간의 공방

오늘 7월 미국 대법원에서는 전세계의 주목을 받는 큰 판결이 있었다. 이른바 '통신 품위법' (Communications Decency Act)이라고 불리우는 인터넷 음란물 규제법에 대한 위헌 판결이었다. 통신 품위법은 미 연방통신법 제507장으로 "온라인을 통해 외설·폭력자료를 게재하거나 전송한 사람들에 대해 최고 2년의 징역과 25만 달러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해놓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의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이 이 법이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한다고 크게 반발했고, 시민측과 온라인서비스 회사들은 96년부터 '블루 리본' 연대를 맺어 정부와 공방을 시작했다.

이 법이 정보통신업계 및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이유는, 일단 인터넷에 게재되는 자료의 60%가 미국의 자료이고 미국 업체들이 인터넷이나 가상공간 상품화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만큼, 이 법의 판결이 인터넷의 문화에는 물론,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공간에 대한 통제 문제로 비슷하게 골머리를 썩히

는 각국 정부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에 위헌으로 판정이 나긴 했지만, 그간 이 법을 둘러싸고 표현의 자유, 가상공간에 대한 통제, 성·포르노에 얽힌 여러가지 민감한 주제들이 노골적으로 터져나왔다. 음란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네 마네, 국가에서 규제를 해야 하네 마네, 여러가지 논쟁들이 맞붙었고, '포르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긴장 관계는 불투 리본에 맞서 '레드 리본' 집단을 등장시킬 만큼 논쟁을 첨예화시켰다.

"포르노는 이론이며 강간은 실천이다"

그러나 이 논쟁 과정에 뛰어든 페미니스트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개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영미권의 페미니스트들은 인터넷의 미래에 여성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하여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물론, 여성해방의 관점에서 어떤 처방이 필요한가에 관하여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의 "포르노는 이론이며 강간은 실천이다"라는 명제에서 보이듯이, 포르노는 전통적으로 페미니스트들의 공격 대상이었다. 포르노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포르노가 여성 상품화를 공식화하고 '강간 신화'와 같은 잘못된 통념을 유포시켜 현실에서의 폭력과 강간을 유발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최근 컴퓨터통신과 인터넷 등 가상공간이 발달하면서 정보의 생산과 복제, 배포가 특히 간편해지자, 포르노의 유통 범위와 과정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에 '반포르노 페미니스트들(Anti-Pornography Feminists)'은 인터넷에서의 포르노 유통이 규제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반검열 페미니스트들(Anti-Censorship Feminists)'은 '포르노 규제'가 여성을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과 같은 존재로 규정하는 가부장적 통념을 축으로 하고 있다고 먼저 지적한

다. 또한 규제와 검열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규제는 역사적으로 성에 대한 여성들의 담론과 연구를 억압해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성평등은 여성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여성들이 자신의 입장에 선 문화를 스스로 생산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와 검열을 넘어 성담론이 공개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 입장은 하나의 사건에서 대립했다. 2년 전, 제이크 베이커라는 미시간대학교 학생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유즈넷망에 자작 포르노 소설을 게시하였다. 이 포르노 소설에는 의례 그렇듯 독자의 관음증을 만족시키는 형태로 강간당하고 살해당하는 여성 희생자가 등장하였는데, 이 여성 희생자로 베이커의 동료 여학생이 실명으로 언급된 것이 크게 문제가 되었다. 베이커는 정학당하고 연방법에 의해 고발되었는데, 이 사건은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포르노를 둘러싼 페미니스트들간의 논쟁을 본격적으로 촉발시켰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페미니스트들(FFE: Feminists for Free Expression)'을 포함하는 반검열집단은 베이커의 표현의 자유를 편들었다. 결국 법원은 그 글이 '추잡하고 재미 없는 픽션일 뿐'이라며 고발을 기각했는데, 이에 대해 반포르노 페미니스트인 캐서린 맥키넨(Catherine MacKinnon)이나 온라인 성희롱에 반대하는 집단들은 그 글이 '여성에 대한 실제적 위협이며 온라인 성희롱'이라고 항의했다.

"동등한 표현의 자유 위해 법적 규제 보장돼야"

80년대 들어 활발한 반포르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맥키넨과 안드레아 드워킨(Andrea Dworkin)의 주장은 포르노를 단순한 '표현물'로서가 아니라 '여성 평등권에 대한 침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 포르노는 '표현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성적인 괴롭힘, 학대, 불평등 '행위'이

다. 포르노의 본질은 포르노 산업이며, 포르노는 제작, 배포, 사용 과정을 통해 '실제적인 불평등'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맥키넨이 법학자이자 변호사의 입장에서 출연 배우들과 면담한 결과, 포르노는 그 제작 과정에서 실제적인 여성학대를 다수 수행하며 여성의 불평등성을 전제한다. 그렇게 제작된 포르노가 사회적으로 배포되면서 '여자가 어떤 것이 될 수 있는가'를 사회적으로 규정하고, 여성혐오나 폭력 등과 같은 '현실적인 부속물'을 수반한다.

"표현의 자유 없이는 평등권도 보장받을 수 없다"

포르노가 가장 문제인 점은 '힘있는 자들의 표현물'이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포르노는 사회적으로 표현의 수단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여성에게 가하는 사회적인 폭력으로, 여성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며 사실상 여성들의 표현을 억압한다. 포르노가 표현하는 것을 보호하자는 주장은 힘있는 자들의 논리에 특권을 부여하고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용의주도한 무능'이다. 평등권이 표현의 자유보다 중요하다. 이는 '진정으로 동등한 표현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는 그날을 위하여' 지금은 규제가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맥키넨은 반검열 페미니스트들에게 "어떻게 페미니스트가 포르노에 호의적일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

이에 대하여 반검열 페미니스트들은 맥키넨의 논리가 너무 법률적인 견지에만 함몰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규제의 권한은 국가에 부여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무리 주장을 해도 포르노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실효가 없었던 것은, 사실은 가부장적 국가가 포르노를 없애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법적인 금지가 아니라 여론 향상을 통한 사회문화적인 제재이다. 표현의 자유 없이는 평등권도 보장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팻 캘리포니아(Pat Califia)와 같이 '반포르노에 반대

포르노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자는 주장은
힘있는 자들의 논리에 특권을 부여하고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용의주도한 무능'이다.
평등권이 표현의 자유보다 중요하다
—반포르노페미니스트



하는 페미니스트(Anti-Anti-Pornography Feminists)들은 맥키넨에게 "당신이 규정하는 포르노란 무엇인가? 당신은 사실상 자신이 싫어하는 의견들을 규제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묻는다. 어찌되었건 규제는 대상과 범위를 제한할 것이며, 누군가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가 여성들의 표현물을 억압하는 화살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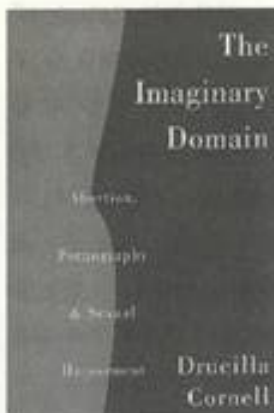
여성들의 표현까지 억압하는 포르노 규제

실제로 그렇다. 컴퓨터 통신망에서 '성'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접근을 못하게 하는 조치가 행해졌을 때, 그 거름에 올바른 성관계, 여성들간의 성애, 에이즈에 대한 토론들도 같이 봉쇄되었다. 여성에게도 성욕이 있고 포르노를 즐길 권리가 있다. 무엇보다 '여성'에는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개별성과 층위가 존재한다. 어떤 여성들에게는 <에로티카>와 같이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포르노, 즉 '자신들의 입장'에 선 표현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원치 않는 여성들에게 강요가 행해져서는 안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성의 욕망과 다양성이 금지와 침묵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에서 태타적으로 어느 한편의 손을 들어주는 쉽지 않다.

분명히 포르노의 대부분이 여성을 단순한 성적 물건으로 묘사하고 있다. 포르노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남자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낸 형태이기 때문에, "안돼요"를 끝장 "좋아요"라는 뜻으로 사용하며 추행당하고 강간당하는 것을 즐긴다. 그리고 가상현실과 같은 기술의 힘으로 남자들의 환상에는 점점 더 실제감이 붙어가고 있다. 포르노가 현실감이 날수록 여성 왜곡과 폭력을 실제적으로 학습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등장하고 있다.

포르노의 학습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영향을 끼치



반갑열 페미니스트인 드루실라 코넬 Drucilla Cornell의 『The Imaginary Domain』의 표지.
"페미니스트는 포르노에 있어서 법적인 행동으로부터 정치적 행동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나는 최근 이성애 위주의 포르노 생산에 도전하고 있는 여성 포르노 작가들과 포르노업자와 교류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포르노 유통의 차원에서는)

시각적인 강요는 금지해야 한다. 하드코어 포르노는 어떤 여성들의 성적인상을 훼손한다. 어떤 여성도 자신들의 상상의 영역이 침해될 정도로 시각적인 강요는 당하지 않아야 한다."—본문중에서



반포르노 페미니스트의 대표주자인 캐서린 맥키넨의 저작 『Only Words』의 표지. 이 책은 최근 개마고원에서 '포르노에 도전한다'라는 제목으로 번역출판하였다.

고 있는 게 분명하다. 나는 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지나가던 남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는데, 뿌리치고 돌아보니 압전하게 교복을 입은 학생이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황급히 사라지는 그 학생의 뒷모습을 한참 보고 서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또다른 성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왜곡된 성통념이 어린 시절부터 사회화되는 것이라면 여기에는 분명 어떤 흉악한 계기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사회화가 포르노만을 통해

컴퓨터 통신망에서 '성'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접근을 못하게 하는 조치가 행해졌을 때, 그 거름에 올바른 성관계, 여성들간의 성애, 에이즈에 대한 토론들도 같이 봉쇄되었다.



반포르노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인 팻 캘리포리아가 발간한 『Public Sex』의 표지.
"반포르노 운동은 여성의 성욕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 즉 여성은 포르노나 즉흥적인 섹스, 외음부 섹스 등 연애관계를 벗어난 섹스는 즐기지 않는다는 생각을 옹호한다. 이런 빅토리아 시대적인 발상은 여성은 몸이 맞서 싸워야만 하는 여성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중의 하나이다."
"맥키넨과 드워킨의 초기 문제의식은 실제로 행위를 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에게보다는 포르노로 옮겨졌다. 폭력에 대한 여성의 분노와 공포는 강간이나 폭력을 휘두르는 이들에게서 멀어져서 더러운 잡지들로 옮겨지고 있다."—본문중에서

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포르노 자체가 아니라 포르노를 존재하게 하는 그 뒤의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이다. 따라서 여성들이 여성의 입장에 선 발언과 표현을 되도록 많이,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제시하는 데에 궁극적인 해결책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압력은 아래로부터 시작되어서 복잡다단하게 행해져야 한다. 사실상 '바람직하게 규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규제 대상과 범위를 정한다면, 누가, 어떻게, 어떤 것이 '반여

성적'인지 판단할 것인가? 일률적인 판단이 과연 가능한가?

또한 인터넷과 같이 국경 없는 뉴미디어들이 확산됨에 따라 일국적인 '규제'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인터넷에 물려 있다는 것 자체가 전세계 어느 곳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게다가 뉴미디어는 TV나 여타 대중매체와 같이 세상을 여과해 보여주지 않는다. 이제 다양한 문화와 입장이 날것으로 충돌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 나라에서 여성들 간의 성행위를 보는 것이 불법이더라도 다른 나라 사이트로 가면 볼 수 있다. 여기서 수백만개의 사이트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비현실적이다. 차이와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규제보다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창조적인 활동에 신경을 쓰는 편이 훨씬 '생산적'이며 '현실적'이다. 가상공간의 현실감이 문제라고? 오히려 기술과 가상공간의 장점을 활용하여 우리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

이런 견지에서 엘렌 스퍼투스 Ellen Spertus와 같은 온라인 여성운동가는, 국가적이거나 법적인 규제가 아니라 사회문화적이거나 기술적인 방법을 통하여 표현의 자유와 성평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베이커 사건의 경우에도, 베이커가 특정 여학생에 대한 모독을 담은 포르노 소설을 게재했던 바로 그 순간에 법적인 제재 대신 논쟁화했다면 문제가 다른 방향에서 풀릴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에게 그 소설이 문제의 여학생, 혹은 모욕을 느꼈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를 알려주고 설득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가 스스로 그 소설을 제거하고 사과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가 설득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여성들이 직접 자신들의 입장에 선 발언과 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어떤 여성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표현의 수단을 사용하여 그의 소설에 대한 패러디를 시도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등장한다. 여성들이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여성들에게 표현의 수단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여성들에게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를 자유시장의 원리에 맡겨두었을 때 사실상 그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불평등한 경쟁인 것이다. 접근 자체가 봉쇄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또다시 '가상공간 접근권'

따라서 가상공간에서 벌어졌던, 혹은 벌어지고 있는 포르노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은 여성의 입장에 서보면 현실상 불평등한 접근권을 어떻게 평등하게 확장할 것인가의 문제로 연결된다.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음란물과 표현의 자유 논쟁은 그 자체에 머무르는 문제가 아니라 여성 접근권의 문제 즉, 여성이 표현의 수단에 접근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획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체제에 대한 문제로 확장되는 것이다. 강간을 낭만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영화들에 대해 아무리 모욕을 느끼고 신물을 내도, 여성이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영화를 상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보통신매체에서도, 정도는 좀 나을 지언정,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가상공간이 여성들에게 유력한 표현의 수단으로 등장하려면, 가상공간에

대한 여성의 접근권을 획득하기 위한 싸움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첨단매체에는 여성들이 넘기 힘든 고개가 한둘이 아니다. (지난 호에 언급한 '온라인 성희롱'도 그 중의 하나이다.)

나는 우리가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음란물과 표현의 자유'라는 화두를 걸고 규제에 대한 논쟁이 한창인데, 여기 여성들의 목소리가 빠져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여성이 여성의 목소리로 개입해야 할 때인 것이다. [1]



장 여 경

1971년생 재지파.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정보사회 구성의 가치를 갖고 있는 <정보통신단체 연대모임(통신연대)>의 활동에 사고와 생활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인간의 얼굴을 한 정보화 사회'에 대해 담연히 이루어져야 할 수많은 논의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의 참여와 여성에 관한 논의는 '특히' 부족하다. 여성과 정보화에 대한 논의가 간헐하게 확산되었으면 좋겠고,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는 친구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여성 동지들의 사비와 권지를 언제나 환영한다. 내 전자우편 주소는 della@nuri.net이다.

여성학도 '다이어트' 하자

정덕희 신드롬을 보며



미래에는 사람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중요한 권력이 될 것이라고 한다.

젊은 연예인들의 폭발적 인기도 그 조짐이라는 것이다. 지금껏 학문은 지식을 움직여왔고 지식은 정책을 움직여왔다. 여성학도 마찬가지다. 여성학은, 연구하고 그 성과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중요한 최종목표의 하나로 생각해왔다.

이 지식중심의 여성학의 미래는 무엇일까?

요즘 여자들에게 웃음과 힘을 선사하는 '진짜' 인물인 스타로 떠올랐다. 바로 '여자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고 주장하는 마흔네살의 여성 정덕희이다. 정씨는 근래에 여성강좌에 초빙되는 최고의 인기강사로 코미디 프로그램에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21세기의 주인공은 누구? "나!"

베스트셀러가 된 그의 책 '여자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중앙M&B 간)에 함께 들어 있는 강연 테이프를 들었다. 이 테이프를 듣는 동안 나는 교통체증으로 지루한 운전길을 웃으면서 견뎌낼 수 있었다.

내가 이 여성을 '진짜 인물'이라고 말했던 건 그의 강사로서의 재능이 담아내고 있는 강연의 내용 때문이다. 그의 주장은 간단하다. 여성들의 주체성을 말하고 있다. 남자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라는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나는 나."

"멋진 인생을 만들리라."

이런 구호를 듣는 이들에게 따라하고 쫓기하고 외우라고 독려한다. 여자들은 그의 주문에 기꺼이 응하며 합창으로 이 구호를 외운다. 외운 내용을 확인도 한다. 정씨가 듣는 이들에게 "21세기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물으면 여자들은 "나"라고 대답한다.

대중적인 여성강좌의 스타강사는 70년대 '사랑받는 아내'론을 설파했던 조동춘으로부터 시작한다. 조동춘의 강연 역시 여성들을 배꼽잡게 웃겨주었고, 여성들의 정신적 갈증을 풀어주는 신나는 말들을 선물해 주었다.

70년대의 인기강사가 '사랑받는 아내론'을 들고 나왔던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시기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 왕성하게 추진되던 시기였다. 남자들은 '산업역군'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직장일에 몰두했

다. 가정일에 관심 가질 시간도 체력도 없이 '조국의 번영'을 위해 일에 파묻혀야 했다. 가정을 잊고 일에 몰두한 가정의 노고에 힘입어 여자들은 처음으로 경제적인 풍요를 맛보면서 '스위트홈'의 주인공이 되는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집집마다 수세식 양면기와 싱크대가 들어오고 오디오와 소파를 갖춘 거실이 등장했으며 주부들이 '홈드레스'로 불리우는 화려한 풍원 피스를 입게 된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 시대 여자들이 서양식의 '스위트홈'의 주인공인 '와이프'를 동경했던 것은 자연스럽고 보인다. 우리나라의 '마누라'와 서양의 '와이프'는 한 남자의 아내를 지칭하는 의미에서는 동일하지만 사는 방식과 정서적인 내용에서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마누라는 대가족을 거두고 책임진다면 와이프는 부부중심 가족의 구성원이다. 마누라는 현실적이고 이악스러운으로 남편을 '키우고' 집안을 일으키는 여자라면 와이프는 로맨틱하고 경제관념이 없으며 남편에게 의존해 살아가는 여자이다. 마누라는 구시대의 여성상이라면 와이프는 신시대의 여성상이었다.

70년대의 스타 조동춘의 '사랑받는 아내'

전통적인 여성의 삶이 달갑지 않음을 알게 된 고학력 여성들의 대거 등장도 이 시기이다. 사회전반에 걸쳐서 진행되는 조국의 근대화는 여성들에게 '마누라'를 벗어나서 '와이프'가 되고픈 강한 욕망을 일으키고 있었다. 와이프가 되려면 가정적인 남편이 필요하다. '9 to 5'가 지켜지고 퇴근 후 골방 귀가하는 풍토는 서양사회에서 가능했지만 당시 한국사회에서의 사정은 달랐다. 지금도 그렇지만 퇴근 후로 이어지는 회식, 3차까지 이어지는 술자리 이 모두가 업무의 연장 이었고, 전통적인 '사나이 문화'는 군사독재치하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더욱 활성화되고 있었으니 퇴근 후 시간은 남성간의 놀이문화로 채워져야 했다.

가정에는 남편이 없는데 여자들은 부부중심의 스위트홈을 꿈꾸는 과정에서 '사랑받는 아내론'이 먹혀들었다.

'사랑받는 아내론'의 골자는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다. 마누라 혹은 조강지처로 불렸던 한국여자들은 남편의 사랑을 끌어내기 위한 애교있고, 센스있고 나긋나긋한 태도를 좋게 보지 않았다. 그런 건 경멸의 대상인 '첩'이 할 일이었지 장부인이 취해야 할 덕목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여자들에게 '남편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라'는 건 당시로서는 상당히 새롭고 흥미진진한 얘기가 되었을 것이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투로 말해야 할지, 어떤 태도로 말해야 할지 등등의 '교육'이 사랑받는 아내론 안에서 이루어졌다.

지금의 눈으로 봤을 때 사랑받는 아내론의 약점은 분명하다. 두가지 정도만 지적하자. 하나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 남성노동력을 가정에서 끌어내고 가정은 주부에게 맡겨 둔 이른바 성별분업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자들은 시설 좋은 집에 살 수는 있었지만 남편과 정서적 교감을 하려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다. 사랑받는 아내론은 이 부분을 건드리지도, 고려하지도 못했다.

또 한가지 빠져있는 것은 여성의 주체성 부분이다. 당시 여성들이 느꼈던 심리적 소외감은 투정 이상의 심각한 부분으로 실상 실존적 고민과 맞닿아 있는 문제였다. 사랑받는 아내론은 여자들의 고민을 공개하는 공로를 세우지만 거기서 조금지도 발전하지 않는다. 현상에 집착하게 함으로써 여자들을 완전히 함정에 빠뜨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누구라도 자신을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남에게서 사랑을 받기란 불가능하다는 평범한 진리에서 비껴나 있는 건 사랑받는 아내론이 장수상품이 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약점이다.



'사랑받는 아내론'의 조동춘.

여성학자도 대중강사로 ' 뜬' 90년대

90년대 들어서서는 여성학자 오숙희가 인기있는 대중강사로 '뜨는' 데 성공한다. 여성학자가 인기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90년대의 특이한 현상이다. '테러리스트가 돼라'의 전여옥, '나쁜 여자가 되라'의 김신명숙은 모두 베스트셀러의 저자들이다. 강력한 전사의 이미지가 쏟아져나오고 그것이 먹혀들었던 시기, 여성학자가 스타가 될 수 있는 시대가 90년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대이다. 그리고 2,3년 전 미시의 열풍을 거쳐 올리는 정덕희가 등장했다.

정덕희는 21세기를 말하면서 여성의 시야를 사회로 향하게 하고 주체성을 강조해 인생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한다. 90년대의 인기강사 정덕희는 여성의 주체성을 외우게 하고 합창하게 만들고 '죽은 머리보다 명석한 연필이 낫다'면서 적으라고 외쳐댄다. 집에서 남편 사랑 받기만을 원하는 여자들은 남자들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또 일을 가지라고 강력히 주장한다. 정씨 자신이 책 파는 일부터 시작해 송철이 엄마에서 정덕희 교수로 출세한 체험담을 드러내면서 여성들도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부모에 기대고 남편에 기대고 아들에게 기대어 사는' 과거의 삼종지도의 미덕을 갖춘 전통적

인 여성상을 정덕희는 '전드기파'라고 비난하고 '현모양처'의 꿈을 갖고 있는 여대생을 가리켜 '맹순이'라고 개탄한다. 백마 탄 왕자를 기다리는 신데렐라의 꿈을 버리고 '지금은 내가 백마를 잡아타고 가서 남자도 같이 태워와야 하는 시대'라고 현실을 강조한다. 여성들이 자기 이름을 갖고 자기 일을 갖고 자기 인생을 개척해야 한다는 강의는 여성학 강의가 분명하다. 정덕희 본인이 진짜 여성학을 알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가 학자가 아니라 대중강사인 이상 그는 상종성있는 말을 전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여성학이 시대정신이 된 우리 사회

대중강연의 내용이 사랑받는 아내에서 주체적인 여성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돌이켜 보면서 이제는 우리사회에서도 여성학이 이른바 '시대정신'을 이루고 있음을 실감한다. 지금 전국에서 명강의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정덕희의 구호화된 주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성운동가나 여성학자들이 계몽주의적 교훈조로 하던 말들이다. 지금 생각하면 별로 과격할 것도 없는 말들인데 우리사회는 여성운동가나 여성학자들의 그것을 일부 급진파의 주장으로 매도해왔었다. 일하는 여성을 위해 어린이 보육기관의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법안이 만들어지던 80년대 말기만 해도 이 법안을 주장하는 여성들은 '불갱이' 혹은 그에 준하는 불순한 사람들로 오인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정부에서 육아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여성들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과 공기업에 20%는 여성을 고용해야 한다는 정책이 나왔다.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공감대가 굳혀져 있다. 이제 여성운동의 주장은 큰 방향에서는 시대적 흐름에 적절하게 부합하고, 선진국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시급히 고쳐야 할 부분을 지적하는 지극히 생산적인 것

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사랑받는 아내론'의 90년대식 개정정보판

70년대 '사랑받는 아내론'으로 출발했던 조동춘씨의 강의 내용도 변화했다. 93년경부터 조동춘은 강의록을 테이프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현대여성'의 생활을 담고 있다. '현대여성'이란 '과거의 여성상'과 비교되는 개념으로 나타난다. 경제적인 역할은 남자의 몫이고 여자는 살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과거의 여성'이라는 것이다. 결혼생활은 공동체생활로 여성은 경제적 역할에서는 부반장의 역할을, 정신적으로는 반장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조동춘은 말한다. 경제적 부반장은 현재는 남자가 경제적 책임에서 반장을 맡고 있지만 언제 '이사갈지(이혼)', 언제 '아프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유사시에 써먹을 수 있는 '전문성'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가지 일을 주 1회 내지 2회씩 5년 내지 10년 동안 지속하면 전문성이 생길 수 있다고 방법을 가르쳐 준다. 조동춘의 사랑받는 아내론도 90년대판으로 개정보완된 것이다.

정덕희의 성공과 관련해 주목할 부분이 있다. 정덕희는 자신의 지지기반을 '가난한 대중 여성'이라고 알고 있고 자신을 '대중을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정덕희가 강의하고 있는 강연장을 찾았을 때 그의 대중적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강연 중간 중간 자발적인 박수가 여러차례 터져나오고 웃음이 이어졌다. 강연이 끝나고 나서 정덕희는 세인을 원하는 '편'들에게 둘러싸였고, 서둘러 강연장을 떠나는 정씨를 쫓아와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냥,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다"면서 감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여성도 있었다. 정씨는 "교주처럼 여자들이 매달린다"고 말하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라고 나름대로 해석했다.

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식인 취향의 여성학이

지니는 대중적 약점에 대해 생각해봤다. 여성학이 '배운 여자 전용코스'가 되어왔던 것은 아닌지 하는. 그 코스는 경원의 대상이기는 해도 울고 짜고 지지고 볶는 삶의 위안이 되기에는 머리가 너무 비대해진 것은 아닌가. 보통의 여성들은 정덕희를 친근하고 존경스럽게 느끼면서 그에게 매달리고 싶어 한다. 그동안 여성학은 여성들의 '지지고 볶는' 삶으로부터 떨어져 '저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있었던 건 아닌가? '배운 여자 전용코스'의 여성학이 '감정적 호소력의 부재'라는 중세를 보이면서 보통여성의 삶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이에 정덕희는 여성의 감정을 움직이는 신봉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여성들의 가슴 안을 파고 들었다.

저 높은 곳의 여성학은 아닐까

정씨의 삶은 여성의 일생으로 보았을 때 '밑에서부터 일어난 입지전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 우선 그는 12남매의 열번째 천덕꾸러기로 태어났다. 지나가는 경찰관에 의해 우연히 '덕희'라는 이름자도 받게 되었을 정도다. 그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회사생활을 하는 이른바 O.L 생활을 하던 중 고시합격의 가능성이 보이는 '백마탄 왕자'를 만나 전격 결혼한다. 시어머니는 정씨의 사주와 궁합이 무척 좋다는 역학 해석에 힘입어 그를 며느리감으로 낙점한다. 결혼으로 그는 '2백평 저택'이라고 표현되는 시집으로 입성하는데 성공한다. 여기까지의 신데렐라 출세기에 해당하는 그의 히스토리 속에서 여성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다.

결혼 이후의 생활을 그는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의 책 '여자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속에서도 "우울증에 시달렸다", 성공 이후 "시아비지가 미안하다는 사과 전화를 했다"는 정도로 짧게 밝힐 뿐이다. 이 짧은 표현 속에 들어 있는 그의 히스토리는 엄청난 마음고생을 담고 있다. '차이 나는 결혼'에서 있을 수



화려한 성공을 성취한 정씨는 이제 부족한 듯한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성공한 자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아름답다"는 논리이다.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구박을 경험하면서도 '한번 났을 인연을 끊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버텼다는 것이다. 아직도 그는 이 부분을 밝히기를 꺼려하고 계속되는 질문공세에 눈물을 글썽였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써서 밝혀졌으며 지금은 상처받을 사람이 있으므로 침묵하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의 침묵의사를 존중하자. 여기까지 정씨는 '사랑받는 아내'의 환상 속에 살면서 그 균열을 치열하게 경험한다. 이 역시 보통여성들의 체험을 관통한다.

그 이후 그는 '눈을 뜬다' 시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와서 생업에 나서야 했고 세일즈부터 시작된 사회 생활에 몸을 던진다. 어려서부터 무대세력이었다는 정씨는 주변사람들의 권유도 있고 해서 '제2의 조동춘이 되겠다'는 결심으로 사회교육강사 생활을 시작한다. 고졸학력을 극복하기 위해 방통대, 대학원으로 공부를 보충하고 차밍스쿨을 다니며 매너를 익히고 시를 쓰고 교육원을 다니면서 경영기법을 배운다. 그의 준비는 철저하고 성공적이었던 것 같다. 여직원 교육과 도우미 교육, 주부대상 교육을 하면서 어느새 '명강'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고 올 3월 방송 출연을 계기로 일약 마흔네살의 신데렐라로 부상하게 된다.

여성들에게 친근한 정덕희의 히스토리

그의 성공은 대단하다. 우선 그의 저서 『여자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는 발간 40일만에 18만부의 판매 기록을 세우면서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종합 2위를 차지했다. 인쇄만도 역대에 이른다. 그의 강의료는 현재 100만원 이상이다. 대략 하루에 2개 정도 강의를 다닌다. 한동안 그는 '한달에 3,000만원 버는 여자'로 알려져 있었으나 지금은 그 이상의 수입을 올린다. 강의출연 제외도 받는다. 8,000만원의 개런티 제외가 있었는데 자신은 연예인 이상의 가치가 있으므로 잘 나가는 연예인 모델 이상의 출연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1억을 몸값으로 정하고 있다.

화려한 성공을 성취한 정씨는 이제 부족한 듯한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성공한 자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아름답다"는 논리이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여성들이 자기를 통해 희망을 보고 힘을 얻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희망에 걸맞은 사람이 되겠다고 그는 다짐한다.

정덕희 신드롬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여성학은 너무 심각하고 무거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다.

대중은 즐거움과 '희망'을 원한다

여성학의 감정적 소통에 성공한 유일한 여성학자는 박혜란과 오숙희일 것이다. 박혜란은 아이들 교육과 관련한 어머니의 감정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고, 오숙희는 '수다'의 방법론을 갖고 있기에 가능하다. 이들이 여성학자 출신으로 방송가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보통여성들과의 감정적 소통능력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정덕희는 이면에서 더 능숙하다. 유치해 보이고 역겹게 보일 정도로 여성의 원초적 감정과 교감하려고 애쓴다. 다분히 가식적인 목소리, 마른 몸매가 줄 수 있는 날카로움을 죽이기 위해 충청도 사투리를 일부러 구사한다. 무대에서는 차밍스쿨에서 나오는 걸음 걸이와 서있는 포즈를 취한다. 어떤 이들은 그가 유치하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그는 유치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성공했다.

정덕희 신드롬은 그간 여성학이 맴돌던 거대한 구멍이 어디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자료가 아닐까 생각한다. 삶에 녹아들지 못한 채 이론중심으로 무장되어 감정적 소통능력이 둔화된 약점이 여성학자에 의한 여성학 강의의 상품화를 실패하게 만들어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여성학에 '문화적 감수성'이란 날개를

미래에는 사람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중요한 권력이 될 것이라고 한다. 지금 젊은 연예인들의 폭발적 인기도 그 조짐이라는 것이다. 지금껏 학문은 지식을 움직여왔고 지식은 정책을 움직여왔다. 여성학에서도 마찬가지다. 여성학은 연구하고, 그 성과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중요한 최종목표의 하나로 생각해왔다. 이 지식중심의 여성학의 미래는 무엇일까? 정덕희 신드롬을 관심있게 보면서 마지막에 만난 질문은 이것이었다.

이제 여성학의 최소가치는 끝났다. '무거운' 여성학은 그 최소가치가 있을 때의 생존방식이다. 아는 게 많은 여성학, 주장이 선명한 여성학, 심각한 여성학, 정책반영이 최종목표인 여성학은 문화적 감수성이 지

배할 21세기를 살아가기에는 너무 육중하게 느껴진다. 아는 것보다 감동이 있고, 주장보다 감정이입의 이해가 있고, 심각하기 보다는 즐겁고, 정책반영보다 삶으로 스며들어오는 무엇이든 좀 가볍겠다. '학문'에서도 '다이어트'는 가능한가? 정덕희 신드롬은 무거운 여성학 대세의 틈새를 뚫고 들어온 돌풍이다. 17

김 호 선

이대 대학원 여성학과 졸업, 여성신문 편집부장.

특정인을 과대 포장할 생각은 없다. 글의 소재가 된 인물에 대해 '유치하다', '역겹다'는 등의 반응이 의외로 큰 걸 보면 서 '과대포장'으로 읽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지식인 취향의 비판을 쉽게 받고 있는 '유치한 현상'에 들어있는 다이아몬드를 들여다 보자는 얘기를 하고 싶다. '정돈된 논리' 혹은 '체계적인 사고'로 쓴 글은 아니며, 그 지루한 틈새에 위치한 '인상'으로 읽어주길 바란다.



장선우 아저씨,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나쁜 여자아이들로부터

이 칼럼은 국내에서 시기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남성에게 특정 여성이 보내는 편지글 형식으로 씌여진다. 창간호의 이문열에 이어 이번 호에는 <나쁜 영화>의 장선우감독을 선택했다. 장선우감독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사회에서 지금 미성년자보호법 등 음란물 금지에 관한 논란이 한창인데 꼭 그런 글을 써서 악법에 표를 던져줘야 하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글을 세상에 내보이기로 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 비판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말이다. — 편집부

안녕하세요?

우리는 나쁜 아이들입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분들이 혼돈을 일으키실까봐 미리 말해두는건데 정확히 하자면 우리는 '나쁜 여자아이들'이죠. 왜 남자애들은 안 꺼줬나구요? 개네들과 우리는 다르거든요. 영화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어찌다가 개네들 노는 틈에 끼게 되거나 또 남자 때문에 싸우거나 하는 그런 부류로 그려졌잖아요.

사실 우리는 단란주점에서 손님의 치근거림을 받건, 워크맨을 슬쩍한 죄로 사까시(오벌섹스) 처벌을 받건, 비디오방에서 남자애들 사까시를 해주건, 모여서 술 마시다 돌림빵(윤간)을 당하건, 어른 아이 할것없이 남자를 상대로 늘 같은 일을 해야 하는 존재로 나오

우리는 '나쁜 여자아이들'이죠. 왜 남자애들은 안 꺼줬나구요? 개네들과 우리는 다르거든요. 영화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어찌다가 개네들 노는 틈에 끼게 되거나 또 남자 때문에 싸우거나 하는 그런 부류로 그려졌잖아요.

잖아요. 그러니까 개네들은 우리랑 달라요. 영화 속에서건 진짜 어울리다닐 때건 그저 우리를 자랑거리로 달고 다니는, 실증나면 바뀌다는 마스크트 줍으로 여기죠. 이제 왜 우리가 개네를 꺼주지 않았는지 아시겠죠?

만약 우리들의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소개 정도는 해드릴게요. 어쨌든 예의는 지키며 시작하고 싶으니까요.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영화에 묘사된 대로의 우리들일 뿐이에요.

이쁜이: 펜티 한장 입고 가출. 폭력적. 외리있음. 레드변 여자친구.
새: 프린스, 아임떡, 레드변과 다 한번씩 자봄. 애들 심부름을 군소리없이 하는 새대가리.

알뿐: 낙태수술했고, 레드변 때문에 이쁜이랑 피터지게 싸움. 그러나 레드변한테 버림받음.

똥자루: 오토바이와 남자를 무지 좋아함. 말투가 상스러움.

공주: 내숭이 심하고 시집가야 된다면 순결지키다가 프린스, 댄, 아임떡에게 돌림빵당함.

보시다시피 <나쁜영화>는 우리여자애들을 이렇다할 개별적 특성을 지닌 아이들로 묘사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들 중 누군가가 대표로 나서서 편지를 쓸 수가 없었고 이렇게 모두 같이 쓰기로 한 거예요.

처음에 우리를 모아놓고 인터뷰하고 그럴 때는 우리 같은 애들의 얘기도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느끼는 알 수 없는 부당함과 처지를 어찌면 어른들이 밝혀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우리도 잘 모르겠는 일들을, 많이 아는 어른이니까 밝혀낼 줄 알았죠.

일단 촬영이 시작되자 무조건 신기하고 재미있었고 무엇보다도 영화배우가 되었다는 사실이 신났어요. 여기저기서 인터뷰도 하고 멋있게 토크쇼도 하고 사진도 찍고, 영화 찍는 언니. 오빠들처럼 그럴듯한 사람이 된 것도 같았어요.

그러나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가 왜 이 영화를 찍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남자애들이나 어른들한테나 똑같이 성적 욕구 대상이나 되려고 이러고 있나 싶고, 카메라가 테이블 밑에서 비추는 단란주점 장면이나 저만치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술에 취한 채 연기해야 했던 윤간장면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들하고 달리 남자애들은 즐기기도 하듯이 영화를 대하는 것 같으니 참 이상하죠? 우리는 남자애들과 마찬가지로 이 영화에 출연해서 뭔가 고발하려고 했는데 왜 영화를 찍은 다음의 느낌은 개네들하고 이렇게 다를까요?

근데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본 어른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걱정해주고 그럴까요? 이제 우리와 같은 아이들이 겪는 이런 환경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줄까요? 별로 그럴 것 같진 않지만 한번 믿고 싶어요. 윤간장면 후 스틸기사 언니가 사진찍는 걸 거부하는 것을 보고는 어른에게서는 처음으로 묘한 동질감과 신뢰를 느꼈으니까요.

장선우 아저씨 영화 중에 <경마장 가는 길>하고 <너에게 나를 보낸다>도 봤어요. 야하다길래 보게 된 거죠. 뭐, 연소자 아니냐구요? 아시잖아요. 우린 나쁜 아이들이라는 거. 아무튼 여자들이 화끈하게 활약하더라고요. 근데 <너에게 나를 보낸다>에 나오는 바지 입은 여자는 참 안돼보였어요. 왜 남자들은 그렇게 바지 입은 언니를 못 살게 구는 거죠? 그것도 섹스를 해야 한다는 단 한가지 이유로만요. 근데 더 이상한 건 바지 입은 언니가 그 일로 그렇게 속상해하거나 화내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재밌어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재주 때문에 나중에 출세하는 것도 같은데 우리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프랑스에서 같이 유학생살을 한 R과 J의 <경마장 가는 길>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건 역시 남자와 여자의 관계였어요. 똑같은 박사인데 남자는 순수한 실력파고 왜 여자는 사기꾼이죠? 여자가 박사가 되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져야 되고 섹스 상대가 되어줘야 하고, 그래

서 그 대가로 속제도 빌리고 가짜로 박사증명도 받고 그래야 하나요? 그리고 더 신경질이 났던 건 '그렇지만 저도 이따금은요,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결혼이란 걸 하고 싶어요'라고 우습게 말하는 J 언니에게 R이 야비하게 물고 늘어지는 혼전순결 문제였어요. 그 아저씨가 자기 부인을 구박하고 경멸하는 것도 다 그 이유 때문이잖아요. 자기도 잘못해놓구서 무조건 여자만 죄인취급하고 몰아세운다니까요. 아무튼 두 영화 다 주인공은 남자고, 여자는 남자 주인공에게 몸을 줄 것을 하는 요녀처럼 보였다고요.

그런데 그렇고 지금 우리가 남의 걱정할 때는 아니죠. 영화를 허가해준다는 뒤통수를 덕분에 <나쁜영화>가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았고 개봉하고 나서도 말도 많다고 들었어요. 게다가 흥행까지 잘된 건 다행이긴 한데, 그러면 우리를 알아보는 사람이 더 많아질테고... 암튼 기분이 좀 그렇네요. 우린 이제 풍나는 영화배우가 되고 싶어요. 근데 다른 영화에서도 우릴 써주는 할까요?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는 바뀔 수도 있을텐데 늘 그렇고 그런 아이로 낙인 찍혀 다녀야 할 것 같아 걱정이예요.

장선우 아저씨, 이제 정말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II**



이명인

70년생. 전남대 독문학과 졸업. <세레나 21> 영화감독상 수상 후 이곳저곳 지면에 영화에 대한 얘기를 풀어 쓰고, 지난해 10월부터는 한겨레신문 '영화관람석'을 맡고 있다. 열심히 말하자면 영화 바깥에서 종사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일 역시 중요하다 믿으며 혼돈된 관점을 청문해나가기려 나름의 분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3월의 지면을 빌리면서 '여성으로서 글쓰기'의 어려움을 실감했다. 비판일수록 더 신중하고 집요하고 철저해야 하는데 난 여러모로 부족했다. 그래서 아이들의 목소리를 빌려왔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도 부당하다고 느끼는 일들을 불러오는 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카메라가 테이블 밑에서 비추는 단란주점 장면이나 저만치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술에 취한 채 연기해야 했던 윤간장면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도 않아요.



술이나 고백 그도 아니면 침묵

서 동 진



크게 다를 바 없는 만소화합물에 약간의 차이를 가진 유기적 육체가 지금 가장 격렬한 논쟁의 중심에 있다. 나의 육체는 어떤 좌표에서 어떤 언어를 더듬거리고 있다. 지금 육체는 의도적, 생물학적, 미학적, 정치적, 가상적인 모든 장점이 미끄러지고 근두박질치는 무한대의 힘이다. 그 무한대의 힘에서는 피할 곳도 없고, 수간을 던져 싸움을 중단할 용도 없다. 나는 게이였고 나는 기꺼이 나의 육체를 예외적인 언어의 만신전에 나를 등록시켰다. 예견했듯이 색유열리의 파사들이 찾아왔고 나는 더욱 분투할 것이다. 글을 쓰고, 다른 욕망을 생산하고, 배급하는 일을, 그리고 무엇보다 침묵을 자아내는 많은 이들의 언어를 기웃거리는 일을, 그 일들이 생애의 일과이다. 이미 몇권의 책을 썼고 지금은 국제 비경쟁 레즈비언·게이 필름페스티벌인 <제1회 서울국제퀴어영화제>를 준비하고 있다.

모두 몇 그릇이나 되는 식사를 해치웠듯이 나는 모두 몇 밤이나 자고 일어났을까. 모두 몇 번이나 땀을 닦았듯이 또 모두 몇 번이나 섹스를 하였을까. 모두 몇 번? 또 그렇게 섹스를 하고 옷을 입고 벗고, 안타까이 혹은 끈드레만드레 잠을 자면서 과연 나는 몇 번이나 방금 아니면 전날의, 아니 오늘이나 며칠 뒤의 섹스를 생각하고 반추해보았을까. 생각해보면 그것은 답하기 어렵기보다는 답하지 않아야 할 것 같아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던 것인 듯하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자신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쓸모있는 말로, 이야기로 펼쳐보이라는 주문장이 남아 있다. 그 주문에 맞게 체험을 밝히는 말로 물건을 만들어 남품하자니 나는 물건을 만드는 작업에 드는 공력보다 그 물건을 만들라 하고 또 그에 따라 고분고분 물건을 만들며 내가 좇는 문화적 가설들이 자꾸 눈에 밝히고, 또 그게 줄곧 거슬린다. 시쳇말로 아는 게 많아서 먹고 싶은 것도 많다더니 고민이 많아질수록 쓸 말이 준다. '나의 성 체험'이란 두마디에 왜 이렇게 켜기고 점뿔하고 불편한 구석이 많은지.

취조를 받고 증세를 설명하고 하소연도 했을 때, 나는 나 자신을 설명하는 수많은 의학, 사법, 거래의 답변들을 거쳤던 셈이다. 사실 이 모든 답변들은 푸코

시쳇말로 아는 게 많아서 먹고 싶은 것도 많다더니 고민이 많아질수록 쓸 말이 준다. '나의 성 체험'이란 두마디에 왜 이렇게 켜기고 점뿔하고 불편한 구석이 많은지.

Michel Foucault 같은 이의 말처럼 고백이라는 말의 모델을 따라 근대사회에서 주욱 팽창하고 신축했던 말의 거꾸집이다. 그리고 이 거꾸집을 거치면서 나는 나의 건강과 병, 나의 무고와 범죄, 나의 이익과 손해를 둘러싼 말들 혹은 진실들의 주소를 사이로 배달되고 수취되곤 하였다. 이 고백의 모델을 좇는 말의 집들을 둘러거리며 나는 결국 내가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또 그렇게 해서 밝혀진 진실에 따라 내가 누릴 삶의 모습을 선택해곤 했다. 결국 고백이란 말의 수련을 거치며 나는 사는 데 필요한 원칙적인 말의 예법과 질서를 익혔던 셈이다.

하지만 그래도 삶의 사실들 가운데 제법 많은 양은 바깥으로부터 읽혀질 수 있다. 외부에서 읽혀진 나, 관찰과 조사와 측정을 통해, 즉 굳이 나의 고백을 통하지 않고서도 읽혀질 수 있는 표면으로서의 나. 깨알 같은 글씨가 잔뜩 적힌 텍스트처럼 나를 읽는 바깥의 언어, 그리고 그것을 정당하고 당연하게 하는 많은 언어의 질서들. 하지만 섹스와 성은 무엇보다 자신의 고백을 으뜸으로 친다. 성이야말로 '나'라는 주어가 가장 강하게 켜기를 막고 있는 답론의 공간이다. 성에 관한 한 해석의 힘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이다. 주관적일수록 그 말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세상에서 가

장 주관적인 제 할수록 그 말의 값이 더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말을 해라. 말을. 너 만이 아는, 더불어 너만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또 밖에서는 읽을 수 없는 네 성에 관해서 말을 해라.

지금 나도 그런 문화적 규칙에 움작달작할 수 없게 간헐한 건가.

하지만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제 성에 대해 가장 강한 언어의 주권을 갖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토록 툭툭하게 성에 관한 말들을 간수하고 제것으로 소유하였을까. 하지만 그렇게 말하기도 전에 나는 내가 처했던 각별한 처지가 더욱 애뜻하다. 섹스와 성을 참조하지 않으면 돌연 공허해질 허깨비 같은 삶의 외투를 걸친 채 살았던 탓이다. 자신을 서술하는 의미의 비늘마다 성이 한가득 끼어 있는 이토록 측은한 의미의 비굴함이, 대저 어디 달리 있을까. 그러니 내가 성을 소유하고 있기보다는 성이 나를 소유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인간의 종별에 속하고 어떤 인간으로서 호출될 수 있는지를 대신해주는 '게이'란 말에 더이상 주눅들지 않지만, 나는 그 말이 내게 부리는 압도할 듯한 힘을 피할 도리가 없다. 나의 정체체성이야말로 나를 해독하는 열쇠가 되어 있고, 제 아무리 재간을 부려도 그것은 나를 읽는 의미의 꼭지점이 되어 있다.

술취한 객도 아니면 침묵

주관적일수록 그 말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세상에서 가장 주관적인 채 할수록 그 말의 값이 더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 말을 해라. 말을. 너만이 아는 네 성에 관해서.

내가 아무리 뒤통수 팔을 내저으며 피하려 해도 집요하게 나를 뒤쫓는 그 알곳은 의미의 그림자를 나는 늘 소유하게끔 되었다. 섹스는 나의 신원(身元)의 일부가 아니다. 반대로 나의 신원은 나의 섹스이다. 당신은 언제 게이가 되었나. 곧 당신은 언제 사내와 처음으로 섹스하였나. 당신은 언제 당신이 게이임을 깨달았나. 곧 당신은 언제 사내에게 욕정을 느꼈는가. 그런 따위의, 자신이 누구인지 감별하기 위해 집요하게 둘러보는 따분한 질문들. 나의 성정체성은 나의 섹스이며, 나의 신원은 나의 섹스이다. 그렇게 자신의 삶에 포화되어 있는 이 섹스란 의미의 조각들로 세상은 날 절박하게 되었으니 나는 얼마나 피곤하겠는가. 하고 오해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 대답은 꼭 그렇지 않은 않다.

나는 사실 내가 가끔 너무나 웅란한 듯하여 자괴스러울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그건 내가 사정 회수를 끌어올리는 데 남달리 욕심이 많아서라거나, 섹스 파트너를 늘려보는 데 썩 많은 충동을 가져서가 아니다. 내가 웅란하다고 느낄 때 그건 아주 따뜻하고 느슨하고 축축한 섹스를 하고 싶다는 의욕 따위와는 무관한 위치에 있다. 그건 동성애란 성정체성으로 인하여 내가 맺는 관계의 온갓가지가 성이란 의미의 연결장치

를 반드시 건너도록 요구받는 탓이라 하는 편이 옳다.

나는 아주 뒤늦게 커밍아웃을 하였다. 그건 그만큼 아주 뒤늦게 섹스와 나를 이어보는 문간에 다다른 탓도 있었다. 나는 섹스를 그다지 흥미로운 일로 여기지 않았고, 그게 삶이나 세계를 이루는 데 그다지 크게 관여하리라 판단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건 차라리 성이 나를 그렇게 크게 뒤흔들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 시절 그때의 성이 그렇게 약했던 탓은 절대 아닌 듯하다. 여하튼 나는 80년대의 걱정과 그후의 몸살을 거치면서 어찌어찌 섹슈얼리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와중에 내가 가진 비범한 욕정이 하나의 인간형이며 하나의 자아이며 심지어 하나의 사회집단을 이루는 바탕이란 걸 알게 되었다. 그때 나는 기절초풍할 만큼 놀랐고 말석에서 꿈지럭대던 섹슈얼리티가 나의 삶의 의미를 거의 죄다 공급하다시피 하는 댄 뿔자리로 올라앉게 되었다.

결국 나 역시 오래 많은 내 또래의 게이들이 거쳤던 통과제의를 용기를 내어 거치게 되었다. 나 역시 공포와 흥분에 떨며 게이극장엘 가기도 했고, 우리 사이에서 크루징(cruising)이라 부르는 파트너를 물색하는 성적인 흥정에도 가담해보았다. 동성애자 모임엘 드나들며 난생 처음 가보게 된 차라리 이국적이라 해야 올

을 게이바의 풍경도 습습 눈에 익히게 되었고, 그곳의 관습 역시 한두달쯤 지나자 아주 살갑게 느껴질 법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여전히 멍청할 정도로 서툴고 또 행편 없는 듯하다. 그건 간단히 말해 내 속에서 이성애주의적인 가부장제의 이중기준이 재간을 부린 탓일지도 모른다. 내가 보건대 게이공동체는 섹슈얼리티를 통해 자신들 개개인의 차이와 위계, 내부적 구조를 만들어낸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하고 표내기 위해 게이들은 매력과 성적인 관심, 외양, 치장, 자기절제 따위를 중요한 자본으로 삼아 이를 자신을 교환하는 재료로 삼는다. 이성애자라 해서 안그럴 게 뭐있나 하겠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이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성애적인 결혼과 가족제도는 사적으로 전밀한 인간관계를 강하게 간섭하고 있다. 따라서 매매춘이 아닌 한 성적인 것을 사적인 인간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일차적인 출발점으로 삼지 않는다. 결혼을 전제로 한 섹스이거나 우발적인 섹스이거나 결국 어떤 관계이든 결혼이나 가족이 방형처럼 관계를 에워싸고 보조를 선다.

그래서 게이공동체의 말대로라면 '우아를 떨고 끼를 떼는' 그 관행이, 소수집단이 만들어낸 문화적 규칙이란 걸 수긍하고 또 받아들이겠는데도 또 나는 그

게 어찌면 진정하고 소박한 인간관계를 해치는 종잡은 모습으로 보일 때도 없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지금이라고 해서 나 역시 그로부터 홀홀 자유로운 건 아니다. 게이공동체식의 평판대로라면 나는 드물게도 일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인관계를 맺으며, 일년째 큰딸 없이 평탄하게 사귀고 있는 연인이 있다. 서로의 합리 때문에 혹은 여러가지 강제 때문에 사적인 친밀감과 독립해서도 지속될 수 있는 이성애적 결혼관계나 연인관계와 달리, 게이 커플은 서로에게 친밀감을 충족시켜주는 가능성이 희박한 한, 그 관계는 그걸로 작별을 고했을 충분한 이유가 된다. 나는 그런 점이 게이적 인간관계의 한 특징이라고 본다. 그래서 사랑도 많고 이별도 많아 사적인 평지풍파가 끊일 날이 없는 게 내 주변 게이들의 모습이다. 그런 차에 나는 운이 좋은 건지 무던했던 건지 잠잠한 일년을 보낸 셈이다.

두어해 전 첫사랑이란 걸 하고 또 처음으로 휴백 섹스를 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게 곧장 풍비박산난 후 나는 아주 진저리를 쳤었다. 그때엔 뜻나기 같은 첫사랑을 하면서 막 그즈음 행한 커밍아웃으로 인한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심란하고 고역스런 심신을 죄다 그 관계에서 충당하려, 아주 편집증적으로 그 관계에 집착했던 듯하다. 그래서 내게 그 관계는 의당 아름답고

우리들은 일년을 뱉치고 다투고 화해하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배와 복종, 위세와 비굴을 남성성과 여성성, 이성애와 동성애, 권력과 섹슈얼리티와 복잡하게 뒤섞어보고 그에 따라 자신을 평가할 만큼의 약간의 지혜는 갖춘 듯하다.

의롭고 진보적이고 쾌락적이기도 한 온갖 해피한 목표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때 나는 아주 자족적이고 그래서 눈먼 사랑을 했었던 듯하다. 결국 그 관계의 파산은 나를 아주 진력나게 만들었다. 특히나 그 관계를 감시하고 거들어주고 간섭해주는 넉넉한 주변이 없게 마련인 게이 커플에게 두절과 파산은 서로에게 짐이 큰 듯했다. 다행히 나는 한 친구의 극진한 염려와 보호 덕분에 그 위기를 넘어섰고 여자저차한 기회로 지금의 애인을 만났다.

물론 나는 수없이 그 관계를 위협하는 여러가지 질문을 던지게끔 되어 있다. 그건 나의 남성성이든 내가 포박당한 온당치 못한 성의 이데올로기이든 가부장제의 잔영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내게 불편하다. 거북하다. 싫다고 손을 들게 하는 상황들이 줄곧 고개를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온몸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당장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법이다. 나와 나의 연인은 적어도 결별을 각오하지 않는 한 그 불편을 내색치 않고 참을 만큼 참을성있는 자들은 아닌 듯하다. 우리들은 일년을 뱉치고 다투고 화해하기를 반복했다. 하지

만 우리는 여전히 지배와 복종, 위세와 비굴을 남성성과 여성성, 이성애와 동성애, 권력과 섹슈얼리티와 복잡하게 뒤섞어보고 그에 따라 자신을 평가할 만큼의 약간의 지혜는 갖춘 듯하다.

섹슈얼리티가 자아를 대신할 만큼 압도적인 성의 의미 속에서 살아야하는 게이의 삶을 나는 산다. 따라서 내겐 섹스란 늘 오르가즘 이상이었다. 또 그건 내 만족의 그래프에 측정된 든든한 포만감 이상이었다. 나는 그걸 불행이라고도 생각하고, 행복이라고도 생각한다. 불행한 건 피곤하기 짝이 없게 내 삶과 인간 관계가 섹슈얼리티에 의해 조정된다는 데 대한 불만 때문이다. 행복한 건 그런 탓에 조금 거창하지만 내가 하릴없이 보이는 듯한 생활에서 권력과 지배를 생각하도록 촉구받는 정치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쫓나기이고 내가 쫓을 욕망과 내가 벌일 씨름과 싸움은 끝도 없다. 피곤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지만은 앓은 무언가가 또 나타나 먹살을 나 쫓게질 모를 일이다. 그럴 때 나는 또 무언가를 쓰고 말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역시 게이로서. **11**

첫호에 실린 개그우먼 이영자의 인터뷰글에 대한 독자의 반응은 두가지였다. 너무 재밌었다와 왜 이영자가 11에 나와야 하는지 모르겠더라는 것이다. 이영자가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잘 안맞는 인물이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이여자'라는 꼭지에선 앞으로 대중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연예인들을 만날 것이다. 그들이 간혹 완벽한 여성운동가로서의 이미지는 갖고 있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서 여성주의적인 싹을 발견해내고 그들을 우리 식으로 채색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주의적 인터뷰에 대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욕심이다. — 편집부

'리아와 계집애들'의 컬트적 굿판

리아라는 가수를 인터뷰하기로 마음먹고 그녀의 노래와 그녀에 대한 글을 짚어가면 나는, 뭐랄 수 없는 신선한 기운이 끼쳐오는 것을 느꼈다. 왜일까. 아마도 그녀가 내팔이라는 문명 너머의 오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실이 늑대소년 같은 야성의 이미지로 연결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리아, 그녀는 단단한 밤물처럼 짧게 올려친 머리에 너털한 청바지차림이 트레이드 마크다. 소위 여성적인 미모보다는 개성적인 표현에 호소한다고나 할까. 그러자 나는 내 마음이 언제나처럼 묘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깨달았다. 지금까지 수많은 여성들과 만나왔지만, 언제나 다소곳하게 여성적인 태를 가다듬

는 쪽보다는 시원시원 화통한 쪽으로 마음이 가곤했던 것이다. 이젠 그저 나의 취향인가, 아니면 여성적인 무엇이 사실은 남성적인 무엇의 그림자로만 존재하는 경향에 대한 반작용인가. 어쨌든 이번의 만남은 출발이 좋다. 내 마음은 그녀를 향해 열리기 시작했으며 어딘지 다정한 느낌에 젖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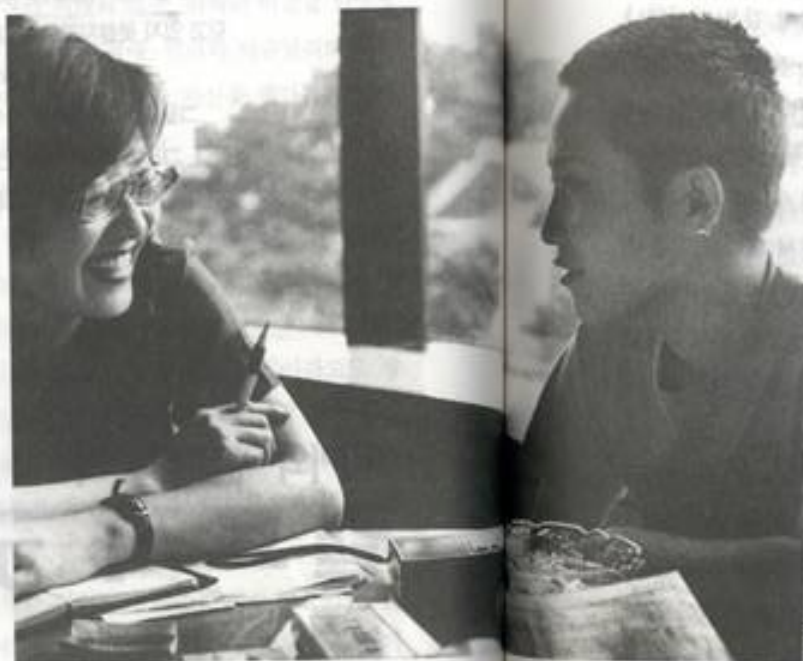
각이 진 속색 군밤모자를 뒤집어쓰고 몸에 딱붙는 빨간 셔츠를 걸친 채 나타난 그녀는, 작지만 단단한 인상이었다. 메니저로 보이는 몇명의 남성을 대동하고 뚜벅뚜벅 걸어오는 모습이, 언젠가 본 영화에서 채구는 왜소하지만 공력은 만만찮은 보스가 등장하던 장면을 연상시켰다. 악수를 한 뒤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마치 헤드뱅잉(노래할 때 머리를 흔들며 찍는 동작)이라도 하듯이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다. 도무지 막힘이나 저어함 없이 자신을 드러내는 그녀의 얼굴에서 송곳니끼의 장난끼 어린 치열이 자꾸만 시선을 끌었다.

외톨박이 소녀를 감싸준, 오지(奧地)의 자연

어린 시절, 그녀는 산악인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가족들과 함께 이리저리 붓집 싸고 옮겨다니야 했다. 어느날엔가 산 탄다고 나간 아버지가 일년쯤 지난 뒤 नेपाल에서 자리를 잡았노라 편지를 했고, 다섯살의 리아는 엄마, 남동생과 함께 그곳으로 갔다. 그후 그녀는 नेपाल과 뉴델리를 오가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다.

그런데 학교갈 나이가 되어 들어간 외국인학교에서 그녀는 그만 외톨박이 신세가 되고 만다. 세계각국에서 모인 애들이긴 하지만 백인 외교관 자녀가 대부분인 학교에서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동양인 아이는 따돌림받고 도시락이나 뭇기 일쑤였다. 이렇듯 학교에서의 그녀는 친구도 없이 주눅들어 있었다. 하지만 집에 오면 달랐다.

“조그만 집이 있고 연못도 있는, 도시에 있는 전원주택 같은 분위기였어요. 생계는 못짜라고, 산악인들이 오는 하숙집을 했죠. 집에 오면 너무 신나는 거예요. 남동생이랑 같이 담뱃배도 기어올라가고 마당에 사탕수수 몇 그루 자라는 거도 비어먹고, 옆집 담 넘어서 조금만 가면 숲 같은 게 나와요. 거기 가면 뱀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다 있어요. 산 속에 들어가서 하모니카도 불고, 제 또래의 다른 애들이 경험하지 못한 시골스런 분위기를 많이 배웠어요. 산타리 오는 사람들, 굉장히 낭만적이잖아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필자 김영희(왼쪽)와 이야기를 나누는 리아(오른쪽).

서울의 초등학교에 다닐 때도, 또래 아이들로부터 놀림당하고 얻어맞는 이지에 비슷한 것이 변함없이 계속된다. 아이들은 인도라는 낯선 나라에서 온 그녀를 무시하기도 하고 선망하기도 하면서 따돌렸다.

학교에서 마치 작은 압력솥처럼 눌러지내던 그녀로서는, 애당초 본바탕이 활달한 만큼 마음 속의 증기압도 커졌을 것이다. 탁트인 자연과의 교감이 그녀에게 한층 의미있게 다가왔던 까닭도 여기 있을 것이다. 자연은 그녀에게 학교생활의 소외를 보상해줄 뿐 아니라 그것을 견디고 넘어설 수 있게 하는 마음의 보루였을 것이다. 이같은 마음 속 보루는 얼마 뒤 자연에서 '음악'으로 바뀐다.

열살 때 귀국해서 서울의 잠실초등학교에 다닐 때도, 또래 아이들로부터 놀림당하고 얻어맞는 이지에 비슷한 것이 변함없이 계속된다. 아이들은 인도라는 낯선 나라에서 온 그녀를 무시하기도 하고 선망하기도 하면서 따돌렸다. 한번은 백인 아이들의 실익은 인종주의, 또 한번은 한국 아이들의 배타적인 패거리의식으로부터 돌을 맞은 셈이다.

웃자란 자의식과 '강한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인도와 한국을 넘나들며 유년시절 내내 또래집단과 섞여 들지 못하던 그녀는, 평균치 이상으로 웃자란 자의식을 가지게 된 것 같다. 외식의 밑바닥에 숨어있던 강렬한 자의식은 또한번의 이사와 전학을 계기로 표면으로 튀어나오며, 이후 사춘기의 그녀는 마치 강래처럼 또래 위에 군림하는 모습으로 돌변한다.

“그때까지 계속 쌓여있다가 부친 가서는 성격이 강래처럼 변했어요. 왜 그런 애들 있죠, 접근하기 힘든, 욕상을 시작했는데, 그때 성격이 바뀌었죠. 친구도 생겼고, 반장하구, 전교 일등도 해봤어요. 중학교 때는 남녀공학을 다녔는데 아무도 절 당해내는 애가 없었어요. 단단하고 싸움도 잘하고 남자애들도 두려워 하는 존재였어요.”

마치 만화 <공포의 외인구단>의 캐치플레이즈처럼 그녀의 내면에는 어느새 '강한 것이 아름답다'는 의식이 본능처럼 자리잡은 것이다. 그녀는 강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절로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실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략가수 신해철에 대한 그녀의 선망은 이같은 의식의 일단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해철이오빠는 참 마음에 들어요. 제가 가지구 싶은 그런 면을 가지고 있어요. 강한 거, 카리스마. 어쩌면 그건 제 콤플렉스일 수도 있는데요, 사람들은 흔히 저한테 그런 게 있다구 얘기를 하지만, 제 마음이 너무 약해서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해철이오빠가 멋있는 거죠, 해철이오빠가 뭐라 그러면 아무도 기억을 못하잖아요.”

이같은 강한 것 콤플렉스는 물론 어린시절 또래집단에서의 소외 경험에 뿌리를 대고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 음악계 입문과정에서 겪은 '여자'로서의 어려움 역시 이같은 생각을 굳히는 데 한 몫한 것 같다.

여자고등학교에 진학한 그녀는 새롭게 기반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남자애들은 오히려 통제가 가능하데 여자애들은 속박당하는 걸 싫어한다나. 그렇게 다시 외로운 상태가 된 그녀 앞에 한 친구가 나타나 해비메탈이란 걸 가르쳐주면서, 그녀는 음악에 빠져들기 시작한다. 음악은 마치 어린시절 오지의 자연이 그랬던 것처럼 외로운 자아를 달래줄 뿐 아니라 웅성길은 자기만의 세계를 쌓아갈 수 있게 하는 모험의 동굴 같은 것이었다. 보다, 해비메탈도 처음에는 시끄러워서 싫었지만 갈수록 좋아졌다. 테이프를 틀어놓고 따라부르고 기타반에서 통기타를 배우던 그녀는, 어느날 음악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아는 독립문의 음악학원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음악하는 오빠들과 만나게 된다.

오빠들은 노래를 편하게 하는 그녀를 예뻐하면서 테이프 같은 거 녹음해다 주고 음악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니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니 하며 친절하게 가르쳐준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바로 그같은 호의 섞인 친절 속에 가로놓여 있던 견고한 벽과 부딪친다. 아무도 여자와 함께 팀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여자는 일단 약하다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락rock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여자 목소리로는 락을 할 수 없어. 그런 인식이 박혀 있었는지도 모르죠. 일단 목소리가 여자면 음악이 파워가 약해진다고 생각을 하나봐요. 제가 밴드를 만들자니 너무 힘이 들고 끼어들자니 안끼어주고, 저는 그때 내가 실력이 없어서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뒤에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예뻐는 했지만 팀을 만들고 싶어하진 않았어요. 모험은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생각들이 다 바뀌어서 언더그라운드쪽에 여자들을 보컬로 하는 팀도 굉장히 많아요.”

여자 보컬에 대한 락그룹의 생각이 바뀐 데는 외국에서 여자 밴드가 많이 났다는 사실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한다. 어쨌든 그녀는 이제는 자기가 짝은 편이라고 하면서, 이런 게 너무 웃긴다. 여자

남자 따지기 이전에 먼저 실력을 보고 음악 색깔이 맞으면 팀을 해야 하는데, 일단은 가오, 감빠(남자들 운동하면 가슴 나오는 것), 이런 면에서 남자를 선호하는 풍토가 우습고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

“아무도 여자랑 팀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에 대한 그녀의 생각은 불타는 중오심쪽보다는 '남자들이 좀 생각이 모자랐던, 우스운' 일 정도로 정리되는 것 같다. 오빠들 자신이 좀 뛰어서 관습상 그랬을 뿐이지 확신을 가지고 금을 그렸던 것은 아니며,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행운에 그들의 도움을 더 해서 딛고 올라섰고, 무엇보다 이제는 옛말하며 웃을 수 있는 너그러운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 모든 편견들이란 얼추 이런 식 아닌가. 사람들은 '단지 좀 모자라서' 그같은 편견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어쨌든 그녀는 그 과정에서 '강한 것이 아름답다'는 생각, 승리한 자만이 뒷날 웃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다졌던 것 같다.

하지만 세상에는 또, 편견의 주인이 되기로 '선택' 한 사람들이 활개치고 다닌다. 그들에 대해, 말하자면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거만멸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그녀는 나중에 뒤에 가서 철벽철벽 우는 한이 있어도 절대 그 앞에서는 안지려고 더 큰 힘으로 상대를 하고, 사실 남자라서 저본 적은 한번도 없다고 했다. 얘기를 해서 통할 만한 상황이 아니면 아예 얘기를 안하기도 한다. 물론 남자애들 중에도 참 편찮은 애들이 있다. 그런 애들이랑은 연락도 하고 잘 지내는 편이다.

그녀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물론 타고난 저돌적이고 도전적인 성격 때문이기도 했을테고, 또 앞서의 '강한 것이 아름답다'는 생각 역시 중요한 버팀목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는 워낙 팔을 좋아하는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님한테 그런 의미의 차별대우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했다. 한살 아래의 남동생은 그녀를 항상 누님이라고 불렀으며 그녀는 그런 동생을 아끼고 보호하는 입장이었다. 그녀는 남자만 떠맡들어 키우는 집의 여자들이 오히려 남자와 더 잘 지내지 못할 거라고도 했다.

그녀는 집에서 절대 남편을 '구박하지 않을' 것이며 서로를 기죽이지 말고 서로한테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요즘 흔히 이야기되는 여자의 '선택'에 대해, 그건 남녀로서의 선택이지 '인



간으로서의 선택'은 아닐 거라고 잘라 말한다.

그럼 회생에 대해서는? 회생은 좋은 거구 필요한 회생이라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자기들을 위해 회생한 얼마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자기도 벅수었던 시절 밥도 많이 하고 집안일도 도우면서 '회생을 했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많이 웃었다.

그녀는 이제 막 그런대로 순조롭게 출발했을 따름이며, 선택이나 회생 따위의 '말'들이 실제로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직껏 실감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어쨌거나 그녀는 싱싱하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으며, 이 대목에서 나는 그녀가 인생이라는 아흔아홉구비의 장애물 경기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마음 속으로 빌어주었다.

그녀가 넘어선, 장애물들에 대해

언제부터가 그녀는 음악의 길을 '선택'했다. 나는 앞서 그녀가 이제 막 그런대로 순조롭게 출발했을 따름이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어찌 장애물이 없었겠는가. 우선 부모님의 기대가 실린 대학 진학문제가 있었는데, 서울예전 실용음악과를 꼭 가고 싶었지만 집안형편상 레슨비를 대줄 형편이 못됐고 무엇보다 음악인하면 곧바로 불우한 판따라를 생각하시는 부모님께서 밀어주시지 않으셨다.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돈을 모아 버클리음대를 가겠다고 피자 가게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우연히 언더그라운드팀에 합류하게 됐지만, 돈도 쉽게 모이지 않았고 팀에서도 별로 얻은 게 없었다. 그때 그녀는 또한번의 장애물을 어렵게 넘어선다. 고등학교 때 음악하는 오빠들 사이에서 만나서 4년반 정도 사귀어오던, 처음으로 사랑한 사람, 결혼하게 될 줄만 알았던 그와 헤어지게 된 것이다.

그는 그녀를 사사건건 간섭하고 못미더워 했으며, 무엇보다 음악을 못하게 했다. 너는 실력이 부족하고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식으로 방해를 왔다. 처음에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들었지만, 두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잘 살아가는 거는 둘 다 행복해야 되는 거지, 한 사람만 행복하고 한 사람이 불행하면 둘다 불행해지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속상하지만 고된 끝에 마침내 그를 '쳤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두번의 장애물 경주를 치러낸 그녀는 돈 한푼 안나와도 좋으니까 노래만 시켜주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노래를 했다. 오빠들

이 곡을 적서 가요제에도 나가고 고등학교를 순회하는 공개방송 프로그램에서 녹화 들어가기 전에 바람잡이하는 역할도 하고 '별밤' 프로에서 서태지가 뺄뻘이었다 하면 불러가서 땀땀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지금 매니저의 눈에 띄어 <다이어리>라는 앨범을 내면서 순식간에 '뜨게' 된 것이다.

자칭 문제아들, 여학생들의 킬트적 곳판

그녀는 이 앨범의 가사를 직접 썼다. 형식 자체가 그녀의 일기장 가운데서 가사를 따내어 노래를 만든 꼴로 되어 있다.

"내가 노래하게 되면 직접 가사를 써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구 있었구. 그게 제작하시는 분들의 생각과 맞아떨어져서 가사를 쓴 거예요."

가사는 사랑 얘기도 좋지만 사람들이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가사를 쓰자고 생각했어요. 제 가사는 다 직설적이고 불만있는 가사들이면 서도 어떻게 하자는 선동포가 많은데, 가수가 영향력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굉장히 필요할 꺼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성공한 거 같아요."

아닌게 아니라 대학로의 라이브전용소극장에서 그녀의 콘서트를 지켜본 필자 역시 그녀가 '성공했다'는 사실에 동감이다. 여학생들은 여자가수보다는 남자가수들을 해바라기하는 '오펙부대'의 구성원이 되는 '오늘의 추세'에 비추어볼 때 그녀의 공연을 보러온 관객은 70퍼센트 이상이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초년생으로 보이는 '언니부대'인 점이 돋보였고, 그들은 진심으로 그녀에게 열광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빠져드는 걸까.

우선 <다이어리>라는 제목이 붙은 그녀의 앨범에 담긴 노래가사들이 그들의 속마음에 근접하게 맞아떨어지며, 때로는 그들의 마음을 앞질러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유토피아에 대한 순진무구한 꿈을 그린 <유토피아>,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친구에 대한 기억을 담은 <4가지 하고 싶은 말>, 돌아선 사랑 앞에서 안타까운 중심잡기를 시도하는 <집착>, 세상사의 위선에서 벗어나 사랑을 배우자는 <욕구불만>, 획일화를 거부하는 똘이 문제아들의 변(辨)에 해당하는 <개성>, 개성이란 옷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내 모습이라고 말하는 <복장불량>, 가솔한 친구를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가솔한 친구에게>, 그리고 학창시절을 아쉽게 끝마치면서 설레이는 새출발



신끼 같은 걸 느껴본 적은
없느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에게 신끼가 있노라고,
미친 듯이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려보니까
좀전에 자신이 미쳐있었던 걸
깨달고 무서웠던 적이
있노라고 대답했다.





을 시작하는 성년成年의 심경을 묘사한 <졸업>에 이르기까지.

흥미로운 것은 이같은 노래들이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감사패를 수여해야 할 정도의 건전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이들은 이것들을 고리타분해하지 않고 마음 속 깊이 받아들이는 걸까. 그것은 무엇보다 이 노래들이 요즘 그들의 문제를 '걱정하는' 어른들의 말과는 달리,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문제를 얘기하는 청소년적 당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청소년문제에 대한 리아의 생각은 귀기울일 만한 대가 적지않다.

“예, 편지가 많이 와요, 언니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애들은 자기가 다 제가 얘기하는 종류의 문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문제아라는 거는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주장이 있고 또 그거를 이뤄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문제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의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요. 애들한테 여러가지 다양한 거를 보여주고 그런다면, 애들이 그렇게 미치지 않는 거예요. 얘기를 해보면 애들은 다 선해요. 말뼌 일으키고 그럴 만한 애는 별로 없거든요. 주로 어른들에 대한 반항이 많아요. 안그래도 될 거를 일부러 반항하고 더 나쁜 짓 하고,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무조건 애들 편이에요.”

그렇다면 어찌하는 걸까. 그녀는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걸까. 그녀는 확실한 자기주장을 가지고, 자기를 지킬 수 있을 만큼은 생각을 좀 하고 살자고 그들에게 노래로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선생님들이 '지금 저한테 들어주시는 만큼만' 얘기를 들어주셔도 애들이 그렇게 반감을 가지지는 않을 거지만, 선생님들로서도 숫자가 너무 부족해서 귀찮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교육문제는 너무 '종합적인 문제' 같다고도 말했다.

그녀의 해법은 무엇보다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하는 거라고 했다. 그녀의 노래 자체가 아이들과 나누는 대화이며, 또한 아이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라는 제안이기도 하다. 어른들이 뻘뻘 따위 공부하는 애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구 하는데 그건 숨막혀 있는 아이들의 '대화통로'이며 또한 피씨통신 같은 것을 잘 활용해도 좋을 거라고, 그래서 다음달부터는 피씨로 들어가서 채

팅도 하면서 대화를 많이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보겠다고도 했다.

그들은 엉망진창인 어른들의 현실 앞에서 치이고, 숨막히는 교육 현실 안에서 갇히려 산다. 그래서 그들의 편에 서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선망하는 강력한 개성을 독특한 가창력에 실어 온몸으로 전하는 그녀의 존재는, 그야말로 강렬한 호소력으로 다가서는 것 같다. 게다가 그녀는 자연스러우면서도 강력하게 청중을 흡인하는, 흡사 신끼같은 무언가를 뿜어낸다. 그래서인지 그녀의 주도하에 끓어오르는 라이브 무대는, 앞서 말한 '자칭 문제아' 청소년들, 특히 여학생들이 그녀를 둘러싼 채 만들어가는 컬트cult적 곳판처럼 보였고, 그녀는 그곳의 무녀巫女로 군림하는 것처럼 보였다.

신끼어린 황홀경에 서서 '닭살돋는' 예술적 감동을 꿈꾸며

마주 앉아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던 어느 순간, 나는 문득 그녀의 얼굴에서 신끼같은 걸 느꼈다. 그래서 그녀에게 먼저 운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예견하는 꿈 같은 건 안 꾸는지 물어봤다.

“큰 줄기의 운명은 있다고 생각해요. 제 운명요? 가사가 많고 힘난하죠. 저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해요. 밤에 잘 때도 거의 한시간 정도는 생각을 하죠. 꿈도 여러가지를 꾸는데요. 제가 너무나무 좋아 하는 남자애를 꿈에서 만났는데, 근데 얼굴은 안보이는, 그런 꿈도 풀 때가 있었어요. 어떤 때는 맞추는 꿈 풀 때도 있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꿈꿨는데, 딱 맞았어요.”

내친 김에 신끼 같은 걸 느껴본 적은 없느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에게 신끼가 있노라고, 미친 듯이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려보니까 졸전에 자신이 미쳐있었던 걸 깨닫고 무서웠던 적이 있노라고 대답했다. 보이지 않는 뭔가가 와서 자기를 조종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자신은 아무 생각 없이 내치르고 있는데, 그게 스케일에 맞고 음악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

자연스레 황홀경에 빠진다는 건 가수로서는 행운일 터. 어떤 가수들은 이런 몰아지경을 위해 약을 먹기도 한다잖는가. 하지만 그녀는 이처럼 저절로 일어나는 신끼어린 절정의 순간이, 그렇게 자연스레 일어나는 가창력과 파워가 그리 반갑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그녀 생각에 노래는 가창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며 자기같이 뻘심으로 뽀뽀 질러가면서 노래를 안해도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진짜 예술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직은 부족함을 느낀다고, 그냥



흥얼흥얼 읊조리듯이 노래를 불러도 사람들이 감동하고, '닭살을 돋아하고' (웃음) 그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노랫말이 너무 직설적이고 '배움이 좀 없는' 데 대해 불만이 많았다. 정말 이지적이고 싶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는 수밖에 없는데, 어려서나 학교 다닐 때는 책을 너무 좋아하고 많이 읽었지만, 요즘은 너무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걱정을 하기도 했다.

그녀는 교장선생님이요 한문학자였던 할아버지를 정말 존경했다. 할아버지도 자기를 제일 예뻐하셨는데, 이 대목에서 그녀의 말이 재미있다. 남동생은 장남이라 무조건 예뻐하신 거고, 자기는 '여러 가지 다 따져보고' 예뻐하신 거라나. 그리고, 산악인이자 탐험가로서 한국일보 특파원을 지내기도 하셨던 아버지. 당신의 인생이 그다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그걸 추구하고 이루어가셨던 모습은 늘 동경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그녀는 줄곧 존경하는 할아버지와 자유인 아버지 사이에서 중심을 잡으며 살아왔다. 물론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타고난 성격상 자유인쪽으로 기울지만, 기본적인 생각 자세는 할아버지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할아버지랑 아버지를 찜뽕했으면 좋겠다고.

그녀는 이제 좀 쉬고 싶어한다. 목에 굳은 살이 생기는 '성대결절' 판정을 받았는데 원래는 쉼 없는 목소리가 언제부턴가 걸걸해졌다. 꼭 쉬어버리고 싶는데 스케줄이 그렇게 안걸어들지만 콘서트는 계속 할 거라고도 했다. 아무 생각 안하고 아무 데나 멧대루 다니면서, 또 48시간 정도 자다가 일어나서 아무 짓도 안하고 산만 보고 있다가, 또 일어나서 걸어다니다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잊어버리고 싶다고도 했다. 이 부분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산사람의 기질인가. 그녀는 문득 사학을 하신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문화사를 공부해보고 싶다고도 했지만, 아무래도 그녀의 '선택'은 그녀가 이미 한발을 성큼 들여놓은 음악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디 그녀의 선택이 갈수록 풍요롭고 또 깊이있게 가꾸어지기를. **IF**

김영희

1960년 서울생.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졸업. 문화평론집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를 펴낸 문화평론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게임의 법칙'을 지켜가며 대화를 나눌수는 없을지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거리이다. 싸울 때는 팔뚝을 걷어부치고 화끈하게 싸우지만 그러기에 앞서 먼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자신의 생각을 성의있게 설명할 줄 아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요즘은 다양한 사람들의 내면풍경을 최대한 진실에 가깝게 드러내는 인터뷰에 재미를 붙이고 있다.

IF · 가 · 뽕 · 은 · 좋 · 은 · 광 · 고



요즘 터프가이 맞는다 ~ **IF**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가는 영매, 설치미술가 안필연

안 필연(安畢妍)이라면, 난 늘 '가위'를 떠올린다. 그의 작업을 대하기 전까지 가위 따위의 오브제에 주목해온 일은 없었던 것 같다. 종이를 자르고, 부엌에서도 쓰고, 참 반질고리 안에도 있다는 정도. 좀더 생각해 보면, 그레 머리카락도 자르고, 수술할 때도 쓰겠지... 하다가, 가위를 쥐고 무언가 잘라볼까 두리번댄다. 굴러다니는 종이 한장을 든다. 삭삭 소리와 함께 묘한 짜릿함과 통쾌함. 대상을 무언가 다른 모습으로 바꾼다는 신나고도 두려운 그런 복잡한 감정을 경험한다. 그렇다면 이제 가위 하나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는 엄청난 생각으로 비약한다.

가위로 무얼 할까

그 가위로 땀줄을 끊고 세상에 나오자마자 이름은 결정되었다. '말妍은 이제 그만'이다.

"명산대천 찾아가서 진미곤미 받쳐놓고 쫄대한상 벌여놓고 칠성 남전 비나이다. 제석남전 비나이다. 열시왕전 비나이다. 아들이든 딸이든 낳아달라 석달월을 백일정성 올린후에 이왕지사 점지해 주시려거든 딸애기보다 옥동자를 점지해달라고 신령님께 비나이다... 어화세상 뱃님네를 이내말씀 들어보소. 아들에게 낳겠다고 딸 이름을 이리도 지었으니, 안씨문중 찾아가서 안씨따님이름 불러보자... 안필연(安畢妍), 안지숙(顔止淑), 안남희(顔男希), 안희자(顔希子), 안종희(顔終姬), 안필남(顔必男), 안필순(顔必順), 안필달(顔必達), 안필자(顔必子), 안필분(顔必分)..."

세번째 개인전 <도박>(표화랑/1994)에서 벌인 퍼포먼스 <거울 속으로의 여행 II>은 굿판이었다. 아들을 바라는 뜻의 여성 이름 40가지를 우리나라 500성씨에 붙여 무당에게서 배운 사성소리로 읊어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공연뿐 아니라 그 굿이 벌어진 공간 전체가 바



<남은 만화경> LG패션 영구조형물. 마치 가위새 같기도 하고 물고기 같기도 한 가위를 아크릴로 제작해서 공중에 매달았다.



<도박>, 1994, 서울 표화랑, 거울과 특수조명을 이용해 환상적 공간으로 꾸몄다.

안필연은 이렇게 설명했다.
아무리 완벽한 작업이라 해도
영구적인 것은 없으며,
변하고 남는다고 어차피 허망한 것이며,
세상 모든 것이 그렇게 변화하고,
물론 사람의 생애도 그러하다고.
그러니 이제는 강한 이미지만으로 남는
그런 예술이 필요한 때라고...

로 그의 작품이었다.
퍼포먼스를 통해 불리던 그 이름들의 낙관落款이 찍힌 흰 한지가 커튼처럼 드리워졌다. 또 그 도장 찍힌 종이를 액자 속에 넣기도 하고, 강한 조명과 거울을 이용한 우주 같은 공간 속의 아크릴 상자 속에서 내보이기도 했다. 이 모든 작업들은 전시장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천장에서 바닥까지는 물론, 그 속의 빛과 공기도 점령하고 있었다.

그곳에 가득 차있는, 무어라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분위기.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여성의 문제, 나아가 그러한 사회에 대한 반성의 문제를 다룬다'는 의도를 가진 전시이니 만큼 무겁고 다소 어두울 것이라는 예상과는 판이한 느낌이었다. 참 아름다웠다. 그리고 놀라운 규모였다. 꿈 같기도 하고 환상 같기도 했다.

그의 작업은 참 아름답다

그의 작업은 정말 아름답다. 혹자는 이를 두고 '여성적'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한다. 재료로는 천이 많이 쓰이며, 분홍과 보라, 형광색채 때문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어김없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보는 이가 어린이든 어른이든, 문외한이든 전문가든 그의 작업 앞에서는 우선 멈추어 서게 되며, 마치 무엇인가 흡인 듯 낮은 환경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가게같이 무명한 색색의 긴 천이 1, 2층을 통해 만든 높은 천장에서부터 내려뜨려져 있다. 천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출입구와 같다는 착각 속에서 관객은 그 커튼을 헤치며 걷게 된다. 형광비닐과 특수조명(black light)을 사용해 만든 푸르고 보랏빛 나는 다음 공간은 그야말로 꿈의 세계다. 파리에서 열린 네번째 개인전 <만화경(Kaleidoscope)>(르 몽드 라 갤러리/1995)의 광경이 이러했다.

하나의 물체가 수십개로 보이는 '만화경'을 통해 보는 세상은 신이 날 수밖에 없다. 부자가 된 느낌일테니 말이다. 어쩌면 만화경은 대량 소비사회의 상실감을 그 속에서 겨우 채우고 있는 현대인의 정신착란상태를 연상시킨다. 안필연은 이 전시를 통해 잃어버린 것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차고도 넘치는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

은 무엇인가.

상실된 자아다. 자기 자신이다. 거짓없는 거울이라 해도 표면만을 비춰줄 뿐이며, 그것도 반전(反轉)된 상일 뿐이다. 진정한 내면은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혹은 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는지, 어디 곳이라도 한판 벌여 그 숨어 있는 나를 끌어내볼까나.

퍼포먼스를 통한 적극적인 보여주기

안필연을 두고 화단에서는 '끼있는 여자' 혹은 '무당'으로 부르기를 서슴치 않는다. 그는 예술로 승화된 굿판(설치작업)과 굿(퍼포먼스)을 통해, 자신과 현대인의 상실된 과거 및 자아회복을 꾀한다. 예술가들 샤먼(shaman, 무당)으로 보는 것은 이미 현대미술에서 낯선 개념이 아니다. 안필연의 경우 지극히 한국적이며 여성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며, 특히 영매(medium, 영을 연결해주는 매개자)의 역할에 치중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첫 개인전 <넋>(문예진흥원/1990)에서 이미 이러한 방향을 예고했다. 언뜻 전통적인 목조각으로 보이는 작품들을 대하자면, 최근의 그의 작업과 비교해 오히려 낯설다. 그러나 그는 이미 삶과 죽음, 현실과 그 이면의 상호작용에 주목하고 있었으며, 때문에 우리 전통장례에서 사용되는 여러 물상들을 모티프로 원시무속신앙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주술적인 작업을 했던 것이다.

거울을 통한 내면 발견을 시도했던 두번째 전시 <깊은 거울>(서미화랑, 서화화랑/1993)을 두고 열린 퍼포먼스 <거울 속으로의 여행 I>에서, 무당으로서의 역할이 본격화, 구체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가위(여기서 가위는 파괴와 동시에 창조의 이중적인 역할을 한다)로 자신의 긴 머리를 자르고 관객으로 하여금 옷을 자르게 한다. 머리를 자르는 행위는 죽음을 은유하며, 이로써 전통과 인습, 애착과 편견을 버리게 된다. 이제껏의 안필연 또는 관객 자신이 제거되고, 새로운 자아가 탄생한다.

안필연은 이렇게 관람객과 작가를 분리된 상대적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예술이라는 것이, 예술가가 일반인들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고매한 이상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며, 평범한 관객이 있고 그들의 관심이 있을 때만이 비로소 존재가치가 있다는 진리를 잊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를 '대중예술가'라고 부른다. 대중에 작품을



알리고 싶고, 알려지고 싶다고 말한다. 혼자만의 예술이라면 작업실에 처박혀 열심히 작업을 하면 될 뿐 굳이 내보일 필요가 없다. 특별히 여기 적어줄 것도 없는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 미술계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의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굳이 일반 관객에 설명하려 들지 않으며, 현대미술의 속성 상 그 설명이 없을진대 이해가 매우 까다롭다. 많은 작가들이 설명을 기피하는 이유는 자신의 작업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극소수의 예술소비계층을 위한 것으로 여긴다는 뜻이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한국미술은 외롭다. 음악이나 영화, 연극처럼 든든한 지지기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필연은 다르다. 모두를 위한 예술이다. 그래서 퍼포먼스도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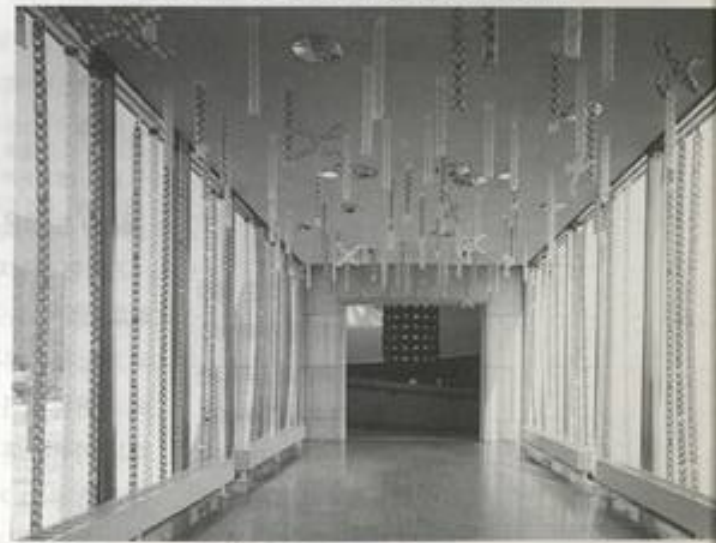
최근에 작업을 끝낸 어린이미술관을 보자.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이 지난 5월 개관한 어린이미술관은 미술관이라기보다는 '어린이전시실'이라고 하는 것이 솔직할 그리 크지 않은 원형의 복도식 공간이다. 바깥쪽 벽을 따라 어린이들의 회화작품이 걸려있고, 안쪽 벽에는 긴 창이 있어서 자연광이 들어온다. 관객들은 등글게 돌아가는 전시장을 걸으며 다시 입구로 되돌아오게 된다. 이곳에 안필연의 <만화경 속의 아이들>이 설치되었다.

"소리와 냄새까지 끌어들이고 싶다"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실을 들어설 때마다 우선 만나는 것이 백남준의 어마어마한 비디오 작업 <TV 타워>다. 이 작품을 둘러가며 소용돌이처럼 감겨진 오르막길을 지나야 어린이미술관에 도달한다. 하니 어린이들은 이미 백남준에 혼을 온통 빼앗긴 상태다. 안필연의 고민은 시각적 충격에 빠진 어린이들의 주의를 어떻게 환기시키느냐 하는 것이었다. 해답은 소리였다.

통로에는 색색의 가위(처음엔 예쁜 리본으로 착각했다)가 천장에 매달려 있고, 대롱처럼 긴 종선이 창가에 커튼 대신 드리워져 있다. 본격적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삐꾸기 소리가 난다. 이젠 뭐지? 흥미가 생긴다. 천장 곳곳에는 원형 불룩거울

<만화경 속의 아이들>, 1997, 과천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 미술관 설치작업. 여성 이름의 낙관을 프린트한 긴 종선을 창가와 천장에 매달았다. 가위도 보인다. 입구 바깥쪽으로 보이는 비디오작업은 백남준의 <TV 타워>다.





자신의 작품 《옛보기》의 뒤로 서있는 작가 안필연.

판이 붙어있고 그곳마다 가위와 시계, 초롱, 유리구슬 같은 각양각색의 오브제가 매달려 모빌을 이루고 있다. 신나게 구경하면서 걷다 보면, 강아지 소리, 말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조명도 켜졌다 꺼졌다 한다. 커다란 TV 모니터에는 내 모습과 전시장의 모습이 번갈아 비춰진다.

전시장 구석에 앉아 구경은 어린이들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놀이터에 온 듯 활기가 넘쳤고 눈은 반짝였다. 들여다보고, 만져보고,궁금해 한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도 즐거워졌다. 정말 아이들만의 '우주'였다. 곁에 있던 안필연은 그래도 부족하다는 표정이다. 콘크리트 바닥이 못내 못마땅한 것이다. 발자국을 따라 소리가 나면 얼마나 재미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냄새도 끌어들이고 싶었다. 전시장 가득한 초콜릿 냄새, 바다 냄새, 풀 냄새를... 생각만으로도 행복했다.

어린이미술관의 작업을 즐거운 마음만 가지고 살펴보낼 것은 결코 아니다. 안필연의 행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앞으로의 작업 방향을 예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점차 '이미지'에 주목한다. 눈 앞에 확연히 드러나는 명확한 형상이 아니라, 순간 사라지더라도 머리 속에 각인되는 그런, 소리나 냄새 같은 것에 말이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아무리 완벽한 작업이라 해도 영구적인 것은 없으며, 변하고 남는다고 어차피 허망한 것이며, 세상 모든 것이 그렇게 변화하고, 물론 사람의 생애도 그러하다고. 그러니 이제는 모든 것이 가득 차 복잡다단한 현대인의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 앉을 엄청난 기념비를 제작하기보다는, 강한 이미지만으로 남는 그런 예술이 필요한 때라고... 그가 다음에 선보이는 작품은 대체 어떤 것이 될까.

끊는다는 것은 '창조'다

가위는 암날과 숫날이 만나 작용해 새로운 것을 만드는 자동동체 雌雄同體의 도구다. 또한 열림과 닫힘의 구조를 통해, 분리와 결합의 양성을 가지는 이중성의 모티프다. (안필연의 가위 중에는 두 날에 지퍼를 달아, 자르는 것이 아니라 닫히도록 만든 것도 있다.) 그래도 가위는 흔히 할머니들로부터 이어받은 여성의 도구로 인식된다. 남성은 그 가위를 거세의 온밀한 위협으로도 생각한다.

서양에서는 십자가처럼 결합 혹은 만남의 상징이었으나, 우리에

게는 끊어내는 기능이 강조되어왔다. 시집 안간 팔이 있으면 가위를 대문 밑에 묶어두었고, 집이 안팔리면 벽에 가위를 걸어두었다니 말이다. 그러나 끊는다는 것은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가능성이다. 결국 가위는 파괴와 함께 창조, 탄생의 상징인 것이다.

내 방에는 안필연의 커다란 가위가 한개 매달려 있다. 작년 죽산에서 퍼포먼스를 벌였을 때 입었던 그의 옷에서 하

나 떼어낸 것이다. 음복(陰福)하면 복을 받는다는데 무당의 옷에서 떼어낸 것이라 효험이 복복히 있을 것 같았다. 알록달록한 천 안에 비닐을 구겨넣고 가위 모양으로 박음질 한 것이다. 난 그 분홍빛 형질 가위가 좋다. 썩썩썩 움직여 나를 붙잡고 있는 굴레들을 끊어낼 수 있을 것만 같아서다. 끊는다는 것은 창조다.

가슴 답답한 날이면 자꾸 분홍 가위로 눈길이 간다. **II**



전수진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대학 4년 동안 인간의 모든 역사를 배워야 한다는 데 놀라, 독을 쏘 줄이기로 하고 서양현대미술사를 공부했으나, 역시 엄청난 일을 간단히 생각했다는 데 후회를 거듭하고 있다. 『월간미술』에서 기자로 일했으며, 그후로 미술에 관련된 이런저런 일을 조심스레 하고 있다.

안필연은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조소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넋〉, 〈깊은 거울〉, 〈도박〉, 〈민화경〉, 〈삼켜진 달〉, 〈옛보기〉 등 6차례 개인전을 서울과 파리, 호주, 동경 등지에서 열었다. 1993년 〈거울 속으로의 여행〉을 시작으로 10여차례 퍼

포먼스를 했다. 그 가운데는 지난해 여성문화예술기획 발간인대에서

안필연

공연한 〈두껍아 두껍아 헌집줄게 새집다오〉도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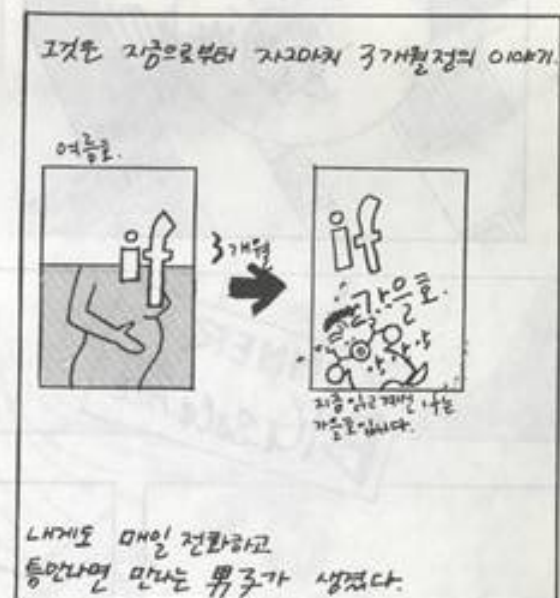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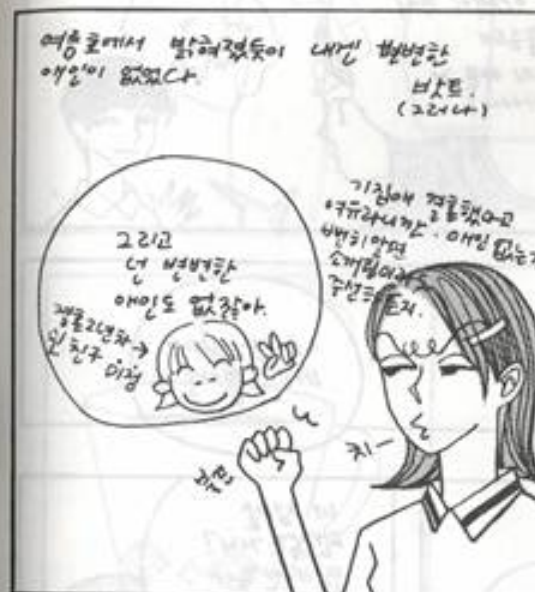
황낙주 전 국회의장, 전예웅 전 건설부장관, 천병규 전 재무부

장관의 흉상을 제작했는데, 이 작업들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대한 성실한 집착, 장인의 기질을 그대로 드러낸 작업이었다. 방글라데시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 〈여성 그 다름과 힘〉, 〈젊은 모색〉 등에 출품했다. LG패션 신사옥, 모란미술관, 국회의사당,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가까운 계획으로는, 오는 10월 타이페이미술관에서 열리는 〈국제여성전〉에 출품하며, 11월 영국 런던 킹스톤대학의 스텔리 피커 미술관에서 열리는 〈한국작가 3인전〉과 내년 2월 오리엔탈 미술관의 〈한국미술전〉에 참가한다.

그는 점차 '이미지'에 주목한다. 눈 앞에 확연히 드러나는 명확한 형상이 아니라, 순간 사라지더라도 머리 속에 각인되는 그런, 소리나 냄새 같은 것에 말이다.



(엠포기), 1997. 드로잉, 유화, 한해의 물문을 풀어내고 복을 비는 퍼포먼스의 한 장면.



대체 무슨
판공이람.
갑자기
웬즈러?
(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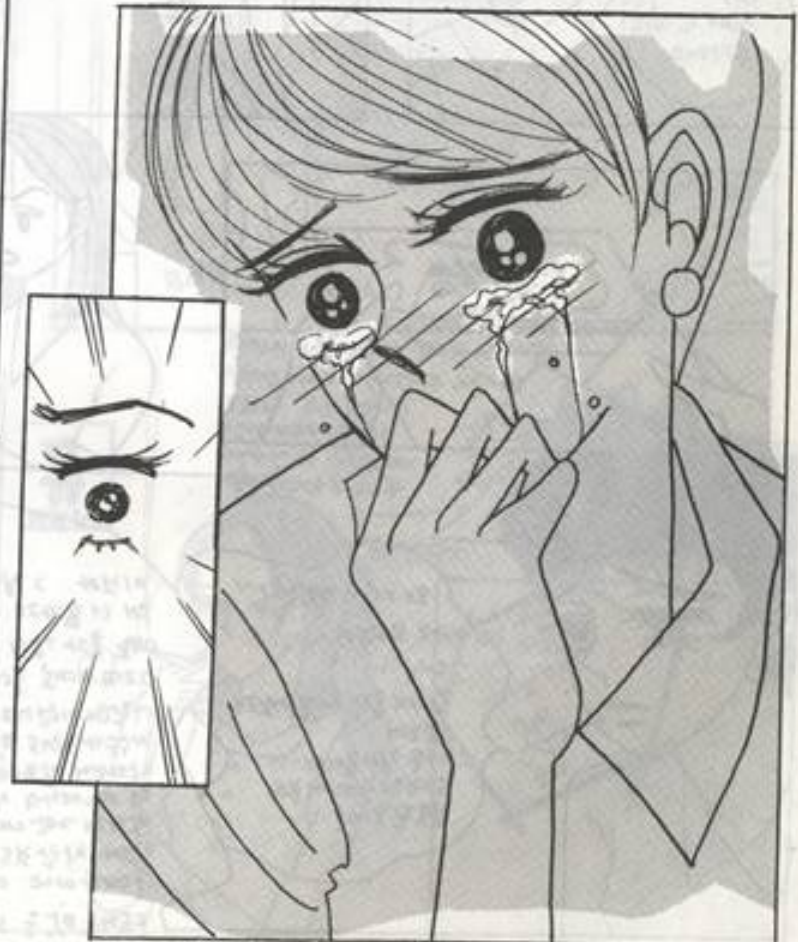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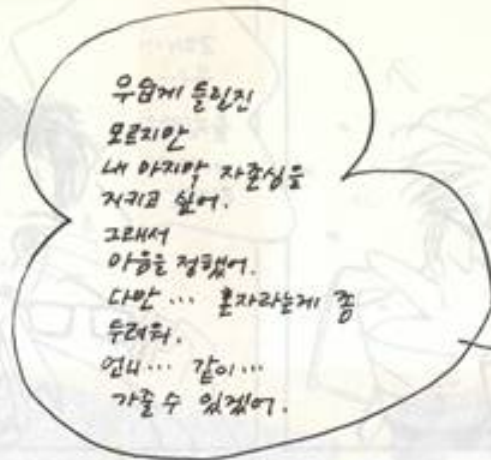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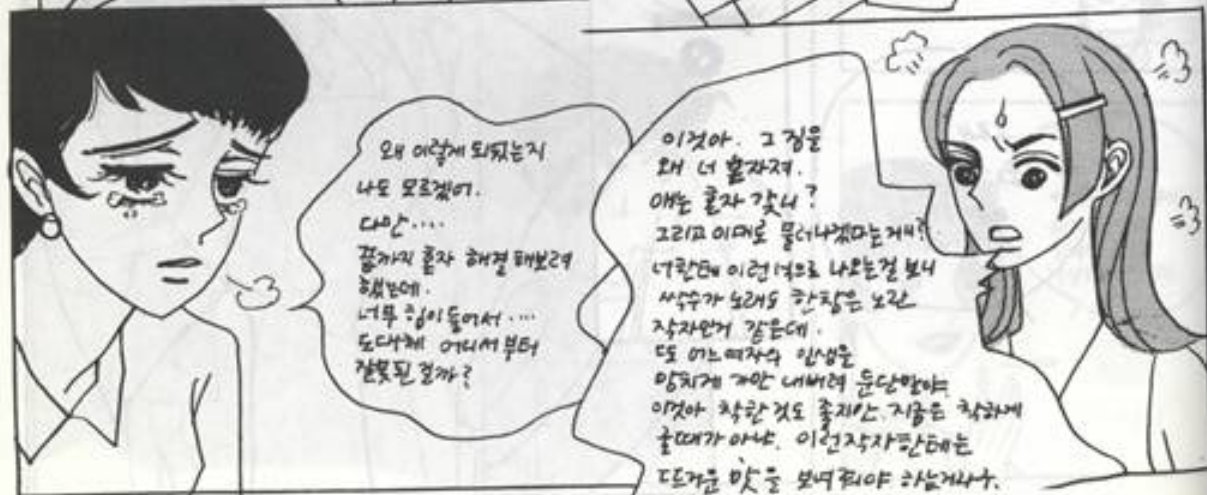
SUMMER
BIG Sale
DUTY FREE.

나 전산실에서
바쁘게 돌아올게.
후



그대.
하고 싶은
얘기라고는
.....







review

Movie	또다시 코미디가 된 여성의 출산과 육아, <산부인과>와 <베이비세일>
Theater	불안한 남자들의 연극, <남자중독>과 <아버지>
Music	삼십대 여가수들의 '가려진 행운'
Exhibition	여성성에 대한 두가지 다른 생각, <Mass+Sculp+us>전과 <미술, 바람, 부드러움>전
Book	히스테리아가 톰슨 가을의 책

계간지라는 H의 한계 때문에 책이 발행되는 시점에 맞춰 빠르게 작품을 선정해서 소개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H는 여성주의적인 문화예술비평의 한 모범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욕심으로 이 난을 마련했다. H는 객관성이라는 이름으로 평론가의 자유분방한 생각을 억압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객관성이라는 게 가실 얼마나 남성중심적인지는 이미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펼쳐질 리뷰란에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반응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또다시 코미디가 된 여성의 출산과 육아

〈산부인과〉와 〈베이비세일〉



1960년 서울생.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현재 중앙일보 문화부 대중문화팀에서
영화기사를 쓰고 있다.
맞벌이부부로 두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많이 웃기도 했지만
자금은 초등학교 3학년, 6살된
두 아들이 대견스럽게 키우며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자기 시간을 누리고 있다.
얼마전 번역서 『우리가 말하는 열한』
(한나레출판사 간)을 펴냈다.

김
영
희

얼마전 TV의 한 교양프로
에서는 조선 최초의 성
문법인 〈경국대전〉에 노비의 출산
휴가가 80일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루었다. 〈경국대전〉을
보면 여자노비에게 80일의 출산
휴가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남
편에게도 보름 동안의 휴가를 주
었다는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오
히려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의
노비가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인
간적으로 살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만큼의 출산휴가를 사회가 허락
하는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당시 양반계급의 생산기
반은 노비가 없이는 성립되지 않
는 것이어서 양반계급의 존립은
노비에게 의존적인 측면이 강했
다. 그리고 노비의 신분은 세습되
었기 때문에 노비가 출산한다 함
은 곧 노비를 재생산해낸다는, 주
인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니
까 인간생산이 가능한 여자노비와

새로 태어난 노비를 제대로 돌보
는 일은 곧 양반계급의 이해와도
일치하는 것이었으리라.

여성의 출산과 육아는 원시공동
체시대부터 노동력의 재생산이
란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높은 가
치를 인정받았다. 노동력이 귀하
면 귀할수록 여성은 아이를 낳아
기른다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인 존
경과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
나 의술의 발달로 유아의 생존율
이 높아지는 것과 반비례해서 여
성의 출산이 지니는 사회적인 가
치는 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출
산은 곧 사회적인 일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의미가 더 큰 일이 되었
으며 육아 역시 사회의 몫이라기
보다는 개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
되었다. 특히 인간의 가치가 돈으
로 매겨지는 자본주의사회에 이르
러서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주부
는 아무런 소득을 창출해내지 못
하는 경제적인 의존자, 사회적인
열등자로 격하됐다.

사회의 노동력생산과 출산의 관

계는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출산율이 낮은 스칸디나비아국가
등 선진국들의 출산·육아 관련 복
지정책이 훌륭한 것은 모두 경제
인구, 즉 노동력의 감소가 사회적
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
면 출산율이 높은 국가로 갈수록
산모가 받는 대접은 형편없어(?)
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불행하
게도 인구밀도가 지나치게 높다보
니 출산은 그야말로 한 가정의 경
사라는 의미밖에는 지니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나마 맞벌이부
부, 혹은 영세가정에서는 출산과
육아 자체가 집안의 경사라는 의
미마저도 지니지 못한 채 하나의
큰 부담으로 오히려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한 가문
의 대를 이어갈 아들에 대한 집착
도 예전같지 않아지면서 임신, 출
산, 육아는 '자유'를 유보, 혹은
포기하는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
되어버렸다.

지난 4월 개봉된 양윤호감독의
코미디영화 〈미스터 콘돔〉에서는
맞벌이부부의 아내에게 출산은 급
기야 어떻게든 피해야 할 족쇄로
까지 인식되기에 이르렀음을 보여
준다. (이쯤에서 이 글에서 다루는
영화들이 영화적 완성도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님을 밝히두고 싶
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혹은 한국영화에서 보여지
는 한계들을 지적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는 글이므로 영화적인 분
석보다는 오히려 사회학적인 분석
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미
스터 콘돔〉은 아이를 갖자는 남편
과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아내가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를 벌이고,
그러다가 별 명확한 상황의 변화
없이 아내가 아기갓기를 원하지만
이번에는 불임이라서 한바탕 난리
를 치르는 이야기. 사실 맞벌이부
부의 육아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제
기 수준에도 못미치는 내용으로
단지 아기 갖는 행위로서의 섹스
에 대한 농담들만 늘어놓는 데 그
쳤다.

임신·출산의 문제가 그 원인으
로써의 섹스라는 행위로 축소되기
는 박철수 감독의
〈산부인과〉에서도
마찬가지다.

산부인과의 두 여의사로
출연한 황산혜(위)와 병은
진(아래).





'성인남자들을 위한 성교육', '섹시한 쇼킹 코미디' 등 시작부터 남성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진으로 시작한 <산부인과>는 완성된 후에는 산부인과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모은 가십시네마임을 내세웠다. 제작발표단계에서 제대로 된 페미니즘영화를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던 박철수감독은 페미니스트적인 시각을 실현시키는 데 실패했음을 자인하듯 '가십시네마'라는 용어로 후퇴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적절한 정의임이 판명났다.

영화 속의 산부인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코믹하게 희화화되어 한낱 웃음의 대상으로 희석되어 버렸다. 특히 유교의 가부장제가 가장 억압적으로 잔존하고 있는 한국적인 상황에서 임신·출산을 맡은 여성들이 부딪치는 어려움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섹스의 결과물로서의 임신과 출산, 혹은 낙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분만실에 누워 분만의 고통을 참지 못하는 한 산모가 옆에 서있는 남편을 움켜잡고 '내가 이제 너랑 그것을 더하나 봐라'고 울부짖는 장면은 이같은 면모를 대변해 준다.

여성의 공간을 무대로 삼고 있지만 <산부인과>에는 도처에 남성적인 시각이 숨어있다. 여기에서 남성적인 시각이란 곧 '거리두기'이다.

여자들이 더 문제라고?

영화에서 비쳐지는 여성들의 모습은 한낱 구경거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결과만을 나열해놓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인과관계 혹은 그것의 원인이 되는 가부장적 질서나 사회적인 문제에 눈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은 여성 개개인이 초래한 문제로 인식된다. 네번째 딸을 낳자 그 딸을 죽이려 하는 산모, 또 시누이가 아들을 낳고 자신은 딸을 낳자 질투하는 산모, 그리고 며느리의 배에 남자편지를 놓아주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가볍게 이야기하는 "아들은 여자들이 더 밝히더라"는 피상적인 편견을 고착화시킬 뿐이다.

사실 <산부인과>가 건드리고 있는 문제를 속에는 진지한 문제의식을 담아야 할 거리들이 많다. 가정폭력, 아들선호, 남편의 바람기, 해외입양, 처녀막재생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그냥 단순한 결과로

서, 그리고 때로는 해당 여성들을 비굴하게, 또는 명청하게 혹은 뻔뻔하게 그려내 지배이데올로기의 억압적인 구조는 웃음 속에 파묻혀버리고 만다. 그래서 초조하게 출산을 기다리는 초산모가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모성의 가치를 외치는 모습 또한 우스꽝스럽기만 비치게 된다. <산부인과>는 다큐멘터리형식, '들고 찍기'라는 촬영방식의 신선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자연분만 장면, 제왕절개 분만 장면 등의 쇼킹한 화면과 과장되고 가벼운 우스개들을 나열해 호기심에 호소하려 했다는 공격을 면키 어렵다.

여성의 '노동력 재생산'의 임무는 임신과 출산에서 끝나지 않는다. 사실 '배 속에 있을 때가 훨씬 편하다'고 말을 하듯이 육아는 즐거움을 주는 만큼 또한 많은 인내와 희생을 요구하는 일임에 틀림이 없다.

남자는 사회적인 노동, 여성은 가사노동이라는 역할분담이 확실하던 시기에는 육아는 전적으로 여성의 몫이었다. 그러나 여성의 출산이 지니는 사회적인 의미가 축소되는 것과 함께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났고 그로 인해 육아

여성의 '노동력 재생산'의 임무는 임신과 출산에서 끝나지 않는다. 사실 '배 속에 있을 때가 훨씬 편하다'고 말을 하듯이 육아는 즐거움을 주는 만큼 또한 많은 인내와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다.

역시 여성의 몫으로만 남겨둘 수 없게 되었다.

여성의 노동력을 필요로 한 중국의 경우 비록 한때이긴 했지만 '절반의 세계'에서 보여지듯 육아와 가사노동은 공동탁아소와 공동식당에 의해 전적으로 사회가 책임져 주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이나 정부당국에서 탁아소의 설립을 늘리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긴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고, 출산율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개인이 책임져야 할 무거운 부담으로 남아있다.

<베이비세일>이 눈을 돌린 것도 바로 이 출산율 전문적 맞벌이부부의 육아전쟁이다. (물론 영화들이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계층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은 상업적인 계산에서 나온 한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베이비세일>은 소재선택이라는 점에서는 일단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너무나도 순진하게 결론지어버리는 한계를 보이고 말았다.

영화는 "아이가 유치원갈 때까지는 집에 있어야"는 남편의 주장대로 일을 쉬고 있는 아내가 아이 키우기에서 오는 짜증과 답답함에

서 어떻게든 탈출하기 위해 계략을 꾸미는 이야기다. 아이에게 수면제를 먹이는 것처럼 속임수를 동원해 결국 남편이 집에서 아이를 돌보게 만들고 자신의 일을 되찾는 데 성공한다. 이들 부부에게 아이는 단순한 애물단지일 뿐이다. 그런데 육아를 담당하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은 극단적이다. 아내는 계속 히스테리를 부리는 모습으로 묘사되지만 남편은 육아에도 엄청 성실하다. 육아책을 들여다 보면서 성실하게 아이를 돌보는 그는 급기야 소아과 병원에서 다른 엄마들을 상대로 육아강의를 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하고 동네에서 애 잘보는 남자로 소문이 날 정도다.

애 키우기가 어디 장난인가

영화의 전개는 전체적으로 짜임새가 부족한 편인데 무엇보다도 아쉬운 점은 매우 극단적인 해결책을 모색했고, 그나마 하다가 말아버렸다는 사실이다. 즉 육아는 엄마 아니면 아빠가 직접 담당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 육아의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대안마련에는 전혀 의식이 미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극단적인 캐릭터로 그

려진 아동학박사의 입을 빌려 '여성의 사회참여가 가정파탄을 불러온다' 등의 발언은 비록 코믹하게 희석되긴 했지만 기존의 관념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또한 아이를 잃어버리고 나서(그 후에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세워진 것도 아닌데) 두 부부가 아이의 소중함을 깨닫고 열심히 키우기로 약속하는 결말은 순진할 뿐이다. 이는 강우석감독의 <미스터 맘마>가 결국 육아는 여성의 몫임을 드러내듯 육아문제에 대한 깊이있는 성찰을 결여하고 있다. 이런 영화들은 현실을 반영한다는 미명 아래 기존의 통념들을 단순히 재생산해낼 뿐이다.

출산과 육아에 관한 영화가 늘 코미디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아쉽다. 사실 여자들에게 출산과 육아는 코미디가 아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이고, 사투다. 날카로운 풍자의 정신이 번득이지 않는 단순한 코미디영화는 현실의 문제들에서 도피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일 뿐이다. [11]

불안한 남자들의 연극

〈남자충동〉과 〈아버지〉



김명화

연극평론가.
벤티크프라이드치킨 가게 앞에
소주병을 든 남자가 퍼질러 있어있다.
술에 취했는지 정신이 나갔는지
아무도 물어주지 않는데
혼자서 중얼거린다.
리어카에 피관을 넣어놓고 테이프를
따는 형상은 제목도 알 수 없는 노래를
같이 떠나가라 물어주고,
보도블록 위로는 요란한 장식의
오토바이가 인파를 헤치고 지나간다.
황탄모도를 건너니,
24시간 수퍼 앞에 진열된
산더미같은 쓰레기.
변잡한 그 거리 어디쯤에
연극은 숨어있다.

제사를 지내본 여자라면
생각해보았을 것이다.

장을 보고, 나물을 다듬고, 전을
부치고, 건어물을 삶고, 툴툴이 아
이를 얼리고 식구들을 위해 밥을
짓는 여자들의 삶에 대해서. 그리
고 그 동안 모여든 문중 식구들과
담소를 나누고 음식을 나눠 먹으
며 칼로 밥을 치거나 지판을 쓰는
남자들의 삶에 대해서도.

젓상 위의 갖은 음식들을 만드
느라 여자들에겐 평상시의 하루보
다 훨씬 더 길게 느껴지는 제삿날
의 하이라이트는, 그러나 우스꽝
스럽게도 언제나 남자들의 차지이
다. 젓상 앞에서 술을 따르고 절을
하는 몫은 남자의 것이기 때문이
다. 조상신이 들어오게 열여든 대
문으로 밥손님이 찾아들지 않을까
수문장을 하는 정도. 아니면 부엌
에서 제사의 절차에 따라 국을 푸
고 밥을 나르는 역할만이 여자의
몫일 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자들.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머니를 보

며 자란 여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만약’이라는 하나의 가설을 꿈꾼
다. 만약에, ‘if’ 라는 이 잡지의 제
목처럼, 만약에 여성이 남성과 동
등하게 대우를 받고, 남성들이 남
성이기에 소유했던 모든 기득권이
사라지는 사회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남성들에게 어떤 의
미를 지니는 것일까? 여성들에겐
장미빛 달콤한 그 만약의 꿈이 남
성들에게도 같은 빛깔일까?

이 글은 기존의 가치관이 조금
씩 허물어지고 있는 변화의 한 복
판에서 남성들은 과연 어떤 입장인
지를 연극을 통해 짚어보려고 한
다. 연극이란 흔히 관객과 직접적
으로 소통하는 현장예술로 정의된
다. 무대에 반영된 사회를 관객에
게 비춰주고 또 관객의 반응마저
흡수하는 존재. 즉 안락의 두검을
역동적으로 포용하면서 숨을 쉬는
가울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연극인
것이다. 따라서 연극을 조망한다는
것은 연극만이 아니라, 연극을 품
고 있는 동시대를 진단할 수 있는

〈남자충동〉의 참정론

풍가루처럼 흩어진 집안을 모으고 재건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게 된다

그러나, 제 역할을 못하는 그의 부모에서 알 수 있듯 본받아야 할 가부장제의 전통은 이미 깨졌는데
그는 어디에서 가부장제의 모델을 얻을 수 있을까?

기회를 마련해준다 하겠다.

봄에서 여름 사이에 공연된 많
은 작품들 중에서 필자는 두편의
작품, 〈남자충동〉(10.3~10.8 개
공연/문예회관 대극장/원포피먼
스)과 〈아버지〉(원작 김정현/서울
시립극단)를 선택해보았다. 두편
모두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남자의 위치를 가늠해보고 있지만
전연 다른 입장이라는 점이 필자
의 관심을 끌었다. 아마도 그런 차
이는 〈남자충동〉이 30대 작가인
조광화에 의해 만들어진 반면, 〈아
버지〉는 60대의 표재순이 연출한
사실에서 어느정도 비롯하였으리
라. 따라서 두 작품은 가족과 남자
의 위상에 대한 세대차이를 살펴
볼 수 있는 계기를 또한 마련해주
지 않을까 생각된다.

본성대로 살고 싶은 〈남자충동〉

〈남자충동〉은 우선 재미있다.
거친 폭력과 회극성, 입담 좋은 전
라도 사투리, 역동적인 극의 진행,
게다가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자
르고 상부조직을 제거하는 파격적
인 소재. 그러나 자극과 회극성으
로 충만된 이 연극이 정작 관객들
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주제는 남
자들이 짊어져야 하는 억압이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선 강한 남자
가 되어야 하고, 강한 남자가 되기
위해선 폭력에 의존하게 되는 가
부장제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면
서, 남성들이 강한 남자가 되려는
충동에서 벗어나 본성대로 살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연극
은 일방적인 기득권자로 인식되었
던 남성들 역시 피해자라는 입장
에서 남성들의 해방을 은밀하게
속삭이고 있다.

연극은 전라도 항구도시의 조직
폭력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
름에서부터 강한 남자를 연상시키
는 장정(안석환 분)은 노름꾼 아
버지, 호모인 남동생, 자폐아인 여
동생, 가족에 진저리를 치고 집을
나간 어머니를 가족으로 둔 폭력
배이다. 한 집안의 장남이라는 장
정의 가부장적 의식은 풍가루처럼
흩어진 집안을 모으고 재건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기울게 된
다. 그러나, 제 역할을 못하는 부
모에서 알 수 있듯 본받아야 할 가
부장제의 전통은 이미 깨졌는데,
그는 어디에서 가부장제의 모델을
얻을 수 있을까?

작가는 영화 〈대부〉와 야쿠자의
칼을 통해 장정에게 모델을 제시
한다. 영화 속에서 언제나 ‘패밀

연극 〈남자충동〉.



리'가 우선인 마피아 보스를 흉내 내고, 야쿠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장정은 강한 남자가 되는 걸 배우고, 가족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 장정이 마피아와 야쿠자에게 배우는 방법은 모두 폭력으로 통한다. 폭력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아버지와 상부조직을 해치며, 심지어는 동생과 부하마저도 폭력으로 억압하며 자신의 질서를 강요하는 것이다.

필자에게 이런 장정의 모습은 한국의 현대사로 읽혔다. 순리에 어긋난 채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고, 밖으로는 미국과 일본이라는 외세에 의존해서 정체성을 확립받고 안으로는 반공이라는 율법하에 국민을 폭력으로 다스려온 한국의 현대사 말이다. 결국 사회에 만연된 폭력의 정체가 강한 남자를 요구하는 가부장제의 남자중동에서 비롯하였음을 알려주면서, 연극은 관객에게 사회를 바라보는 보다 넓은 지평을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부장주의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작가의 의도는 실제 공연에선 의도만큼 성공적이지 못했다. 공연시간 동안 관객은

폭력에 의존하고 가족에 집착하는
장정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는
대신, 그에 대해 미소짓고 즐거워
했고 장정의 폭력에 카타르시스를
느꼈으며, 미치광이 폭력배인 그
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관객들의
이런 반응은 관객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강자를 선포하는 욕망에서
기인한 것일까? 아니면 제작진이
공연의 성공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선정적인 자극과 폭력에만 탐닉하
였기 때문일까? 혹은 작품을 만든
조광화 자신에게 모순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의식적으로
는 폭력에 의존한 가부장제를 비
판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그에 탐
닉하는 이 시대 남성들의 자기모
순 말이다.

슬픔 이상도 이하도 아닌 〈아버지〉

〈남자충동〉이 가족과 가부장제로부터의 남성해방을 강조하였다면, 시립극단의 창단작품인 〈아버지〉는 그 반대로 가족 안에서 아버지의 존재를 복원시키려는 작품이다. 동명의 소설이 이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화된 점을 고려해본다면 아버지의 복권운동이 사회적인 한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 정도로 가족

안에서 아버지의 위치가 실추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리라). 이런 현상은 과거 어른 중심이던 대가족이 아이 중심의 핵가족으로 바뀌면서 권위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부정적인 반향을 일으킨 데에서 상당 부분 비롯한다. 또 가족의 생계를 꾸리느라 가족과 함께 지낼 시간이 없는 아버지가 가족들에겐 '존재하면서도 부재하는' 무력한 존재로 전락한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으로 아버지의 고독함을 반추하고 그의 권위를 복원하려는 제작진의 의도는 타당성을 지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은 꽤 쓸쓸하다. 인간적인 아버지(전무송 분)의 모습과 달리 다른 가족들은 한결같이 이기적이고 냉정한 모습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차갑고 자기주장이 강한 아내, 버릇없고 연민이 나 타인에 대한 이해력은 찾아볼 수 없는 아이들. 반면 아버지의 친구들(그들 역시 아버지이리라)은 극중의 아버지처럼 선량하고, 아버지 나이 또래의 술집 주인 역시 인간적인 모습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대립구도 속에서 제작진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아버지 밖에

있으며,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결백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여러지만 강인하고, 불행하지만 굼뜨고, 가족들의 냉대 속에 죽어가면서도 가족들이 살 대책을 계획하는 초인간인 것이다.

그리고 그런 훌륭한 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삶을 위해서는 젊은 아가씨와 바람 피우는 것도 용서되어야 하며, 실제로 무대 위에서 것처럼 간판하던 아내는 극의 후반부에 가서 남편에게 젊은 여자와의 연애를 유도하기조차 할 정도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고 있다.

그 공연을 보면서 많은 관객들이 울었다. 그리고 필자도 꽤 울었다. 한 헌신적인 인간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는가.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인간에게 남겨진 일은 눈물 짓는 일뿐인 것이다. 다만 유감스러운 점은 눈물 이외에는 시립극단의 〈아버지〉가 관객들에게 남겨준 선물이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공연에서 보여진 아버지는 허상일 뿐, 실제의 아버지와 일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아버지는 극중의 아버지처럼 다감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책임감이 강한 존재

이리라. 그러나 또 한편 그도 곁합 많은 인간이기에 거짓말 하고 약속을 지키지도 않으며, 때론 분별심이 없고, 사랑이라는 명분하에 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 아마 그런 평범한 한 인간의 복잡한 길이 보여졌다면 관객들의 눈물은 줄어들더라도 공연이 끝난 뒤의 파장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리라.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기보다는
이상화시키고, 과도한 비극성으로
몰아간 〈아버지〉는 결국 멜로드라
마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
다. 머리 속에서 손익계산에 여념
이 없는 이 되바라진 세기말, 〈아
버지〉가 관객의 정서를 자극한다
는 사실은 아직도 우리들에게 연
민이 남아있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해준다. 그러나 제작진은 표피적
인 연민과 눈물을 뒤흔들어 인생
이라는 험준한 산맥을 홀로 넘어
야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고독을
성찰했어야 하지 않을까? 과도한
감상주의 속에서 아버지의 복권을
주장하는 시립극단의 〈아버지〉는
통념과 과거로의 회귀라는 복고주
의에 등지를 틀고 있다는 의외심
을 불러일으킨다. [4]

아버지

1997. 7. 5 (토) ▶ 27 (일) 월요일 휴면

평일 ▶ 오후 7시30분 / 금·토 ▶ 오후 4시·7시30분 / 일요일 ▶ 오후 4시

세종문화회관 소장품



연극 〈아버지〉의 포스터(위)와 출연진(아래)

삼십대 여가수들의 '가려진 행운'



김지영

한국일보 문화부 기자.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남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앞으로 하려는
노래를 통한 세상살기에서도
여성인 나 자신과 다른 여성들의
살을 담아내고 싶다.

“김지영씨, 이번엔 누구
인터뷰할 거야?”

“○○○요.”

“개 아직도 노래한대?”

도대체 가수가 노래하는 데 나
이가 왜 그리 중요한 건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10대 가수
일색인 가요현상을 개탄하다가도
서른 넘은 가수들이 나오면 모두
고개를 내젓는다.

더욱 이해되지 않는 것은 나이
에 대한 관심, 물론 대개의 경우
비야냥인 그 대부분이 여가수들에
게 집중된다는 사실이다. 조용필
과 이승철, 조관우에게는 그다지
문제되지 않는 나이가 인순이와
신효범, 박미경에게는 왜 늘 꼬리
처럼 붙어 다니는지.

옆에서 보는 사람이 이런 정도
라면 당사자인 가수들은 말할 것
도 없다. 대놓고 드러내지는 않지
만 나이를 먹는다는 사실로부터
자유로운 여가수는 한명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그럴 법도 하다, 자신은 예

전과 다름없이 노래를 하는데 아
니, 적어도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이제야 비로소 노래가 무엇인지
알 것 같다고 자부하며 음반을 내
놓는데 판매량은 현저하게 떨어진
다. 댄스의 여왕으로 떠받들리던
박미경이 대표적인 예. 방송에서
도 불러주는 이가 없고 내심 자신
있어 하던 라이브 무대에서도 관
객들의 박수갈채가 예전만 못함을
깨달게 된다. 무대만 열리면 관객
들로 장사진을 이룬다던 장혜진도
얼마전 처음으로 썰렁한 객석을
접해야 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만다면 아마
우리나라 30대 이상 여가수들은
모두 노래를 그만두어야 할지 모
른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이
하나의 현상에는 동전의 앞뒤처럼
또 다른 면이 있다. 그것은 가려진
행운일 수도 있고 조만간 닥칠 재
앙일 수도 있다.

30대를 넘긴 여가수들(편의상
30대 여가수라고 하자. 40대나
50대는 아직 하나의 세력을 이루

자신은 예전과 다름없이 노래를 하는데 아니, 적어도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이제야 비로소 노래가 무엇인지 알 것 같다고 자부하며 음반을 내놓는데 판매량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댄스의 여왕으로 떠받들리던 박미경이 대표적인 예

고 있지 못하니까)에 대한 가요계
안팎의 홀대는 어떨까. 한번 뒤집
어 볼까?

만일 당신이 20대 초반부터 노
래를 했다고 생각해보자. 처음에
는 그저 노래가 좋아서 시작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들이
주는 노래로 무대에 섰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점점 익숙하고 신
나게 될 무렵이면 이제는 남들이
보내는 박수와 환호가 당연하게
느껴진다. 어떤 노래를 불러도 대
중을 사로잡을 자신마저 생긴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미친
듯이 시간에 쫓겨다니며 날마다
똑같은 노래를 수도 없이 불러야
하는 생활이 점점 무의미해진다.
그렇다고 그만둘 수도 없고, 곧 새
노래를 내야하는데... 문득 정신
을 차려 음악에 대해 생각해본다.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은 어떤 것이
었나? 과연 이런 게 진짜 가수일
까? 노래 외에는 신경쓰지 못했던
자신에 대해서도 되 돌아본다. 어

느새 서론이 넘었다. 이제는 세상
이 조금씩 달라보인다. 남들 말대
로, 조금 너그러워지는 것도 같고
사랑만이 전부가 아닌 것도 같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길은 두가지다. 노래를
그만두든지, 정말 하고 싶은 음악
을 하든지.

아마 노래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단지 서론이 넘었다는 이
유만으로, 적어도 노래가 살인 채
로 10년 가까이 살아온 당신이라
면 말이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거야.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모두가 좋아하지 않으면 어때. 내
음악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지. 그들
을 위해 노래하고 그런 이들을 찾
아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노래
를 부르기만 할 게 아니라 노랫말
도 쓰고 곡도 쓰는 거야. 내 음반
은 내가 프로듀스도 해야지.”

이런 게 바로 30대 여가수들에

대한 홀대가 가져온 '가려진 행
운'이 아닐까. 노래하는 사람은 비
로소 상업성의 굴레로부터 자유로
워지고 듣는 우리를 역시 이제서
야 다양하고 깊이있는 음악을 들
을 수 있게 되니 말이다.

지난 수년간 이런 과정은 끊임
없이 되풀이 되어왔다. 거기에는
여가수들이 흘린 좌절의 눈물도
있고 그들을 좋아하는 팬들의 오
랜 기다림도 있다. 그러나 절대 헛
된 눈물과 기다림은 아니었다. 이
제 그들은 명백한 하나의 세력을 이
루고 있기 때문이다. 권진원, 박
미경, 박영미, 신효범, 원미연, 이
은미, 인순이, 장필순, 장혜진 그
리고 내년이면 서론이 될 이소라
까지 모두가 자신만의 색깔을 잃
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감
정을 노래하는 이들이다. 그렇다
고 자기 감정에만 도취하는 일은
결코 없다. 그들 자신조차 20대때
는 불가능했던 일이라고 하는 적
지 않은 변화다.

왼쪽부터 장필순, 박영미, 이은미



이런 게 바로 30대 여가수들에 대한 출대가 가져온 거대한 열풍이 아닐까
노래하는 사람들 비로소 상업성의 끝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들은 우리를 역시 미대사 다량하고 같이있는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말이다

한때 라디오와 TV채널을 돌릴 때마다 흘러나왔던 신효범의 목소리, 시원하게 내지르는 그를 보고 사람들은 '한국의 휘트니 휴스턴'이라고 했고 <난 널 사랑해> 같은 노래는 발표와 함께 히트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금 그를 보려면 그리 쉽지가 않다. 그리고 지난 겨울 <널 닮은 세상에서>가 들어있는 그의 새 음반은 확실히 예전과 달랐다. "예전에 어렵고 현란한 노래를 했다면 이번에는 쉬우면서도 감정이 풍부한 노래를 불렀다"는 그 자신의 설명대로다. 그의 새 노래는 이전만큼 빅히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두 고두고 들려오는 스테디셀러이다.

인순이의 경우는 그보다 더 극적이다. 흑인과 여성과 주부라는 한국적 의미의 삼중고를 극복한 그의 비결은 오직 음악에 대한 열정뿐이다. <밤이면 밤마다> 외에 별다른 히트곡조차 없던 그는 한번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음악은 '슬픔이 묻어나는 음악'이다. 그가 20대였을 때는 아무도 미처 느끼지 못했던 그 슬픔은 몇구비 고개를 넘어 힘이 실렸다. 이제 그가 느린 발라드를 부르면 <또>처럼 경쾌한 댄스곡을 부르면, 심지어 외국곡을 부를 때조차 자연스레 묻어나온다. 그것이 그의 뒤늦은 인기비결이다.

지난 여름 오랜만에 새 음반을 발표한 장필순과 박영미, 이은미 트로이카도 마찬가지. 모두 이제 오랜 방황 끝에 자신의 길로 접어들었다.

장필순은 새 노래 <나의 외로움 이 너를 부를 때>에서 맨 처음 그가 불렀던 통기타 포크로 돌아갔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처음엔 섬세함에 가슴이 아려온다. 조금 지나면 따뜻한 손길에 웅지 기대고 싶어진다. 다른 가수들의 코러스로 묻혀 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말끔히 씻어버리는 목소리다. 장필순은 이 곡에 대해 "정신 없이 지나가는 빠른 세상살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다. 이 노래는 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부르는 곡이다"라고 말한다.

박영미의 신곡 <파혼>은 정반대다. 특유의 리듬 앤 블루스에 도발적인 펑키 사운드를 가미해 이전과는 다른 통쾌한 느낌마저 준다. 이은미는 자신의 말 그대로 '서른을 넘긴 나이에 걸맞는 노래'를 부른다. <이해할게>나 <참을 만큼 참았어> 같은 노래들에는 이전까지 그가 보여주던 내지르기식의 현란함 보다는 차분하면서도 가슴에서 우리나라 가슴으로 꽃히는 그 무엇이 있다. 그런가 하면 그의 라이브에는 "나를 좀 봐달란 말이야"하는 절규 대신 무대와 객석이 같

이 보고 듣고 느끼는 충만한 분위기 가득하다. 세 사람 모두 음악적으로는 전에 없이 윤기가 흐른다. 다수는 아니지만 오래도록 그들을 기다려온 이들에게는 믿음직스럽기조차 하다.

이 정도면 여가수의 서른은 한 감이라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화고부동에 보였던 오랜 통념은 너끈히 부술 수 있는 것 아닌가. 아니 벌써 부숴졌다. 이대로라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 그들이 마흔을 넘긴다면 40대 여가수로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노래할 수 있는 세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때는 여가수와 나이 간의 불유쾌한 연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깊이로 대접받는 외국의 사례를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기를 바란다. 지나친 낙관일까. 그 여부는 전적으로 지금의 30대 여가수들의 손에 달려있는 셈이다.

30대 여가수들, 그들은 만인의 스타는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인이 겪는 세상살이의 회노래락을 소리에 실어 전해준다. 슬플 때는 울 핑계를 제공해주고 기쁠 때는 신나게 몸을 흔들 수 있는 거리가 된다. 늘 변치 않는 모습으로, 그들이야말로 우리가 언제나 듣고 싶어하고,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진정한 스타들인 것이다. 11

여성성에 대한 두가지 다른 생각 <mass+sculp·us>전과 <미술, 바람, 부드러움>전



1966년 서울에서 출생하고 성장했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다녔지만, 실기에는 별 관심 없이 예술철학과 사회과학 서적 등을 탐독하면서, 아학에서 힌문과 국어를 가르치고, 문학운동에 참여하여 달관·곳판·문학공인장 등을 찾아다녔다. 대학원 졸업에 이어 결혼하고, 독일로 유학가서 박사과정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동양미술사와 서양미술사를 부전 공했다. 유학기간 독일 내의 대안운동가, 페미니스트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현실적 시각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일산에서 대중소비의 문화적 순응을 떨치고, 비위계적이고 일확백적 제각각 다르면서도 대화가 지속될 수 있는 생동하는 문화일구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양성의 대립, 속박과 제한

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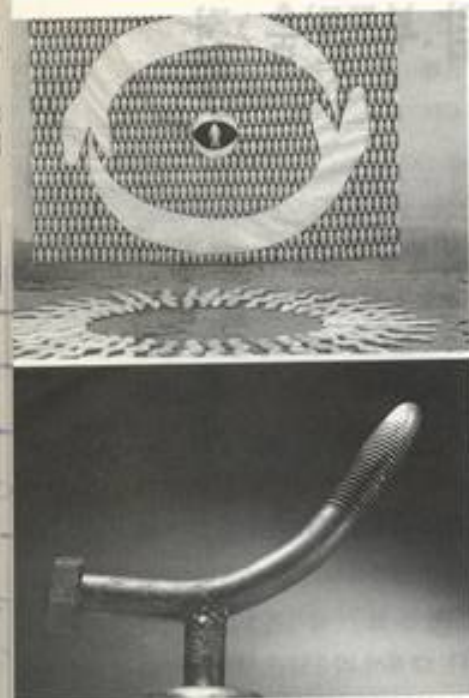
내일있는 작업들을 선보여온 두 여성조각가그를 <매스mass>와 <스컬퍼스sculp·us> (7.23~7.29/종로갤러리)의 공동전시회 <mass+sculp·us>가 열려서 관심을 모았다.

1980년대부터 작품을 발표해온 이 작가들은 그간 전통적인 소재로 만든 추상조각들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아주 다양한 표현방식의 작품들을 선보여서 어떤 특정한 양식적 경향을 읽어내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런 다양한 표현방식과 달리 이 작가들이 만든 이미지와 선택한 주제는 대부분 속박과 제한으로 가득 찬, 여성에 관한 것이다. 우리사회 가부장적 질서 안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힘의 불균형, 문화 속의 양성의 대립구조들, 이미 지 속에 각인되어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제약 등이 그들의 화두이다.

두 평면적 회화와는 달리 조각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적경험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래서인지 작가들의 사회적 욕구가 보다 직접적이고 그리고 상호교감적이다. 그들의 조각작품은 은근한 고전적 형태를 갖추고 있는 아 니면 현대적 기법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매우 즉각적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작품들은 일견 단조로 울지 몰라도 찬찬히 살펴보면 음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효과들을 풍부하게 배치했다.

이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남성의 성기를 소재로 한 양화선의 '모든 시대의 성-36가지 방법론'과 이소훈의 '같은 성의 모습'이다. 여기에서 남근은 가부장적 상징질서 속에서의 근원적 기표로 이해된다. 강함과 지배, 충만함과 권력의 상징으로서의 남성성기는 실제로 그곳에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는 여성, 여성의 무의식적 호나상이나 그들의 은폐된 욕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리하여



안경숙, 유린된 순수한 관계.
(mass+sculpt-us)전(위).
양화선, 모든 시대의 상-36가지 방법론
(mass+sculpt-us)전(아래).



구경숙, '바람은 부드러운 유혹으로 다가와 가벼운 설레임을 남긴다'.
(미술·부드러움·바람)전.

육중한 대형 볼트너트와 철판하고 화려한 인조천에 포장된 남근은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차에 대한 허위와 기만을 가시화한다.

또 박현주나 안현숙 같은 이들의 작품은 일상화된 여성성의 상실과 부재, 나르시즘적 환상과 상처를 투사해준다. 이들은 성적 정체성이란 것이 '문화적'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 문화적으로 결정된 성차의 영향력이 여성에게 재현되는 무의식적인 구조와 그것에 대한 인식을 다루고 있다.

그외에도 이들의 노력과 시도는 다양하다. 가부장제문화에 내재하는 상징질서를 공격한다든지 경험의 폭을 넓히려는 희망은, 성별 정체성이 고정되기 이전 즉 가부장제문화 이전 상태로 거슬러올라간 다든지 하면서 어떤 이상적이면서도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한다. 또 반대로 '조화'의 허위와 이상에 대한 단호한 거부와 바탕을 두고 있기도 하다. 홍현숙의 작품을 보면 침대를 뚫고 나온 칼날들은 매우 도발적인 듯한데 이것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미화되고 신비화되는 이성애 문화 속에 뿌리내린 남성시각에 대한 거부이

다. 한정과 수정이 끝없이 개입하는 해결할 수 없는 불확실의 감각에서 비롯되기도 한다(김효숙, 윤경희, 추은영).

이들의 시각적 차이는 여성과 예술을 결합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어떤 작가는 불길하고 음산하게, 어떤 이들은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또한 페로다를 선호하기도 하고, 암시적이기도 하며, 곡해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전통적인 재현을 따르기도 한다. 이런 차이는 두 여성조각가들 사이의 연령별에 따른 상이한 여성관에서 기인한 것 같다.

그러나 모든 작가들이 선택한 형식과 이미지들은 난해하지 않다. 여성과 성차의 구조를 쉬우면서도 대화하듯이 풀어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너무 진지하다든지 엄숙해서 느낄 수 있는 따분함 혹은 거만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 것들을 대신하는 이들 작품의 불안과 재미, 긴장 등은 예술작품의 수용이라는 맥락 속에서 가능해볼 수 있는 여성미술의 특성이 아닐는지.

유연함에 머무른 섬유의 잠재력

흔히 여성성의 상징으로 인식되

섬유의 성질을 '부드러움'과 '유연함'이라는 특성에만 고정시켜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여성성과 연결시키는 것은 유감천만이다

부드러움과 유연함=여성다움=여성에게 맞는 태도와 역할이라는 규정은

이미 유효해 삼십년 '여성적 스테레오타입'이다.

어은 부드럽고 촉각적인 것들의 새로운 인식을 환기시켜주기 위해 마련된 <미술·부드러움·바람> 기획전(6.25~7.31)이 신문에 위치한 성곡미술관에서 열렸다. 이 전시는 섬유매체를 통해 활력과 흥으로서의 신바람, 에로틱과 스캔들로서의 춤바람, 과도한 열기로서의 치맛바람, 희망과 영원으로서의 바람 등을 표현해서 보는 이에게 신선함을 느끼게 했다. 그러나 섬유의 성질을 '부드러움'과 '유연함'이라는 특성에만 고정시켜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여성성과 연결시키는 것은 유감천만이다.

'부드럽고 연약한 여성'은 진부하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상습적인 표현이다. 부드러움과 유연함=여성다움=여성에게 맞는 태도와 역할이라는 규정은 이미 효력이 상실된 '여성적' 스테레오타입이며, 가부장적 문화산물임은 여성주의자들이 아니더라도 웬만큼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낡은 여성성의 개념이 여전히 유효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면, 여성미술가들의 섬유미술작업을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해 주므로써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상충되지 않게 하려는 어떤 의도가 숨어있는 것 같다. 이 전시의 기획과정에서 남성미술가들의 영역과 여성미술가들의 영역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전제가 있었던 것이 아닐는지? 또한 이 전체에서 출발한 '부드러운 재료의 부드러운 미술'이 기획의도처럼 표현의 확대를 꾀한다기보다는 제한적 영역의 확실한 자리매김으로 미술을 사회화 안으로 밀어 넣으려는 것은 아니었는지?

또한 섬유로 만든 미술에서 섬유제작과 관련된 의미별 주제가 빠져있었다는 점도 매우 흥미롭다. 섬유재료를 변형시키면 옷과 커튼, 캔버스, 무대막 등 수천가지의 생활용품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문화적 가공물로서의 섬유와 섬유가 되기까지의 과정 사이에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이며, 경제적인 많은 단계들이 삼입된다. 이들 과정에 대한 새로운 눈길이, 통상적인 섬유의 '부드러움'의 의미를 보다 심층적이고 다의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부드러움-바람'의 연상적 이미지도 문화적 태도와 사회적으로 길러진 통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적절한 은유와(김영란)

문화적 유비의 변화(오명희)가 작품과 겹들기도 한다. 아울러 막연한 길이가 전적으로 양적 확산에 기대고 있는 경우도 있다(문종숙). 친밀감(송원선)과 밀도 높은 공간(구경숙)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작품에서는 여성들의 경험이 예리하고 지속적인 자기분석을 통해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었다. [1]

송원선, Space has always reduced me to silence, (미술·부드러움·바람)전.



히스테리아가 뽐낸 가을의 책



『이갈리아의 딸들』을 번역 출판, 현재는 한글의 번역과 기획서를 준비 중이고, 성교육 슬라이드와 비디오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려 하고, 페미니즘과 관련된 일체의 행사를 하고 싶어하는 미친 여자들

히스테리아

어느 예술가의 초상

한 예술가가 이루어놓은 예술세계를 통째로 이해하기란 그림이나 음악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단면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을 때 한 점의 그림은 드디어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다. 더구나 예술가로서의 여성의 삶은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그 고통과 좌절의 깊이만큼 한 시대의 여성문제를 축약하고 있기 십상이다. 예술적 영감이 광기라면, 여자의 광기는 어디서 오는가? 여성 예술가로서의 삶을 저장한 전기문은 단순한 위인전기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나는 내 그림 속에 있었다』(로다 자미 지음/강만원 옮김/청해 8,500원)

프리다 칼로는 그동안 멕시코 민족문화운동시대의 이름난 거장인 벽화가 디에고 리베라의 명성에 묻혀서 그의 연인 정도만 알려졌지만, 특이하고 강렬한 매력을 주는 자화상으로 현대 여성주의 미술사에서는 빠드릴 수 없는 화가이다.

장애인으로서의 어둡고 침침한 운명 속에서 강렬하게 뚫고 나왔던 그림에 대한 강한 욕망은 사랑을 통해 느낀 고통과 허무, 자유에 대한 갈망을 투쟁하듯 그림으로 그리게 만들었다. 사랑, 고통, 허무, 자유, 싸움, 당신을 끌어당기는 한 단어에 손 내밀어 칼로리 삶을 따라가보는 것이 이 책을 읽는 방법이 아닐까. 책에 실린 28점의 그림을 '소장'하는 즐거움도 함께 누릴 수 있다.

『백만송이 장미: 나혜석 에세이』(나혜석 지음/오상출판사 7,000원)

불꽃 여자 나혜석. 한국 여성으로서 최초(1927년)로 세계일주여행과 더불어 파리유학을 갔고, 역시 여성으로는 최초로 미술전시회를 세차레나 가질 정도로 화려했던 여자. '여류미술가'로 주류화단과 비평가들로부터 폄하되었다는 것은 아는 여자들은 다 아는 뻔한 사실이다. 이 책은 「이혼 고백서」 등의 그녀의 에세이들과 세계일주여행기 「구미만유」를 엮은 것이다. 20세기초 대한민국의 고어체 때문에 읽기에 그리

편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로 보아 아마도 그녀는 화끈한 여자였던 듯. 여행기의 가치로 따진다면 그 정보 제공력과 학식면에서 훨씬 뒤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20세기초 대단한 모험가 나혜석의 눈에 들어온 서구 문물은 어떤 모양이었을까를 보는 재미가 남다르다. 무엇보다 자신의 이혼과 불륜과 모성을 웅변한 그녀의 에세이들은 20세기초와 20세기 말을 여전히 관통하는 여성의 삶의 조건과 불합리를 탁월하게 지적하고 있다. 문물은 엄청나게 변하는데, 여자들의 삶은 왜이리 똑같은가.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화가로서의 그녀를 관찰할 수 없는 것.

누가 이 악녀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

우린 과연 누구를 악녀라고 하는가? 남자의 사랑을 매몰차게 저버리는 여자? 모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을 수 없는 여자? 일부일처제의 틀을 깨버린 여자? 도대체 누구의 입장에서 악녀라 불리게 되는지 다시 한번 뒤집어 보자. 여기 우리를 매혹시킬 두명의 악녀가 있다. 결국엔 우리의 사랑을 얻어내는 데 성공할 그들을 만나보자.

『도둑신부1,2』(마가렛 애트우드 지음/



김진준 옮김/문학사상사 각 7,000원)

『랜드 메이즈』(원제: 시녀 이야기)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마가렛 애트우드는 『도둑신부』를 통해 또 한번의 충격을 안겨다준다. 마가렛은 주인공 지니아를 통해, 여성이 남성과 평등해지기 위해서는 남성 못지 않게 여성도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또한 윤리적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도발적인 암시를 전달한다. 지니아는 왜 악녀인가? 지니아는 그녀의 친구들(토니, 캐리스, 로즈)의 사랑하는 애인을 차례로 빼앗았다. 자신의 소유욕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지니아에게 큰 상처를 입은 이 세명의 친구들은 과연 피해자인가? 그렇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매력이다. 지나친 사랑 때문에 결국 남자들에게 당하기만 하는 이들에 비해 지니아는 마음대로 남자들을 통제한다. 지니아로 인해 이 친구들은 남자가 중심에 놓인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마침내 같은 상처를 가진 이들과의 자매애를 형성하게 된다. 그렇다면 아직도 지니아를 악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메데아』(크리스타 볼프 지음/김인순 옮김/청양 6,500원)

그리스 신화에서 최고의 악녀를

히스테리아가 봄의 가을의 채

꿈이라면 단연코 메데아일 것이다. 메데아는 사랑하는 아손을 위해 자신의 친동생을 죽이고 아버지와 조국을 저버린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택한 아손이 메데아를 버리고 권력과 야망을 성취하려고 코린트의 공주와 약혼을 하자 치절한 복수를 단행한다. 코린트의 공주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아손이 보는 눈 앞에서 아손과 자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을 죽인다. 이보다 더한 복수가 어디 있을까? 하지만 크리스타 불프는 오랜 세월, 사람에 눈이면, 질투와 복수의 상징이 되어온 메데아를 다른 모습으로 부활시켰다. 메데아는 지혜와 사랑을 갖춘 현명한 여인이지만 인간들의 탐욕의 가장 비참한 희생양이 되고 만다. 자기 자식을 죽였다는 누명까지 뒤집어 쓰는... 이 소설은 6명의 화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메데아를 진술케 하는 형식을 통해 인간들의 심리적인 갈등과 번뇌를 섬세하게 묘사한다. 이 글을 읽으면서 악녀의 이름으로 여성을 희생양으로 삼는 그 짓거리가 바로 우리의 현실에서도 벌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신화는 현재를 빛추는 역사적인 거울이다.



페미니즘 이론서

『페미니스트』(리처드 에번스 지음/정현백 외 옮김/창작과 비평사 10,000원)

여성주의 조직운동에 관심있는 사람, 현재 한국사회의 여성주의 운동 노선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책. 『페미니스트』는 여성대중 일반의 역사가 아닌 여성주의 조직들과 그 발전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여성주의 운동의 전개를 자유주의 시대 유럽 각국과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사회구성체 및 정치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추적하여 일반적인 해석들을 제시하고자 했다. 여성주의 사상과 운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아주 가까운 곳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17, 18세기에 출현하였고 19세기 중반부터 조직화된 형태로 등장하여 투표권의 쟁취와 같은 빛나는 성과들을 획득한 바 있다. 여성들의 삶의 조건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왔는지 살펴보는 것이 재미있지 않을까. 어떻게 여자들이 조직운동을 전개했었는지, 그 투쟁사를 거울삼지 않겠는가. 각자의 여성주의를 역사화시켜보자.

『페미니즘, 무엇이 문제인가』(캐롤린 라마자노글루 지음/김정선 옮김/문예출판사 10,000원)

페미니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페미니즘과 여성의 현실 내에도 무수한 이견과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명쾌하지 않음에 실망하고 페미니즘을 버리기로 결정하지는 않았는지, 사실 페미니즘이 모든 여성을 위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성들 간에도 이해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페미니즘의 정치적 실천의 토대를 약화시키는 것인지 주의깊게 성찰해 볼 때, 저자 라마자노글루는 계급, 노동, 권력, 국가, 민족, 인종, 문화, 이데올로기, 성 등에 의해 야기되는 여성들 간의 차이, 종국에는 분열에까지 이르게 되는 수많은 상황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간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될 만하다. 여성의 결속을 말하기 전에 여성과 여성을 서로 분리시키는 장벽을 규명하고 여성과 여성의 관계를 변화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모든 여성들에게 덜 억압적인 미래를 상상해보고, 여성들의 관계를 만들어봄으로써, 우리는 차이로 인해 만들어진 눈에 띄지 않을 수 있고, 함께 사는 삶의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



『가족철학: 남성철학과 여성경험의 만남』(강선미의 지음/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3,000원)

여성은 딸로서 부모자식간의 정을 경험하고, 아내로서 부부간의 정을 경험하며, 어머니로서 자식사랑을 경험하고, 딸과 며느리로서 효도를 보이며,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로서 효도를 경험한다. 여성이 놓인 자리에서 경험하는 가족의 풍경은 남성이 놓인 자리에서 경험하는 가족의 풍경과 다르다. 가족은 여성과 더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여성은 가족 안에서만 보다 온전하게 존재의 미가 있다는 통설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해 말하기'는 고대로부터 남자들의 전유물이었던 것 같다. 가족 안에서의 여성들의 경험은 북과 내지는 이상화한 채 남성들의 경험에 근거해서 가족에 관한 철학적 사고를 발전시켰던 것이다. 철학과 여성학을 전공하는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저술한 이 책은 여성의 가족 경험에 근거하여 남성철학자들의 가족과 여성에 대한 논거와 편파성을 드러내고 여성학이 모색하는 대안적 가족의 모습을 논의한 책. 논문의 글쓰기와 철학적 배경 때문에 다소 읽기는 힘들겠지만, 천천히 아는 사람 이름 나오는 부분부터 읽어나간다면 한번 시도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다. 플라톤이 가족을 세지

무엇인지 몰라 해마다 개떡이라는 것을 알고는 개가 먹는 떡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내 그것이 '무진장 맛있는 떡'이라는 것을 알고는 할머니가 계신 곳, 바로 친구의 집으로 달려간다는 얘기이다.

『산적의 딸 로나 1.2』(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지음/김라함 옮김/일과놀이각 3,500원)

아이 스스로 글을 읽을 수 있다면, 더 이상 아이에게 공주와 왕자 이야기를 읽히고 싶지 않다면, 이 책을 선물하는 것이 어떨까? (말팔량이 삐삐)로 우리에게 친숙한 린드그렌이 지은 이 동화는 화려한 수상경력(국제청소년도서상, 안테르센대상)을 굳이 들먹이지 않아도 조금만 읽어보면 단박에 재미난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심지어 어른에게도!). 주인공 로나는 산적의 딸로 마녀와 회색난장이 그리고 잠둥보정이 사는 깊은 숲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지낸다. 로나는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원수 집안의 아들인 바르크와 동갑내기 친구 사이다. 이 동화는 아름다운 북유럽의 자연을 배경으로 로나의 신나는 모험과 바르크와의 우정이야기를 펼쳐가는데 마침내 이 두 아이의 해맑은 사랑으로 두 집안이 화해하게 된다는 교훈마저 담고 있다. 게다가 곳곳에서



묻어나는 린드그렌 할머니의 자연과 인간에 대한 애정 가득한 묘사와 공동체(비록 산적들일지라도) 생활의 따뜻함이 눈길을 끈다.

그밖에

『일하는 여성의 아이 키우기』(페터 클럼프 지음/김경연 옮김/여성신문사 5,800원)

결혼해서 사는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문제는 아이가 생기고부터다. 아이가 생기고부터 부부 분담제가 형편없이 무너지는 현실, 분담한다고 해도 책임은 엄마가 지는 현실, 무엇보다 아이 때문에 자기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좌절한 혹은 좌절중인 기혼여성들은 꼭 이 책을 보기를 권한다. 못된 아버지(예는 나물라라 하는 아버지)와 새로운 아버지(여자보다 더 좋은 어머니가 되려는 '엄마 같은 아빠')가 함께 보면 금상첨화. 독일연방공화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21세기의 아이기르기 위한 적극적인 사고와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혼여성의 독자적인 노후보장제도를 마련한다든가, 가정 선거권의 도입을 통해 부모가 아이를 대신해 선거권을 수행하게 해서 부모의 정치적 영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등. 독일의

제도를 그대로 들여올 수는 없겠지만 '변화', '발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꿈꾸는 즐거움이 생긴다.

『포르노에 도전한다』(캐서린 A. 맥키넨 지음/신은철 옮김/개마고원 8,000원)

포르노, 외설, 에로물, 누드모델, 이승희, 빨간 마후라, 포르노에 관한 '사건'들이 연일 뉴스로 등장하고 있다. 이 사건을 다루는 몇가지 관용어들은 음란죄, 표현의 자유, 그것을 원하지 않는 성인의 수치심을 자극하고 사회풍속을 어지럽히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무엇이든) 표현해도 좋을 자유를 달라 이런 얘기.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의 자유'를 여성주의 법학자인 맥키넨은 성차별과 평등, 나아가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포르노를 둘러싼 미국의 법적 논쟁과 판례에 깊숙히 개입했던 여성주의자 맥키넨의 분명한 주장을 직접 들어보는 것이 재미있을 것 같다. 이것은 여성주의에서 포르노문제를 접근하는 '한가지' 견해에 불과하지만, 누군가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 그에 불편함을 느끼는 여성이라면 이 책을 자신의 무기로 삼을 것. **11**



히스테리아 한마디!

『의 독자들이라면 누구나 책읽기를 좋아할 것이고, 그 수준도 만만치 않은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몇권의 손아저 나오는 책을 가운데 '무엇을' 읽을지 결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요. 페미니스트(가 되고자 하는 여자들)들이 읽어야 할 책은 좀 다른 기준에서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성 개인의 경험과 관심, 목적에 따라 충분히 다를 수 있으므로 책 소개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생각해보면 페미니스트도 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지 같은 책을 보면서는 딱 육하고 친구에게 분노를 터뜨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의식화가 이루어지고 비전을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몇권의 책을 골라낸 것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대라고 하면 솔직히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많은 부분 '감'에 의지하니까. 그리고 우리의 '감'이 많은 여자들과 통했으면 하는 자매애를 기대하고, 우리 아니면 아무대서도 안처를 것 같은 그런 책들을 우리가 띄워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도 있었고, 『가 소개한 책에 책이 엄청나게 팔릴 때 그 돈이 여자를 주머니에 들어가서 여자들을 부자로 만들고 또 다른 여자들을 위해 쓰여질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책 사서 보는 여자는 페미니스트로 살아가는 도움을 얻어서 좋고, 책 파는 여자는 돈 걱정 안하고 계속 좋은 글 써서 좋고.



영 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잊혀지지 않는 장면 중 하나는 여주
인공 스칼렛 오히라로 출연한 비비안 리가 파티에 나가기 전 자신의
방에서 옷을 입는 대목이다. 개미허리란 말이 딱 어울리는 비비안 리는 허리
를 더욱 잘록하게 만들어주는 코르셋을 입느라 정신이 없다. 하녀에게 허리끈
을 좀더 세게 잡아당기라고 외치는 그의 얼굴은 좀더 예뻐보이기 위해선 숨이
막힐 것 같은 고통쯤은 기꺼이 참을 수 있다는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차있다.

한장의 넓은 천으로 허리와 다리 사이를 둘러 묶는 기저귀 형태로 시작한
속옷의 역사는 겉옷의 유행은 물론이고 각 시대의 여성관, 미의식에 따라 변
화해왔다. 가는 허리, 풍만한 가슴이 미인의 기준이었던 시대에는 상체를 살
인적으로 조이는 코르셋과 우스꽝스러운 정도로 거대한 페티코트가 유행했
고, 19세기말부터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험렁한 겉
옷과 속옷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 히피문화와 페미니즘이 맹위를
떨치던 때에는 브라를 거부하는 탈속속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최근들어
'라제리룩'에서 보듯 속옷은 단순히 옷 안에만 받쳐 입는 고유한 기능에서
벗어나 겉옷으로 과감히 등장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정조대에 왜 '스페어키'?

역사상 가장 악명높은 속옷은 16세기경 유럽에서 유행했던 이른바 정조대
이다. '비너스대'라고도 불렸던 이 속옷은 옷이라기보다는 기기라고 부르는
편이 적당하다. 철이나 은, 가죽 등으로 만든 정조대는 착용한 여성이 대소변
은 볼 수 있지만 성행위는 할 수 없도록 성기부분을 빈틈없이 가리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또 허리부분에 복잡한 자물쇠가 달려 있고 열쇠는 남편이나
애인만이 소지했다. 16세기 독일에서 제작된 한 목판화는 한 손에는 돈주머
니, 또 한 손에는 정조대의 열쇠를 든 나체여성이 갑옷을 입은 건장한 남성을
유혹하듯 바라보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독일 역사가 에두아르트 폭스의 저서 『중세의 역사』에 따르면 정조대는
유산지배계급, 즉 상인들이었던 대부르주아 계급과 절대군주계급에서 많이
사용됐다. 먼곳으로 장사를 나가거나 전쟁터에 나갈 일이 많았던 당시 남성
들은 아내나 애인에게 정조대를 채운 후 안심하고 길을 떠났다는 것이다. 특
히 이탈리아에서는 어머니가 딸을 결혼시킬 때 사위에게 딸의 정조대 열쇠

영덩이를 풍성하게 보이기 위해 치마 밑으로 둥근 틀을 끼입고 있는 여인 1621년경 반 다이크 작(위 왼쪽), 15세기경 제작된 철제 정조대(위 오른쪽), 16세기경 영국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 작화로 잔뜩 부풀어오른 스킷의 비밀은 페티코트의 원조격인 파팅게일이란 이름의 속옷(가운데), 16세기경 독일 목판화, 정조대를 두른 여인이 한손에는 정조대 열쇠, 또 다른 한손에는 돈주머니를 들고 남성을 유혹하고 있다. 여성을 정조와 재력의 유무로 평가하던 당시 사고를 읽을 수 있다(아래).

를 건네주는 것을 자랑스런 일로 여겼다.

그러나 정조대가 유행했다는 것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성윤리가
문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셈이기도 하다. 게다가 정조대는 부정을 더욱 만
연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남편이나 애인이 안심하고 집을 비운 사이 넘치
는 열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여성들은 숨겨 좋은 열쇠기술자들을 불러 요즘
말로 하면 '스페어 키'를 만들어 거추장스런 정조대에서 해방됐기 때문이다.

16세기경 프랑스에서는 또 하나의 이상스런 속옷이 등장했다. 가슴은 나
무, 동물 뼈, 쇠관 등을 넣은 딱딱한 코르셋으로 납작하게 만든 대신 엉덩이
부분은 더욱 풍성하게 보이도록 허리선 바로 아래에 철사나 등나무로 만든
둥근 틀의 속옷을 입었던 것. 파팅게일이라고 불리는 이 속옷은 앙리 4세의
부인인 마르케리트 발르와가 크지 않은 엉덩이를 감추기 위해 처음 입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588년에 그려진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를 보면 허
리 양쪽을 지나치게 과장한 드레스차림이어서 당시 파팅게일이 유럽 상류층
에서 얼마나 빠르게 확산됐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엉덩이를 강조하는 페티코트, 가슴을 올려주는 버슬

엉덩이를 강조하고 싶은 여성의 욕망은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치마선을 한
껏 부풀려주는 페티코트의 등장을 가져왔다. 여러개의 루프가 연결된 형태인
페티코트는 흔히 섬세한 레이스로 장식돼 있어, 여성들은 치마 밑으로 이 속
옷을 살짝살짝 내비치곤 했다.

프랑스 대혁명 전인 18세기 중반경 크게 유행했던 페티코트의 한 종류인
파니에는 16세기 파팅게일을 변형한 것. 파니에는 한쌍의 버팀대를 댄 행낭
모양으로 이루어졌는데, 엉덩이를 풍성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

1780년대에 들어서 축 늘어진 스타일의 스커트가 유행하면서 파니에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 마침내는 사라졌다. 여성들의 의상에서 초점
이 엉덩이로부터 가슴과 버슬(허리받이)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가슴
바로 밑부분부터 허리부분까지 꼭 조여주는 코르셋이 여성들의 필수품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프랑스혁명 이후 나폴레옹에 의한 제정시대가 도래하면서 프랑스 상류층
여성들 사이에서는 열파이어 드레스가 사랑받기 시작했다. 이 드레스는 그리

엉덩이를 휘어지고 보이게 만드는 버슬(위), 18세기경 프랑스에서 대유행한 파니에 차림의 여인(가운데 왼쪽), 1830년대의 코르셋(가운데 오른쪽), 12살짜리 소녀가 가슴을 받쳐 올려주는 코르셋을 입은 모습(오른쪽), 왼쪽의 정상적인 자세에 비해 오른쪽은 등이 S자로 휘어져 있다. 1908년경 사진(아래).



스. 로마시대의 의상처럼 스커트가 자연스럽게 아래로 퍼지고 허리선이 가슴 바로 밑까지 올라오는 스타일이어서 코르셋을 입을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엠파이어 드레스와 함께 사라진 듯 했던 코르셋은 19세기 중반 잔뜩 부풀어 오른 스커트가 다시 등장하면서 화려하게 집착했다.

호흡곤란으로 여자들이 기절시킨 '깁슨 걸' 선풍

19세기말과 20세기초반 무렵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른바 '깁슨 걸'이 이상적인 미인형으로 등장했다. 유명한 잡지 일러스트레이션의 여주인공으로 처음 선보였던 깁슨 걸의 옷차림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허리가 가는 스커트에 턱 밑까지 올라오는 하이넥 컬러, 우아하게 틀어올린 머리와 모자 등이 필수적이었다. 수많은 여성들이 너도나도 깁슨 걸이 되기 위해 코르셋으로 상체를 줄라매는 통에 호흡곤란으로 기절하거나 등이 휘어지는 중세를 나타내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다.

여성을 코르셋으로부터 해방시킨 디자이너는 에스닉 모드(민속풍 의상)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프랑스인 폴 포아레이다. 흔히 샤넬을 코르셋을 벗긴 디자이너로 떠올리지만 사실은 포아레가 첫번째였다. 1904년 파리 중심가에 자그마한 가게를 열고 영업을 시작한 그는 점차 부유층 여성과 최고 인기여배우였던 사라 베르나르등 유명인들의 드레스를 디자인하면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

2년 후 그는 당시로서는 과격적으로 장식을 없앤 단순한 스타일의 작품을 발표해 화제를 일으키게 된다. 엠파이어 드레스를 변형한 이 드레스는 옷가장자리의 말려올라간 부분 안쪽에 작은 남들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스커트의 주름이 깨끗하게 늘어뜨려졌다. 옷이 딱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코르셋도 이 것처럼 살인적으로 몸을 조일 필요가 없어졌다.

속옷과 겹옷의 경계선이 무너진다

포아레에 의해 시작된 탈 코르셋 바람은 가브리엘 샤넬에 의해 완성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차대전 전후 샤넬이 처음 선보인 단순한 스트레이트 라인의 울저지 투피스에 아직까지 전세계 여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1·2차 대전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속옷도

19세기말, 20세기 초 미인의 전형적인 옷차림. 여성들은 비정상적으로 가는 허리를 만들기 위해 코르셋으로 몸을 조이는 고통을 가까이 감내했다(위).
여성을 코르셋으로부터 해방시킨 폴 포아레의 할랄한 드레스(가운데).
남성을 속옷이었던 면셔츠는 말론 브랜도가 영화 속에서 맨살 위에 입고 나온 이후 남녀 공용의 겹옷으로 승격(?)했다(아래).

아름다움을 위해 몸을 조이던 이전의 스타일에서 벗어나 기능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페미니즘과 여권운동이 불붙으면서 여성들은 속옷 자체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맨살에 얇은 셔츠나 블라우스를 입고 기리를 확보하는가 하면 각종 시위장에서 해방에 대한 상징적 행동으로 브라를 벗어 내동댕이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최근 들어 속옷과 겹옷의 경계선은 무너져내리고 있다.

여름철이면 남녀 모두 즐겨입는 면 티셔츠는 원래 남성을 속옷이었다. 미국 영화배우 말론 브랜도가 영화 <육방이란 이름의 전차>에서 속옷만 입은 건장한 상체를 드러낸 이후 이 속옷은 점차 겹옷으로 입히기 시작했다.

요즘 유행하는 란제리 룩도 속치마나 잠옷 등 속옷을 겹옷으로 변형한 것. 프랑스 패션계의 악동으로 정평이 난 장 폴 고티에는 미국 가수 마돈나를 위해 원뿔형 은색 브라지어가 달린 옷을 디자인했고, 미국 디자이너 캘빈 클라인은 바지의 허리부분 위로 팬티가 빠져나와 보이는 옷입기를 제안해 전세계 수많은 청소년들로부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여성이어, 정신적 코르셋을 벗자!

현대여성은 몸을 구속하던 속옷으로부터 과연 진정한 해방을 얻었는가. 한쪽에서는 여성들이 속옷을 과감히 벗어던지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날씬한 몸매를 위해 자발적으로 코르셋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양분화된 세대가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굳이 코르셋이 필요 없을 만큼 말라떨아가 되는 다이어트를 하기도 한다.

기존의 형식미를 깨는 듯한 속옷 드러내 입기도 실상 또다른 억압을 행사한다. 이제 여성들의 옷은 속속들이 타인의 시선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한치의 방심도 있을 수 없다.

한 시대의 미적 기준 또는 유행이라는 정신적 코르셋을 벗어던지기 위해 여성 자신의 나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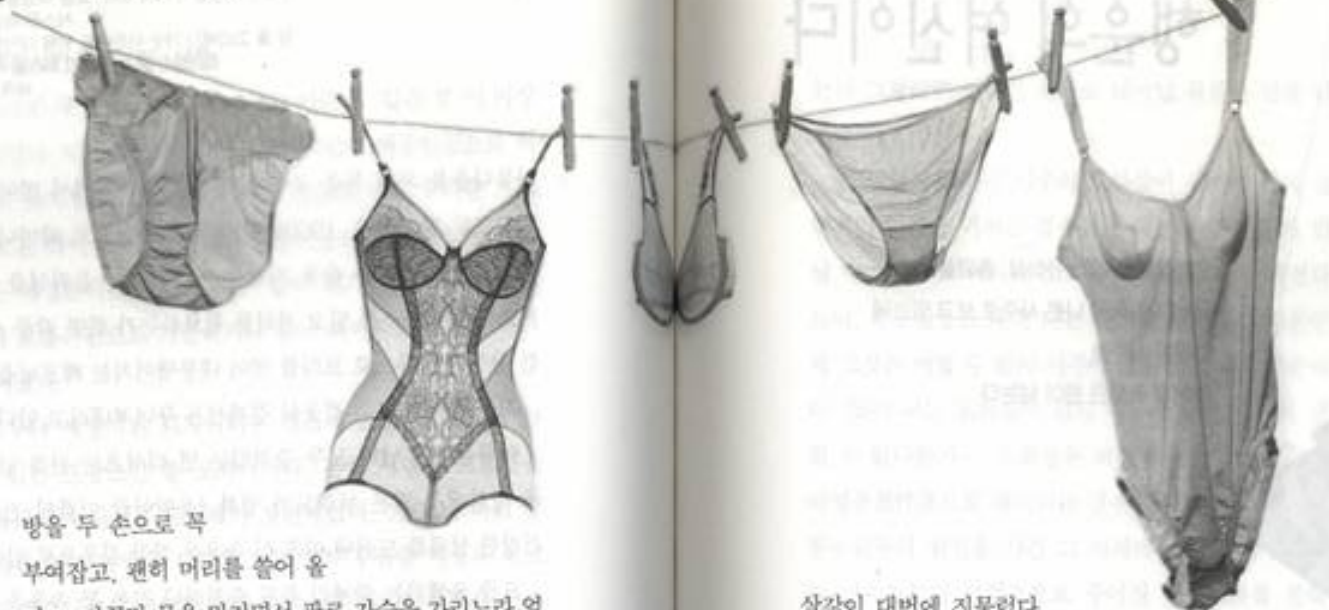
누가 속옷 노출을 두려워 할까. 요즘 여성들만 속옷이 활짝 들여다보이는 시스루 의상도 마다하지 않는다(왼쪽).
장 폴 고티에가 가수 마돈나를 위해 디자인한 브라지어 의상(오른쪽).
풀어헤친 셔츠와 바지 허리줄 사이로 비친 속옷의 브랜드가 비죽 나와보여야 신세다(아래).



오 대 리

문화일보 기자

나의 가슴은 어떻게 단련되었나



나의 젖가슴과 브라는 악연이다.

초등학교 시절 나는 남보다 일찍 가슴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너무나 부끄러워 엄마에게 가슴을 눌러줄 수 있는 '가슴 압박대'가 있었으면 하고 바란 적이 있다. 엄마도 나의 수치심(?)을 이해하셨는지 한복 속 치마의 어깨 가슴부분을 뜯어내어 밑을 박음질해서 내가 원하는 기상천외한 속옷을 만들어주셨다.

중학교 때부터는 물론 멋있게 브라는 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또다른 고통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유난히도 유두가 크고 선명했는데 그 이유는 이러했다.

나의 엄마는 첫아이를 낳아 젖을 먹일 때 함몰 유두여서 젖물살까지 양으며 무척 고생을 하셨단다. 지금은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당신의 간난쟁이 딸의 젖꼭지를 짜주지 않았던 것이다. 엄마는 나 역시 그런 고통을 겪을까봐 나를 낳자마자 너무나 열심히 젖꼭지를 짜주셨단다. 그래서 그만 젖꼭지가 너무 커진 것이다. 옛말에 과유불급(過猶不及: 지나친 것이 오히려 부족함만 못하다)이라는 말이 있단지 않은가(?)

그 유두를 가리느라고 늘 긴장하고 살았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등에서 전땀이 흐른다. 젊은 시절엔 남자의 그것처럼 유두도 잘 발기한다. 그러면 유두가 브라는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두드러져 보인다. 공연히 어깨에 걸친 가

방을 두 손으로 꼭

부여잡고, 괜히 머리를 쓸어 올

리고, 자꾸만 목을 만지면서 팔로 가슴을 가리느라 얼마나 신경을 써야하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알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놈의 유두가 긴장을 하면 할수록 더 솟아오른다는 것이다.

브라 때문에 겪은 고통은 그것만이 아니다. 브라는 착용하고 처음 10여년은 진무름 때문에 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 여름이 되면 가슴 밑, 등쪽으로 브라의 고무 밴드 자국이 별장게 부어 오른다. 아프고 가렵고, 소화라도 안되면 공연히 브라는 들어올리면서 심호흡을 해보고... 특히 나는 땀이 많아서 두꺼운 브라는 하기 싫어했고 얇은 브라는 하나하나였고, 아. 어쨌든 끔찍하다. 대학교 3, 4학년 때부터는 슬슬 이 브라는 여성필수품이 지긋지긋해지고 원수같이 느껴졌다. 어떡하면 이 원수를 벗어던질까 하던 참에 친구가 자기 엄마의 비법을 내게 알려주었다. 젖꼭지 부분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이었다. 나도 그렇게 해봤더니 가슴이 정말 살 것 같았다. 그러나 오래 붙이게 되면

살갗이 대번에 짓물렀다.

도대체 여자의 가슴과 젖꼭

지가 살아가는데 왜 이리도 문제가 된단 말인가.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 사찰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계수련회를 한 적이 있었다. 내가 거기에 참석했는데 합성섬유로 된 승복을 입고, 선풍기 하나 없는 법당에서 강의 듣고 좌선하러니 여간 더운 게 아니었다. 그래서 휴식시간에 친구와 법당 앞 큰 시냇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 있었다. 바지를 정강이 반쯤 걷어올렸던가. 한번은 어떤 스님으로부터 지적을 당했다. 비구 스님(남자 승려)들이 있는데 그렇게 몸을 드러내고 있으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세상! 나의 발목과 정강이는 그저 걷고, 일어서고, 앉고, 공을 걷어차고 하는데 쓰이는 나의 몸의 일부분이다.

내 가슴과 유두도 마찬가지다. 누굴 꼬이려고 해본 적도 없었다. 내 가슴은 내 손과 내 얼굴과 다름없이 내 몸의 일부일 뿐인데 남자들이 공연히 섹스의 심볼

이니, 최악의 근원이니 하며 찬미했다가 최악시켰다가 난리를 피워서 나는 공연히 감추며 생고생을 한다. 아니, 누구는 그 가슴을 돈보이게 하려고 거금을 들여가면서 고생들을 한다. 하긴 그것 때문에 미국의 스타가 되고 거금을 쟁긴 사람도 있다.

임신을 하자 나는 과감히 브라는 벗어던지고 동네를 활보했다. 만삭이 되고 가슴이 부풀어오르면 브라는 하는 게 정말로 괴로워지기 때문이다.

요즘에 겹이 두껍고 탱탱하며 가슴을 받쳐준다는 와이어가 있는 강력한 브라는 유행한다. 얼마전 속옷 가게에서 브라는 고르는데 여자주인이 내 가슴을 쓰옥 훑어보더니 충고를 했다.

"손님은 가슴이 쳐졌으니 와이어가 있는 걸 하셔야겠네요." 나는 그만 머쓱해가지고 주인이 권하는 '와이어가 있는' 가슴 선이 봉긋한 브라는 사가지고 나왔다. 와이어가 받쳐주니 정말 내 턱과 가슴과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그런데 왜 가슴이 쳐지면 안되는 거지? 누구 좋으라고 가슴이 봉긋해야 하지? 내 몸은 불편하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11

박희진(가명), 34세, 광고회사 근무



김홍도 <미인화상>의 모작작.

여자의 도화살은 행운의 여신이다

도화살뿐 아니라 유하살, 홍염살도
음욕이 가득찬 나쁜 사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사주로
태어날 확률은 반이 넘는다.

도화살이 있는 여자의 사주는 남자의 집에서 가장 금기시한다. 성적 욕망으로 가득차 음란하고 난잡할 것이며 그래서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해석이다. 남자의 경우, 이 사주는 주색에 빠져 헤어 나지 못하는데 여자의 도화에 비해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는다.

음란할 운명으로 태어난다는 도화살

태어난 연월일시 각각이 천간天干과 지지地支로 구성된 사주팔자는 갑·을·병·정으로 시작되는 10간과 자·축·인·묘로 시작되는 12지가 순서대로 서로 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천간지지를 줄여서 '간지干支'라고도 한다. 간지의 종류는 갑자, 을축, 병인, 정묘, ..., 갑술, 을해, 병자, 정축, ... 등의 60가지로 천간의 수 10과 지지의 수 12의 최소공배수이다. 갑자년이 다시 갑

자년이 되기까지 우리가 말하는 환갑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사주팔자란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지게 되며 그 근본은 시간이다.

음란할 운명으로 태어난다는 도화살桃花煞은 합지咸池라고도 하는데 인寅·오午·술戌이 묘卯를 만나고, 사巳·유酉·축丑이 오午를 만나고, 갑申·자子·진辰이 유酉를 만나고, 해亥·묘卯·미未가 자子를 만나는 경우의 사주이다. 즉 태어난 날의 지지地支가 인寅이나 오午, 술戌인 사람이 태어난 해나 태어난 달, 또는 태어난 시에 묘가 들어있으면 도화살을 타고났다고 하는 것이다. 지지에 해당되는 것이 자子·축丑·인寅·묘卯·진辰·사巳·오午·미未·신申·유酉·술戌·해亥의 12가지이므로 도화살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는 다섯 중에 하나가 된다. 도화살뿐 아니라 유하살, 홍염살도 음욕이 가득찬 나쁜 사주로 보고 있

사주팔자에서 도화살이 발견되면
당신은 예술적 재능이 있군요' 라든가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지면 크게 성공하겠군요' 라는
미래 전망이 가능하다.

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사주로 태어날 확률은 반을 넘게 된다.

높은 확률을 가진 사주의 도화살이 실제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그 여자의 도화살 때문에 혼사가 깨졌다는, 부부갈등은 내가 다른 남자를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사주에 도화살이 있기 때문이다. 또는 나는 도화살이 없기 때문에 다른 애인이 생길 수 없다는가... 도화살은 의미가 확장되어 이른바 이성운異性運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이성문제나 부부갈등의 원인을 사건 그 자체에서 찾아 해결하려는 것이기보다 선형적으로 주어진 사주팔자를 통해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여자의 성욕만 문제가 되는 문화

사주팔자가 일종의 문화현상이지만 연인이나 부부 사이를 때어놓기도 하고 붙여주기도 하는 마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뿌리깊은 역사를 가지고 우리의 관념과 생활을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문화현상보다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예측술인 그것은 다가올 미래의 것만이 아니라 현재의 삶까지를 규정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여기에서 여자의 성욕이 왜 문제가 되는가라는 물음이 가능하다. 즉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더 큰 범죄 행위를 제쳐두고 하필 성욕이 범죄행위 구성의 제일의 원인이 되는가. 이 문제는 여자의 성욕이 억제되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인간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장 기초적인 욕망은



다름 아닌 '음식남녀飲食男女' 라고 유교 경전 『예기禮記』는 말하고 있다. 식욕과 성욕이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인 욕망이라는 것이다. 영화등에서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효과로 게걸스럽게 음식을 먹는 장면이 이용되는데 시공을 초월한 원초적 욕망이라는 점에서 동류항으로 묶이는 것 같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당연한 기본적인 욕망일지라도 사회적 맥락이 무시된 채 먹고 싶다고 맘대로 먹고, 하고 싶다고 아무하고나 한다면 동물적 행위와 다르지 않게 된다. 누군가에게 '밥이나 같이 먹자'고 할 때 그냥 고른 배를 채우기 위한 생물적인 행위를 함께 하자는 것은 아니다. 먹는 것은 기초적인 욕구이지만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먹는가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것이다.

식욕과 마찬가지로 성욕이 문화적인 내용을 갖는다고 할 때 특정계층의 것은 인정되고 특정계층의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남자의 욕망은 권장되고 여자의 욕망은 금기시하는 문화는 비판되고 극복되어야 한다. 맹자孟子는 여자를 밝히는 성향 자체는 비난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의 욕구를 인정하지 않고

사주에 도화살이 들어있다는 두 여동생의 사주해석이 흥미롭다.

약사와 교직에 있는 이들은 많은 사람에게 얼굴을 드러내고 만나야 하는 자신들에게 도화살은 행운의 여신이라며, 신봉하기까지 한다.

나만의 것을 채우려는 것은 비난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위정자의 도덕성은 백성의 그것을 인정하느냐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하여 군주의 여자 발핍증을 조건부로 승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계급과 성별 간의 차별이 엄존하는 시대에 행자의 이상은 한갓 이상일 뿐이었다. 도화살이 상징하는 사회적 의미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여자의 성욕이 금기시되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도화는 복숭아꽃이다. 복숭아꽃이 왜 하필 여자의 성욕으로 해석되었을까? 조선시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에 복숭아 나무를 담장 안에 심는 것은 금기사항이었다. 화려한 복숭아꽃을 보고 집안의 여인들이 이성애 또는 성적인 욕구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여자의 성욕이란 가부장적 가족질서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여자의 감성과 행동은 엄격하게 통제되어야만 했다. 여자가 활짝 핀 아름다운 꽃을 보고서 즐거워하는 모습은 어떤지 불안하고 꼭 바람이 날 것만 같아 보였는지도 모른다. 여인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도화의 신비함은 곧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만들어내게 되었을 것이다. 이른바 음탕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원흉이다. 여자의 성욕은 아주 위험한 불씨를 안고 있으므로 남자가 관리해주어야 한다는 보편관념은 미래 예술인 사주팔자에 의해 객관적인 진리의 자리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도화살=재기발달=인기가 많은 사람

그러나 우리시대의 누군가가 도화를 보고 깊은 정감을 느끼게 된다면 그는 자연의 멋을 아는 자이며 감성이 풍부한 자로 평가될 것이다. 성욕 증진을 위해

가공할만한 수단과 방법들이 널부러져 있는데 한갓 복숭아꽃 따위야. 도화가 상징하는 의미가 우리시대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 된다. 그렇지만 도화는 성욕을 표현해줄 하나의 상징일 뿐이므로 현대 사회의 성욕과 관련있든 없든 성욕 상징의 논리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는지 모른다. 이것은 언어가 표상하는 세계에 대한 문제와 성적 욕망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인식 차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를 야기한다. 오늘날에 성욕이 없는 여성의 이미지란 생을 포기한 무기력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은 물론 성욕이란 단순히 생물적인 능력(?)이라는 의미보다는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주동력이라는, 보다 확대된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성욕의 내용이 새롭게 구성되고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되면서 사주팔자라는 상품도 포장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다. 과거의 '도화살=성욕=남자에게 인기=꽃사람의 노리개'라는 도식은 '도화살=삶에 대한 욕망=재기 발달=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자'로 수정되고 있는 듯하다. 사주팔자의 도화살은 특정 시대가 요청하는 사회적 의미로 읽히고 있는 것이다. 남성의 대상적인 존재에 불과하였던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도덕가치란 순종과 정절에 있었고, 그래서 여성의 욕망이란 수동적 의미의 '남성 노리개'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성의 능동적인 자아실현을 요구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욕망은 '즐거움을 주 재적으로 생산하는 힘'으로 해석되는 게 자연스러운 변화이다. 그래서 사주팔자에서 도화살이 발견되면 '당신은 예술적 재능이 있군요'라든가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지면 크게 성공하겠군요'라는 미

래 전망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도화살을 통해 사회적 의미를 읽어내는 일이 시대적 요청을 얼마만큼 담아내고 있느냐는 것도 문제거리와 태어난 시간이 전체 인생을 결정한다는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는 여전히 남게된다. 한 사람의 삶에서 빈부나 도덕적 가치를 평가하는 일은 역사·사회·정치·문화 등의 다양한 요소에 의해 행해지기 때문이다. 후천적인 인위적 요소와 사회적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순전히 태어났을 때의 시간에 음양오행이라는 자연운행의 법칙을 위에서 산출한 운명이 과연 얼마만큼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똑같은 시간에 태어난 두 사람의 운명

역종기易宗慶의 '신세설新世說'에 실려 있는 이야기를 보자.

청나라 사주사司曹司라는 사람이 관직을 제수받아 식구들을 데리고 서울로 가고 있었다. 강을 건너야 하는데 바람이 강하여 배가 나루터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만삭이었던 부인은 배에서 아들을 낳았다. 같은 시간에 그 동네의 대장장이도 아들을 낳았는데 사주사가 찾아보니 자신의 아들과 사주가 똑 같았다. 20년 뒤, 배위에서 태어난 사주사의 아들은 높은 벼슬을 하게 되었다. 늙은 사주사는 귀향하는 도중에 과거의 그 나루터에 이르자 과연 대장장이의 아들이 현재 어떤 상황인가가 궁금하였다. 대장간은 20년 전이나 다름없었으며 얼굴이 흰 한 소년이 쇠를 다듬고 있었다. 자기 아들과 똑같은 사주로 태어난 대장장이 아들이었다. 명리학에 정통했던 사주사는 두 아이의 팔자가 완전히 동일한데 어째서 이처럼 상이한 운명을 걷는가를 고민하였다. 이어서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두 아이의 사주는 화기火氣가 지나치게 성한데 그것을 제약해줄 수水是 적다. 마침 우리 아이는 물위 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수기水氣를 얻어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 그러나 대장장이의 아이는 화火



신윤복 (미인도)

에 화火를 더하였기에 조화를 잃었으며 따라서 출세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런 해석에 대한 이후의 평가는 건강부회가 지나쳐 한마디로 '웃긴다'는 것이다. '삼명통회'의 작자는 "크게 부귀할 사주로 태어나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시간만을 따르기에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는 일생동안 운명의 원리를 연구하면서 고귀한 사람과 보통 사람이

동일한 사주가 수없이 많았다고 고백한다.

연월일시를 따라 사람의 운명을 점치려는 사주는 자신의 앞날에 대한 개인의 노력이 어떠한가를 고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체 사회의 비전이 한 개인에게 미치는 여러가지 중대한 영향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맞게 예측하는 것은 우연이고 틀리게 예측하는 것은 필연'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시간적 요인'인 사주팔자, 그 전체 자체에 되물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사대부 여인의 도화살

조선시대의 어느 사대부가의 집안에 귀한 딸이 태어났다. 사주를 뽑아보니 도화살이 들어 있었다. 집안 어른들의 근심이 말이 아니었다. 몰래 그 딸의 사주를 고쳐서 비슷한 가문으로 시집을 보냈다. 훌륭한 자질을 지닌 그 여자는 남편복과 자식복을 두루 갖추었다고 평가된 삶이었다. 임종에 이르러 친정에서 진짜 사주를 다시 보내며 묘지에 기록하게 하였다. 이에 대한 명리가들의 해석이 흥미롭다.

"도화살이라고 다 감지는 않다. 장리牆裡도화와 장외牆外도화가 있는데 장외도화는 부부가 사랑하고 아껴줌을 말하므로 해가 되지 않으며 장외도화는 만나는 사람마다 다 놀이감으로 삼을 수 있으니 가장 불길한 사주이다." 즉 성욕을 상징하는 도화살이 담 안에 있을 경우는 남편과의 교감과 사랑에 더 좋은 역할을 하지만 담 밖에 있을 경우에는 나쁘다는 것이다. 사실은 음욕을 상징하는 도화, 유하, 흥염 등의 사주가 행동이 뛰어나게 방정한 남자나 행실이 바른 훌륭한 가문의 여성에게도 매우 많았다고 한다. 우리는 여기서 객관 진리로 역할해온 사주팔자가 사실은 일종의 심정적인 진리에 불과하며 그것은 사회적 문화적인 구성물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사주팔자의 과학성 문제와도 연관되는데 흔히 사주팔자가 과학이나 아니냐에 따라 우리의 자세가

결정될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따로 존재하는 순수 객관의 세계라는 과학의 신화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현대의 페미니즘 이론은 여성의 생물학적 열등성을 증명해왔던 과학이론이 사실은 문화적 구성물임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래에 대한 인간의 숙명적인 호기심이 사주팔자라는 틀을 갖추기에 이른 것은 역사적인 필연이다. 사주팔자와 기능적으로 유사한 체계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문화권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주팔자 자체의 과학성 논의보다 그러한 집단 심리가 담겨지는 사회구조적 특성, 사주팔자를 만든, 또는 사주팔자가 만들어온 역사적, 사회적 담론에 대한 논의가 좀더 생산적일 수 있을 것이다.

사주에 도화살이 들어있다는 두 여동생의 사주해석이 흥미로워서 소개한다. 약사와 교직에 있는 이들은 많은 사람에게 얼굴을 드러내고 만나야 하는 자신들에게 도화살은 그야말로 행운의 여신이라며, 신봉하기까지 한다. 훌륭한 약사나 선생이란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어야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주에 있는 도화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에게 사주팔자는 자기충족적이고 심정적인 진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다른 사주가 나온다 해도 이들이 삶에 부여하는 의미나 해석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다. [1]



이 숙 인

국립대 강사, 성균관대 동양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논문 '중국고대의 여성윤리사상 형성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페미니즘과 유교』, 『한국여성과 유교윤리』, 『동양적 여성철학의 모색』(철학과 현실, 1997년 여름호) 등 다수의 논문이 있으며, 번역서

로는 『열녀전』(예문서원 간)이 있다. 이번 호의 필자 소개란에는 집필후기 같은 것을 써도 좋겠다는 편집장님의 의견이 있었다. 예를 들면?이라고 묻는 나에게 "이번 글은 힘들었다가..." 이번 글은 정말 힘들었다.



세월의 강을 건너 만난 엄마의 잔소리

엄마의 잔소리에 깃든 딸들의 회한이 적지 않다. 숨통을 조이듯 끝도 없이 계속된 엄마의 잔소리. 수백번을 들어도 한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던 잔소리. 이제 엄마의 잔소리 안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다소 끔찍한(?) 여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길숙이 들어가보면 아주 흥미로운 모녀의 바다를 만나게 될 수도 있다.

식인종에게 했던 말, 나를 잡아 먹어라

“나를 죽여라, 죽여. 아니 잡아 먹어라.” 자라면서 귀가 뚫도록 들었던 우리 어머니의 지긋지긋한 잔소리다. 엄마는 왜 그렇게 끔찍하고 자극적인 소리만 해댔까 년덜머리를 내며 들었다.

내가 7살 때, 그리고 우리 오빠 둘이 13살, 1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때부터 어머니 우리 남은 식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되었다. 당신 말대로 “예쁜 그릇을 고르고, 반찬거리 걱정이나 하면서 살던” 우리 어머니는 졸지에 돈을 벌기 위해 바깥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어머니만 바빠진 건 물론 아니었다. 어린 나이의 오빠들은 그때부터 벌써 엄마와 함께 재산을 관리해야 했고, 초등학교를 들어간 뒤부터는 나 역시 밤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와 오빠들을 기다리며 연탄불을 갈고, 식사를 준비해야 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집에만 돌아오면 우리에게 이렇게 화풀이를 하며 잔소리를 쏟아부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잔소리는 내가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 도를 더해 가며 계속됐다. “나를 잡아 먹어라”는 “아주 나를 잘 근질근질 씹어 먹어라, 피를 뿜어 먹어라”로 발전했다. 우리가 무슨 식인종, 흡혈귀인 줄 아나?

물론 화도 많고 매사에 잔소리가 많았던 분이라 잔소리의 내용은 이것 말고도 많다. “계집애는 살림을 알아야 한다”며 집안일도 눈물 나올 만큼 매섭게 가르쳤고, 옷이며, 물건이며 아무 곳이나 흘리는 우리의 습관에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하루에도 열두번씩 “엄마 때문에 시달려서 못살겠다. 차라리 나가서 죽어버려야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 늘 듣는 잔소리였지만 20대가 되어서도 어머니의 잔소리가 있는 ‘집구석’은 정말 지옥이었다. 우리는 점점 어머니와 집을 외면했고 그럴수록 어머니의 입에선 더욱더 자극적인 말들이 튀어나왔다.

이제 내게 잔소리를 할 사람은 없다. 어머니 내가 25살 때 돌아가셨고 나는 지금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우리에게 퍼부었던 잔소리를 지금 내가 내 아이들과 남편에게 하고 있다. 물론 나는 신세대이니 만큼(?) 엄마와 똑같은 식으로 하진 않는다.

“자기 옷은 자기가 좀 치워라. 내가 식모냐? 내가 이 집 식모야? 자기 옷 치우기 싫은 사람이면 남의 옷 치우는 사람은 얼마나 더 싫은지 알아야 할 거 아냐?” 말은 이렇게 하면서 속으론 이런 생각을 한다. ‘저 이 기적인 인간들이 결국은 내 피를 말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와 내가 너무나 닮아있음에 가슴 섬뚱하게 놀란다.

아마 내겐 꽤나 어머니 일을 도왔다고 하지만 어머니가 보기엔 한심한 수준이었을 게다. 그 당시 여자가 혼자 생계를 꾸린다는 것이 얼마나 벅찬 일이었는지는 내가 직접 목격자이기도 한데 거기다 세 아이의 뒷치다꺼리를 해야 했으니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18년을 어머니가 얼마나 고달프게 살았는지는 이제야 알만하다.

어머니의 일생을 돌아보면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또하나 서글픈 생각이 있다. 세대를 지나서도 여자들의 인생은 왜 이리 똑같은지...

박 회 순, 여성단체 간사, 34세

엄마의 한시간짜리 잔소리

어느날 엄마의 전화를 받아 일신상의 ‘주의사항’을 듣던 중에 일어난 일이다. 난 평소에 결심한 대로 엄마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 말씀이 다 옳고, 난 무조건 그에 따를게요”로 장단을 맞추고 있었다. 그런 각고의 노력 끝에 엄마의 잔소리가 잦아드는가 싶더니 갑자기 화제가 바뀔 줄이야.



엄마: 너 지금 껌 씹고 있지? 질정질정. 천박한 것들이나 때와 장소를 모르고 껌을 씹어대는 거야. 냄새나는 식사를 하고 양치질할 시간도 없이 사람을 만나야 할 때 씹는 게 껌이라고 쳐.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 하지만 요즘엔 온단이나 허브사탕도 잘 나와 있더라. 그런 거 먹으면 껌 씹는 거나 진배없이 깨끗해지지. 마늘을 먹었을 때는 우유를 한모금 마셔봐. 냄새가 가신다. 그리고 양치액도 좋은 거 많더라. 제발 껌 씹으며 돌아다니지 말아라.

나: 예. 안 씹어요. 지금은 혼자니까 씹는 거라구요. 걱정마세요.

엄마: 그게 습관이 되면 어디서건 씹게 되는 거지. 그런 건 장래나 길거리 여자들이 만 사람들 기죽이려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까불지 마” 하며 품질을 때나 하는 것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니? 또 (어찌구 저찌구...)

나: 저는 절대로 전철이나 버스같은 데선 안 씹고

요. 혼자서 제 방에서 책 볼 때만 씹어요.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데요.

엄마: 스트레스 해소하려고들 그렇게 미쳐 돌아가는 거냐?

나: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기분전환하게 머리를 염색하려고 해요. 새빨간 색같은 어떨까요? 불타는 빨강머리. 보기만해도 신나지 않아요?

엄마: 너, 미쳤니? 아예 배꼽도 내놓고 벌거벗고 색색깔로 물들이고 다니지 그러냐?

나: 배꼽티는 때 나와서 못입는 걸요.

엄마: (잠시 침묵) 넌 왜 꼭 미치고 싶어서 환장한 애처럼 구냐.

나: 요즘엔 보통애들도 다 그러고 다니는 걸요.

엄마: 애가 애가. 남들이 식발을 하고 다니든 털을 뽑고 다니든 너하고 무슨 상관이나. 아이구. 니가 언제부터 남하는 대로 따라하며 살았더라?

나: (예구, 한시간짜리 잔소리 시작된다. 이제 그만

순종하고 문 닫아야지.) 예. 엄마 앞으로는 누가 뭐도
절대로 껌은 안 씹을거구요. 사지도 않을게요.

엄마: 알아들은 거지?

나: 예.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예고예고. 그날 난 괜히 껌 씹다가 30분짜리 잔소리를 두배로 듣고야 말았다!!!

김진선, 무직, 28세

엄마 이젠 좀 낚주세요.

“너, 정말 결혼할래?!...” 12시치기를 하고 들어오는 내게 쏟아지는 엄마의 첫 과성.

그때부터 너 같은 애, 키우기 힘들다시며 그 시간까지의 행적을 집요하게 꼬치꼬치 캐물으신다. 이제 이런 잔소리에 익숙해진 나는 태연자약한 편편스런 얼굴로 침묵!

딸에게 작은 흠이라도 생길까봐 노심초사하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별스러운 일도 아닌 일에 호들갑인 당신이 못내 밟기도 하고, 딸을 못미더워 하는 것도 서운하고 화난다. 그래서 전 같으면 엄마의 화를 잠재우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던 나지만, 지금은 엄마의 딸 한마디 한마디에 토를 달며 질세라 대들기 일쑤다. 아니면 못들은 척 방으로 쫓다니 들어가 버리든가.

곰곰히 생각해 보면 이런 내 태도에 엄마 역시 꽤나 애간장을 태우셨을 게다.

그런데 어느날, 무슨 물건을 찾다가 엄마 일기장을 보게 되었다. 지금까지도 우리 엄마가 일기를 쓰시다니 하며, 그 노트를 펼쳐 보았다. 당신의 어머니에 대한 안타깝고 애타는 마음, 우리 형제들을 향한 고마움, 걱정, 그리고 정성스런 기도 제목까지... 여기에 엄마의 일기장을 공개한다.

“친정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러온다. 내가 가계만 하지 않아도 모시고 싶다. 기력 없고 노쇠한 어

머니가 자식들에게 좀 구차스럽고 도움이 못된다 해서, 함부로 대하는 동생들이 이해가 되면서도 원망스럽다. 어머니의 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불효하는지... 지금 제가 어머니께 무엇으로 도와드려야 하나요?! 이래서 딸자식은 이웃집 개만도 못하다는 옛말이 있나 보다. ... 오늘 현정(필자의 여동생)이 참 고마웠다. 나를 잘 보살펴주어서, 그리고 병국(필자의 남동생)이가 걱정스럽다. 하나님, 병국이가 철이 없고 미련해서 학생 때 공부하지 아니하면 나이 들어 살기가 고달프다는 것을 모르오니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요즘 윤정이가 속을 상하게 합니다. 귀가시간이 너무 늦고 성실치 못한 것이 말입니다...”

나는 갑자기 파사로운 불멸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제부터라도 모녀간의 지혜로운 타협점을 찾고픈다. 당신의 잔소리가 자녀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 만큼,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부탁하고픈 말이 있다.

엄마, 저를 믿고 좀 내버려주세요. 엄마가 끈을 풀어 주셔야, 엄마의 딸이 무력무력 자랄 수 있을테니까요.

김윤정, 방송작가, 25세

잔소리의 대물림

엄마의 딸이면서 나도 딸을 둔 엄마이면서, 그 중간에서 엄마의 잔소리를 듣고, 나도 모르게 잔소리를 딸에게 보내고 있을,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려 고기를 먹고난 후 커피를 마시듯 화장실 갈 때면 신문을 쟁겨들고 들어가는 변비환자처럼, 굳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너무나 평범한 화두.

사실 미라언니에게 원고청탁 전화가 왔을 때, 무엇인가 범국제적이며, 우주적인 주제를 다루는 원고청탁인가 보다 생각했다. 철학적으로 심오한 사상이나 현대인의 병리현상을 심리적 측면에서 파고들어가 현

대병을 치유하는 데 있어 여성들의 역할들을 조사한 다든가, 문학을 통한 여성의 교화와 가부장적 남성의 자연스러운 자기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문학학교의 창립에 관한 필요성의 역설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기대했었는데, 미라언니 말이 “야, 니네 엄마 잔소리도 수준급이지 않나. 그래서 네 생각이 나더라고. 마감은 내일인데, 천천히 서둘러라” 하는 말투의 전화를 아침부터 받았다.

언니의 말이 아니었더라도 엄마와 딸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모녀가 떠오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주 갸나아이 때부터 흠어머니의 손에 키워졌고 결혼한 후에도 딸아이를 엄마에게 맡기고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엄마와 나는 비밀이 없었다. 때로는 친구 같고, 애인 같고, 언니 같던 그래서 엄마 없는 나도 없고, 나 없는 엄마도 상상할 수가 없다. 우리 모녀는 대화에 한계나 구별이 없다.

사업문제, 육아상담, 남편과의 ‘밤일’까지 시시콜콜 물어보고 얘기하다 보니 어떤 때는 내 삶에 엄마의 존재가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할 때도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엄마가 나에게 잔소리할 수 있는 영역은 무궁무진하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꿈꾸는 것 말고는 내 삶에 관여하지 않은 곳이 없을 지경이다.

반반히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짜증을 내고 편잔을 주고, 나도 이젠 머리가 쪼다고 대들기도 하지만, 한 번도 왜 나는 엄마의 잔소리를 들어야 하며, 엄마는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거미줄처럼 내 삶의 구석구석에 거미줄을 치고, 나를 엿보고 있는지 진지하게 이유를 따져본 적이 없다.

이번 기회에 곰곰히 생각해 보니 딸의 팔자는 엄마를 따라간다는 말이 있다. 난 엄마처럼 살지는 않을 거야 하던 딸일수록 엄마의 전철을 밟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엄마는 자신이



삶에서 실패했던 부분이나 남에게 속아서 괴로워 한 일,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내가 되돌아보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거의 병적인 잔소리의 경지를 뛰어넘어, 악을 쓰듯이 참견을 한다. 딸이 자신의 아픔을 되돌아보는 것이 건널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엄마는 자신에게 퍼붓고 싶었던 자학과 자신이 하지 못했던 삶이 던져주는 회한들을 잔소리 속에 용해시켜서 매일매일 나에게 마시게 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반반히 화를 내고, 짜증 내던 엄마의 잔소리가 어느 날 내전에서 사라진다면, 난 목마르게 엄마의 잔소리를 그리워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전 엄마도 늙었구나 하는 슬픈 생각에 빠질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난 엄마의 잔소리를 싫어하는 만큼 좋아한다는 역설을 늘어 놓고 있다. 그 잔소리 속에 숨어있는 엄마의 인생이야기며 딸을 향한 사랑과 염려를 분명히 그리워할 것이다.

이 순 주, 주점 '희화마을' 손장, 34세

딸아, 얌전히 좀 놀아라

“승연아, 조용조용 걸어라.” “승연아, 재발가만히 좀 놀아라.”

어릴 때부터 줄곧 들어왔던 엄마의 잔소리는 대충 이런 것들이었다.

나는 자랄 때부터 사내아이처럼 부잡스럽고 언제나 사고뭉치로 내가 지나가는 자리는 멀쩡히 놓였던 물건들도 박살나곤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 말이 말 생장이지 5살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내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건 고문과도 같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땀날 엄마가 하시던 잔소리를 한귀로 흘려보내지는 않았던 것 같다. 어린 마음에 엄마에게 야단 맞지 않고, 좀 얌전하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되고자 노력했던 흔적들이 있다. 지금 기억으로도 생생한 장면이 있는데, 우리 딸아이만할 때쯤으로 안방에 물이

담겨진 컵을 눈앞에 두고 그곳을 지나가던 나는 몇번씩 마음 속으로 주문을 외었다. ‘절대 이 컵을 엿지르지 말자’, ‘엿지르지 않을거야’ 하면서, 그렇지만 간절한 나의 주문이 효력이 없었던지 아니면 너무 긴장을 해서인지 아뵘싸 결국 나는 그 컵을 쓰러뜨리고야 말았다. 그 순간 나는 그 값을 푼듯 치웠던 기억이 난다. 그때는 매도 많이 맞으며 자랐으니 빗자루가 날아왔을 것이고 뒤따르는 소리들도 들었을 게다. 근데 그 순간 어린 마음에 혼란 기억은 나질 않고 스스로에 대한 쓰디쓴 패배감과 절망감을 기억하고 있다. 그뒤로는 어떻게 자랐는지 기억이 나질 않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아주 얌전한 아이로 지냈었다. 어떻게 그렇게 바뀌게 되었는지 거기까지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아작은 갖지 못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다. 나의 남편도 불행하게(?) 내 과의 사람인 것이다.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왕성해 똥통에까지 빠져가며 안해본 장난 없이 개구장리로 컸다고 시어머니께서 혀를 차며 말씀하시곤 한다. 그와 내가 다른 것은 내가 여자아이라는 이유에서였는지 부모님들로부터 거부당하고 잔소리의 꺼리를 제공했다면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썩직한 아들로 인정받으며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는 것이다.

아무튼 이 둘이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가 현재의 우리 딸애다. 누가 남의 자식이랄까봐 아이는 지나친 호기심과 과도한 장난으로 우리를 언제나 조마조마하게 하면서 자란다.

그러나 아이의 장난기보다 더한 문제는 아이를 대하는 나의 태도에 있다. 나의 기억 속에 아프게 남아 있는 내 모습들을 딸애를 통해서 보니 나는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가 자주 나고 호되게 야단을 치게 되거나 미리부터 잔소리를 하게 된다. 어쩌보면 딸애가 내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이다. 딸애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힐노릇인가. 물컵을 엿지르면서 아팠던 가슴이 지금도 아련한데 나 역시 짜증과

신경질을 내며 대책없이 아이를 주눅들게 하는 것이다. 물론 현명한 엄마가 되지 못하는 나 자신도 괴롭다. 고통은 이렇게 나의 엄마에게서 나에게로, 또 다시 내 딸에게로 대물림되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 있었던 일이다. 딸애가 베란다의 수도에 연결된 호스를 방안으로 가져와 물을 틀어댔다. 언젠가 경계를 놓치지 않고 있는 나인지라 사태는 조기에 수습이 됐다. 머리에선 연기가 활활 타고 있었지만 내 뒤통에는 노력을 한다고 최대한의 이성을 발휘했다. 책상에서나 주변에서 놀상 애기하는 모범 답안의 엄마들처럼 심호흡을 한번하고, “음, 윤아야 왜 방에다 물을 뿌리고 싶었니?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엄마가 궁금하구나.” 아이는 태연자약하게 “수영장을 만들려고.” 순간 나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어렸을 때의 내가 똥똥 지나갔기 때문이다.

딸아이보다 더 컸을 것 같은데 겨울이라 밖에서 뛰놀지도 못하고 집에서 동생들과 답답하게 놀아야했던 시절에 뭐 재미있는 게 없을까 궁리를 하다가 골목이나 공터에서 놀곤 했던 ‘오징어 상’ 놀이를 떠올렸다. 아무 생각없이 과감하게 크레용을 집어들고 안방에 큼지막한 오징어 한마리를 그렸고 동생들과 놀았던 것 같다. 그러다 엄마가 집에 오실 시간이 되어 걸레로 지우려했는데 옛날의 민속장판이라 그런지 골격을 안했다. 동생들과 수세미, 때타올을 동원해 열심히 지우다보니 조금씩 지워져갔고 혼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느껴졌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낙서를 지우느라 바가지로 열심히 떠나온 물로 방바닥이 흥건해진 걸 보고 다시 발동이 걸린 것이다. 수영장이 될 거라는 부풀 거대로 세수대야에 물을 담아 방안에 더럽다 부었던 장면이 기억난다. 결국 그날도 대가를 치렀을텐데 어떤 종류의 처벌이었는지는 기억에 없다.

그때 생각을 하고 있노라니 웃음이 나왔다. 어찌 그러도 옛날의 나인지. 그날은 문득, 그러나 몹시 엄마

가 그리워졌다. 이런 나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지... 가슴 저 깊은 곳으로부터 고마움과 죄송함이 밀려왔다.

내가 생각하기로 엄마들의 잔소리는 사실은 꽤 이기적인 교육법이다. 좀더 현명하게, 좀더 인내하면서 아이의 행동을 조정할 수 있는데도 가장 가까운 혈육이기에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기본 내키는대로 아이를 통제하고 억압한다. 사실 그로인해 나는 의기소침하게 살아왔고 내 본래의 모습이 어떠한지 나를 잃고 살아왔다. ‘실제의 나’와 ‘엄마가 기대한 나’ 사이에는 고통과 좌절, 미움과 분노 등이 뒤엉켜 있어 많이 힘들어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의 엄마도 조금씩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진다. 지금의 내 모습과 더불어, 아이와의 숙제는 여기서부터 풀려야함을 어렴풋이 알 것 같다. 아마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 인생이 아닌가 싶다.

정 승 연, 주부, 34세

죽어 썩어질 몸, 아꼈었다 뭐할래?

아 이 둘을 데리고 직장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장난이 아니다.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오면 수북히 쌓여 있는 설거지를 외면하곤 한없이 늘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외면한다고 수월한 건 아니다. 어차피 내 손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아닌가. 그럴 때 난 이를 악물고 옛날 우리 어머니가 내게 하셨던 잔소리를 떠올리며 자리를 털고 일어선다.

“죽어 썩어질 몸, 아꼈었다 뭐할래?”

조금이라도 일을 덜해보려고 몸을 사리는 내게 하시던 잔소리였다. 한껏 게으름을 피우던 미혼시절에 나는 이 말을 슬하게 듣고 자랐다. ‘또 저 잔소리’ 하며 고개를 외면했는데 이젠 내게 급과육조라고 할 만큼 절실한 말이 된 것이다.

살림이란 원래 끊임없이 생기고 반복된다. 요즘처럼

럼 가사일을 배워볼 틈 없이 결혼을 하는 대부분의 남녀는 결혼 이후 불어나는 살림살이에 어쩔 줄 몰라하기 마련이다. 특히 출산이라도 하고 나면 가사노동은 엄청나게 많아진다. 처음엔 가사일을 분담하지 않는 남편을 원망하며 일을 미뤄보기도 했었다. 그러나 직장의 근속년수가 많아질수록 남편은 점점더 늦게까지 직장에 묶여있게 되었고, 나 같은 경우는 가사노동을 달리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 상황이 극한까지 갔을 때 나는 새롭게 정신무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왜 가사노동은 사회화되지 않는 걸까? 왜 남편은 집안일을 분담할 수 없는 걸까? 왜 나는 가정부를 둘 만큼 여유가 없을까? 아무리 부릴거리봐도 나아질 게 없을 뿐더러 나 자신만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집안에서의 내 동선을 따져보니 뉘뉘고 늘어져 있는 시간이 적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피로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뉘뉘고 일을 미루수록 스트레스만 가중된다는 걸 알았다. 그때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계신 어머니의 음성이 들렸다.

“죽어 썩어질 몸, 아껴서 뭐할래?”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그리고 미뤄둔 일들을 해치우기 시작했다. 그래, 이 시대에 직장 가진 여자로서 살아남으려면 더욱 악착같아지자. 더 부지런해지자. 그렇지 않으면 지레 지쳐서 직장이라는 끈을 놓아버릴 지도 모른다.

우리 어머니 세대가 부지런했다고 해서 모두 집안일이 즐거웠을 리는 없다. 나는 이제쯤 어머니들이 살림에서 전사(?)가 됐던 이유를 알 것만 같다. 일하지 않으면 자식과 함께 앉아서 죽을 일밖에 없었으므로.

박 미 해, 영암사원, 35세

나 화냥년아?

오늘도 난 아침부터 화냥년이란 소리를 들으며 불쾌한 기분으로 집을 나섰다.

언니의 붉은 색 립스틱을 바른 것이 화근이었다. 어쩔 동생의 짧은 반바지와 줄티가 문제였고, 그저께 11시를 넘긴 늦은(?) 귀가가 원인이었는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한달동안 ‘화냥년’이란 잔소리를 안 들은 날이 아마 열손가락에 꼽힐 거다. 언니나 동생보다 유독 나에게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이 잔소리는 우리집 딸들 중에서 내가 가장 아하게(?) 생겼다는 게 이유이다. 그래서 남들처럼 진하게 화장을 해서도, 속살이 많이 내비치는 옷을 입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뭐 예쁘게 보인대나 어쨌대나... 하지만 아하게 생긴 게 무슨 죄라고 바르는 화장품마다, 입는 옷마다 ‘화냥년’ 소리와 연관되어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닌데 말며느리감같이 안생겼다고 시집을 못갈 것도, 이쁨을 못받을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렇다고 언니나 동생도 엄마의 잔소리에서 결코 열외는 아니다. 수수하지 못하다느니, 너같이 하고 돌아다니면 다들 욕한다느니, 어느 남자가 데려가겠나느니...

하여튼 이런 류의 잔소리는 딸 가진 엄마가 으레 할 수 있는 거지만, 요새들어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신다. 그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봤는데 우리 딸 셋 모두가 ‘과년한 처녀, 딸 같은 처녀’라는 게 문제였다. 언니 나이 27살, 나 25살, 동생 23살. 게다가 우리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딸을 가진 엄마의 친구들이 하나, 둘씩 딸들 시집보내다며 엄마의 악을 바짝바짝 울리고 있으니... 빨리 해치워야 될(우리 엄마 왈) 것들을 해치우지 못하고 있는 엄마의 심정이 오죽 답답하겠느냐 말이다.

얌전하고 참하게, 그야말로 때 안물게 키워 좋은 남자에게 시집보내는 게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엄마는 혹여 딸 셋 중 누구하나 시집을 못가고(?) 있는 게 다 당신이 조신하게 키우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다. 어쩔 땐 답답한 마음에 제발 좀 내버려두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지만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는 걸 이내 깨닫고 만다.

대신 요새는 일종의 편법을 쓰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립스틱을 안바르고 나와 지하철 화장실에서 바르고 싶은 색을 바른다든가, 집에서 많이 파인 옷에 얇은 옷을 덧입고 나온 뒤 나온 즉시 벗는다든가 하는...

엄마, 정말 이게 웬 고생이유?

이 유 진, 학원강사, 25세

“옛날에 어떤 년이 일이 싫어 죽었다더라!”

어린 시절 나는 늘 ‘시집 안간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다녔다. 국민학교 4.5학년즈음부터 훌쩍 커버린 나를 보고 동네 어른들이 ‘저녀쫄이 난다’고 ‘시집 보내도 되겠다’는 인사말을 하면서부터 생긴 버릇이었다. 왜 어른들은 여자애기가 크면 시집 보낸다는 생각부터 하는 것일까?

어쨌든 그럴 때마다 나는 ‘시집 안간다’고 우겨댔고 어른들은 그 이유를 물었다. 나의 대답은 “시집 가면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보는 일을 해야 하는데 난 그런 일이 하기 싫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은 나의 어머니 차례 (그것이 잔소리였던가). “옛날에 어떤 년이 일이 싫어 죽었다더라!”

시집 안가겠다는 이유에 대한 나의 대답은 늘 엄마를 웃게 만들었다. ‘웃웃..’ 소리와 함께 웃음을 터트리면서, 때로는 눈을 흘기고, 때로는 내 엉덩이를 철썩 때리며 엄마는 나에게 ‘일(나에게는 어떤 일이냐가 문제였다)이 싫은 년(아들놈에게 그런 교육 안시킨다)에게는 죽음밖에 길이 없다더라’는 무시무시한 협박성 교육을 시킨 것이다. 엄마는 나에게 일하는 사람

을 두더라도 주인이 살림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여자는 집안일을 배워야 한다는 최유성 교육도 잊지 않았다.

‘일이 싫어 죽은 어떤 년’에 대한 엄마의 잔소리에는 ‘일이 좋아서 하는 년(?)은 아무도 없다. 모두 죽지 못해 하지만 그런 일은 죽음으로밖에 피할 도리가 없는 여자의 운명이다. 죽음보다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말뿐이었지 실상 나의 어머니는 장녀인 나를 ‘물까지 떠다 바치며’ 키웠고 나는 살림을 배우지도 않고 그렇게 싫다던 시집도(결혼) 갖고 아이도 낳아서 키우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린 시절에 아무 생각 없이 들었던 ‘그 여자’ 이야기가 살림을 살면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나는 ‘일이 싫어 죽었다던’ 그 여자 생각에 빠져 망연자실하기 일쑤였다. 옛날의 그 여자는 도대체 왜 죽었을까?

결국 남자들처럼 글쓰고, 풍류를 즐기고, 정치를 하고 싶었던 수많은 여자들이 집안일밖에 할 게 없었던 세상이 싫어 ‘자살’을 선택했던 건 아니었을까. 그렇게 죽은 여자들이 모두 우리의 누이고 어머니였던 것이다. 그 여자가 나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은 내 몸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 여자들에 대한 제사지내는 나에게 글쓰기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내 어머니의 잔소리는 애초의 의도를 벗어난 역교육의 결과를 낳긴 했지만 딸에 대한 훌륭한 교육무기가 된 셈이다.

유 완, 자유기고가, 43세

엄마의 잔소리, 그 내밀한 이야기들

잔소리란 것이 여자들에겐 필수품일 수밖에 없다.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할 육체적인 힘도, 사회적인 또는 가족내의 권위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잔소리는 그들이 삶의 영역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유일한 통제수단이었을 것이다.

유가儒家에서는 가정을 성역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선비들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옷을 단정히 가다듬고, 마음을 정리 했다고 한다. 가정에는 부모도 있었고, 조상신을 모신 사당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민들의 가정에는 그런 권위가 없다. 그저 낮 동안의 노동으로 지친 몸을 누이고 끼니를 때우는 장소 이상이 아니었을 것이다.

아이들이 방학하면 주부는 개학한다

요즘의 가정은 더욱 그렇다. 일과 가정이 뚜렷하게 분리된 자본주의사회에서 가정이 떠맡은 역할은 '휴식처'이다. 일터와 학교에서 돌아온 식구들이 충분히 '휴식'하려고 할수록 주부는 얼름 없이 바빠진다. "아이들이 방학하면 주부는 개학한다"는 말도 있지 않나. 엄마와 그외의 가족원들의 코드는 예로부터 다른 것이다. 그러니 의사소통하는 데 아무래도 장애가 많을 것이다. 엄마는 그 장애를 줄여보려고 대화하기를 시도한다. 그러나 가정에서 그냥 '쉬기만 하면 되는' 가족들은 엄마의 말이, 열심히 들어야 하는 절실한 그 무엇이 아니다.

거기다 엄마는 가족 내에서 무서운 존재거나 권위를 부여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엄마의 말 앞

에서 긴장하는 식구들은 별로 없다. 따라서 엄마의 잔소리는 대개 똑같은 레파토리로 끝도 없이 반복되거나 히스테리칼한 톤으로 전개된다.

모녀관계에서 잔소리란 주제는 참 중요하다. 딸에게 퍼붓는 엄마의 잔소리는 이후 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모녀간에는 두 자아간의 경계선이 매우 희미하기 때문에 엄마는 딸을 독립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자신의 분신, 또는 자신의 또다른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고 모녀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말한다. 그래서 딸을 마음으로부터 독립시키지 못한 엄마들은 딸의 인생살이를 일일이 간섭하고, 억압하기를 서슴치 않는다.

엄마가 딸의 인생에 개입하는 이유는 여러가지다. 자신의 인생에서의 과오를 딸이 되풀이하지 않게 하려고, 또는 딸의 '여자로서의 가치'를 최고로 높여서 공주처럼 시집 보내고 싶어서가 아마 첫번째 이유가 아닐까 싶다. 이런 경우는 주로 늦은 귀가라든지 짙은 화장, 반대로 외모에 무심한 태도 등 딸의 행실을 문제 삼는다.

이유있는 엄마의 간섭

아주 복잡미묘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엄마가 너무나 싫어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면을 딸이 꼭 배다박았다는가 반대로 자신과 너무 달라서 그걸 참을 수 없어 어떤 형태로든 잔소리를 해대는 경우이다. 엄마가 싫어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란 대부분 엄마의 부모가 전해준 자아상일 경우가 많다. 부모가 미워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딸이 가지고 있을

때 엄마들은 괴로워 한다. '저 아이만은 그러지 않기를 바랐는데' 하면서 말이다.

유아기에 한창 말썽장이었던 딸은 엄마가 늘 자신에게 주입했던 대로 '말썽장이=문제'라는 생각을 자신의 정체성 한켠에 입력한 뒤 최대한 차분하고 양전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자신의 딸 역시 장난꾸러기이니 얼마나 당황스럽겠는가. 그러나 만약 이와 똑같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고 치자,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기와 하는 것이 똑같은 말썽장이 아들을 꽤나 대견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사내자식은 마땅히 그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은 당연히 긍정적인 자아를 갖게 될 것이다.

딸은 가장 안전한 존재

어떤 엄마들은 딸을 자신의 인생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불행의 씨앗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는 물어오르는 갖가지 스트레스를 어찌할 길이 없어서(가족원 중에 딸은 가장 안전한 존재다), 거기다 딸은 아들처럼 독립적일 필요가 없으므로 마음놓고 딸에게 잔소리를 퍼붓는다.

이렇게 엄마의 잔소리를 듣고 자라난 딸들은 결코 엄마의 잔소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대부분은 엄마의 잔소리를 지겨워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내면화해서 받아들이지만 어떤 딸은 엄마의 적극적인 세뇌에 반항해서 일탈을 남보다 일찍 감행하기도 한다.

엄마의 경험을 밑바탕으로 딸이 좀더 쉽고 편안하게 안락한 삶을 얻었으면 하는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딸은 엄마의 손을 잡고 손쉽게 경험이라는 강을 건너지 못한다. 엄마의 인생길을 똑같이 거쳐야만 그 제사야 엄마가 뭘 말하려 했는지 깨닫는 것이다. 어쨌든 엄마로서는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딸들이 엄마의 잔소리를 마음으로부터 극복

하게 되는 시점은 언제일까? 엄마에게도 나름대로의 고통과 그만그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절실하게 알게 되는 시기.

다시 보는 잔소리

그건 아무래도 '엄마의 역사'를 알게 되는 때인 것 같다.

누구는 엄마의 일기장을 본 때였고 누구는 자신이 엄마가 되어본 뒤이기도 하다. 그때 딸들은 안다. 아, 이래서 엄마가 그런 말을 했구나. 또는 엄마도 한명의 초라한 인간일 뿐이구나. 부족하고, 일관되지 못하고, 잔소리라는 별로 효과적이지 못한 교육법으로 아이의 교육을 대충 때우려고 한 다소 이기적인 인간일 뿐이구나. 그리고 우리사회의 수많은 여성들이 그렇듯 문제가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란 역할을 자의반 타의반 떠맡았구나. 그 순간 잔소리의 족쇄를 내 안에서 풀어내고 딸은 자유스러운 심정으로 엄마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된다. 혹은 엄마의 잔소리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서—사실은 적극적인 해석이기도 하다—자신의 삶에 힘을 보태기도 한다.

아니, 꼭 엄마와의 화해가 모범답안일 필요는 없다. 어쨌든 내 무의식 속에 질기게 청포를 뿌리던 엄마의 잔소리가 있었다면 그걸 거둬내고 자신이 직접 긍정적인 자아를 만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1]

박미라(편집장)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어머니들이 만든 세상' 다음 호 주제는 '엄마의 음식'입니다.

엄마가 아주 잘했던 요리, 즐겨드시던 음식, 요리하기를 좋아하는 엄마... 등 구체적인 주제는 다양합니다. 엄마의 음식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감상도 함께 보내주세요. 원고량은 5매 내외이며, 채택된 원고를 보내주신 분께는 소정(所定)(X)→소정(O))의 원고료도 드릴게요.

“난 엄마처럼 살래요!”

김영선

‘무식한 엄마. 신경질쟁이인 엄마.
신사임당이나 한석봉이 엄마 같은 사람은 때를 때려도
꼭 회초리로 형식을 갖췄다고 하는데.
엄마가 뭐그래. 자기가 화 난다고 애나 잡고.
나는 절대 저런 엄마가 되지 않을테야.’

언제부터인가 누가 내게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는 질문을 해오면 서슴없이 “우리 엄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엄마를 제일 존경하고 사랑해요”라고 대답하기 시작했다.

학력 국졸. 열여덟에 시집와서 아이 둘을 낳아 기르고 평생을 속 썩이던 남편을 여의고 이제는 혼자 사는 엄마. 그러나 수많은 칭송의 대상이 되었던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모성애에 대한 찬양의 마음만으로 내가 존경하는 것은 아니다. 서른이 내일모레인 내가 존경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한 모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믿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스물여덟의 내가 말이다.

엄마와 나의 나이차는 열아홉살이 난다. 어릴 때에는 내 또래 중에서 엄마가 제일 젊어서 나는 그게 자랑이었다. 친구들 집에 놀러가면 똥똥하고 퍼진 아줌마들만 있는데 우리 엄마는 청바지에 티셔츠, 생머리 단발을 한 날씬한 엄마였으니까.(내가 국민학교-나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세대에 입학했을 때 엄마는 스물일곱, 지금의 나보다도 젊은 여자였다.)

그렇게 젊고 예쁜 엄마였지만 나는 엄마가 이 세상

에서 제일 무서웠다. 두살 터울의 남동생은 늘 찢찢까기만 하는 울보였고 나는 어지러운 거 제대로 안치우고 안씻고 고집 세다고 툴하면 엄마의 매를 맞아야만 했으니까. 어릴 때는 동생하고 머리카락 쥐어뜯으며 싸우기도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늘 누나인 나만 혼내시는 것처럼 느껴졌다. 엄마는 화가 나면 회초리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손에 집히는 대로 두들겨 패곤 했다. 그래서 집에는 총채와 빗자루가 남아나질 않았었다. 국민학생인 나는 맞을 때마다 눈물 한방울 흘리지 않고 속으로만 그렸다. ‘무식한 엄마. 신경질쟁이인 엄마. 신사임당이나 한석봉이 엄마 같은 사람은 때를 때려도 꼭 회초리로 형식을 갖췄다고 하는데. 엄마가 뭐 그래. 자기가 화 난다고 애나 잡고. 나는 절대 저런 엄마가 되지 않을테야.’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우리는 아버지의 얼굴을 매일 볼 수 없었다. 건설회사에서 일하시던 아버지는 늘 지방으로 몇달씩 공사하러 가서야 했기 때문에 집에는 엄마와 우리 남매 뿐일 때가 많았다.

엄마는 매일매일 집안을 쓸고 닦고 정원을 손질하고 아버지께 갖다드릴 반찬을 만드는 일만 하셨다. 엄마는 나뭇잎사귀 하나하나도 형질으로 닦으실 만큼

깔끔한 분이셨다. 햇님은 반짝 모래알도 반짝 우리집도 반짝반짝하던 날들이었다.

가끔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엄마는 늘 소화가 안되고 속이 답답하다고 자리에 눕곤 하셨다. 사춘기였던 나는, 땀날 눈에 물을 켜고 면지를 닦아대고 ‘신경성’ 위염을 앓고 있던 엄마보다 가끔씩 오시는 아버지와 이야기를 많이 했다. 아버지는 젊어서 방방곡곡 가지 않은 곳이 없고 소설과 영화를 좋아해서 내 사춘기적 감성을 한껏 충족시켜주시곤 했다. 아버지를 통해 나는 난생 처음으로 사막의 낮과 밤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고, 낙타의 긴 속눈썹은 모래알 폭풍이라도 능히 이겨낼만하다는 것, 그리고 그레고리 펙과 이소룡을 알게 되었다. 나는 아버지가 들려주는 먼 이국의 이야기와 수많은 그림엽서 안에서 살리라 마음 먹었다. ‘시시하게 걸레나 살아 말리며 화초나 키우는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 아빠처럼 훨훨 날아서 세상구경을 하면서 살아야지.’ 나는 엄마랑은 말도 안했고, 순제 엄마의 얘기는 듣지도 않고 내 방에 들어가 방문을 걸어잠그고 지냈다.

그러던 중 고3때가 되자 갑자기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전부터 질병이 있었던 아버지는 합병증이 심해져서 회사도 그만두고 집과 병원을 들락거리는 환자가 되었다. 그동안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미 어느정도 있던 재산도 날린 처지였다. 있던 집마저 팔고 작은 아파트로 들어앉았을 때 살림만 하던 엄마는 나를 붙들어놓고 선전포고를 하셨다.

“니네 남매 대학도 보내야 하고 아버지 병원비도 내야 하는데 돈 버는 사람은 없으니 나라도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냐.”

“엄마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서 돈을 벌어요?”

“전에 옆방 세살던 강씨 아줌마 알지? 그 아줌마가 나가는 식당에 아라이(설거지 하는 사람)로 가기로 했다.”

살림만 할 줄 알았지 사회경험도 없는 데다 신경이

민해서 밥도 잘 못드시는 엄마가 일을 하면 얼마나 할는지 의심스러웠다. 엄마 자존심에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하다가는 내가 엄마 병수발까지 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야간자습을 하고 집에 오면 엄마는 간식을 내어주시며 그날그날 식당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해주셨다. 요즘 나가는 식당의 주메뉴는 무엇무엇이라는 거, 찬모(반찬 만드는 사람)에게 반찬 만드는 거 구경했다고 아라이가 설거지는 안하고 남 일하는 거 흠쳐나 본다고 욕 먹었다는 얘기, 어떤 사장은 종업원 관리를 잘못해서 일하는 사람이 자주 바뀐다는 얘기, 갖가지 손님들의 행태 등에 관한 얘기. 엄마는 알려주고 싶은 것이 많아서 어쩔줄 모르시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런 얘기 끝에 이런 말도 하셨다.

“지금은 내가 설거지를 하지만 찬모는 힘도 덜들고 월급도 훨씬 많이 받는다. 아라이 두달만 딱하고 찬모 자리를 꿰찰 거야.” 엄마는 찬모의 구박과 눈치를 먹으며 매일 몰래 배운 요리를 수첩에 적어와서 실습을 해보고서야 잠자리에 들곤 하셨다.

그리고 정말 두달 후에는 어느 식당의 찬모로 가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 이후로 일을 배우기 위해 한식집에서 일식집으로 일식집에서 경양식집으로 옮겨 다니셨다. 엄마가 대전 시내 식당을 전전하시는 동안 아버지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었고 그에 따라 사는 집은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는 세식구(이때 동생은 대학생이 되어 서울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다)가 단칸방에 살기도 했다.

엄마는 집을 줄일 때마다 버려야 했던 가재도구나 살림을 돌보지 않아 엉망이 되어가는 집안팎에 차츰 무디어갔다. “하루종일 밖에서 일하고 돌아와서도 내가 식모처럼 식구를 뭇치다꺼리만 해야 하느냐. 나는 돈 벌고 집안살림도 잘하는 무쇠덩어리가 아니다!”라는 게 엄마의 주장이었고, 아버지와 나는 그런 엄마의 변화에 당황했다. 아버지는 그때까지 당신 손으로 것

육순에 시작한 글쓰기

if 가을호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다. 사무실로 한 남성 독자가 전화를 했다. 창간호를 사보고 너무나 좋아서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녔단다. 그런데 어머니의 시를 봐줄 수 없었냐는 게 용건이었다. 그리고 곧 10여편의 시를 팩스로 보내왔고, 하루 뒤에는 30여편을 우편으로 보냈다.

받아본 시들은 아주 소박하고 따뜻했으며, 여성의 한스러운 삶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었다.

우리는 곧 이월순씨에게 전화를 했다. 그는 충북 진천에서 23년에 살고 있는 61세의 여성이었다. 시를 쓰기 시작한 내력이 의외였다. 동네 우체국에서 개설한 컴퓨터 강좌를 들으면서 글씨 연습한다고 한편 두편 쓴 게 지금의 시가 됐단다. 컴퓨터 강의를 듣게 된 이유는 "휴어 할일 없으면 심심풀이로 컴퓨터통신이나 해볼까" 해서였다. 작년 11월부터 쓴 시가 지금 100여편에 달하고 20여편의 수기도 있다. 그전에 전혀 글을 써본 적이 없었다니 그의 감수성이 예사로운 건 아니다.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이 후련하고 좋다고 이월순씨는 말했다. 처음 집에 있는 컴퓨터에 앉아서 마음 속의 시를 끌어낼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까치야, 너는 지금 무슨 과일을 저장했니?" 어릴 적 집 앞에 서있던 커다란 포플라나무 위의 까치집에서 까치가 포포르 날아오르던 것처럼 그렇게 글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어려운 시골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머니가 "여자라도 배워야 한다"며 중학교까지 보내주어 지금처럼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을 그는 여지껏 고마워한다.

"다시 끌어낸다면 진짜로 될 하고 싶냐"고 묻자 그는 "수놓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시인이 되고 싶지는 않냐"는 질문에 "그건 꿈도 못꿀 일"이라며 씩씩하게 웃었다.

잠깐 이런 생각을 해봤다. 평년기를 맞아 세상이 다 허무하고 쓸쓸한 우리 어머니들에게 시를 쓰도록 권해본다면 어떨까. 내 평생 마음 고생한 이야기는 한편 책으로도 모아 팔 거야 라고 말하는 내 어머니에게 진짜 글을 써보라고 한다면?

그게 다 어머니의 역사이고, 내 역사의 시작이며 우리 여성의 역사이기도 한데...

우리는 환갑 나이에 처음으로 (그것도 컴퓨터로) 시를 쓰기 시작한 이 어머니에게 권 문적인 문학성의 갖대를 들이대는 일이 중요치 않다고 판단했다. 그냥 그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자.

가락도 놓아본 적이 없는 분이었고, 나 또한 양말 한 짝도 내 손으로 빨아본 적이 없이 자랐던 것이다. 평생 우리 뒷바라지만 하고 살 줄 알았던 엄마는 어느새 '가장'으로서 호령하는 데 익숙해 있었지만, 우리 부녀는 생전 해보지 않던 집안살림에 어쩔 줄 몰랐다. 매일매일 목소리가 커지고 눈빛이 빛나는 엄마와는 달리 아버지는 갈수록 침울해지셨다.

가장의 능력을 상실했다는(생계를 책임질 수 없다는) 자괴감은 아버지의 다른 인간적 매력까지도 사라지게 할 만큼 대단한 힘을 가진 것 같았다. 아버지는 더이상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아 보이는 엄마에 대한 질투심, 환자 특유의 짜증과 분노를 내보이셨고 엄마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셨다.

이제 아버지는 하루종일 집에서 식구들을 기다리는 입장이 되어 예전에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엄마의 퇴근시간을 일일이 체크하고, 사소한 일에 신경질을 부리셨다. 한때 우상이었던 아버지의 허물어진 모습은 나를 혼란에 빠뜨렸고, 엄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콧방귀를 뀌셨다.

"내가 밖에 나가 일을 해보니 알겠더라. 철없이 시집 와서 남편을 하늘처럼 떠받들며 살았을 때, 저 인간이 오입질하고 노름하고 식구들은 나물라라 해서 내 속을 그렇게 썩였어도 날 버리면 애들하고 어떻게 사나 막막해서 기어 살았지. 막상 나가보니 다들 어서 오라고들 하더라. 일 잘하지 않지 않잖아. 요즘 나 같은 사람은 구하려고 해도 없대요. 애, 너도 나처럼 병신처럼 안살려면 공부 많이 하고 넓은 세상구경도 하고 겁먹지 말고 살아라. 여자라도 평생 직장 있고 할 일 있으면 집날 게 없는 세상이다. 옛날에 니 외할아버지가 가르치신 대로 아녀자가 집에서 살림만 잘하면 된다고 병신처럼 빌빌 기면서 살았던 거 생각하면 억울해서 니 애비 보고 싶지도 않지만 정 때문에 산다. 내가."

엄마는 운만 때렸다 하면 줄줄이 지난 세월에 대한

회한과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폭포처럼 쏟아내셨다. 엄마는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처럼 새롭게 보이는 세상살이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셨다. 나는 엄마의 내부에 것처럼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평생 성씨의 여주인 역할을 하는 것이 꿈이고,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식구들을 신경증으로 미치게 만드는 것만이 엄마의 전부라고 생각했었는데, 엄마에게도 말 못할 불만이 있었고 어떤 식으로든 인생의 성취감을 얻으려는 욕망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엄마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우리 식구의 운명을 바꾸어놓았던 아버지는 몇해 전 돌아가셨다. 동생의 학업과 나의 사회생활, 엄마의 직장생활로 우리는 각자 따로 살게 되었다. 그리고 올해, 엄마는 조리사자격증시험에 합격하셨다. 국어의 학력으로 '비타민A'나 '4대 영양소'가 어찌느니 하는 어려운 낱말의 문제를 외고, 동생에게서 배운 나눗셈으로 칼로리 계산을 해서 탄 자격증이다. 2차 실기시험까지 합격하시던 날 내게 전화를 해서 수험번호와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시며 컴퓨터 음성으로 알리는 합격자 발표 전화 메시지를 들어 보라고 하셨다.

"야, 김영선. 엄마 합격 먹었다. 기분 디게 좋더라~. 뭐든지 하려고만 맘 먹으면 다 되더라. 니 동생 대학 졸업만 하면 지금처럼 뽀뽀지게 일 안하고 출장요리만 해주면서 내 살 만큼만 벌 거야. 그러니까 너도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살아, 엄마처럼!" 자부심과 의욕으로 들뜬 엄마의 목소리는 전화선을 타고 내 심장까지 쿵쾅거리게 했다.

엄마와 통화를 끝내고 나는 다음과 같은 컴퓨터 음성 메시지를 들었다.

"수험번호 0000번 최.일.선.씨는 조리기능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팻누리

울 어머니 밭 매실 때
팻벌레 한 마리 잡아
아기 손에 들려주고

"장난감 삼아 밭둑에서 놀으라"고

*팻벌레: 손가락 하나보다 더 큰 누에알이 생긴 파란벌레
그 아기가 자라난 후에는 팻벌레가 무성지 않고 귀엽기만하다.

약혼

1958년도에

처음 보는 남자

처음 만난 이 밤

약혼식을 기행하네

부슬비 오는 이 밤

우산을 받쳐들고

소름길 걸으며

의문에 찬 그 남자

첫마디 하는 말

"사랑을 해 봤냐"고...

시집가던 날

트럭 기사 옆자리에

곰디고운 새색시

시집을 간다네

굽이굽이 험한 산길

가도 가도 구불구불

덜커덩 뿡 뿡

영등이가 온전할까?

허리가 편찮을까?

보이지 않는 시집

사귀지 않은 신랑

두려움만 차 오는데

그래도 가야만 하는

굽이굽이 험한 길

시집가던 날.

옛백이 신랑

1960년대를 떠올리며

아이도 아닌 어른도 아닌

옛백이 신랑

어리지도 않은 성숙되지도 않은

옛백이 신랑

직장인도 아닌 농부도 아닌

옛백이 신랑

사랑인지 투정인지

옛백이 신랑

온유한 듯 포악한 듯

옛백이 신랑

어휴—!

나..! 이 시집

어떻게 살아 볼을까 —!—?

이 유

이유는 말할 수 없어

너무도 많은 사연이 있기에

이유는 말할 수 없어

말의 한계로는 표현이 모자라

이유는 말할 수 없어

복합적인 사연이 얹히고 설켜서

이유는 말할 수 없어

주위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

이유는 말할 수 없어

보는 눈이 너무도 많아

이유는 말할 수 없어

듣는 귀가 너무도 많아

이유는 말할 수 없어

체면의 문이 굳게 닫혀서

이유는 말할 수 없어

포집을 꼬리를 잡히기가 싫어!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마음만 상해 가지 — !!

졸업여행

중3때의 졸업 여행

모처럼 차를 타고 여행 간대요

아! 얼마나 좋을까!

G. M. C 트럭 세 대에 남학생

G. M. C 트럭 한 대에 여학생

화양동을 향해 떠나는 틸틸-쿵 대는 트럭

아! 신난다! 남학생 차 앞질렀어

삼 백년된 암자며 유난히 파란 물

수많은 바위 그 위에 세겨진 글

벌써 집을 향해 트럭에 오르네요

이번에는 우리 차가 선두야

가장 힘 좋은 우리 차

끝까지 떨어지지 않는 일등차

시냇물도 거침없이 쉼—악

저 뒤에 오는 남학생들 약오르지?

아! 신난다—!!

한 시

신혼초에 나무하러 가는 신랑에게서 "한 시까지
정신상 대항하라"는 명령을 받고

밖에 뭉 하며 나뭇짐 백이는 소리

내 가슴에 뭉 하며 간 떨어지는 소리

검정 무쇠 술 죽 아직 끓지도 않는데

어머나 어찌나 야단났네.

오늘도 또 그렇게 혼나려나

어머나 어찌나 날 베풀었네.

한 시야 한 시

희초리 같은 새로 한 시.

허무

1970년대를 생각하며

오늘도 밥하고 셔리지 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이도 학교 가고

아이들도 학교 가고

내일도 또한 그런 것들

지치고 쇠약한 몸과 마음

나의 기쁨은 어디에

나의 행복은 어디에

손은 부지런히 빨래를 비비는데

텅—빈 허전한 가슴은 눈물 공장인가

색녀열전

도개비 신랑 토치법

시작이 쉽지만
진심으로 생각해
"기대" 여자가
관심도 줄다" 여
비밀주의하며
사생활에 귀담을 기울인다.

구성·그림 수박무리

옛날 '도'씨를 가진 '개비'란 여자와
사랑을 치른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의 특별한 사랑법과
이별법을 소개하려 한다.



언제나
입안이 되고
살아하는...
그래서 인간인
여자와 살고
더프가이-
개비씨.



모든 평범한
인간인
이 여자가
도개비와
사랑에
비해있는지?



그녀는
도개비-
이런말을
좋아했다



대담한 그녀도 도개비에게 거칠고,
약간은 폭력적인
대처법에
대처법을
느꼈다.



무엇이든
필요한게 없나-



그런 그녀에게 이 특별한 남자가
한 순간 멋있게 느껴졌을 것이다



결국물하게, 즉흥적으로
그의 위엄이 그녀의 품에 안고
사과를 든다.



또한 도개비가 밤마다 그녀에게
같은 바보, 곡식, 꽃을
어려운 신상신에
지켜있던 그녀에게
이것도 큰 인물이
기쁨이었다.



여자는 도개비에게
금방복자가 되었다



몇해가 지났다 -



여자는 사랑에 들어 사랑에 산다고 하면서
사랑했던 난 못살아 -



저것대를 찾아오는 도개비 남편
갈아지는 기다림이,
그때를 외롭고, 지쳐서 했다



도개비와 그녀는 너무 달랐다
밤도 거꾸로 었다



잠도...
꼭 거껴
자야되 -



도개비는
힘내 이렇게
잔다구 -



모라도 취해도...
멀리 떠나 가자 -
무엇하러 가자 -



사랑 ~
문도 그의힘도
그녀의 마음을
잡을수 없었다



그녀는 도개비가 찾아오는 것이
싫어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외로움으로 그의 곁에
있을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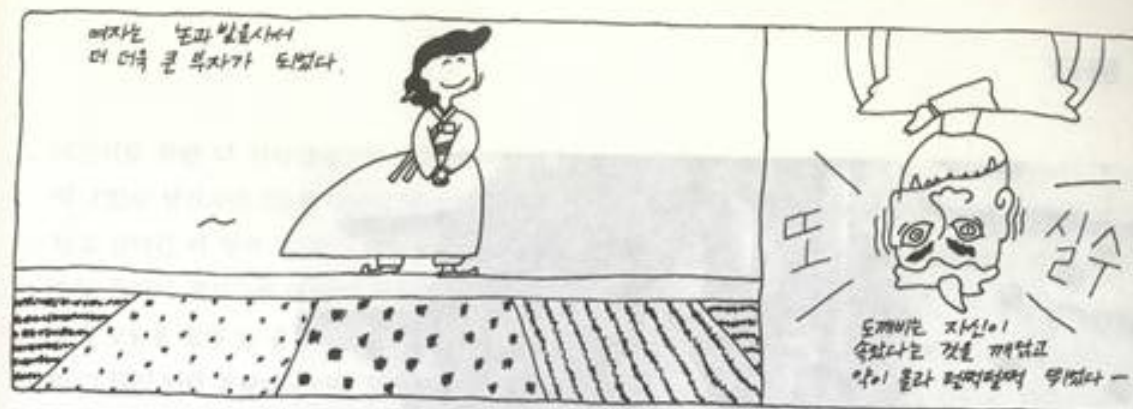
어떻게 하면
후회를 면하고
요리 /



도개비도 때때로원수 있을까
조리 /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아 하
난 역시 잘해 -





처녀막 파열은 결코
자연스런 '성교'로 인해
발생하지 않거든요.
파열이 생긴다면 그건
성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폭력에 의한 것이겠지요.

2011년, 여성사 강좌 <그때를 아십니까?> 처녀막의 전설

카시 드 롬소 작. (Evidently not), 1955.

오늘의 정서곡선은 안정 90점입니다. 폐적인 편이죠. 지난 시간에도 시작할 때 정서 포인트와 끝날 때쯤의 포인트가 달랐다는 거 기억하죠? 오늘도 여러분 열 받으면 경고 90점쯤 나올 걸요. 하하. 이게 공부로 들어갑시다!

잘나면 잘난 척한다고, 못나면 못생긴 것이 나쁘다고, 좀 배웠으면 건방진다고, 덜 배웠으면 무식하다고, 나이가 어리면 어리다고, 나이가 많으면 많다고, 돈이 많으면 많다고, 없으면 없다고, 비뻥 말랐다고, 너무 뚱뚱하다고... 헉헉, 숨이 차서 다 늘어놓지도 못

하겠군요. 여하튼 온갖 이유로 교묘하게 불평등을 당해온 것은 단지 그대가 여성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 어두운 터널에서 당하던 횡포가 적어도 법의 울타리 안에서만이라도 견제된 지가 벌써 12년째 되는군요. 지금이 2011년이네요.

어느 사이버 강좌에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여성역사 공개강좌, <그때를 아십니까?>입니다. 이 시간의 의의는 누차 강조하였으니 눈감고 워드 두드리는 격이겠

지만서도 한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죠. 노파심이죠. 뭐, CD로 남기자면 2장은 넉넉히 될 고난과 아픔을 딛고 살아간 이 땅의 별 같은 여성들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의 정서곡선 90점이 가능했겠습니까? 이들이 오늘을 있게 한 숨은 공로자인 만큼 우리 조상이 그 당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버텼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들의 삶을 그 당시 관습이나 유물을 통해 다시 재구성해보는 것입니다.

강의 후연 사이버공간에서 직접 체험!

거기 F-48 사이트에 있는 학생! 화장실 가고 싶은 표정 짓고 있는데... 여기 있으면 다 보여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이 말 하려고 했죠? 천만에 말씀입니다. 과거의 악습을 미화하고 추억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비록 12년이란 세월이 흐르긴 하였으나 어디서 또 어떻게 정신 나간 현상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역사공부는 어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것이거든요. 백화점식 불평등이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여성을 찢어먹던 세월이 지난 12년이란 짧은 시간보다 장장 몇 천배는 길었다구요.

이 강좌가 끝나면 여러분은 사이버공간으로 이동하여 과거의 삶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때를 아십니까?>가 WWW(Women World web)에서 뜨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 프로그램 참 잘 만들었다니까요. 하하. 여러분이 제 강좌를 잘 들어야 사이버공간에서 중도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컴퓨터 하드웨어가 다운되는 거 아니죠? 정말 장난이 아니

라니까요.

지난 시간에는 순장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그게 그래요. 오늘 하려는 처녀막하고도 관계가 있는 이야기라 한마디만 더 보태자면, 아! 방금 H-25 사이트 학생이 처녀막이 뭐냐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러고 보니 다들 표정들이 맛이 갔군요. 다들 모른단 말이죠. 이 말을 쓰는 사람 요즘은 없으니까 당연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절대보호근육'을 예전에는 처녀막이라 했어요. 알다시피 절대보호근육은 피하층에 있는 기관의 하나이지요. 이 근육 없이 태어나는 여성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말했더라... 음, 그렇지. '여성의 인생은 뒤옹박 팔자'라는 이상한 용어로 표현되었답니다. 저도 뒤옹박이 뭔지 모르지만 여성은 세 살의 주인이 되지 못했다는 말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거든요. 이 말은 국민의 정서를 해친다 하여 잠시 휴지통에서 백업 파일로 감금당해 있던 속담 중의 하나예요. 여러 형태로 위장한 순장제도는 여성의 팔자를 뒤옹박으로 만드는데 상당한 몫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첫번째 결혼한 남자가 죽으면 다시 결혼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과 성관계도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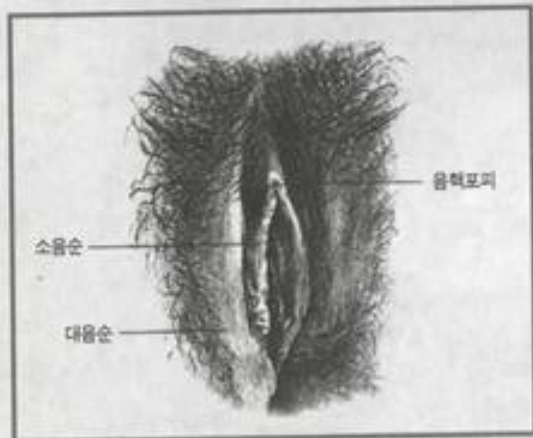


지 못했잖아요? 그걸 수절한다고 했더니요. 결국 첫 번째 남편과 함께 죽은 목숨이었지요. 그 당시 결혼은 성을 초월하여 같이 살고 싶은 사람들과 합의하에 공동의 즐거움과 의무를 나누는 '공동체 결성 축하연'이 아니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죠? 그 당시 여성은 한 남자의 집안에 속해야 했고 그 속함을 시작하는 것이 결혼이었거든요. 그러니 여성은 남편이 죽어도 살아있을 때와 다름없이 그 집안에 예속되었거든요. 원해서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단가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왜 3대에 걸쳐 수절한 여인의 집 앞에 열녀문을 세워주고, 재혼한 여성의 자식은 번듯한 직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했을까요? 강제였다 이겁니다.

‘여자 팔자 뒤옹박’이라는 전설

순장제도가 꼭 죽은 남편의 무덤에 함께 묻히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또 결혼한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었구요. 눈치 빠른 사람은 알겠지만 그래서 순장제도로 이 이야기를 열게 되었지요. 처녀막에 얽힌 ‘역사와 전설’ 사이트에서 이 자료를 발견하면서 증말기가 다했습니다.

그 당시 용어를 그대로 살려보겠습니다. 처녀막이 질내보호근육이 아니라 처녀막이란 이름을 달았던 것은 그것이 신체의 일부로 여겨지는 세팅과는 다른 세



팅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처녀막을 제대로 이야기한 것도 1990년대나 되어서나 가능했단 나가요.

또 곳곳 사이트에서 메시지가 쏟아지는군요. 왜 그리 세월을 바이러스 먹이고 있었나구요? 알아 맞춰보세요. 후후. 성 중에서도 가혹이나 여성의 성은 권리가 아니라, 뭐랄까, 남성의 쾌락을 위한 대상일 따름이었기 때문에—우리 강자의 특징이 상상 불허 아닙니까?—근거도 없이 말 만들어내어 인생 조지는 거죠. 이상한 색시함으로 서로 경쟁하게 하고, 몸 안에 플라스틱을 넣어 부풀게도 하고, 뼈를 깎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 피부를 잡아당겨 배꼽이 가슴까지 올라볼기도 하고... 헛것은 많은데 정말 뒤옹박이었지요. 그랬기 때문에 여성의 성을 학문으로 객관화하는 작업이 그렇게 늦어진 거예요. 여성의 성이 남성에게는 자연스럽게, 여성에게는 자발적으로 대상화되는 지난한 세월이 진행되고 있었지요. 20세기가 끝나갈 즈음에야 여성은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에 대해 무장되기 시작했어요. 이즈음 여성의 성에 대해서도 제대로된 이야기가 터지기 시작한 거지요. 처녀막을 막 이야기할 즈음의 정서를 보세요.

“여자의 경우 처음 성교로 처녀막이 파열되는데 이렇게 파열된 처녀막은 영원히 재생되지 않는다. 요즈음에 와서 처녀막재생수술을 한다고 하지만 수술로 재생시킨 처녀막은 본래의 것이 아니며 파열된 것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물론 처녀막이 심한 운동에 의해서 파열되기도 하지만 이는 성교에 의한 것과 자세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1983)”

화면으로 보이는 여러분의 표정이 증말 우습네요. 몇 광년 떨어진 판 태양계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짧은 문단 안에 많은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파열이니 재생이니 하는 이야기가 왜 나와야 하는지

또 처녀막재생수술이라니, 가도 가도 블랙홀이죠? 하나씩 살펴봅시다.

처녀막이라는 이름에서 어떤 사회적인 맥락이 느껴지나요? 그때는 여성이 성관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도덕성, 심지어 그 사람의 인생이 판결나던 때였거든요. 성관계 경험 유무를 판독할 때 사용된 도구가 바로 처녀막이었다고 하는군요. 성관계는 또 상대와 내가 서로 원하고, 성관계 때문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확실할 때 하는 게 아니었단나. 왜 파열이니 재생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그 근육이 파열된다는 것은 다른 근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직의 결에 의도적이건 우연이건 심한 충격이 와서 상처가 생긴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파열은 결코 자연스런 ‘성교’로 인해 발생되지 않거든요. 다 알다시피 성교란 쌍방의 충분한 교감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파열이 생긴다면 그건 성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폭력에 의한 것이겠지요.

피를 보기 위해 처녀막재생수술을

그러니 앞의 텍스트를 미루어보건대 아마 첫 성교는 거의 성폭력이었나 보죠? 처녀막에 강제로 상처를 내어 파열하는 것이 취미거나 유행이거나 풍토병이었거나 뭐 그랬나봅니다. 이걸 결코 성교가 아니죠. 그 당시의 타임캡슐에서 나온 어떤 20대 후반 여성의 기록을 보면, 결혼 후 성관계를 하는데 처음에는 피가 나오지 않아 걱정이 되었는데 한달쯤 후에 생리가 아닌데 피가 나와서 너무 다행이었다고 적혀있어요. 충분히 서로를 애무하고 천천히 삽입(남자가)하고 흡입(여자가)하는 데 공을 많이 들이면서 상대를 느끼고 나를 느끼는 귀중한 경험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과정에서는 처녀막이 충분히 신축적으로 되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이겁니다.

당시의 신조가 뭐냐하면 ‘빨리빨리’였거든요. 그러

이게 강제로 찢어지면 당연히 피가 나는데

이 피를 보기 위하여

찢어진 부위를 실로 꿰매었어요.

그러면 폭력에 의해서, 아 아니 성교에 의해서

강제로 또 찢어지는 것이지요.

피를 보려고 수술까지 했단나...

니 한달쯤 후가 되자 그 신조를 거스른다는 죄책감이 극대화된 나머지 빨리빨리 해치우느라 여성이 채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삽입을 한 모상이예요. 처녀막에 기어코 상처를 낸 거죠. 그야말로 파열된 것이었나 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성의 입장에서 한달 만에 자신의 신체 일부가 파열된 것을 좋아하지 뭐니까? 찢었.

이게 찢니까? 바로 여성의 성이 뒤옹박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누가 폭력을 좋아하나요? 그러한 폭력을 통해서야 여성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다른 남성으로부터 폭력을 당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지요. 앗! 헛갈리네요. 뭐가 폭력이고, 뭐가 성교인지. 여하튼 그게 증명이 되어야만 했기에 처녀막 재생수술이란 것이 성행했다는 현상이 설명되지요.

여성엔 처녀막이 없으면 고스란히 순장되었던 것이죠. 그런 현상이 20세기에든 버젓히 일어나고 있었던 말입니다. 처녀막재생수술이라니요. 너무 해괴망측하기는 하지만 역사는 여성으로 하여금 순장제도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구린 전략을 허락했던 기라요.

처녀막재생수술은 산부인과 병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재생하는가 궁금하죠? 여기 이미 지 화면 띄웁니다. 압! 이미지 다 뺐지요? 보면서 설명을 해보죠. 여기가 바깥쪽 성기로 대음순, 소음순이구요, 이곳이 음핵이죠. 안쪽 성기로 들어가보면 질이 보이죠? 인체구조는 볼 때마다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단나니까요. 성인 여성의 질의 길이는 대개 16~7 센티

미터쯤 되구요. 그 안쪽으로 자궁이 안기듯 들어와 있지요. 처녀막은 질과 자궁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보통 옛날 사람들이 이름은 참말 기막히게 짓는데 이런 증말 괴상하게 붙였어요. 아무리 따져보아도 ‘막’이 댈 말이지요? 막이... 나 참—그 모양도 제각각이었어요. 사람에 따라서 별 모양, 타원형, 세모나 네모의 형태를 띠었고 또 질감도 틀려서 단단하기도 하고 물렁하기도 하고 껌 같기도 하고 그랬대요. 이게 강제로 찢어지면 당연히 피가 나는데 이 피를 보기 위하여 찢어진 부위를 실로 꿰매었어요. 다음 이미지 보세요.

여기와 여기를 이어서 살짝 잡아당겨놓아요. 그러면 폭력에 의해서 아, 아니, 성교에 의해서 강제로 또 찢어지는 것이지요. 그 피를 보려고, 별일 다 있었어요. 피를 보려고 일부러 돈 들여가며 수술까지 했더니... 그러니까 생리처럼 생명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생기는 피가 아니라 폭력의 상흔인 그 피를 ‘재생’하여 보려고 말입니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비슷지 말아요. M-8 사이트 학생! 지금 기준으로 그 당시 상황을 시뮬레이션해버리면 아무 것도 얻는 게 없어요. 그 당시 우리 조상들에게는 그만큼 그 피가 절실했대구요. 그런 절실함이 그 절실함의 부당함과 맞붙어 갈등하는 시점에서 들끓은 많은 여성들이 자기 홈페이지 업그레이드할 시간 빼앗기면서 고민하고 눈물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이들의 관점이 관철되어 20세기 마지막 해인 1999년 처녀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이 붙은 교과서가 탄생된 것이죠.

“... 처녀막은 사람에 따라서 태어날 때부터 다른 조직과 형태를 띤다. 아예 처녀막 없이 태어나는 여성도 있고 질 입구 전체를 덮어 이를 제거해야 하는 여성도 있다. 대부분의 처녀막은 자위나 부드러운 삽입 등을 통해 신축적으로 늘어난다. 폭력적이거나 강제적인 이물질의 삽입에 의해서 고통이 동반된 파열이 생기

기도 한데 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러한 폭력이나 강제를 행한 사람에게 법적인 문제가 가해진다... 한때 처녀막은 여성의 순수성을 증명한다는 헛 맹세로 그 존재 가치를 위장해왔다... 여성은 그들에게 장치된 오래된 명분과 신화들의 가증스런 가면을 벗겨버린 이후에야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당당하게 주장하고 이를 책임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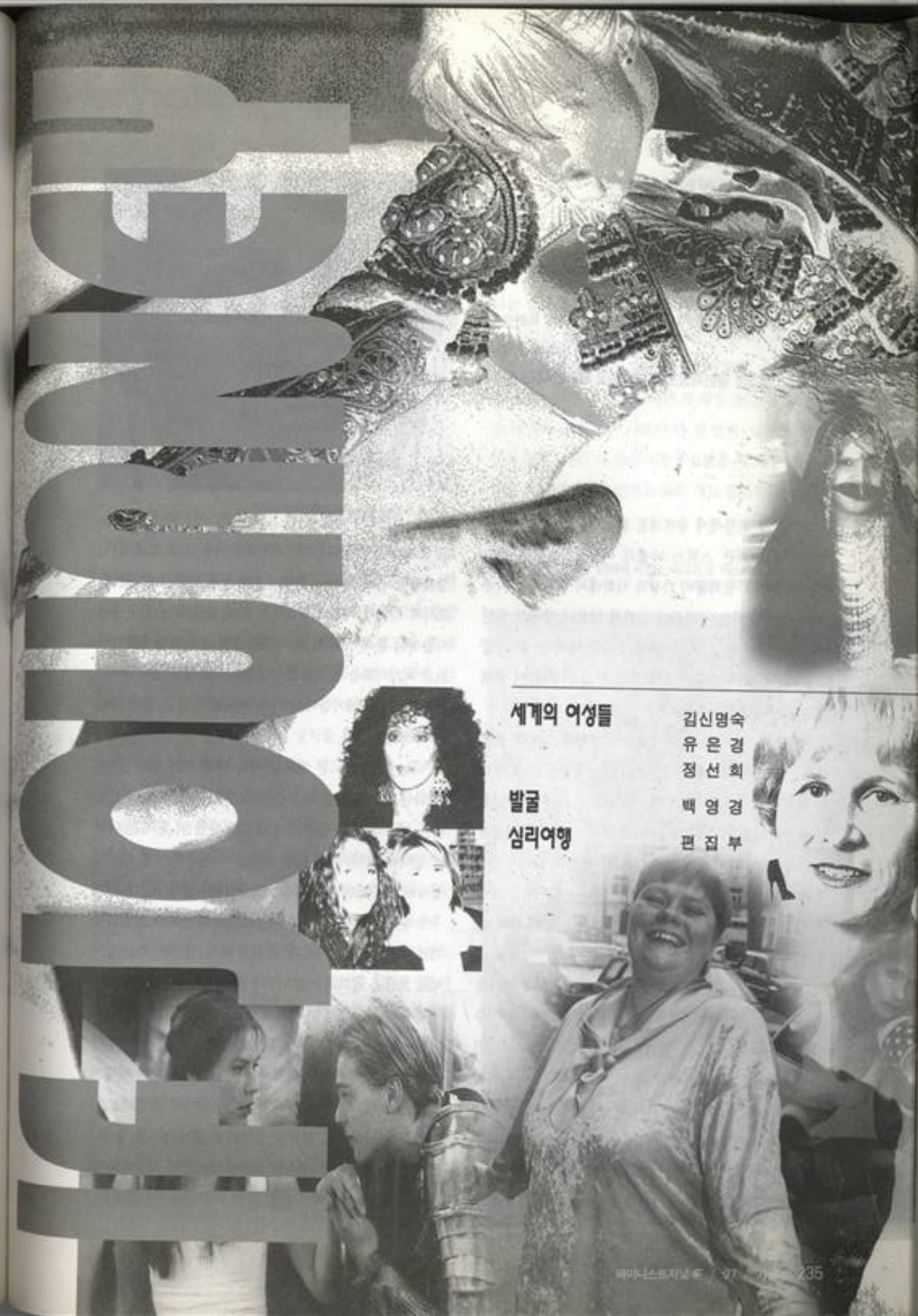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칭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사실 무엇을 폭력이나 강제로 보아야 하는지 감을 잡지 못하는 실정이었지요. 여러분은 행복한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드려야 해요. 그들의 고민과 갈등, 그리고 탈가면의 지난한 과정이 있었기에.

자! 그럼 이제는 사이버공간으로의 이동이 시작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죽 따라가보세요.

“오악, 오악, 싫어요. 안 갈래요. 그냥 머리로만 배우고 여기 있을래요! 내 컴퓨터 캡 비싸다구요.”

이경미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그 나쁜 놈이 강제로 삽입을 했어요. 난 발로 차고 소리도 질렀지만 어떻게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집에 와서 봤더니 피가 좀 나와 있었어요. 그 전에 이런 경험 없었거든요. 내가 처녀였다는 것을 개에게 확인시켜준 다음 (처녀막)재생수술비를 받아야죠. 고소할 마음요? 없어요. 복잡하게 만들 것 없잖아요. 개가 재생수술비를 확실하게 주지만 하면 돼요.”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제 처녀막은 끊임없이 허물어졌다가 새롭게 탄생하는 요술망망이가 되었다. 그 이외의 것에는 도를 쓴 사람처럼 흥분한다. 처녀막만 늘 산선한, 막 태어난 비리의 상태로 ‘확인시켜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된다. 지금 우리는 웃기지도 않은 코미디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 허술한 미래가 등장할 밖에.



세계의 여성들

발굴 심리여행

김신명숙
유은경
정선희
백영경
편집부

남자들에게 폭력세를 물리자

김신명숙

“남자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행사하는 각종 폭력으로
지출되는 정부돈이 만만치 않으니
당연히 원인제공자인 남자들이 세금을 내야 한다.”



폭력세 주장한 우르술라 글뤽(사진 열마)

남자들에게 폭력세를 물리자

최근 스위스 바젤의 여성정치모임이 들고
나온 주장이다. 남자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행사하는 각종
폭력으로 지출되는 정부돈이 만만치 않으니 당연히 원인
제공자인 남자들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주장
이 제기되면서 바젤시 뿐 아니라 스위스 전역이 이 문제
를 놓고 한바탕 말이 많았다.

언론들은 '성에 따라 도식적으로 고안된 일방적 돌출
행동', '새로운 형태의 돈 강탈'이라며 흥분했고 '그렇다
면 월경세를 물리자'는 역풍도 나왔다. 그러나 이 제안을
한 여성정치모임의 우르술라 글뤽을 비롯한 당찬 여성들
은 '남성폭력세가 합리적인 이유'를 확실하게 지적하며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았다. 스위스 여성 1,500명을 대상
으로 한 신빙성있는 조사 결과에 의하면 남자와 함께 살
고 있는 스위스 여성 다섯명 중 한명은 사랑의 이름 아래
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게다가 매년 4만명의 아이들
이 가정에서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다. 집 밖에서 무수
히 일어나는 강간, 성적 학대, 신체상해, 폭행치사, 살인
등은 또 어떤가? 스위스의 경우 알려진 총 폭력범죄는
91년 이래 3분의 1이나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이 범죄들이 거의 대부
분 남자에게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처리에 막대한 예
산지출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경찰과 법

원 조직의 운영에 드는 돈, 의료치료비용, 교도소 운영비,
경제활동 손해 등등... 1994년 뉴질랜드에서 실시된 한
조사에 의하면 가정내 남성폭력 하나 때문에 정부가 매년
지출하는 돈의 액수가 총 양모수출액과 맞먹는 20억 마
르크 이상이라는 것. 미국의 경우에도 남편의 아내구타는
정부의 의료분야지출에서 가장 주요한 원인들 중의 하나
로 지적되고 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폭력을 써본 적이 없다. 그러
니 나는 폭력세를 물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
이는 남자가 적지 않을 듯한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
게 풀어야 할까? 우르술라 글뤽은 이 문제에 대한 대답도
철저하게 준비해놓고 있다. "그들 역시 남성중심적 권력
구조에서 이익을 보고 있다. 남성폭력은 권력의 안전화를
기하기 위한 한 수단이다. 폭력을 쓰면 안쓰면 모든 남자
에게 폭력은 결과적으로 이익을 주고 있다."

성폭력범죄 발생율이 세계 2위라는 우리나라, 남편의
폭력은 '일상적인 가정사' 줌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 한국
이란 땅에서 만약 남성폭력세를 도입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골치 아픈 재정문제가 단박에 해결되고 남
아도는 예산처리에 행복한 골머리를 앓게 될 것 같으니
국세청이나 재정경제원 나오리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
각해보심이 어떠할지. [1]

미국 여배우 셰어, 동성애자 딸과 대담

김신명숙

한창 시절 술한 남성편력으로 화제를 뿌렸던
셰어도 처음엔 보통 어머니와 다름없는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였다

영 화 <문스트릭>으로 우리 젊은층에게도 잘 알려
진 미국의 만능 엔터테이너 셰어가 최근 동성애
자인 딸과 동성애자 잡지인 '에드보케이트Advocate'에
서 대담을 나눴다. 현재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해 활발
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셰어의 딸 채스티티 보노가 한 대
중잡지에 의해 레즈비언임이 알려진 것은 지난 90년. 그
때만 해도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의 편견이 매우 심할
때여서 그녀는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입어야 했다. 한창
시절 술한 남성편력과 거리낌없는 태도로 마돈나 못지 않
은 화제를 뿌렸던 셰어도 처음엔 보통 어머니와 다름없는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딸의 편에 서 있다. <실크우드>란 영화에서 레즈비언 역
을 하기도 했던 그녀는 동성애자들이 두번째로 좋아하는
'스크린 레즈비언'으로 뽑히기도 했다.

보노의 아버지는 셰어와 함께 '소니 앤 셰어'란 듀엣으
로 연예활동을 시작했던 소니 보노. 그러나 이들은 딸 채
스티티를 얻은 후 이혼했고 셰어는 이후 솔로로 독립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딸과의 대담에서 셰어는 딸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이
잡지에 처음 폭로됐을 때의 느낌을 "마치 메카시 선종 아
래서 좌파가 느꼈을 법한 두려움이었다"고 표현했다. 하
지만 현재 그녀는 모든 혼돈과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레즈비언을 무엇보다 한 인간으로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도 젊은 시절 한때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진 일이 있으나 일시적 감정적인 것이었다고 털어놓기
도 했다.

마지막으로 동성애자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
냐는 딸의 질문에 셰어는 이렇게 대답했다.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성실하게 따른다는 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가장 어렵고 가장 보람있는
일이기도 하지. 자기대로 사는 게 항상 좋은 평을 듣는 것
은 아니야. 그건 내가 나보다 더 잘 알지. 나는 양면을 다
알고 있어. 내가 나 자신에게 충실했을 때 대중의 인기를
얻은 적도 많았지만 반대로 잃은 적도 많았거든." [2]

미국 영화배우 셰어(위)
아래의 사진은 셰어의 딸 채스티티 보노(오른쪽)와
여지친구 로라 라마스트론(왼쪽).
(사진 열마)



뚱뚱한 여자들 "내 멋대로 살겠다" 선언

김신명숙

직장생활에서 뚱뚱한 사람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
뚱뚱한 사람은 항상 아프다는 식의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의학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함 부르크에 사는 올해 32세의 독일여성 군드룬
볼라브(Gudrun Wohlrab)은 뚱뚱한 사람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비하에 대해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
다'고 반기를 들고 나섰다. 물론 그녀는 매우 뚱뚱하다.

"나는 그냥 생긴대로 있고 싶어-나는 그래도 돼!"
사회교육을 공부하는 학생인 군드룬의 방에 걸려 있는
플랫카드에 쓰인 문구다. 이 문구는 그녀가 95년 11월 조
직한 <뚱뚱이 협회>의 모토이기도 하다. 남성에게도 열려
있는 이 협회의 회원수는 현재 5백여명. 이들은 힘을 합
쳐 뚱뚱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의 잘못된 인식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뚱뚱한 사람이 남
친한 사람보다 꼭 밥을 많이 먹지는 않는다는 것, 소위
'정상체중'보다 20~40% 더 나가는 사람은 이상적인 체
중을 가진 사람보다 오히려 더 오래 산다는 것, 다이어트
는 병을 유발시킨다는 것 등을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중
이다.

군드룬과 회원들은 5월 6일을 '반다이어트의 날'로 정
해 다양한 행사를 벌이기도 했다. '다이어트는 여성적대
적'이라고 얘기하는 군드룬은 그날 자신의 저울을 공개적

뚱뚱한 사람에 대한 사회의 편견에 대해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라고 반기를 든 군드룬 볼라브(사진 옆).



으로 쓰레기통에 내던져버렸다. 60년대만 해도 모델들의
몸무게는 평균적 여성보다 8%가 적었으나 요즘은 무려
20%가 적다는 것이다.

뚱뚱이 협회의 활동은 살찐 사람들이 직업세계에서도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 아래 법적인 대책에까지 미치고 있
다. 지난 3월 제1회 전국모임을 개최한 이들은 이 모임에
서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내세웠다. 뚱뚱한 사람에 대한
반차별조항을 헌법에 삽입시킬 것, 직장생활에서 뚱뚱한
사람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 뚱뚱한
사람은 항상 아프다는 식의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의학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등등.

군드룬이 처음부터 이렇게 용감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
녀 역시 살을 빼기 위해 이런저런 책을 찾아 읽고 비만인
들을 위한 자조모임들에 참여했었다. 그러던 그녀가 '발

상의 대전환'을 하게 된 것은 미국과 영국의 뚱뚱이 운동
에 대해 알게 되면서부터. 그들로부터 '비만의 원인은 대
개 유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그때부터 '뚱
뚱한 자신'을 받아들이는 한편 사회의 차별에 대항해 싸
우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생각을 바꾼 이후로' 군드룬은 행복하다. 뚱뚱한 여성
으로서의 자신을 자각한 뒤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낸 많
은 일들이 그녀는 자랑스럽다고 한다. 뚱뚱이의 인권을
위해 벌인 눈부신 활약덕에 96년말에는 '전면뚱뚱여성그
룹'으로부터 '올해의 뚱뚱이 활동가' 상도 받았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뚱뚱임에도 '불구하고' 바쁘고 활
기찬 삶을 살고 있는 그녀.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봄이 있나니. **II**

복싱계 강박할 '장미폭탄'

유은경(자유기고가).

"권투를 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야구를 한다고 말했을 때도
똑같은 말들을 하곤 했죠."

미 국 실버 스프링 아모리의 공식체중계측을 기다
리는 열두여명의 선수 중에서 눈길을 끄는 한명
의 여자선수가 있다. 프로권투에 입문하기 위해 계측을
받으려는 로즈 존슨 선수가 그녀다. '장미 폭탄'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그녀는 대기 선수 중에서 유일하게 향
수를 뿌리고 있었고, 분홍색 립스틱과 분홍색 아이레도
우. 그리고 가슴을 가리는 짧은 운동복도 걸쳤다.

일생동안 운동선수였던 그녀는 거대한 남자를 틀에 혼



포즈를 취하고 있는 로즈 존슨(사진 뉴욕 타임즈).

자 끼어있는 여자라는 사실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

"권투를 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라고 이
제 33살이 된 존슨은 말한다. "하지만 내가 야구를 한다
고 말했을 때도 똑같은 말들을 하곤 했죠."

많은 권투선수들과 달리, 존슨은 거리에서 권투를 시작
한 것이 아니다. 그녀는 부랑아가 아니라 운동선수였다.
운동은 언제나 존슨의 삶의 중요 이벤트였으나, 처음부터

운동선수가 될 마음은 없었다. 대학 졸업 후 그녀가 한 일은 저당은행의 회계감사원, 부자회사의 재정기획자, 그리고 재정자문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녀는 이 '과열 경쟁'을 그만 두고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스포츠로 돌아가기로 했다.

미국 여성권투는 지난 몇년간 그 인기가 급성장했는데, 포스터 걸 크리스티 마틴이란 여성권투선수가 주요 공헌자이다. 그녀는 작년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지의 커버스토리로 다루어졌으며, 최근에 흥행사 돈킹과 계약을 맺었다. 1993년에 설립된 국제여성복싱연맹은 이제 40개의 나라에 1,000명 이상의 선수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타이슨과 홀리필드의 게임전에서 치루어진 크리스티 마틴과 베타니 페인의 여성권투경기가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존슨의 코치인 무니는 그녀가 체육관 문을 열고 들어와 '크리스티 마틴처럼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을 때 '권투를 하기엔 너무 예쁘니 차라리 모델을 하지 그래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이력서를 보고는 두말없이 그녀를 받아주었다.

이제 그녀는 흥행사와 계약을 맺고, 그녀의 모든 게임 일정은 텔레비전으로 방영될 것이다. 권투초보자들의 게임이 텔레비전으로 방영되는 것은 여성이기에 가질 수 있는 특권 중의 하나다. 같은 수준의 남성선수들에 비해 대 전료도 높다. 물론 최고 수준의 남성선수들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존슨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오직 승부에 관한 것뿐이다.

'폭탄'이라는 별명에 대해 묻자 존슨의 얼굴이 붉어졌다. "사람들이 날 그렇게 불러요. 그건 외모가 멋진 여자들을 부르는 말이지요. 난 근육으로 뭉쳐졌고 힘도 세지요. 하지만 아직까지 하이힐을 신을 순 있어요." **11**

사랑과 질투를 한몸에 - 여성투우사

유은경(자유기고가)

"투우장에 여자라니, 마치 여자 교황이나 유대인 집회의 돼지고기 같은." 한 노인이 분노를 토했다. 그는 아마 여성의 본연의 자리는 부엌과 침대라고 생각할 것이다.

주역투우사 크리스티나 산체스가 소의 피로 물든 금빛 옷을 입고 멋진 자세로 우뚝 선다. 소를 노려보는 그녀는 여느 투우사와 다를 바 없다.

마드리드의 라스벤타스 광장에서 피에 젖은 황소를 노려보고 있는 사람은 영웅적인 남성이 아닌 20대 중반의 작은 여성이다. 여성이 검은색 황소를 죽이는 전통 파괴



주역투우사 크리스티나 산체스의 투우 장면(사진 더 선데이 타임즈 매거진).

의 광경을 지켜보는 2만6,000 관객들의 함성 사이에는 골수 투우팬들의 분노가 같이 묻어 있다. "투우장에 여자라니, 마치 여자 교황이나 유대인 집회의 돼지고기 같은." 한 노인이 분노를 토했다. 그는 아마 여성의 본연의 자리는 부엌과 침대라고 생각할 것이다.



크리스티나 산체스(사진 더 선데이 타임즈 매거진)

황소가 쓰러지고 크리스티나가 이제껏 여성이 무우계에서 받아본 적이 없는 최고의 영예—소의 귀를 받고 군중들이 그녀를 떠받쳐 자유의 위대한 문을 지나는 것—을 받을 때에도 남성무우사에게는 감히 말할 수 없는 모욕의 말들이 떠돌았다. 사실은 스페인의 남성기백이 당황하고 화가 난 것이다.

무우의 사회인류학적 의미를 연구하는 홀리안 피트리 버스는 무우가 스페인 남성들의 동성애와 양성애 사이의 갈등을 나타낸다고 단언한다. 무우가 진행되면서 무우사는 점점 더 남성적으로 되고, 힘없이 죽어가는 소는 애초의 남성다움을 잃고 여성스럽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성이 그 무우사의 역할을 해버렸으니 스페인의 남성 자아가 썩어버린 것이다.

크리스티나 산체스는 하나의 모델이 되어 수많은 스페인 소녀들이 무우학교를 지망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무우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남자와 다를 바

없이 아주 간단하다. 답답한 실내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좋기 때문이라거나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무우장을 다니면서 흥미를 느꼈기 때문 등이다. 어쨌든 그들은 성별의 차이가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장애가 될 수 없고, 또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믿는 새로운 스페인에서 자란 것이다.

전직 무우사였던 어떤 여성은 크리스티나가 남자처럼 싸우며, 여성의 독특한 우아함과 선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그러나 '무우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류리엘 페이네는 이에 반박한다. "우리가 여성 작가나 화가에게 여자처럼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냐요? 좋은 무우와 나쁜 무우의 구별만 있을 뿐 이죠."

현재 스페인에서 뛰어난 활동을 보이는 여성무우사는 크리스티나를 포함해 4명이며, 여러 무우학교에서 100명 이상의 소녀들이 그들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1]



이슬람의 젊은 여성이 전통적인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성장을 한 모습.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노출을 막는 큰 머플러, 히잡은 몇해 전 이슬람 여성들의 인권문제가 대두되면서 벗어던져야 할 여성 억압적인 의상으로 전세계에 알려졌다. 실제

로 사회가 개방되고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늘어나면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여성들의 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히잡은 여성들에게 있어 필수적인 뿐 아니라 히잡 착용을 만족해 하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은 흥미롭다.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히잡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필자는 이집트국 카이로에서 기혼 무슬림(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일컬음) 여성 102명을 대상으로 개인면담방법을 통해 여성들의 히잡 착용과 그 만족도를 조사한 바 있다.

면담 결과 무슬림 여성 중 히잡을 착용한 여성은 57.8%에 달했다. 그중 2.30대 여성들은 반수 정도만이 히잡을 착용했지만 40대는 72.2%, 5.60대는 100%에 가까운 여성들이 히잡을 착용하고 있었다. 젊은 층의 여성들이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있지만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전체 여성의 93.1%가 히잡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변을 했고 2.30대 여성들의 만족도도 92%로 높게 나타났다.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것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이 차림새가 불만스럽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흥미로운 사례가 있다. 이집트의 주간 영자

신문인 『알-아흐람』지는 1996년 5월 23일자에서 히잡과 니캅(눈밑에서부터 베일을 내려 얼굴을 가리는 의상)에 관한 이집트 고등법원의 판결을 발표했다. 즉 교사가 여학생들에게 히잡이나 니캅 착용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었다. 이 판결은 1994년 교육성 장관이 학교에서 여성들의 니캅 착용을 금한다는 결정을 내린 뒤에 이의가 제기되어 고등법원에까지 상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이 있은 후에도 여전히 여학생들이 머리 끝에서 발 끝까지 검은 외투를 걸치고 눈을 제외한 얼굴까지 가린 채 학교에 등교하는 광경은 사라지지 않았고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이슬람 여성들이 왜 이렇게 베일에 가리워진 생활을 고수하고 있는지는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슬람 국가들의 절대적인 신앙심이 이슬람 여성들로 하여금 그러한 옷차림을 고집하게 하는 지도 모른다. 그리고 덧붙여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여성 몸에 대한 남성들의 시선이 억압적으로 느껴질 때 이슬람 여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복장은 그런 시선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주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슬람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반나체 가까운 노출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자신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질 논지도 모를 일이다. [2]

'히잡'을 고수하는 이슬람 여성들

정선희(카이로대학교 아시아연구센터 객원연구원)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히잡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우 리에게 '차도르'라고 알려진 이슬람 여성들의 복장은 사실 '히잡'이라고 불려야 더 정확하다. 차도르는 이란어로, 이슬람 여성의 복장 중 하나인데, 이슬람 경전인 코란은 아랍어로 쓰여져 있고 여타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 여성의 복장에 대한 명칭도 코란에 쓰여진 아랍어 원어 그대로를

웃자!

오이가 남자보다 좋은 이유

1. 오이는 당신의 욕심을 지저분하게 만들지 않는다.
2. 오이는 몇개든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다.
3. 오이는 누가 봤을 때 냉장고에 숨겨두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4. 오이는 먹고 싶은 마음이 들면 먹을 수도 있다.
5. 오이는 아무 때라도 차버릴 수 있다.
6. 오이는 길이가 평균 14.7cm는 된다.

7. 오이는 일주일 넘게 시들지 않는다.
8. 오이는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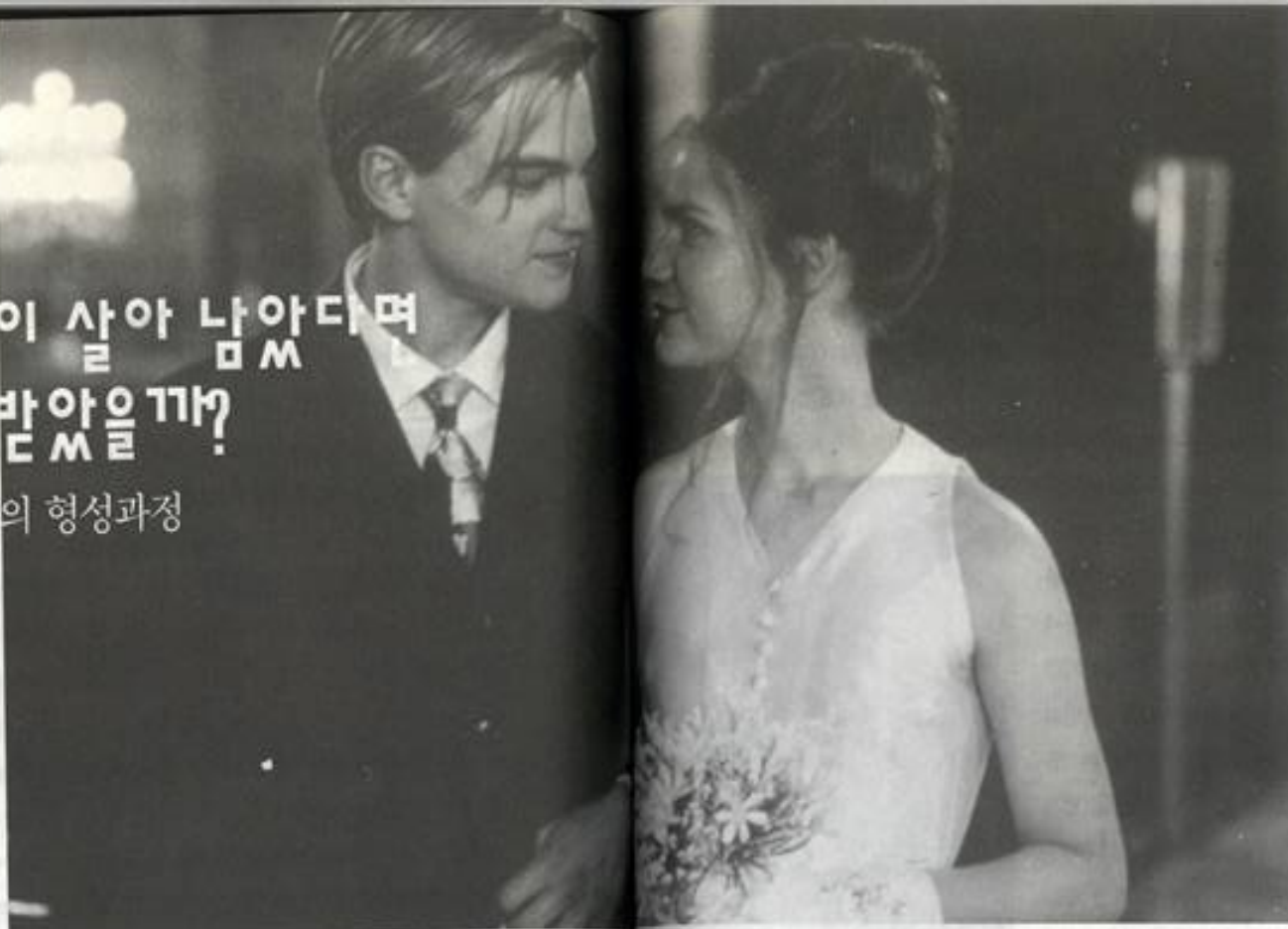
공부가 섹스보다 좋은 점

1. 일찍 끝난다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2. 커피 한잔 외에는 아무런 도구가 필요 없다.
3. 최고조에 올랐을 때 부모님이 방문을 열어도 한점 부끄럼 없이 멋있다.

로미오와 줄리에이 살아 남았다면 부부로 인정을 받을까?

근대적 결혼과 결혼법의 형성과정

사랑이란 믿을 만한 것이 못되기에
결혼제도를 통해 남녀를 묶고
사회적 기초로서 안정시키자는
것이 근대적 결혼 법률의
정신이다.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은
입법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최근 개봉했던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결혼장면.

결혼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결혼식은 또 무엇이고
혼인신고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적어도 단순
히 사랑하는 두 사람이 평생을 반려자로 같이 하겠다고
약속하고 함께 사는 일은 아닌 것이 확실하다.

혼인신고엔 '사랑'이 필요없다?

예식도 신고절차도 없이 함께 사는 것은 당사자들의 생
각이 어떠한 결혼과 구별하여 흔히 '동거'라고 이야기
되지 않던가. 여하튼 점차 '사실혼' 관계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남들하는 대로'를 거치
지 않은 관계는 사회의 관습적인 압력에 의해서든, 아니
면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법적 지위와 같은 문제에서,
또 재산을 상속하고 보험금을 타며 세금 내고, 가족수당
을 받는 문제에서까지 많은 불이익을 겪게 마련이다. 그
런 면에서 결혼은 두 사람의 사적인 관계를 넘어선 하나
의 사회제도이며, 결혼가능연령,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절차 등등이 모두 법적인 규정을 받는다.

혼인 신고를 하는데 "두 사람이 사랑하십니까?"라고
묻는 칸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사랑이라는 게 뭔지 결
혼이라는 게 도대체 어떠한지 하는지에 대해 각 사회가
내리고 있는 정의에 따라 법률적인 내용도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서양사회의 다른 많은 법률과 마찬가지로 결혼에 대한
법률도 고대 로마시대에 기초가 수립되었다. 로마황제인
그라티아누스(Flavius Gratianus: 재위 375~383)에
따르면, 유효한 결혼이란 (1)육체적인 결합이 (2)남편과
아내로 살겠다는 선언과 함께할 때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후의 교회법 학자들은 그 선언을 미래시제나, 아니면
현재시제나로 구별하여 현재시제, 즉 지금 살겠다는 의지
의 표명이라면 육체적 관계 없이도 혼인이 성립하는 것이
며,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러리라는 미래시제가 사용되
었다면 이미 육체적 관계가 있었어야만 효력이 성립한다
고 해석하였다. 어쨌든 당사자 두 사람의 동의가 결혼의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이라는 것이다.

중세 이전엔 결혼은 쉽게, 이혼은 불가능하게

이는 중세에까지도 이어져서 교회법상으로 결혼하겠다는
약속은 결혼과 다름없는 구속력을 지니는 것이었으
며, 더욱이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다면 이는 풀이될 수 없
는 것이었다. 종교법정은 두 사람 이상의 목격자를 증인
으로 세울 경우, 이러한 '결혼약속'이 이후에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심지어 장기간 지속되어온 '결혼'
조차 무효화 할 수 있다고 판결하곤 하였다.

장래를 약속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결
혼의 핵심으로 본 것이지, 결혼의 형식은 중요하게 보지
않았다. 흔히 결혼약속은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 후,
교회에 와서 다시 서약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약속 이후
에는 결혼한 부부와 마찬가지로 서로를 '알 수 있는' 특
권을 누리는' 경우가 많았기에, 결혼과 거의 동일한 구속
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가톨릭 교회는 결혼을 인간의 육육의 해독제가 될 수
있는 처방전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은 쉽게,

그러나 이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놓았던 것
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형태의 결합이 사회적·법률적으
로 인정받는 '결혼'인가. 개인간의 결혼 약속이나 사실상
의 혼인관계, 또는 대중의 인정을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비밀결혼'과 구별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일까.

근대에 접어들면서 개신교와 가톨릭 교회내의 개혁파
들은 모두 성경을 달래기 위해서 결혼한다는 교회법상의
결혼관을 비판하면서, 그 대신 결혼은 "고독을 이기기 위
한 영적이고 신앙적인 동반자를 구하는 것"이라는 견해
를 내세웠다. 결혼이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사회에 귀감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동반자로서 살아가야 할 당사자들의 견해가 무시된 '강
제결혼'에도 반대했지만, 부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결혼에도 강한 반대를 표명했다. 후자는 종종 이성보다는
정욕에 의해, 예지보다는 충동에 의해 결정되기 마련이라
는 것이다. "뜨거운 사랑은 곧 식게 마련이고, 두 사람 가
운데 한 사람이 결혼을 부인하고 부당하게 새로 결혼을
하여 평생을 간음으로 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
라서 증인이나 지인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결혼은 위
험하다"고 당시의 한 저자는 적고 있다. 결국 종교개혁가
들은 '비밀결혼'의 정의를 그 이전 시기에 증인이 없는
결혼으로 보던 것과는 달리,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결
혼으로까지 확대해석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결혼은 비밀결혼이었다

비밀결혼이라고 하면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싶지만, 가
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예로 로미오와 줄리엣을 생각하
면 된다. 줄리엣이 14살이고 로미오가 그보다 좀 나이가
먹었으니, 둘 다 미성년이었던 이들은 로렌스수사의 집전
으로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설사 이들의 집안
이 암숙지간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인 자녀들이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면, 일단 그 부모나 집안에서 필필 뒤엎을 것임은 짐

작하기 어렵지 않다.

16세기 중엽에 들어서면서 서유럽 전체에서 이같은 비밀결혼에 대한 반대의 움직임은 거세어져서, 각국의 정부도 비밀결혼을 억제하고, 결혼을 세속법정의 관할에 두기 위한 법령을 잇달아 제정했다. 로마 가톨릭의 트렌트 공의회(1545~1563)는 모든 결혼 약속을 인정하던 것에서 양보하여 결혼약속이 구속력을 가지려면 성직자가 증인으로 서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프랑스는 1556년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결혼한 자녀는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왕령을 공포했는데, 이 경우에도 결혼약속이 육체적 관계와 동거로 이어진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과거의 영향력이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밀결혼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공격

세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이 처음 출간된 것은 16세기말인 1597년이고, 그 때대가 된 시집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적 이야기』(세익스피어가 참된 사랑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육체적 이끌림'의 위험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한다)가 그 보다 이른 16세기 중반에 나왔으니, 바로 비밀결혼에 대한 논란이 일던 그 시기인 셈이다.

영국의 경우, 비밀결혼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것은 1540년 헨리8세 때였다. 영국의 의회는 교회법이 많은 '적법한 결혼들'을 의구심에 쌓이도록 하며, '합법적인 상속인들'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근거로, 결혼약속이 성교로 이어지지 않은 한, 이후 결혼의 장애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바로 몇년 후에 드위드4세가 즉위하면서 결혼약속에 관한 법률이 당사자들이 스스로 한 약속과 서로간의 신뢰를 파괴하도록 조장한다는 이의가 제기되었다. 엘리자베스1세에 이르러 결혼약속은 법률적 효력을 완전히 되찾았으며, 교회법정은 여전히 결혼약속을 인정하고 결혼으로 강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은 영국혁명 후 공화정시기인 1653년에 '결혼에 관한 민법'이 제정되어 결혼에 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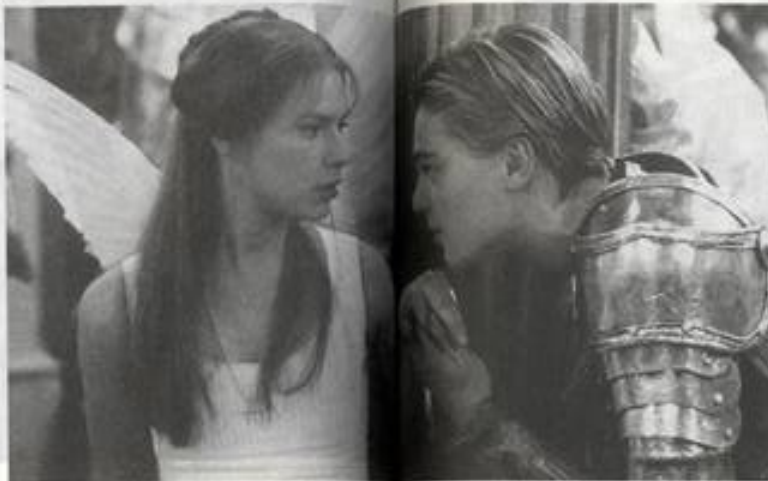
법률적 관할이 교회법정에서 세속법정으로 이양되고, 만 21세 미만인 자가 부모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결혼을 하는 경우 중형에 처하게 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1660년 왕정이 곧 복고되자 이 법률은 효력을 잃게 되어 비밀결혼은 여전히 인정되었다.

더군다나 이 시기에 이르러 빛을 지고 채무자감옥에 갇혔다가, 가출옥하여 런던의 플리트 지구에 주거제한을 받은 성직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결혼을 주재해주는 '플리트 결혼'이 악명을 떨치게 되었다. 신앙 신부 가운데 하나가 한달 이상 살고

있었던 곳에서 결혼공고를 내고, 허가를 얻어 이루어지는 결혼만이 적법한 것이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결혼할 수 있는 장소는 런던에만도 여러 곳이었다. 다른 한편 돈과 작위를 목적으로 한 결혼과 당시 만연했다고 하는 도덕적 문란함 등은 또 다시 개혁가들로 하여금 결혼의 신성함을 수호하는 일에 나서도록 했다. 당시 한 극작가는 "오정어진(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남편이 되는 것은 모든 남편들의 운명이다... 남편보다 피가 있는 여성이라면 남편을 속여넘길 것이고, 그럴 피가 없는 여성이라면 남편 아닌 남자에게 속아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한탄하며 혼외관계를 우려했던 것이다.

드디어 '비밀결혼방지법' 제정

결국 1753년 영국 의회는 열면 논쟁 끝에 '비밀결혼을 더 잘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었다. 16세기부터 지속되어온 개혁자들의 주장이 끝내 실현됐고, 반면 교회법정은 이제 그 힘을 잃게 되었다. 이 비밀결혼방지법안의 내용을 보면, 결혼은 결혼공고를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 횟수 이상 일반에게 게재한 후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했다. 혼인가능연령이 정해졌고, 만약 법적 성년이 되기 전의 남녀가 결혼할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리잡게 된 결혼형식은 현재 서양의 일반적인 결혼형식이나 심지어는 한국의 민법

이 정하는 결혼의 요건과도 그 뼈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혼 형식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며, 특히 당대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당시 '비밀결혼을 더 잘 방지하기 위한 법'의 제정을 둘러싼 논쟁에서 우리는 근대적 결혼 형식이 무엇

을 의도했는가를 짐작해볼 수 있다. 이 법을 제정하는 데 찬성한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좋은 집안의 상속녀나 상속자가 때로는 사악한 의도로 고의로 접근했는지도 모르는 미천한 출신의 매춘부나 사기꾼에게 유혹당해 비밀결혼에 빠진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봐왔는가?"라면서, "혈기 방장한 젊은 이들이 자신들의 뜨거운 피와 정열이 시키는 대로 쫓아, 거기에 반하는 어떠한 규제도 거부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엄숙하고 근엄한 신사들이 대중의 이익에 봉사해야 할 법률을 어두운 음모에 빠지게 하고, 당리당략만을 좇아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이 "사랑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결혼을 타산에 기반하도록 하는 것이며, 사랑밖에 가진 것이 없는 젊은이들이 자신보다 부유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음모"라고 공격했다. 비밀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결혼하는 절차에 장애물이 너무 많아 생겨나는 것이므로 새로운 법안은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비밀결혼을 조장하고 결혼을 통해 해소될 수도 있었을 것

은 열정을 더 나쁜 탈선으로 이끌거나 사랑에 기반하지 않은 결혼으로 인해 더 많은 간음을 조장하리라는 주장이었다. 또한 "어차피 한사람의 생계비를 벌기에도 급급한 빈민들이 사려깊게 생각하여 심사숙고한 후에도 결혼을 하거나 불가능한 일"로서, "젊은 한때의 열정만이 그들의 결혼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인데, 결혼 절차를 복잡하게 한다면 결국 하층계급은 결혼과 재산상에서 멀어지려 하는 것"이었다.

매우 달라 보이는 이들의 주장은 사실 자세히 귀기울여 보면 근본적으로는 같은 내용이다. 결혼이란 평생을 같이 할 결합이라는 동일한 근대적 관념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젊은이들의 사랑이란 식개 마련이란 같은 전제 하에, 법제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젊어 한 때'인 사랑으로 인생 망치게 할 수 없으니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이고, 그에 반대하는 측은 그나마 '젊어 한 때'인 그 사랑으로 결혼이라는 테두리에 잡아 가두는 편이 모두에게 좋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잠시 뒤가 썩어서' 하지 않으면 사회 하층은 더더욱 결혼과 멀어질 것이며, 그것은 사회질서에 득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기도 했다. 그리고 보면, 법률적인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이나 개인간의 약속이란 믿을 만한 것이 못되니, 어떻게 사회의 기초단위로서의 가족을 안정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강제되기 시작했다.

근대 '자유' 결혼은 계급 초월의 '자유'를 박탈했다

18세기에 이르자 결혼 연령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렇듯 늦어지는 결혼은 젊은 남녀로 하여금 부모의 뜻에 못이겨 원하지 않는 상대와 결혼하지 않아도 될 자유, 즉 배우자를 선택할 자유를 확대시켜 주었다. 그러나 그러한 근대적인 결혼관이 확립되는 그 순간부터 그 자유 자체는 공격을 받고 있었다. 강제결혼도 아닌, 그러나 재산과 신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지도 않을 그러한 결혼,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느냐가 근대적인 결혼법의 취지였던 것이다.



당신은 어떤 친구인가?

이제 이가 제시하는 테스트를 통해 당신이 어떤 종류의 친구인가를 알아보자.

A는 위기의 순간에 언제나 곁에 있다. 애인이 당신을 버렸거나 유방암검사 결과가 당신을 조바심나게 할 때 그녀는 언제나 따뜻한 배려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B는 언제나 당신에게 끈을 연결하여 준다.

멋진 남자를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완벽한 스카우트 담당자를 인사시키기도 한다.

C는 필요한 순간엔 언제나 없다. 거의 언제나. 하지만 둘이 만나면 몇시간이고 편하게 수다를 떨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우정이 있고, 우리 모두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친구가 될 수 있기에

당신이 어떤 유형의 친구인지 알아낼 수 있다. 아래 테스트를 통해 당신이 어떤 식으로 우정을 꾸려나가는지 알게 되면 당신의 친구관계에서 장점을 이해하고 약점을 보강할 수 있을 것이다.

— 편집부

결국 법안은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의회 밖 평민들의 저항도 상당한 기간을 두고 계속되었다. 평민들이라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나, 새로운 절차로 인한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무엇보다 사실혼 관계와 법적인 결혼의 지위를 크게 구분하지 않던 그들의 관습과는 맞지 않았던 것이다(지금도 법적 결혼을 하지 않은 부인을 '관습법상의 아내(common law wife)'라고 한다).

이 시기 잉글랜드에서 전래되는 금기를 살펴보면, 자신의 결혼공고를 들은 여인이 낳은 아이는 병어리나 귀머거리가 되리라는 내용이 있었다. 결혼에 의해 오고 갈 작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도 상대적으로 적었던 평민들은 이제까지 그들의 관습법을 국가의 법령과 마찬가지로 존중해왔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기부터 시작된 근대적인, 곧 부르주아적인 결혼풍습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 새로운 결혼법이 당장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평민들이 결혼 전의 성관계나 임신에 대해, 그전과는 달리 수치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증거들이 있다. 국가와 법률이 개인들 사이의 관계를 그만큼 더 크게 규제하게 된 셈이다.

그에 비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근대적 결혼이 조혼과 재혼금지 등 봉건적 인습을 타파한 진보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왔을 뿐, 기존에 행해지던 결혼제도를 더욱 규제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법률적으로 사실혼 관계의 효력을 인정하자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약자인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차원에 그치고 만다. 물론 혼인 관계내에서 여성이 법률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여성들의 노력으로 끊임없이 개선돼왔으며, 결혼한 남녀의 생활의 내용 역시 크게 변화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미혼 남녀들이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결혼'이라는 것을 과연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한다. 그러나 그 고민은 대부분 기존의 결혼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인가 말 것인가에 그칠 뿐,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확대해가는 데에는

소극적이다.

사랑이란 믿을 만한 것이 못되기에 결혼제도를 통해 남녀를 묶고 사회적 기초로서 안정시키자는 것이 근대적 결혼 법률의 정신이다.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은 입법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이 사회,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라면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사랑관과 남녀관계에 입각한 법적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법적 결혼절차와 내용을 재검토하고, 법적인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개인들의 선택에 대해서도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말이다. 개인의 결혼문제에 대해 가장 진보적이어서 미혼모가 임신중에 장관에 임명되는 프랑스에서조차 최근 들어 세금과 수당, 보험금 등과 관계된 법률적 문제로 인해 긴 '동거' 생활을 청산하고 결혼을 하는 쌍들이 늘고 있다지 않은가. 하물며 사회적 편견이 완강한 우리 사회에서야 더 말할 필요가 없을 터에, 우리가 짊어보고 바뀌어야 할 것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싶다. [1]

백영경

서양사 전공. 결혼이나 사랑이 인생의 전부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법률로 맺어진 결혼의 구속성은 보통 잘못 맺어진 경우 일수록 더더욱 인생을 파우할만한 강도로 다가오곤 하는 것 같다. 어찌 피 법률로 정해진 결혼이 바라는 것이 개인의 행복이나 사랑의 보존은 아니겠지만 말이다. 두 남녀가 서로를 존중하여 인생을 함께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기로 약속하는 일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한 일이라고 해도, 과연 꼭 국가에 의한 법률적 승인을 받고 결혼생활을 내내 그 제도적 규정에 사달려야 하는가가 못내 의심스러웠다. 그래서 나는 서구의 근대적 결혼과 결혼법의 형성과정을 지켜보며 오늘 우리 사회 결혼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싶었다.



각 질문에서 가장 적합한 곳에 동그라미를 친 다음, 어느 항목이 가장 많은지를 기록하여 자신의 유형을 알아본다.

1. 당신을 가장 화나게 만드는 친구는?

- a. 당신의 접근을 거부하는 친구
- b. 당신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때 발끈하는 친구
- c. 변하려 들지 않고 당신과 함께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친구
- d. 약속 시간에 늦는 것 따위의 간단한 오해에 소리부터 지르는 친구
- e. 당신 인생의 가장 멋진 밤에 만 약속이 있는 친구
- f. 몇시간씩 전화해도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당신이 필요할 때 옆에 없는 친구

2. 그녀에게 새로운 친구가 생겨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었다. 당신이이라면?

- a. 배신감을 느낀다.
- b. 별일 아니다. 아마 활력 궁합이 아니었나 보다고 생각한다. 세상에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 c. 굴하지 않고 그녀와 둘만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공작을 벌인다.
- d. 뭐 어때?라고 생각한다.
- e. 받아들이고, 개월 때가 있으면 호텔 때도 있는 법. 언젠가 사태가 변할 것이다.
- f. 자살하거나 아니면 침입자를 죽여버릴 생각을 한다.

3. 때때로 나는 은밀히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든다:

- a. 이용당하는 것 같다.
- b. 언제나 친구들을 돕긴 하지만 약간 계산적이다.
- c. 약간 나서는 편이나 내가 아니면 누구도 주도권을 잡지 않는다.
- d. 생일을 생기기나 어려울 때 전화해주는 등의 살가운 면이 없다. 하지만 어때.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
- e. 언제나 사람들로 둘러싸여 내 시간이 없다.
- f. 무시당하거나 평가절하당하는 느낌이다. 우정은 절대복종을 요한다.

4. 당신의 친구들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당신의 능력은?

- a. 친구들의 문제를 진지하게 들어준다.
- b. 충고를 잘 한다.
- c. 친구들에게 활기를 준다. 친구들이 생각하고 움직이고 행동하게 만든다!
- d. 편안하고 쉽고 친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e. 자신의 삶을 잘 챙기면서도 친구들에게 관심을 잃지 않는다.
- f. 당신의 약점을 보이고, 사람과 관심을 받는다.

5.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는

- a. 종종 가족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 b. 당신을 웃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든다.
- c. 멋진 친구긴 하지만 당신처럼 강하거나 결단력이 있진 않다.
- d. 당신 인생의 위치에 따라 자주 변한다.
- e. 어린 시절 친구이거나 혹은 함께 정일과 활동을 공유하는 친구들이다.
- f. 당신의 깊숙하고 예민한 부분까지 이해한다.

6.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내가 제일 친한 친구에게 바라는 것은?

- a. 무제한적 사랑
- b. 유머 감각/주고 받을 수 있는 능력
- c. 신뢰—기꺼이 나와 함께 모험을 감수한다.
- d. 세대를 따랐으면 좋겠다/사소한 일에는 긴장을 푼다.
- e. 경제적으로 독립하기를 바란다—궁핍하거나 통제적이지 않기를.
- f. 어떻게 하면 그녀와 똑같이 될 수 있는지 그녀가 가르쳐주었으면 한다.

7. 다른 생에서 당신의 모습은? (사실을 말할 것!)

- a. 바텐더—당신은 주의를 집중하는 법을 안다.
- b. 유람선 관리자—당신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 c. 경영 최고 책임자—당신은 사람들을 관리에 능하다.
- d. 정치가—당신은 장황하게 떠벌일 수 있다.
- e. 노조 조직책—당신은 충정과 단결의 필요성을 믿는다.
- f. 슈퍼모델—끊임없는 확신 혹은 하나의 마스카라가 필요한 변혁이는 희식 안의 연약한 지아

8. 친구가 당신에게 조언을 구한다. 그러나 당신의 의견을 말하자마자, 친구가 말을 끊어버리고 혼자서 계속 이야기한다. 이럴 때 당신이이라면?

- a. 이해하고 그대로 있는다—필요하다면 몇시간이라도.
- b. 말관하지만 그렇지 않은 척 한다. 친구가 바란 것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라 단지 감정을 발산한 것 뿐이다.
- c. 더 크고 강하게 말한다. 당신이 해야만 하는 말을 그녀가 들어야 한다.
- d. 아무 생각없이 잠시 그녀를 내버려둔다.
- e. 악기의 반향판처럼 행동한다. 친구가 필요한 것은 그녀의 말을 소중하게 들어주고 그것을 부드럽게 돌려주는 것이다.
- f. 들어준다. 곧 당신의 문제를 이야기할 차례가 올 것이다.

9. 친구가 술에 빠졌는데 그 일을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당신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 a. "뭐가 잘못됐니? 신경쓰지마. 곧 괜찮아 질거야."
- b. "넌 도와줄 좋은 정신과 의사를 알고 있어."

- c. "주제넘게 나서고 싶진 않지만 난 널 사랑해. 뭐가 문제인지 말해주면 내가 도와줄게."
- d. "좋아, 네 문제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내 이야기나 하자."
- e. 별일 아니다. 만약 그녀가 말하고 싶으면 내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
- f. "무슨 일인지 말해줘. 친구는 모든 것을 나누어야 하잖아."

10. 아래의 것들 중 당신이 가장 스타일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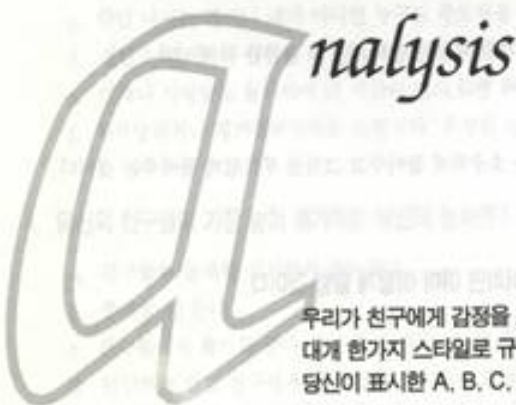
- a. 친구가 당신만을 믿어 그녀의 엄청난 비밀을 털어놓는다.
- b. 두 친구를 소개시켜주었는데 사랑에 빠졌다.
- c. 당신의 충고로 친구의 인생이 바뀐다.
- d. 이사벨라 로셀리니와 저녁을 먹는다.
- e. 당신을 위하여 깜짝파티를 열어주는 오랜 단짝 친구들.
- f. 친목회.

11. 당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난처하게 만드는 문제가 생겼다. 당신이라면?

- a. 혼자서 가슴에 묻고 가슴 아파한다.
- b.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구한다.
- c. 혼자서 끊임없이 생각하여 해결한다.
- d. 머리 속에서 그 생각을 몰아낸다.
- e. 아주 가까운 한명의 친구와 고백을 나눈다.
- f. 당신의 말을 들어주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한다.

12. 냉정히 생각할 때 대부분의 친구와의 관계에서 당신은:

- a. 베푸는 사람이고 돌보는 사람이다.
- b. 항상 친구들을 서로 소개시켜준다.
- c. 좀더 지배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이다.
- d. 재미를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계속 주의를 기울일 에너지가 없다.
- e. 좋은 친구관계를 유지하나 그렇다고 모든 것을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f. 언제나 당신이 필요한 만큼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가 친구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가지이지만,
대개 한가지 스타일로 규정할 수 있다.
당신이 표시한 A, B, C, D, E 그리고 F의 숫자를 헤아려본다.



A가 많은 당신은 구세주 스타일

▶특성: 당신은 사람들을 구하고 돌보는 큰언니 같은 스타일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곁에 있어 모든 사람의 곤경을 무비판적으로 들어준다. 당신은 병원이나 개인적 비극에 집을 먹고 도망가지 않는다. 당신은 따뜻하고, 관대하며 그리고 믿음직한 사람이다.

▶당신의 코드명: 공감共感

▶문제: 당신은 친구들의 문제에 포화상태이기에 종종 스스로는 고갈된 상태로 느껴진다. 또한 언제나 당신이 주는 것보다는 적게 받는다는 점에서 약간 화가 날 수도 있다. 당신은 불평을 하거나 개인적인 약점을 보이는 일이 거의 없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슬픔에 몰입하여 스스로의 슬픔을 잊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당신은 당신 자신만으로는 완전하게 느낄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위기가 당신을 완벽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은 아닐까?

▶결론: 만약 당신이 구세주라면, 당신은 친구들에게 소중한 사람이며 그들은 당신을 아낀다. 당신은 믿을 수 있고 언제나 옆에 있기에 친구들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며, 친구들은 그들의 사랑으로, 그리고 당신의 자부심을 지지하는 것으로 당신에게 보답한다. 가끔씩 기력이 떨어지는 당신의 자아는 당신이 얼마나 착하고 자기희생적인 사람인가라는 말을 들으면 회복이 된다(그리고 당신은 실제로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당신이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당신 스스로의 아픔을 나누고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멋진 친구관계는 한명이 언제나 위로하고 다른 한명이 언제나 위로받는 것이 아닌 공평한 관계이다.

B가 많은 당신은 책략가

▶특성: 당신은 재미있는 사람이며, 어떤 놀이에도 능하다. 당신은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 말을 옮기기도 좋아한다. 당신은 따뜻하고 야망이 있으며, 인맥이 넓으며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을 훌륭하게 적 맞추며, 친구들에게 종종 이익을 가져다 준다. 우정을 시작하는 사람도 대개 당신이며 우정을 유지하기 위한 대부분의 일을 하는 사람도 당신이다.

▶당신의 코드명: 네트워크

▶문제: 당신은 친구들을 성실하게 배려하지만, 깊은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그들에게 일생동안 묶여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때로 당신 친구들은 점심 대접을 하거나 단조로운 일을 할 때 넘겨짚는 말에 넘어가면서 당신이 그들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잊어도 그만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필요할 때만 속보이게 부러먹는다고 느낀다. 당신은 새로운 친구들에 열중하며, 오래 사귄 것처럼 보이나, 종종 당신의 관심은 재빨리 식어버리곤 한다. 당신은 '좋은 사람'과 '악아서 좋은 사람'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당신은 인간관계보다 앞선 '우선권'에 분노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 가장 나쁜 점은? 당신은 애지중지하는 '좋은 직업'이 없는 친구들을 참을 수 없거나 어쩌면 그들보다 우월하게 느낄 수 있다. 당신은 이성적으로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친구 역시 서로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매일 이런 속물 근성과 싸운다.

▶결론: 당신은 훌륭한 친구이다—재미있고, 스스로를 잘 표현하며 힘이 넘친다. 당신은 스스로의 비밀을 감추지 않으며, 다른 친구들의 깊은 생각 역시 표집어낼 수 있기에 친구들은 당신을 아주 가깝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비록 감시동원만이라도. 당신은 여자들이 서로에게 관대하고 상호우의나 사업상의 충고를 교환할 때 단순한 조직 이상의 끈끈한 친구가 된다는 것을 안다. 당신은 친구가 서로의 모든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만약 당신이 너무 바쁠 때 친구가 느낄 수 있는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좀더 이해한다면 친구들이 당신에게 화내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C가 많은 당신은 주도권 장악파

▶특성: 당신은 계획을 세우고 놀이를 결정하고 식당을 정한다. 한두명의 친한 친구를 제외하고 당신의 관계는 대개 일상적인데 왜냐하면 당신은 깊은 친밀감을 느끼기 전에 스스로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칭찬에 관대한 것처럼, 비판에 대해서도 몸을 사리지 않는다. 당신은 재치있고 설득력있고 바위처럼 믿을 만한 친구이다.

▶당신의 코드명: 지배

▶문제: 관계에서 한명이 스스로의 강인함이나 상대방보다 능력있음을 입증하려 할 때 그것은 지배의 문제가 된다. 만약 우정이 한명이 충고를 주고 다른 한명은 충고를 구하고, 한명은 실수를 하고 다른 한명은 비판하는 관계가 되면, 관계의 형평이 깨어지고 반목과 적개심만이 생겨난다. 한때 매력적으로 보였던 추진력과 강인함은 이제 친구에게 무자비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당신 또한 친구가 항상 당신에게 의존한다고 꿀을 낼 수 있다.

▶결론: 주도권을 장악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편해진다. 당신과 같이 있으면 당신이 모든 일을 하고, 우정을 지키고 항상 연락하고 결정을 하기에 안도감이 든다. 우정은 당신의 능력을 입증하고 칭송받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다. 당신 역시 당신이 하고픈 일을 할 수 있다.

D가 많은 당신은 쉽게 왔다 쉽게 가는 친구

▶특성: 당신은 거위처럼 풀려있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으며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당신의 달력은 약속으로 차있지만 더 좋은 약속이 생기면 언제든 변한다. 당신은 재미로 친구를 사귈다.

▶당신의 코드명: 아주 편안한

▶문제: 쉽게 오는 것은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것이고 믿을 수 없다. 당신은 당신의 친구가 마지막 순간에 약속을 취소하더라도 화내지 않는다. 이것은 당신이 야비하거나 심술궂어서라기보다 단지 약간 부주의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명칭한 일로 화를 내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없다. 왜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으면 안될까라고 당신은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면, 당신 역시 그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 그것이 공평하지 않은가?

▶결론: 쉽게 오고 쉽게 가는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는다. 당신에게는 수만가지 선택권이 있고 당신은 유쾌하지 못한 우정이라는 집에 속박당하고 싶지 않다. 당신과 같이 있으면 언제나 즐겁긴 하지만, 당신이 파티컬로 비취지는 한, 당신은 속으로 외로운 사람이며 당신 혼자 있을 때 가장 편안할 것이다.



E가 많은 당신은 유지비가 적게 드는 친구

▶특성: 당신은 우수한 친구로 언제나 적합한 일을 하고, 특별한 일을 기억하며, 중요한 때에는 언제나 옆에 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이 거기 있을 때에도, 종종 당신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당신은 어린 시절의 친구일 수 있으며, 당신의 관계는 지리적 거리에도 오랜 세월에도 변하지 않는다. 당신은 처음 만난 순간에도 영혼을 나누는 적이 된다.

▶당신의 코드명: 충성

▶문제: 지나치게 얼굴을 맞대는 관계는 당신을 불안하게 만든다. 유지비가 적게 드는 친구인 당신은 애정을 표현하고 유머를 나누기 위하여 편지, 이메일 그리고 전화 등에 의존한다. 때로 당신도 이것이 불만스럽다. 일과 가정으로 인한 시간제한은 당신의 마음이 함께 있는 친구와 보내는 시간을 줄여줄게 만들었다. 이러한 점이 유지비가 적게 드는 스타일이 아닌 절친한 친구들에게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서 만족스러운 우정의 일상성을 놓칠 수 있다.

▶결론: 관계가 정착된 유지비가 적게 드는 우정은 오래 남는다.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쏟아부을 필요도 없으며, 이 관계는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유지비가 적게 드는 친구는 친구가 전화로 농담 한마디만 하고 바빠서 전화를 끊더라도 화내지 않는다 (오히려 좋아한다). 한때 당신들을 묶어주었던 끈들이 사라진 뒤에도 새로운 연결고리가 나타나고 지속된다. 가까운 시기, 상대적으로 소원한 시기, 있겠지만 유지비가 적게 드는 친구끼리는 언제나 단박으로 남는다.

F가 많은 당신은 유지비가 많이 드는 친구

▶특성: 당신은 끊임없는 관심과 확인, 지지를 요구한다. 당신은 사람들이 보살피주지 않으면 상처받는다. 당신은 사려깊고 친절하지만,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당신이 친구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다.

▶당신의 코드명: 좀더

▶문제: 당신은 지나친 지원을 요구하여 다른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당신은 친구들이 당신을 더 나은 당신으로 변화시키고, 당신의 결점을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줄기 원한다. 친구에 대한 과잉 의존은 당신 자신의 판단과 독특한 개성의 발전을 방해한다. 다른 사람들이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하면 당신은 상처받는다. 친구가 치는 프라이버시의 장막이 거부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결론: 당신은 끊임없이 요구하기에 인생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신이 갈망하는 지지와 관심을 얻기도 한다. 당신이 만드는 관계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긴 하지만, 당신이 존경과 헌신을 바치는 친구들은 대개 당신을 사랑한다. 단 당신의 요구가 지나치게 습박하는 것이 아니라면.



A, B, C, D, E, 그리고 F가 적절히 섞여있는 당신은 전설적인 친구

쾅쾅! 당신에게 좋은 친구란 화로처럼 당신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당신을 격려한다.

▶특성: 당신은 우정이 어머니의 사랑처럼 모든 것을 허용하고 언제나 탄력있는 것이 아니라, 표면에 나타난 자아들과 반쯤 숨겨진 자아들의 상호 보살핌이 필요한 관계라는 것을 이해한다.

▶당신의 코드명: 균형

▶결론: 당신은 신뢰를 저버리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다. 당신은 우정이 매아리가 아니라 하나의 긴 대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정은 언제나 50대50의 거래가 아니며 누가 더 형편이 좋은가에 따라 상황이 바뀌기도 한다.

만약 당신이 전설적인 친구 스타일이라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이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준다면 나도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것이라고. **11**





새로운 문명의 이름 에코페미니즘!

감성과 영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가이아 佳瑛

이 난에서는 에코페미니즘의 이모저모를 풍부하고 깊이있게 소개하려고 한다. 아마 독자 여러분은 가이아가 전하는 지식의 샘물에서 에코페미니즘에 관한 모든 것을 파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의 여성의 몸을 살리는 여성주의 명상법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가이아는 말한다. 매일 조금씩 여기서 안내하는 대로 명상을 실천하면 황폐하고 매달라가는 여러분의 몸이 생기를 찾을 것이라고.

생명을 잉태하고 길러내는 여성의 몸은, 우리 삶의 터전이며 산업화로 인해 고갈되는 지구 생태계와 닮은꼴이라는 통찰이 확산되면서, 무한생명의 원천인 여성의 몸에 대한 관심이 여러면에서 고조되고 있다. 삼백년 전 종교와 과학의 이름으로 희생당한 마녀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오늘날 유럽의 여성들은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 생태여성주의)>이라는 각성을 통해 그들의 선조가 가졌던 날카로운 지성과 섬세한 감수성을 되살려, 과밀로 치닫는 자연과 사회의 생명을 회복하는 엄청난 원동력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그럼 에코페미니즘이란 대체 무엇인가? 혹자는 지식폭발의 시대에 또 하나의 관념놀이를 보태는 게 아니냐고 의심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에코페미니즘은 일시적인 유행사조가 아니라 기존의 관념놀이 전체를

대신하는, 그리고 대신해야 인류가 살아남을 '새로운 문명의 이름'이다.

에코페미니즘의 접두어 에코(eco-)는 회랍어의 오이코스(oikos), '집'이란 말에서 유래한다. 경제학(economy)과 생태론(ecology)의 어두에 나오는 에코도 모두 같은 맥락에서 출발하며, 따라서 경제학과 생태론, 이 두가지 분야는 모두 '집안살림'이라는 뜻과 관련이 있다. 두 분야의 차이가 있다면, 경제학은 인간 중심의 집안살림이다. 그러나 '인간'이라 하면, 공자님, 아니 공자님도 그 우를 범하셨듯, 사대부 출신 남장녀만 일컫는 게 문제임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 그에 비해 생태론은 여자를 포함하는 인간 모두, 그리고 인간을 포함하는 생명권 모두와 그들이 숨쉬고 사는 땅과 하늘, 바람과 물 모두를 아우르는 지구생명 중심의 집안살림으로, 이런 점에서 보면 경제학과 생



요즈음의 산업정책은
아예 밭 밑의 땅을 파서
각자의 무덤을 만들고
있는 꼴이다.
있는 땅에 농사를 지어
수확한 곡물을
먹고 살아야지,
그 땅을 팔아서 먹고 산다면
부자집 건달식의 살림살이는
머지않아 가다가 날 게
변한 이처다.

태론 사이에는 살림을 하는 '관점' 혹은 '마음가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오늘날의 경제학은 백여년 전에 성립한 것으로, 한마디로 '파산경제학'이라 말할 수 있다. 옛날에는 사람의 힘이 미약하여 자연에 입히는 약간의 손상쯤은 그때그때 치유할 수가 있었지만, 요즈음의 산업정책은 아예 밭 밑의 땅을 파서 각자의 무덤을 만들고 있는 꼴이다. 있는 땅에 농사를 지어 수확한 곡물을 먹고 살아야지, 그 땅을 팔아서 먹고 산다면 이러한 부자집 건달식의 살림살이는 머지않아 거덜이 날 게 변한 이처다. 재물을 생산하느라 자원을 파 쓰는 행위는 가치를 산출하는 게 아니라 자연이 이미 창조한 가치를 다른 양식으로 바꾸는 교환가치의 창출일 뿐이며, 이는 오직 자연과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할 때만 가능하다. 이런 잘못된 경제학의 개념을 철저히 바꾸지 않는 한 인류

의 미래는 자멸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

에코페미니즘은 가부장제의 역사 속에서 자연과 여성이 겪은 수난은 동일한 맥락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아울러 환경파괴의 일차적인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이라는 자각에서 출발했다. 자연과 여성, 어린이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생명의 원리, 살림의 원리가 다름 아닌 에코페미니즘의 정신이며, 이러한 정신을 요약하는 개념이 바로 대지의 여신/생명의 여신 '가이아의 회생'이다.

근대과학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프란시스 베이컨은, 정신과 물질을 확연히 구분하는 것으로 인식의 기초를 삼고 감성과 영성 같은 여성적 요소는 철저히 배척하였다. 과학의 진보에 대한 남성적 열망에 불렀던 대표적인 인물인 베이컨은 실험을 통한 과학기술로 대자연은 지배하리라 확신하면서, '하는 것이 힘'이라

하였으며 '자연은 마녀와 같아서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고문하고 괴롭힐수록 그 비밀을 토해낸다'고 주장하였다. 영국에서 1662년에 창립된 왕립학회는 소세지 아니, 베이컨의 진취적 이상을 열렬히 추앙하며 그의 비전을 실현하는 조직으로 발전했는데, 이들의 창립취지에서 '남성적 학문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 확고한 진리를 찾아내는 인간의 이성을 고양하자'는 문구가 눈에 띈다.

이에 비해 70년대 이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서구의 여성운동은 가부장제의 성립과 함께 소외되어온 여성의 감수성, 감성과 영성을 사회 곳곳에 회복시켜 환경 균형 잡힌 문화를 가꾸는 데 공헌하면서, 가정과 사회를 꾸러가는 살림의 방식과 이를 이해하는 감수성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뒤집어엎는 풀뿌리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서구중심의 거대자본과 권력이 집중되는 과학기술의 폭력성에 대항하는 비판세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들은 근대 서구문명을 가능케 한 과학의 방법론이란 것이, 결코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는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구·백인·남성·위주'의 세계관과 가치기준일 뿐임을 천명하고, 주체와 객체, 몸과 마음 식의 철저한 이분법 체계를 가진 '가치중립의 허구성'을 지적한다. 에코페미니즘운동은 원리와 원칙에 집착하는 부정(negative)요법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고양하는 긍정(positive)요법으로, 여성과 남성의 평등과 조화·자연과 인간을 포함하는 모든 생명체의 공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탈정치적인 동시에 새로운 정치의 향방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에코페미니즘은 '몸으로 느끼기'와 같은 여성스런 감수성과 자연친화적인 영성의 개발,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 사이에 잘 보존된 자연과의 소통능력, 나아가 초감각 능력까지 인간이 가진 훨씬 다양하고 종합적인 능력에 관심을 기울인다. 가부장제의 산물이었던 과학기술문명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눈에 띈다.

이들은 가부장제의 폐해를 치유하는 적극적인 대안으로, 제3세계 기층여성들이 몸으로 살아온 자연친화적인 살림(giving life)의 지혜와 여성의 고유한 감수성·창조성·생명성을 21세기 인류를 구원할 새로운 과학의 패러다임으로 발전시키는 작업의 기초를 다지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에코페미니즘은 이 시대 가장 민감하고도 본질적인 여성과 환경의 문제를 겨냥하는 동시에 적극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전세계 여성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가이아 명상:

에코페미니즘의 기본개념은 몸과 마음, 주체와 객체, 정신과 물질을 확연히 구분하는 이원론의 극복이다. 여성적인 감수성을 강조하는 요지는, 이성(reason)을 하찮게 여김이 아니라 그 동안 소외되었던 요소들을 제자리로 올려놓기 위함이다. 감성과 영성이 결여된 이성만으로는 불안과 광기로 변질되기 십상이란 사실은, 지구를 파탄으로 몰고가는 근대기제문명의 징후를 보면 자명하다.

① 가슴을 깨우며 아침을 시작하기: 아침에 눈 뜨고 딱 3분이라도!

이성은 머리에서, 감성은 가슴에서, 영성은 배에서 생성되는데, 이 모든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배행이 좋아야 한다. 우리 모두 생명의 여신 가이아로 거듭나기 위해 배행을 든든히 키우는 일이 중요하며, 배행을 튼튼히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막혀 있는 가슴을 풀어젖히는 일이 중요하다.



그림 ①

▷ 아침에 잠을 깨면 발끝 일어나 밥 지을 준비에 혼비백산하지 말고, 그림①처럼 그 자리에서 편안히 다시 눈을 감는다.

▷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들이쉬는데, 양 눈썹 사이로 태양의 무한한 에너지가 쏟아져 들어오는 상상을 하면서, 이 에너지에 웃음을 담아 다시 코로 내보낸다.

▷ 수차례를 되풀이한 후, 조금씩 더 깊고 차분한 숨으로 바꾸어 심장으로 내려보내며, 눈썹 사이에서 가슴으로 통하는 길이 열리는 상상을 한다.

▷ 그렇게 깊고 느릿느릿한 숨을 쉬면서 심장 가득히 태양의 밝고 싱싱한 에너지를 밀어넣고 그 기운이 가슴 전체로 번져가는 편안한 기분을 만끽한다.

② 가이아와 함께 춤을: 일어나서 3분 더!

가슴을 메우고 있던 시름들을 훨훨 풀어서, 우리 아름다운 심장이 활짝 웃을 자리를 마련해주자. 몸 속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은 고통스런 기억들을 씻어주며 묵은 상처를 낫게 한다. 이런 웃음은 모든 세포를 정화시키고 강화시켜 감정적인 균형을 유지할 힘을 주고, 몸과 마음의 진정한 변모를 가능케 한다. 가슴을 해방시키자.

▷ 다리는 그림②와 같은 말타기 자세로, 양손을 머리 높이로 들어 하늘을 향해 손바닥을 펴고 유후의 리



그림 ②

듬에 맞춰 몸을 흔든다.

③ 나쁜 기운 배출하기: 가이아—하—하—하—

이러한 명상적 움직임은 가열된 심장을 식혀주고 막혔던 에너지의 흐름을 돕는 효과가 있다. 손과 팔을 부드럽게 돌리고 천천히 움직이며 가슴이 시원해질 때까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작은 소리로 '가이아—하—하—하—' 하면서 가슴을 씻어주는 이 운동은 밤에 잠들기 전에도 좋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이를 닦고 피부를 닦듯이, 우리 가슴 속 에너지의 샘인 심장에 고인 때도 말끔히 씻어, 새날이면 벌써 아픈 상처를 다 치유하고 온전하게 회복된 생명의 여신 가이아로 거듭 태어날 준비를 하자.

▷ 그림③처럼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손바닥을 정수리쪽으로 향하게 한 후 같은 방향을 유지한 채 서서히 가슴으로 내려가면서 아주 느린 박자로 '가이아—하—하—하—' 소리가 조용하게 터져나오는 연습을 한다.

▷ 소리가 가슴 속으로 울려 퍼지면, 가슴 속 여기저기에 남아 있던 독소가 씻겨나가고 대신 맑고 정화된 에너지가 온몸의 빈 곳을 채우리니, 몸의 다른 제끼기는 다리를 지나 발바닥을 통과해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상상을 한다. 11



그림 ③



“예쁜게 다 뭐니. 원수다, 원수” 엄마돕기 대소동

“토요일, 일요일 이들 동안 애들 보며 집에서 쉬니까 좋냐구? 전혀! 애들이 예쁜 게 다 뭐니. 원수다, 원수!
꿀치가 지끈지끈 아프다니까. 하루종일 아무 일도 못하고 애들 밥 먹이다 시간 다 가버려.
너도 애 너무 가지려고 안달하지 마라. 애, 예쁜 건 잠깐이고 치다꺼리하다 불일 다 본다구.”

“엄마가 혹시 나를 귀찮아하는 건 아닐까?”

세진이는 그 생각을 하자마자 금세 먹장구를 가득 찼 하늘처럼 울먹울먹해졌습니다.

글쎄, 엄마가 아침에 누군가의 전화를 받더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토요일, 일요일 이들 동안 애들 보며 집에서 쉬니까 좋냐구? 전혀! 글쎄 애들이 예쁜 게 다 뭐니. 원수다, 원수! 꿀치가 지끈지끈 아프다니까. 하루종일 아무 일도 못하고 애들 밥 먹이다 시간 다 가버려. 너도 애 너무 가지려고 안달하지 마라. 애, 예쁜 건 잠깐이고 치다꺼리하다 불일 다 본다구. 남자들은 격주휴무라고 등산 가고 낚시 가고 잠도 싹싹 잔다지만 나는 중노동에 시달리는 격무일이야. 차라리 나가서 일하는 게 낫지. 이들 동안 쉬고 월요일에 회사 나가면 온몸이 안쭈시는 데가 없단다.”

차라리 안들었으면 좋았을 말. 듣고 싶어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종이를 방안 가득 쏟아놓고 열심히 버스를 만들다가 컴작데이프를 다 써버린 세진이는 부엌에 있는 엄마에게 새 테이프를 꺼내달라고 조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도 하지. 엄마가 반쯤 먹다만 아침밥이 식탁 위에 놓여 있는데 엄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어디 갔지?’ 세진이가 잠든 건넌방을 돌아보며 인상을 찌푸리려 하는데 엄마의 약간 신경질이 섞인 목소리가 부엌 안쪽, 가스레인지가 있는 쪽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하고 부르며 달려가려던 세진이는 엄마의 마디마디 움절름이 고리로 변해 발목을 칭칭 동여매는 것 같아 그만 우뚝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겨우 충격에서 깨어난 건

엄마가 전화기를 내려놓는 ‘딸깍’ 하는 음향

덕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엄마 얼굴을 볼 수 없을 것 같아 몸을 돌리자 활짝 열려 있는 목욕탕 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곧 욕조물이 일렁이듯 다가왔습니다.

‘그래, 이 물로 귀를 닦아보는 거야’ 라고

세진이는 생각했습니다. 빨리만 닦으면 웬지

금방 들은 엄마의 얘기도 씻겨져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한번 두번... 세진이는 씻고 또 씻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는 더 크게 울려 퍼지기만 했습니다.

목욕탕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비누와 뚜껑을 만지작거리며 세진이는 생각해보았습니다.



엄마는 골치가 지끈지끈 아프다고 한다...

왜 그럴까? 세진이는 엄마가 쉬는 날이 너무너무 좋고 기다려지는데...

어제 오늘 내가 엄마를 귀찮게 한 일, 엄마가 화를 내게 만든 일이 있었던가?

아, 하나 생각났습니다.

어저께 일입니다. 시골에 가게하던 할아버지가 그동안 수확한 거라며 검은 약알 한 꾸대를 갖고 오셨습니다. 엄마가 홍제동 외할머니와 나눠먹어야 겠다며 그것을 비닐봉투에 담았습니다. 참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엄마가 안보는 사이 세진이는 마대에서 쌀을 퍼 비닐봉투에 담았습니다. 약알이 주위에 조금 흩어졌습니다. 한참 담다가 엄마가 얼마만큼 담았는지 궁금해져서 세진이는 방안 한구석 엄마가 백화점 봉투에 곱게 넣어놓은 비닐봉투를 꺼냈습니다. 잘 안꺼내지는 바람에 조금 찢겼대며 잡아당겼는데 그 곁에 비닐봉투가 찢겨진 모양입니다. 쌀이 줄줄 흘러나왔습니다. 새는 모양이 너무 재미있어서 세진이는 방에서 마루로 계단으로 그 비닐봉투를 끌고 다녔습니다.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부엌까지 왔을 때는 불룩하던 비닐봉투가 허벅지에 있었습니

까르르 웃으며 세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쌀이 주울줄 새요."

설거지를 하던 엄마가 고개를 휙 돌리더니 외쳤습니다. "갑소사!"

세진이가 들고 있던 쌀을 나눠채 새 비닐봉지에 담은 엄마는 세진이가 지나온 길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곧 엉덩이에 매운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생각해 보니 또 있군요. 오늘 아침의 일입니다. 엄마가 성진이를 안고 우유병을 물린 채 전년방에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세진아, 애기 금세 재우고 나올게. 조용히 해. 제발 부탁이야."

하루에도 몇번씩 이렇게 말하며 엄마는 성진이를 안고 방에 들어갑니다. 전년방 문이 탁 소리를 내며 닫혔고 세진이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성진이를 예뻐하고 나는 혼자 있게 하고..." 쿵쿵쿵쿵 있는 힘껏 마루를 울리고 다니던 세진이는 '아아아아, 아이아아아아' 고향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동안 그러고 있으려니가 엄마가 험악한 얼굴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너 혼나고 싶어?"

"아아아아아 아이아아아아..."

안에서 악을 쓰고 우는 성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진이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통쾌했습니다.

"너 때문에 자려다가 애가 놀라서 깨버렸잖아.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성진일 재워야 너랑도 놀아주지!"

그 소리가 자석인 양 세진이는 엄마에게 조르르 달려가서 매달렸습니다.



"나와서 놀아달라"는 신호로 엄마 손을 슬그머니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성진이 자지 말아야 돼요. 그냥 울게 내버려둬요."

엄마가 방에서 얼굴을 내밀기만 하면 자신과 놀아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세진이의 손을 뿌리치며 무섭게 눈을 흘기더니 성진이를 들쳐업고 밖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서슬에 뭔가 잘못했나 하는 뜨끔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엄마가 세진이는 섬섬했고 한편으로 외로웠습니다.

오소소 소름이 돌며 세진이에게 그때 느꼈던 외로움이 새삼스럽게 되살아났습니다. 비누를 두껍게 이리저리 돌려보며 세진이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날 귀찮게 여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신을 귀찮게 여기는 이유는 엄마가 할 일이 많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이면 엄마는 꿩이처럼 꿩알꿩알 돌며 일을 합니다. 아기 우유 타고, 사과 갈아 먹고, 밥하고, 반찬하고, 세진이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식구들이 밥먹는 동안 세진이 밥을 먹이기 때문에 엄마는 나중해야 혼자 식사를 합니다. '그래, 오늘부터는 내가 엄마 일을 덜어줄 거야.' 세진이는 굳게 굳게 결심합니다. 목욕탕을 빠져나와 부엌으로 들어가니 상이 말끔히 치워져 있고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성진이를 보러 전년방에 갔나 봅니다.

싱크대 속에는 씻을 그릇들이 수북히 쌓여있습니다. 의자를 끌어다 싱크대 앞에 대놓고 세진이는 엄마처럼 고무장갑을 끼었습니다. 어느덧 기분이 좋아져 물뿌리개 세진이는 노래도 불렀습니다. 자신이 구두장이의 일을 대신 해준 꼬마요정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성진이를 업고 나타난 때는 세진이가 성진이 먹을 우유를 엄마 대신 타놓고 있을 때였습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엄마 소리에 깜짝 놀라 세진이는 분유숟가락을 붙잡고 우유병 안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잔뜩 인상이 구겨진 채 엄마는 물이 엉겨 붙어 엉망이 된 우유숟가락을 꺼내들었습니다. 싱크대 주변에 여기저기 흩어진 우유가 꾸며

온통 물부성으로 변해 있는 부엌바닥도 내려다 보았습니다.

"내가 엄마 도와줬어요. 설거지도 하고, 또 애기..."

"너! 너! 너! 지금 이 물, 어떤 걸 썼어?"

엄마가 우유병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세진이는 자랑스럽게 개수통을 가리켰습니다.

"물라, 물라, 난 물라. 정말 너 왜 그렇게 말했니! 대체 이 일을 어째..."

엄마는 세진이가 설거지해 식기전조에 올려놓은 그릇들을 보자마자 다시 개수통에다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물바다를 만들어놓고 누가 너더러 설거지하랬어? 내가 미쳐 그냥 이것 좀 봐. 식기 건조대에 고추가루랑 밥알이 더덕더덕 붙었잖아."

눈이 둥그래진 채 엄마의 말을 듣다 말고 세진이는 다시 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팔짝 잠갔습니다.

"또 무슨 말썽을 부리려고 그래!"

문을 잠갔어도 엄마의 목소리는 따라왔습니다. 목소리만 아니라 엄마도 따라온 모양입니다. 탕탕탕 목욕탕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문 열지 못해! 빨리! 절레 꺼내야 돼!"

한바탕 소나기가 지나듯 엄마가 수선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세진이는 목욕탕 문틈에서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나자 모처럼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세진이가 2층 계단 한구석에 그런 것처럼 앉아 골똘히 무엇인가 생각에 잠겼기 때문입니다.

'설거지도 안되고 유유태기도 안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하루종일 애들 밥 먹이다 시간 다 가버려."

웅이처럼 아프게 세진이에겐 박힌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를 떠올리자 세진이는 힘이 빠졌습니다. 엄마를 편하게 해주고 싶은데 나는 아직 밥도 혼자서 못먹는다. 흘리지 않고 먹을 자신도 없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점심 때가 되었습니다. 엄마는 성진이 죽을 먹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밥상 차려드리고.

세진이가 먹을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곧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진아, 뭐하니? 밥먹자."

그래, 배는 조금 고프겠지만 굶어보는 거야. 세진이는 힘겹게 밀어내듯 말했습니다.

"나, 밥, 안...먹어요."

"왜? 여기 좀 봐. 세진이가 좋아하는 조기반찬도 있단다."

우리 2층 창가에서 바깥 바라보며 먹을까?

쟁반에 먹을거리를 받쳐들고 세진이에겐 다가온 엄마는 언제 소나기를 피부었나는 듯 봄바람 같은 소리로 살랑살랑 세진이를 얼렸습니다. 세진이는 그러나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그래? 아까 엄마가 혼내줘서 화났어? 세진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엄마가 몰라줘서?"

세진이의 눈치를 살피며 엄마가 물었습니다. 세진이는 그 말에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엄마가 세진이 앞에 쟁반을 바짝 댔습니다. 조기가 보이고 맛있는 냄새도 솔솔 퍼졌습니다. 자신의 결심이 무너질까봐 세진이는 얼른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곤 고개를 외로 곤 채 엄마를



떠나 건넌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진아!"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까 조기구이에서 퍼지던 비릿하고 매캐한 내음이 코 끝에 붙어와 세진이 눈에 공연히 눈물이 차오르게 했습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세진이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안 먹을 거예요. 나 배 아파요. 배 아프다고요!"

한참을 가만히 있던 엄마가 말했습니다.

"세진아! 너 정말 그러기야? 그럼 엄마가 이것 다 먹어버린다."

"..."

"세진아!"

"..."

엄마는 드디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부터 말썽만 부리더니 너 왜 그래!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내가 못살겠어, 정말!!!"

아까부터의 악몽이 현실로 나타나는 소리... 번개치듯 다가와 뒷머리를 때리는 그

소리를 안들으려고 세진이는 힘껏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곤 '와앙~' 참고 참았던

옹어리를 울음으로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11



이 선 회

63년 서울 태생으로 89년 「동사자의 숲소리」로 할간문학 신인상을 받아 등단했다. 창작동화집 「달려라 바퀴아」(동아출판사 간)가 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내 아이를 사랑한다. 하지만 아이는 예쁜 만큼 꼭 그만큼 헤아릴 치다꺼리를 내게 선사한다. 남자들은 아이가 예쁠 때만 돌아보며 열매를 따는데 여자들은 온통 치다꺼리를 도맡아 하 한번의 열매를 딸 수 있다. 어쨌든 불공평하다. 똑같이 일하는데 왜 육아의 무게는 여자에게만 돌아오는 걸까?



if에게

답답한 가슴이 탁 트였습니다

처음 하는 사회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겪게 되는 남녀불평등 사례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기존의 사회통념상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조차 인식할 수 없게 바라왔기 때문에) 상황에서 만난 if는 내 답답한 가슴을 탁 트이게 해주었고 상처받은 나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치료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남 진해시 현동 김윤경

3시간만에 단숨에 읽은 if!

『씨네21』109호 조선헌집장의 if의 평을 듣고(아니 읽고) 다음날 바로 사보았다.

연례행사(저는 미장원을 1년에 한번 갑니다)하면서 if를 3시간만에 다 읽었다. 나 또한 다른 여자들처럼 공짜 여성자를 보러다가 if를 빨리 보고픈 욕구를 억누를 수 없었다. 특집기사도 좋았고, 김진명숙 씨의 일갈은 아! 정말이지 속이 시원했고 남아갈 듯이 즐거웠다. 또한, 이현승감독이 인용한 쿤데라의 말, 내가 처음 그 책을 읽고서 그 구절을 보았을 때 느낀 감정을 남자도 느낀다니 신기하다. 솔직해 서였을까?

고용평등, 가사, 육아가정내 폭력... 등 저는 몇달 후 결혼을 하며 드디어 '시'로 시작하는 가족을 가집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편한 관계를 이룰까요?

부산시 동래구 안락1동 김미화

어깨띠고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색다른 잡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잡지 꽤 보냐고 주위에서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더군요. 이것이 현실인가 봄

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바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 또한 여성이라 윤택했던 것들을 활짝 펴고 당당한 여성으로 서겠습니다. 이러한 저를 if가 계속 도와주시기를...

11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결혼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결혼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남 창원시 대방동 박미정

더욱 '싸가지' 없고 덜 '고상' 하길

작가소개 시 학벌 등 틀에 박힌 소개서, 기존 제시하지 마세요. 똑똑하고 배운 여자만 글쓰니까?

숨이 쉼이 막힙니다. 좀더 쉽게 대중에게 어필되는 감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전문지식보다 일반여성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일상사가 담겨있는 책!

물론 학술지를 표방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학술지가 아닌 대중에 어필하려면 더욱 '싸가지' 없고 덜 '고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여성운동의 급진화는 엘리트의식 벗기기와 생각합니다.

남궁채민정

엄마의 고민을 함께 하는 딸이 되고파요

우리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여자 중 하나라고 하는 '페미니스트'로 사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한다. 자기 성찰력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페미니스트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얼마 전 친한 언니와 오래 수다를 떨었습니다.(수다만큼 건강할 자기표현 및 타인 이해의 수단이 있을까요? 그래서 친 수다가 참 좋아요.)

주요 테마는 '경년기를 알고 있는 엄마를 위한 딸의 자세'였습니다. 언니네 어머니는 육체적으로 많이 노쇠해지신 걸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제 어머니님 심한 박탈감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취미생활 만들거나 찾아드리기, 문화적인 충격요법, 함께 자주 외출하기, 특히 딸인 내가 잘 다니는 곳 보여드리기...

그래서 말인데, 언제 우리의 테마로 특집을 마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배들의 체험기도 좋겠고, 의학, 학술적인 것도 다뤄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북 경주시 비동읍 우안영

독자편지 - 사랑뿐 아니라 귀중도 들을게요

청간호를 읽고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엽서를 보내오셨습니다. 뜨끈뜨끈한 잡지라서 그런지 격려사의 말들이 많았던 점이 특색이구요. 역시 칭찬이나 격려의 말을 들으면 힘이 솟는 법인가 봅니다. 가을호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번호를 읽고 독자편지를 보내실 때에는요, 구체적으로 '꼭꼭 찔러서' 무엇이 잘못됐, 혹은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주셨으면 해요. if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충실한 대화가 필요하니까요. 이번호를 읽은 느낌, 감상,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점 등을 조목조목 얘기해주세요.

때로는 무조건의 격려보다 때때로 타당한 질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때가 있지요. 다음호에는 더 많이 자란 모습이 되고 싶어요 도와주실 거죠?

감정이 조금 절제됐으면 좋겠네요

『예술과 폭력 사이에서 꽃피는 남근의 망상』 재미있게, 유익하게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조금 배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작가들의 잘못된 여성관으로, 그 작가들이 이룩한 문학적 업적까지 말소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송기원씨, 이문열씨, 김원우씨의 다른 좋은 작품들을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흥미로우면서도 쓸쓸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이연순

너무 시원! 너무 맛있음!

창간호 읽고 너무 시원했어요 너무 맛있어요.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야기들을 해주어서 너무 고맙구요.

앞으로도 좋은 if 기다릴게요.

함내세요!!

경기 광명시 광명2동 이지현

지치가는 요즘 힘이 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if를 발견하고는 말 그대로 확한 기쁨을 느꼈다. 이십대 후반, 고단한 일상, 지치가는 요즘 힘이 되는 책 if를 만난 걸 고맙게 생각한다.

경남 마산 합포구 월영2동 박기향

나를 일깨워준 if

대학 3학년때 모속회씨로부터 여성학 강의를 들은 후 여성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남녀평등을 인식하면서 생활 속에서 많이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자주 한계를 느낀다. 이 잡지를 통해 나를 계속 일깨우고자 한다.

강원도 홍천군 화천면 주음치리 감성우

사소한 성희롱도 묵인 안할래요

전 대전의 한 여고생입니다. 예전부터 여성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쪽에 관심을 갖다보니 그냥 지나치는 성희롱이라



는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학교 안에서 교사가 여학생들에게 하는 사소한 성희롱도 결코 묵인할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직은 제겐 여성학이란 생소한 것 같습니다. 여성문제를 대중들이 알고 깨우칠 수 있는 좀더 대중적인 문제해결방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정동 송미경

if보다가 답답선생님께 한소리

if를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사실 서점에 파 갔는데 if만 이름이 생각이 안나는 거예요. 잠시 태백이다 어떤 필이 오는 언니 뒤를 쫓아다니다가... 그 언니도 if를 찾고 있었지 뭐예요! '정말 운명이다' 이런 생각에 덩석 쫓아서 사버렸죠. 전 무지한 페미니스트예요. 좋은 말로 바꾸면 느끼는(?) 페미니스트. 더 많이 알고 싶는데... 아직은 대입수능을 위해 (if보다가 답답선생님께 한소리 들었어요...).

경기 안산시 초지동 박신희

장수하는 if가 되시길

저는 28세된 간호사입니다. 물론 미혼이구요. 작년부터 여성작가와 여성문제를 다룬 글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if와 창간 소식을 신문에서 보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서점엔 몇번 갔다가 눈에 띄어 당장 그길로 사서 아껴가며 읽고 있습니다. 제 생각과 행동에 많이 변화가 있었고 주위의 상황에 다시 생각하게 되고 모르면 것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금 예쁘게 자라고 있는 여자아이들이 제 나이가 되어서도 이 책을 읽을 수 있을 만큼 꼭 장수하는 저널이 되기 바랍니다.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박은숙

깊은 연대감과 애정을 느낍니다

if를 만나 무척 반갑고 눈물 겹습니다. 우리 여성들의 자유를 향한 끝없는 몸

부림, 그리고 이 사회의 온갖 편견과의 싸움이 느껴져 깊은 연대감과 애정을 갖게 합니다. 다만 여성은 본질적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기에 그 생명의 대지인 지구환경에도 꾸준한 관심과 연계를 갖기를 바랍니다.

서울 성북구 석관1동 이경옥

문화타령할 만큼 한가한가?

나는 공주과 페미니스트가 싫다. 성공한 그들이 기층여성에게 느끼는 것은 우월감이 아닐까?(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여성들의 문제엔 무관심하거나 적대시하는 듯) 지금은 페미니즘혁명이 필요하다. 중산층 지식인적 문화전치는 그저 유행일 뿐이다. 왜 문화인가? 고상한 페미니즘 담론들과 문화의 세계에 속하기 힘든 여성들도 있다. 여전히 많은 여성들에게 페

if 나이트가 있습니다

9월 11일 목요일 저녁 7시, 페미니스트카페 '고마' (신촌 기차역 무근/02)364-5950)에서 (if 나이트)를 가질 예정입니다.

if 나이트는요, if 애독자,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시는 분, 또는 페미니즘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는 친목모임입니다. 그냥 『페미니스트저널 if』 가족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술물이나 사랑방 모임 같은 것을 생각해서도 되구요. 우물거려서 수다떨던 기억을 떠올리셔도 무방해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쑥스럽다구요? 저런, 누군 댁 처음부터 알던 사이인가요? if를 알고 있다는 걸로 이미 한가족이 아닌가요? 가을바람 내용을 맡으며 차와 친구들을 만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데, 많이들 오실 거죠?

02)743-6715로 연락하세요.



미니즘은 철저한 생존이 아닐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주와 페미니스트들에게 유용할지 모르지만.

존스롭과 무식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혁명과 피 없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얼마전 TV에서 아저씨에게 끌려다니 다(남치, 폭행) 간신히 구출된 초등학교 저학년인 듯한 여자아이를 보았다. 그놈은 사형도 무기징역도 안될 것이고 여성제에서 들고 일어나지도 않는다. 늘 있는 일이니... 어린이 성폭행 1위, 신고율 2.2%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게 두어야 하나?

정신대 할머니들이 한을 풀고 돌아가시면 그나마 까맣게 잊혀지지 않을까? 작년 한송이 여학생 성폭행사건은 어찌되고 지금 한송이 마녀사냥인가?

페미니스트들이여! 당신들은 고상하고 여유있게 문화타령할 만큼 한가한가?

전북 군산 김선영

아아아아 소킹!소킹!

너무 소킹하다. 표지부터도 그랬고. 내용은 더욱 소킹하다. 도대체 어떻게 모이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 만들게 됐는지도 궁금하다. 아무튼 이 책이 여성만의 책, 페미니스트만의 책이 아니라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져서, 마침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책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산시 진구 초음동 최정화

IF에서 모티브도 얻어요

히히, 꼭쓰립네요. 기대했구요. 기다렸구요. 만족하구요. 통쾌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카가 평생살기 위해 발학을 하는 학생이요, 탄압에도 굴하지 않기 위해 부단한(?) 노력중이구요. 지금은 여성의 삶을 주제로 개인전 준비하고 있구요. 정보와 자료 준비하고 있는데요. IF잡지에서 힌트 얻구요. 모티브도 찾고... 갑

사드라고요... 책 발간하면서 고생 많으셨을텐데... '화이팅!' 꾸준히, 계속, 지속되는, 그리고 다양한, 밀도 깊은 책으로 자리매김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울시 강북구 번1동 김송미

거침없는 이야기로 채워지길

드디어 나왔구나, 여성의 이야기! 마음 속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이야기를 다하는 거침없는 이야기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다뤘으면 하는 글은 명종(그림) 속의 여성의 모습을 분석하고 대력을 찾아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편집이 직업인 사람이

IF를 본 순간 깨달았습지요~

고정관념을 무지막지하게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전 어렵듯이 사회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었는데 IF를 본 순간 깨달았습지요. 전 그 유명한 ○○라는 곳에 다닙니다. 항상 교장선생 할 "여성지도자". 전 궁금했죠. 그냥 지도자와 여성지도자가 뭐가 다르길래 저라도 여성이라는 말을 붙여대는 건지. 아무튼 저의 편한 시비걸기일지도 모르겠네요. 전 산문반인데 요번 교지에서 페미니즘을 다루려해요. 응원해주세요. 그림 열심히 하세요.

여성의 최대의 적은 바로 여성 자신이 라던데 페미니즘을 방해(?)하는 여자들, 페미니즘의 계보에 대해 알고 싶어요.

서울시 방이1동 유소영

IF에서 'come true'로~

사실은 오늘 할 일 무지 많았는데, 덕분에 복신한 요 위에서 배탈고 단숨에 다 읽어버렸네요. 여성신문에서 IF 창간소식 듣고 서점에 여러번 들락거렸거든요. 무지 반갑고 힘이 생기는 느낌! 저는 비록 돈 없고 배고고 힘 없지만, 김원실 수습비모금활동에는 꼭 참여할 작정입니다. 빠져린 후회가 편지 써지려게 느껴도록!!! IF

가 어느날에는 come true로 바뀌길 꿈꾸며 힘내세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우안녕

한국의 <미즈>!!!

1972년 1월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창간했던 '미즈'와 같은 느낌입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이런 책을 접해보게끔 해준 도서출판 IF에게 감사의 말씀을... 발전을 기대합니다. IF가족들 파이팅!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김윤희

나는 남잔다...

페미니스트들을 위한 전문잡지가 생겨서 참 좋아요 -충대 96 성운-

나는 남잔다... -충대 92 상봉-

책이 재밌더군요. -충대 96 민정- 피임, 신세대들의 결혼관, 연애편, 올바른 다이어트에 관하여 알고 싶어요.

충남대학교 기독학생회

IF의 당당함에 제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첫 페이지부터 읽으면서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페미니즘, 여성운동 등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썬뜻해 하는 것들을 털어놓고 싶었는데 한참을 읽어가다보니 한설아씨의 '당신이 가장 되기를 원하는 여자는?' 아줌마? 페미니스트?만 읽고는 웃음이 피식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무중 듣는 기분으로 통통 세우면서 머리 아프게 저의 이중성을 한참 경멸했을텐데 예전 같은 기분은 아니게 편했습니다. 이번 창간호가. 이런 잡지가 당당하게 얼굴 내민 것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며 나쁜 생각들을 조금은 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창간호에 대한 축하인사라면 인사고 놀 가져왔던 그 속에 몸 담고 있는 분들에게 한 동경, 은밀하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애편지 쓰는 기분으로 이 글 씁니다. 다음호 준비하느라 고생하신텐데



저도 제 생활 열심히 하면서 미지근한 동참하겠습니다.

여자인 것이 가슴치게 싫을 정도는 아니지만 답답할 때도 있고, 여자를 내부의 적으로 만들어 잡아먹지 못해 광광하던 적도 있어요. 이제는 이런 야만적인 생각을 그만둘 때인 것 같습니다.

종로구 계동 정지현

꼼꼼하게 읽어보니

1. '표지'는 현재의 것보다 P.238의 두 번째(아래)의 것이 더 보기 좋네요. IF 글자까지 말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구도·편집이요. 글씨가 작아 눈에 잘 안들어오고 답답한 구도였고. 모두 고치게끔 고집하는 것도 경직된 느낌이었다면 반면에 뒤의 것은 시원해보이고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2. 종이질이 너무 고급이란 생각이 드네요. 넘기기도 거북할 정도로... 지나치게 두꺼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환경운동과 더불어 재생지를 사용한 출판물도 나오는데 그렇게까지는 않더라도 적당한 잡지두께의 종이를 사용한다면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요? 비용절감-잡지가격 저렴-많은 잡지독자!!

3. 처음이라 그런지 기성의 잘 나가는 여성계 인물들의 내용과 활동 위주이고 지식적인 내용의 전달위주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중요하다고 보고 저 자신도 많은 도움 얻었습니다만 각계 각층의 여성, 또한 남성들의 생활·사고 등의 발전적인 변화(페미니즘적인 초점이겠죠. 물론)와 갈등·고민·투쟁의 진솔한 이야기들도 담았으면 합니다.

4. <섹시얼전>이라는 만화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충북 청주시 개신동 송선아

괴연 나올까 했는데

처음 페미니스트저널 IF가 나온다는 소

문을 듣고(그게 아마 올 2월쯤이었지요?) 정말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대개의 여성단체가 그러하듯이 '자금' 문제로 인하여 출판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지요. 하지만 결국 해내시더군요.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얼마나 컸을지, 책을 읽고 보니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모임('내일 만들기' 라는 모임으로 대학 때 동기, 선후배로 구성된 페미니스트 모임입니다)에서 다음번 모임의 과제로 IF를 읽고난 후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적인 감성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발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양천구 신월6동 고현정

따질 건 따지고 살아야!

충동구매했는데 후회했습니다. 어정쩡한 내 위치에 대해 다시금 돌아켜보게 했고 자신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예전엔 남자들에게 불명, 불만이라도 참고 내버려뒀는데 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따질 건 따지고 살기무요.

저같이 힘 얻은 딸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길 바라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애정이 듬뿍 담고 지켜볼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 안선미

"미니 입고 자전거 타도..."

최근 여성들의 노출패션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출패션을 입은 여성들은 '성폭력의 도발자'로 비난받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작년엔가 어느 신문에 배낭여행 전문가가 기고한 글을 보았습니다. 제목은 '미니 입고 자전거 타도 쳐다볼 일 아니다'라는 것이었지요. 서구에서는 아니 중국이나 일본만 해도 여성들은 치마 입고 자전거를 타며 미니를 입고 자전거를 타더라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성폭력의 도발자로서가 아니라 '그러한 패션을 선택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정받고 배려받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아닙니까? 건장을 위해서는 나쁘지만 여성의 휴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기호품을 선택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건장전'인 '장도'로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패션을 하건, 어떠한 기호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에게 범죄발생의 책임을 지우거나 전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이텔 페미방에 이와 관련한 글들이 약간 있습니다.(go femi. 7.5번: 나쁜 여자는 즐겨워) 고은광순

IF 비록시장을 개장 합니다.

'비록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계시죠? 예, 그거, 길거리에서 비를 맞으며 굴러다니는 생활정보지요. 지금 자신에게는 소용되지 않는 물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소용이 되는 것을 갖고 계시죠? 처음으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접했던 학교 때 여성학 책, 정들어가 꾸어온 자취방은 어떨까요?

어느 쓸쓸한 주말 오후, 문득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어요? 혼자라서 두려운 마음이 드신다구요? 그럼 IF 비록시장에 구인공고를 내보세요. 같이 여행할 친구나 이야기를 나눌 사람, 또는 함께 공부하거나 재미난 일을 꾸릴 사람들을 말이죠.

그밖에도 알리고 싶은 행사, 광고 등이 있으면 IF 지면을 빌리세요. 아주 개인적인 것이라도 좋아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통신(천리안: FEMINIF/하이텔: parachut/나우누리: illth)이나 전화(743-6715~6)로 연락을 주세요.

미스코리아에 당선된 사람들에게 소감을 물으면, 울먹울먹하는 목소리로 검은 마스크라 지워지는 줄도 모르고 이런 말을 하죠.

"예쁘라 비용실의 원장님, 딱따구 의상실의 김언니 고맙습니다. 흑흑... 엄마, 나 미스코리아 먹었어."

TV에서 미인대회를 보던 어린 나는 '언젠가 나도 인사할 순서가 되면 안까먹고 주루룩 다 고맙다고 해야지' 라고 꿈도 야무진 결심을 했었습니다.

어른이 된 나는 방향전환을 하게 되었죠.

생전 마스크라를 녹이며 올 기회가 없었는데 미스코리아보다 더 예쁜 if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걸로 대신한 거다. 라구요. 자, 감정 잡고!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표지에 쓸 사진작업을 준비해주신 박영숙선생님, 생전 처음 작품사진의 모델이 되어준—순전히 좋은 일 하라는 험박 겸 회유로 넘어간—두 선남선녀, 지난해에 자기 이름이 빠졌다고 창간호 나오자마자 "가을호에는 내 이름도 넣을 거죠?"라며 잊어버릴 만하면 확인시켰던 고려인쇄의 서영석씨, if 나이트 때 두시간 동안 쉬지 않고 춤을 주어 모두를 즐겁게 해주었던 현수, 미술계 소식을 제비처럼 물어나르는 사무실 동거인 오혜주씨, "언니, 그렇게 입고 가면 쫓겨나"라며 코디까지 해주었다는 호스트바 동행 언니들—덕분에 성의 이중규법에 관한 보고서를 쓸 수 있었죠.

뒤늦게 청탁한 원고를 거절하지 않고 if대열에 합류해 소박한 아이들의 목소리를 내주었던 평론가 이명인씨, 선배를 잘 문 죄(?)로 성과 사람에 대한 이상형을 밝혀야 했던 후배들, 남편과 애를 때놓고 무거운 몸을 끌고 서울까지 직접 와서 원고를 넘겼던 친구 문희, 엄마의 병간호중에 원고를 마쳤던 지현이—앞으로도 꼭 밀어줘 벗이여—여성들에겐 취약지점인 정보통신과 여성운동에 대해 꾸준히 고민하여 좋은 글을 보내주는 여경이, 우연히도 바쁠 때에만 사무실에 들러 대접도 변변히 못했지만 꾸준한 모습으로 글에 맞는 그림을 그려주었던 한은옥씨, "이건 조서를 쓰라는 거네요"라면서도 자신의 경험을 성실히 고백해주었던 서동진씨, "멋진 시간을 마련해줘서 고마워요"라고 흥분된 목소리로 리아와의 만남을 기뻐했던 강영희씨, 몇번이나 사무실을 방문해서 자신의 작업과정을 설명해주었던 안필연씨, 몇번이나 기꺼이 다시 작업을 해주었던 '섹녀열전'의 수박 들 중 '하녀' 선배—김까지 찾아가 원고를 받게 해주신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어요—영국에서 인터넷으로 원고를 보내고 수정해준 백영경씨, 막판 철야작업에도 싫은 표정없이 한 식구처럼 일을 해준 연이문화사의 신전수과장님과 이창미씨, "일본 정기구독했다가 한번만 책 받는 거 아니예요?", "우리가 정기구독해야 다음호가 나온다고 선배가 협박했어"라는 우려를 보이면서도 선뜻 정기구독자가 되어준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책을 낸다는 것도 말걸기의 하나라면 관심 가져준 분들만큼 많은 이들이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어했다는 거겠죠?

대화하고 싶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을까를 떠올리면 놀랍고도 고맙습니다.

-떨마

권김후기를 쓰라는 명령(?)이 떨어지면서 내 머릿속은 암흑처럼 캄캄해졌다.

두더지계입에 나오는 두더지가 어디에선가 불쑥불쑥 고개를 내밀 듯 그간의 기억들이 그렇게 삐죽삐죽 고개를 내밀기도 한다. 2호 준비가 시작될 무렵부터 시작했던 if식구들과의 만남부터 약 3개월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솔직히 말하면 난 방황의 연속선상에 있다.

자칭 페미니스트라고, 그치만 어리숙하기만한 내가 못마땅스러웠다.

자기논리를 가진, 자기 스스로에게 당당한, 진정한 페미니스트가 되고 싶었다. 그리고 집없이 if에 들어왔다.

어느 곳의 막둥이처럼 자질구레한 일은 모두 내 몫이다. 책을 발송하고, 독자들이 보내온 엽서를 챙기고, 장부정리에 자료 챙겨오기, 여기저기 전화걸기, 그러면서 간간히 기사도 쓰고...

그중에서 가장 신경쓰이면서도 보람을 느끼는 것은 역시 독자들과의 만남이다.

엽서를 통해서 독자들의 반응을 살피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전화선을 타고 오고가는 독자들의 수다는 현실감각을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경제학에도 '장바구니 경제학'이라는 말이 있듯이 실제로 if를 사서 보고 '이건 이렇네, 저건 저렇네' 하며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독자들의 얘기는 그야말로 현장에서 전해오는 뜨끈뜨끈한 if에 대한 평가였던 것이다.

if에 대한 느낌을 깨알같은 글씨로 앞뒷면을 삐죽히 적어보내주신 일일이 기억할 수 없는 많은 독자분들과, 두달을 찾아 다녔지만 구하지 못해 양평에서 서울 교보문고까지 와서 샀다는 어느 독자(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눈물이 주무룩), 또 강원도 홍천 모부대 대위로 있다는 강성우씨, 이분은 근처에 전화가 없어 전화를 걸려면 먼 곳까지 나와야 하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번 전화를 주시고 격려해주셨고 급기야는 여동생까지도 정기구독자로 만들었다. 나의 메모리와 지면의 한계 때문에 모두 소개하지 못함이 안타깝다. 더불어 모든 독자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

-호마

"필자사진이 왜 그렇게 커요?" "특별한 여자들은 예쁘기도 하다는 걸 꼭 보여줘야 돼요?" "주눅들어요."

창간호 필자사진들에 대해서 독자들의 의견은 대체로 비판적이었다. 하지만 필자들이 워낙 예쁜 걸 어쩌라. 페미니스트가 되면 얼굴도 밝고 예쁘지나보다.

우리가 느끼고 싶었던 것은 물신화된 글이 아니라 글쓴이들의 숨결이었다. 얼굴을 눈으로 보면서, 자기소개를 읽으면서, 독자가 필자를 전인격적으로 느끼기를 원했다. 같은 여성으로서... 여성자들이 친밀일물적으로 보여주는 '예쁜 모습으로 사진 찍기'에서 벗어나, 우리 식으로 작업한 사진을 보여주고도 싶었다.

이번 호에서도 사진들을 되도록 빼지 않고 실는다(다만, 크기는 대폭 줄였다). 이전 생간 그대로 '예쁘게' 읽어주세요.

-몽마

정기구독 안내

신청방법

- 전화나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전화 743-6715/6, 팩스 765-9059).
- 책 속의 엽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정기구독요금

- 국내정기구독: 1년 3만원

정기구독혜택

- 본사의 자료해택과 (사)여성문화예술기획에서 주최하는 각종 문화행사에 회원특전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구독기간중 책값이 인상되더라도 추가부담이 없으며 우송료는 본사가 부담합니다.

배달사고 · 주소변경

- 미착 · 분실 · 반송 등 배달사고로 책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본사로 연락해 주십시오.
- 배달사고 및 주소변경에 관한 문의번호는 743-6716입니다.

구독료 내시는 법

- 지로 - 5088166
- 온라인 입금(예금주: 김영선)
우체국 010892-0068914
농협 029-01-169736
국민 031-21-0662-481
제일 458-20-024404

97 가을 정규강좌

「민족예술대학」을 준비하며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민예총)이 펼치는 시민, 직장인, 주부, 교사, 학생을 위한 문화예술강좌

문예아카데미

이민재가장문예아카데미

이민재가장문예아카데미

이민재가장문예아카데미

이민재가장문예아카데미

이민재가장문예아카데미

이민재가장문예아카데미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전화번호 _____
나이 _____ 직업 _____
주소 _____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1동 65번지

if 출판국

1 3 6 - 0 1 1

여성의 욕망을 얻는 잡지,
if

if는 정직하다!

if는 용감하다!

if는 자유롭다!

if는 재미있다!

if를 보고 싶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전화번호 _____
나이 _____ 직업 _____
주소 _____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1동 65번지

if <편집자에게> 담당자 앞

1 3 6 - 0 1 1